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유럽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 유럽 -

2005년 12월 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 유럽 -

제출일 : 2005년 12월 2일

연구 참가자

책임연구원 : 어수갑

일러두기

1. 본 연구사업 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1967년부터 1993년까지 유럽지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와 사건을 기술한 것이다. .
2. 본 연구사업 보고서는 각종 신문, 잡지, 성명서, 회의록, 논문, 회지, 자료집, 웹사이트 등에 실린 유럽지역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기록과,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
3.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기술은 먼저 단체를 부문운동별로 구분하고 시대순에 따라 단체명, 약칭, 소속단체 또는 상급단체, 존속기간, 주요활동지역, 단체의 성격과 의의, 결성과정, 조직체계, 강령 및 규약, 주요임원, 주요활동, 기관지, 해체과정, 관련자료의 순으로 했다.
4. 유럽지역 관련 주요사건에 대한 조사는 해외운동의 특성상 공안사건에 국한하였으며 사건자체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예컨대 사건의 주요 구성원의 일부가 사건 전후에 민주화운동의 주체인 경우)도 포함시켰으며, 시대순에 따라 대략 사건명, 사건발생일, 관련사건일지, 사건배경, 사건내용, 관련인물, 관련단체, 관련자료의 순으로 기술했다.
5. 유럽운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3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동향도 간략히 추가했으며, 제5장에 요약된 유럽지역 민주화운동사를 첨부했다.

목차

일러두기	1
목차	2
I. 유럽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의 기본방향.....	3
II. 유럽 지역 사건·단체항목 목록.....	4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6
1. 동백림 사건	6
2.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 안상근 씨 옥중 의문사 사건	29
3. 서독 유학생 최혁배씨 간첩날조 사건	32
4. 재독교포 김형규 씨 간첩 사건	33
5. 유럽민협에 대한 일련의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홍성담, 임수경, 김현장 씨 부부 관련).....	35
IV. 단체항목 기초조사.....	40
1. 정치운동.....	40
2. 노동운동.....	44
3. 여성운동.....	49
4. 문화운동.....	53
5. 언론·출판운동.....	56
6. 인권운동.....	85
7. 유학생운동.....	88
8. 기독교운동.....	93
9. 연합운동.....	98
10. 조국통일운동.....	116
11. 국제연대운동.....	119
V. 유럽 지역 민주화운동사(요약).....	128
VI. 유럽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사건 일지.....	132
VII. 주요 참고 자료.....	139

I. 유럽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의 기본방향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주로는 ‘동백림사건’ 이후 1974년 ‘민주사회건설협의회’가 결성된 전후부터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직전까지,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문민정부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사건과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이다.

이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민주화운동사 연구사업에 유럽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체계화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유럽지역의 민족민주운동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내와 해외의 올바른 연대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우선 유럽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시기별,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문운동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치·사회적 사건들과 결합한 방식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기 각종 단체의 이름, 창립일, 창립 배경, 주요활동지역, 단체의 성격과 의의, 결성 과정, 주요 구성 인물, 강령 규약, 활동 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발생했던 유럽과 관련된 주요공안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발생하였던 각종 사건의 이름, 사건 관련 활동가, 사건의 전개과정, 수사기관 및 정부의 대응, 사건의 사회적 함의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사건의 일부는 조작의 냄새가 짙었다. 관련자나 관련단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관련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추후 지속적인 연구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연구의 방법

자료수집의 방법으로는, 우선 각각의 정치·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신문이나 잡지기사, 단체의 기관지, 회의록, 관련논문 등을 검색하여 단체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기초조사연구를 위한 수준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믿지만, 추후 본격적인 유럽민주화 운동사를 정리하려면 현존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각종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의 활동가들을 통하여 당시의 각종 사건관련 활동가들과 접촉하고 그들과의 심층 인터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건관련 재판기록이나 단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건관련 자료의 확보도 필요하다. 이 보고서엔 그 일부만 인용했음을 밝힌다.

이러한 자료수집의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는 유럽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일지를 구성했다.

II. 유럽 지역 사건 · 단체항목 목록

날짜	사건, 단체명	관련단체	부문
1967.7.8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 단 사건'(동백림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민비연)	
1974.3.1- 1989.3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	한민련유럽본부, 유럽민협	정치운동
1975.가을- 1991.4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	한민련유럽본부, 유럽민협	노동운동
1976.1.15- 1983	신문 민주한국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언론출판운동
1977.2- 현재	한국연대위원회(Korea Komitee)와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	코리아연석회의	국제연대운동
1977.8- 현재	한민련유럽본부	한민련, 민건회, 노연, 불란서 민건, 덴마크 민건, 스위스 민건	연합운동
1978.9.17- 현재	재독한국여성모임(여성회)	유럽민협,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성운동
1979.초- 현재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		기독교운동
1979- 현재	코리아연석회의(한국문제 제단체 연석회의, KoKoKo)	코리아협의회	국제연대운동
1981.5- 현재	광주기념행사(87년부터 오월민중제) 준비 위원회	유럽민협 소속단체, 한민족유럽연대 등	연합운동
1981- 1999	잡지 자주(Independence)	자주사	언론출판운동
1982.2.10- 1990	한국학술연구원(KOFO)		언론출판운동
1982.10.1- 1987.4.1	신문 우리나라		언론출판운동
1983- 현재	베를린노동교실	유럽민협, 한민족유럽연대	노동운동
1984.11- 1986.가을	재유럽민주청년연합(JUKO)		유학생운동
1985- 현재	한독문화협회	유럽민협	문화운동
1985.10.18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관련 우리나라 편 입장 안상근 옥중 의문사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1986.2.1- 1991.4	전태일기념사업회유럽지부	재유럽한인노동자모임	노동운동
1986.11- 현재	한국민중문화모임	유럽민협	문화운동
1987.9	재독교포 김형규 간첩사건	장기수대책위원회, 김형규씨 구출위원회	
1987.9- 1992.9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유럽민협)	민건회, 여성회, 노연, 전태일기념사업회유럽지부, 한독문화	연합운동

		협회,한국민중문화모임,한국연대위,한국문제 제 단체 연석회의	
1987.11-1991.4	신문 민주조국 (Demokratie in Korea)	유럽민협	언론출판운동
1987.11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	청계천 평화의 집, 테르데죤(인간의 대지)	
1988.12-1999	재독양심수후원회(장기수대책위)	유럽민협	인권운동
1989.7-8	유럽민협 및 구성원들에 대한 반국가단체 조작사건	화가 홍성담 걸개그림슬라이드 북한전시사건, 임수경 전대협대표 방북사건,전민련 국제국장 김현장 김영애 부부 사건	
1989.10-	재독기독교정의평화통일위원회 (정평통 혹은 통일위원회)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기독교운동
1990.9-현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조국통일운동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1. 동백림 사건

‘동백림(東伯林·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 사건’ (약칭 동백림사건)

발생일 : 1967.7.8

사건 일자 :

1967. 7. 8 중앙정보부 1차 수사발표

1967. 7. 11 중앙정보부 2차 수사발표

1967. 7. 12 중앙정보부 3차 수사발표

1967. 7. 13 중앙정보부 4차 수사발표

1967. 7. 14 중앙정보부 5차 수사발표

1967. 7. 16 중앙정보부 6차 수사발표

1967. 7. 17 중앙정보부 7차 수사발표

1967. 7. 서울지검公安부는 4차에 걸쳐 40명을 기소(구속 35명), 25명을 불기소, 1명은 군수사기관에 이첩함.

1967. 11. 9 서울형사지법(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에서 「동백림」 사건 피고인 34명(불구속 8명)에 대한 첫공판이 열림.

1967. 12. 6. 공판 10회 27일만에 결심공판이 열려 정하룡 등 6명에 사형, 임석훈 등 4명에 무기, 나머지 24명에게는 15년에서 1년이 구형됨

1967. 12. 13.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정규명, 조영수에 사형을, 윤이상 등 4명에 무기, 천병희 등 13명에 실형을, 이수자 등 11명에 집행유예, 그리고 불고지죄 부분의 피고인들에게는 본범이 남편이었다는 것을 참작, 형면제를 선고함.

1968. 3. 13. 「동백림」 사건 22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첫 항소심공판이 열림.

1968. 4. 13.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정치원 부장판사)는 정규명, 정하룡, 임석훈에 사형을, 조영수에 무기징역을, 이수자 등 7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1968. 4. 세계음악가 1백 81명은 윤이상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 제출.

1968. 7. 30.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김치걸)는 이응로 등 9명의 피고인들의 형을 확정시키고 윤이상 등 12명의 피고인들에게는 형량부당과 법률적용 잘못을 들어 파기·환송함.

1968.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백림」 사건 재항소심 첫공판(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이 열림.

1968. 11. 26.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송명관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황성모 등 3명의 피고인들에게 반공법 4조 5항(불법단체조직 예비음모)을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에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김도현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970.12 관련자 전원 석방

사건의 특수성 :

동백림사건은 60년대 한국정치사의 한 부분이자 60년대 북한 대남공작의 주요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본질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이고 통일문제이자 민족문제이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기초한 냉전시대의 첨예한 대결의 산물이다. (유영구,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 1993 참조) 그리고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유학생출신들과 해외지사 파견자 및 광부들을 행위의 주체로 하여 한국이라는 법역(法域)을 떠나 치외법권지역인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당시 사건조사를 주도했던 중앙정보부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중지 이상으로 이들의 행위를 벌할 수 있는 국제법 상의 근거는 없다. 더구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들이 없으며 조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실질적으로 이들이 조직적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간첩단사건’으로 몰아갔으며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광범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은 관련자들을 전

원석방하고 원래의 체류지인 독일과 프랑스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건의 실제적 진실규명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당시의 끔찍했던 고문이나 사건의 여파에 대한 불행했던 기억 때문에 정확한 진상에 대해 발설하려 하지 않거나 자기변호의 성격을 넘는 객관적인 사실을 구술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당사자들의 상당 수가 병이나 사망 등으로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관련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명예의 실추 없이 실제적 진실에 이르기 위한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배경 및 파급 효과 :

동백림사건의 개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100% 조작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대포장'되어 국내정치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많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3선거헌을 앞두고 1967년 6월 8일 총선에서 여당의 개헌선인 원내 3분의 2를 확보하기 위해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끊어오르던 시기에 '동백림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투쟁은 4.19 이래 최대규모의 운동양상을 보임으로써 박정권으로서는 최대의 위기감에 처해 있었으며, 따라서 부정선거 규탄움직임을 잠재울만한 소재가 없던 박정권으로서는 동백림사건은 호재와 다름없었다.

동백림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민족주의비교연구회가 이 사건의 일부로 취급됐던 것은 바로 부정선거규탄에 대한 박정권의 대응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준다.(유영구, 전계서 참조)

동백림간첩단사건 발표 3일 후(1967.7.11) 공교롭게도 당국은 당시 서울대 합법적 학생서클이었던 「민족문제비교연구회(민비연)」가 동백림간첩단과 연계, 정부전복 음모를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의 지도교수로 있던 황성모 교수가 독일 유학시절 북한과 내통,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은 다르다. 당시 날로 강화되는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대해 공화당은 정권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탈출구 찾기에 고심했다. 4·19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박정희 정권은 대학가에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강경책으로 맞섰다. 여기서 타깃으로 삼은 것이 민비연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6·3사태 이후 학생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후일 이 사건을 주도했던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도 그의 회고록에서 민비연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백림사건도 당시 궁지에 몰렸던 국내 정치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종수, 유럽 한국민주화운동의 단상(斷想) 참조)

이 사건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후 확산되는 반정부투쟁을 잠재우고, 3선거헌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적들을 읊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었다. 해외에서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던 관련자들에게 덧씌워진 간첩 혐의는 특히 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위력시위로는 효과만점이었다. 동백림 사건을 필두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이 줄줄이 이어졌고, 정국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경색돼갔다.

내용 :

1. 중앙정보부의 사건 발표 내용

(1) 1차 발표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 주로 과거 구라파에 유학한 바 있는 현역 대학교수와 현재 유학중인 한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무려 1백 94명이 관련된 대규모 간첩사건을 적발, 이를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 사건 제1차 진상발표문」에 의하면 현 명지대학 조교수 임박사와 당시 서독 유학생이던 서울대학교 문리대 부교수 황박사 등 15명의 대학교수와 의사, 그리고 예술인 및 공무원 등이 1958년 9월부터 1967년 5월 사이에 동독주재 북괴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접선, 간첩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그 중 전기 임박사와 조모 박사, 윤모 등 7명은 소련,중공 등을 경유하여 직접 평양을 방문, 밀봉교육을 받고 귀국,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동 발표에 의하면 이들이 북괴로부터 받은 공작금은 전후 연 20차에 걸쳐 미화 총액 10만 여불에 달하며, 이들 중 서울대 문리대 교수인 황박사는 귀국후 「민족주의비교연구회」라는 학생서클을 조직, 『불온사상을 고취해왔다』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증거로서 김부장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난수표와 라디오 등을 제시했다. 김부장은 이날 현재 이들 중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혐의로 구속된 자는 70명이며 이미 1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이들 관련자 가운데는 국가적인 인재가 많으므로 죄질이 가벼운 자는 가능한한 구제의 길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며, 그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는 자는 공소보류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해외 유학생 가운데 관련된 자는 그곳 해외공관에 자수하면 관대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독으로부터 임의동행해 온 관련자는 17명이라고 밝히고 서독에서 일어난 데모 사건에도 언급, 『이는 북괴에서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서독에서의 수사 때문에 한·독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우리 공군기로 서독유학생을 잡아온 일은 없으며 서독과는 범인인도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못하므로 이들을 임의동행형식으로 데려 왔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서울대 교수인 황박사는 6·25때 괴뢰군에 지원입대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담화문을 별도로 발표, 북괴는 간첩납파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목표를 두고 장기적인 이데올로기 침략전까지 감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북괴의 계략을 분쇄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1967.7.8. 동아일보)

(2) 2차 발표

중앙정보부는 11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제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소위 「민족주의비교연구회」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민비」에 관련된 자는 서울대학교 황모교수를 비롯, 모두 8명으로 7명은 이미 구속중에 있으며 1명은 동백림을 내왕하면서 북괴공작원 김종근과 접촉, 미화 1천 2백달러를 공작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귀국후에는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이념적으로 공명하는 서울대 문리대학생 이모, 박모, 현모, 김모, 박모, 조모 등 20여명을 규합하여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조직하고 자신은 이 회의 지도교수로 취임했다고 말했다. 또 황모교수는 이 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혁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불온사상을 고취하고 64년 한일회담 때에는 회원인 김모와 폭력수단으로 국헌을 문란케하여 정권을 번복키로 합의하고 동년 3월 24일, 5월 20일, 6월 3일에 불법데모를 감행하여 이적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1967. 7. 12. 조선일보)

(3) 3차 발표

중앙정보부는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수사의 중간결과를 12일 제3차로 발표, 서독에 있던 음악가 윤이상씨(클라식작곡)부부와 서독 기센대학 유학생 최정길, 전북대 최창진교수 등이 동 적화공작단사건에 관련된 혐의내용을 밝혔다.

동 발표에 의하면 윤씨는 58년 동백림의 북괴대사 박일영과 접선, 6·25때 월북한 최상오그이 소식을 알아봤고, 또 동독주재 북괴공작원 이원찬 등과 접선해서 부인 이수자씨 등과 함께 63년 4월 북괴 평양에 도착, 3주간에 걸쳐 북괴요인을 만나는 등 공작금 천5백불을 받아 귀환했다는 것이다. (1967. 7. 12. 동아일보)

(4) 4차 발표

중앙정보부는 13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제4차 수사 중간발표를 했다. 동 발표는 서독 「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연구원 정규명(39)씨 부부와 서독 「카스도르프」거주 광부인 박성옥(36), 김성철(33)씨 드으이 간첩혐의내용을 밝히고 있다. 발표문은 정씨부부가 65년 7월 동독을 거쳐 평양을 방문, 북괴노동당에 입당한 뒤 ①중간정당에의 침투 ②서독광부 및 유학생을 포섭, 지하당 조직 등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활동하는 등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사실을 밝혔다. (1967. 7. 13. 동아일보)

(5) 5차 발표

중앙정보부는 14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제5차 발표에서 한때 농림차관을 지냈고 현 한국농업문제연구소소장 주석균(65)씨를 비롯, 독일인 여성(한국인처) 한 명을 포함한 7명의 간첩혐의사실을 밝혔다. 동 발표에 의하면 주씨는 63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세계식량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한 후 귀국도상 『①구라파 시찰을 기화로 동백림에 잠입하여 북괴공작원과 접선, 6개월 뒤에 평양방문을 약속하고 공작금 1천불을 받았고 ②그위 「카이로」 에도 들러 또다시 북괴공작원과 접선, 한국의 농업경제 등을 제보한 북괴간첩』이라는 것이다.

발표문은 또한 김종태(33=「하이델베르크」대 통역학부강사·독문학석사) 강계호(30=미 「노트르담」대 화학과연구원·이박) 강빈구(35=서울상대 조교수·법학) 「미하이드로· 개린드」(29=강의 처·독일인·서강대·이대·서울문리대 강사) 이국종*36=무직) 천상병(38=문필가) 등의 간첩혐의 내용도 밝혔다. (1967. 7. 14. 동아일보)

(6) 6차 발표

중앙정보부는 15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제6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응로(64)와 그의 처 박인경(42)등 2명과 임석훈 등 7명의 혐의사실을 밝혔다.

발표문에 의하면 이응로는 불란서에서 동양미술학교장으로 있으면서 처 박과 함께 동백림에 들어가 북괴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함께 공작금을 받고 돌아와 난수표레 의거, 북괴와 교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으며, 임석훈은 동백림에 들어가 북괴노동당에 가입,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평양을 다녀와 간첩활동을 했으며, 서독에 온 김광옥(33) 어준(40)을 포섭, 동백림에 같이 가 북괴와 접선케 하여 간첩활동을 하게 했다고 한다.

이밖에 어의 처 황춘성(43), 형 어원, 누이 어정희, 형수 권태숙(43)등은 어의 정체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67. 7. 16. 조선일보)

(7) 7차 발표

중앙정보부는 17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제7차 수사결과를 발표, 공광덕(36) 정상구(30) 하태규(31) 정성배(34) 김진백(26) 배준상(37) 등 6명에 대한 혐의사실을 밝혔다.

발표문에 의하면 공광덕 등은 동백림을 드나들면서 북괴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함께 공작금을 받고 서독 또는 미국으로 돌아와 유학생포섭 등 대남적화공작을 위해 암약하였으며 북괴선전에 고무, 동조하였다고 한다. (1967. 7. 18. 조선일보)

2. 증정 발표문의 내용

북괴는 6·25사변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의 지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남공작기구를 정비 강화하고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해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한편 구미지구를 통한 간첩의 합법적 침투를 기도하여 1957년부터 비교적 동서통행이 용이한 여건을 갖춘 동백림에 공작거점을 설치하고 북괴 동독대사에 대남공작경험자인 박일영을 임명하였고 대사관원은 대부분 훈련된 공작요원으로 충당하였음은 물론 다수의 공작책을 서구 각국에 합법적으로 주재시켜 적극적인 대남공작을 벌여왔다.

이와 같은 북괴의 대남공작은 1958년부터 서독을 위시한 서구각국에서 재학중인 유학생과 도구중인 각종의 장기체류자들에게 심리전공작을 전개하면서 서서히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우선 초단계 공작으로 공산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북괴의 발전상에 대한 선전문건으로서 이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당시 북괴보다 산업건설이 뒤떨어지고 무능과 부패에서 오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 상태의 조국현실에 대한 실망과 또한 이역에서의 심리적 부동상태에 있는 유학생 장기체류자들의 사상적 경향을 포착하여 북괴공작망책을 통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선전을 하는 등 이들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신념변화를 싹트게 하였고 동백림관광유혹과 재북가족의 소식의 전언 및 상봉주선 제언과 경제난의 약점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모든 물질적·심리적인 공작수단을 다하여 이들의 사상적 「부동」을 더욱 자극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공작에 경사된 이들은 1958년 9월 교양 및 지령수명차 현 명지대학 조교수 임모 박사가 동백림에 잠행하여 북괴 동독대사 박일영 등을 접선한 것을 비롯하여 1967년 6월까지 사이에 주로 당시의 유학생인 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교수 황모박사 등 15명의 현 대학교수·의사·예술인 및 공무원 등이 수차 동백림을 왕래하면서 전기 북괴대사 박일영 및 노동당 연락부 대구라파공작총책 이원

찬과 기타 공작지도원과 접선하고 수일간 우대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사상무장과 적화통일의 초보단계인 서신·문화·주님의 교류와 미군철수·연립정부수립·평화적통일이 불가능시의 무력남침 등에 대한 교육과 난수조립·암호해독·A-3통신청취 등의 연락방법에 대한 간첩교육을 받은 후 해외유학생·광부·간호원 등의 명단 입수·평화통일방안선전·학원내 지하당조직공작·정계요인포섭·혁신당조직·반공법의 개정·선거기간중 야당 및 혁신계인사 지지·소위 혁명조건 성숙시 지하세력을 총동원한 남한정권의 전복활동 등에 관한 지령과 미화 2백내지 2천불의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였다.

더욱이 전기 임박사·조모박사·윤모 등 7명은 북괴의 지령에 의해서 1961년 8월부터 1965년 8월간에 1차 내지 2차 북괴공작망책의 안내로 소련 또는 중공을 경유, 입북하여 1-4주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현 북괴 노동당 부위원장이며 대남사업총국장인 이효순, 대남공작고급간부인 서철·임춘우 및 기타 간부의 환대와 더욱 철저한 밀봉교육을 받고 북괴의 소위 선전농장과 공업지대·선전시설을 관람하고 북괴 사회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혔고 프롤레타리아적 당파성이 강한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당원자격을 획득하였고 귀로에는 「모스크바」·동백림·「체코」를 거쳐 서서·오지리 등의 서방국에 이르러 수일간 체류함으로써 합법귀환을 가장하였다.

이와같이 북괴로부터 철저한 교육과 지령을 받은 이들은 점에서 점으로 조직을 진행하였고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가면서 포섭상황과 북괴지령에 의한 서구내 유학생·간호원 등의 명단과 동향 등 정보수집보고는 물론 북괴와 접선되어있는 국내저명인사의 연락과 동정보고를 하였는데 이들이 서구에서 간첩활동 중 북괴로부터 받은 공작금은 전후 연 20여차에 걸쳐 미화총액 10만여불에 달하며 또한 간첩통신용문건 및 물품도 대량 받았다. 계속하여 이들은 북괴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그들의 지령에 의한 대남공작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962년 이후 계속 귀국하였고 간첩 김모(여)·이모(여)의 경우 입국시 난수표를 음부에 삽입하였었다. 그리하여 귀국후 이들은 합법토대를 무난하게 구축하여 공작활동을 벌였으며 전외국어대학강사 조모의 경우는 감도불량으로 북괴의 A-3지령의 청취가 곤란하자 북괴지령의 수명과 지령에 의한 정보수집내용과 공작상황보고차 67년 2월 18일 다시 도불, 동백림을 거쳐 입북하여 북괴노동당 부위원장 이효순에게 보고하였고 공작금 미화 2천불을 수취 귀국하였고 전기 김모(여) 등은 국내관공서 등 기관에서 합법을 쟁취하고 국가기밀을 수집중이었고 전기 황박사는 학계 및 정계에 구축된 합법적 토대를 이용하여 1963년 9월경 남한의 민주주의제도를 변혁하고 북괴가 주장하는 적화통일의 실현을 기도하고 당시 서울대생이며 현 모신문사 기자 이모외 20여명과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라는 비합법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은 지도교수로서 암암리에 반식민·반보수·반매판·반회압 등을 내세우고 불온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북괴지령을 수행하였고 전 민비연구회장이며 현 모정당 운영위원인 김노외 6명은 전기 황박사와 내란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써 정부전복을 밀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본 사건을 통하여 밝혀진 북괴망원과 전기 임박사 등의 주모자로부터 포섭된 자와 그 대상자는 학계·언론계·문화계 저명인사 등 각계각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는데 총수는 1백 94명에 달하고 있으며 입건 또는 구속조사 중인 자는 1백 7명이였다.

우선 일단계 수사에서 밝혀진 피의자중에서 몇사람의 범죄사실을 발표하고 앞으로 수사진전에 따라 다시 발표하겠다. (1967. 7. 8. 동아일보)

3. 중정 발표문에 따른 주요 관련 인물 피의 사실

(1) 정하룡

경희대학 조교수(정치학박사)로서 1955년 10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4년 재학중 도불, 국립파리대학교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 3월 동 대학 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받고 1966년 4월 13일 귀국하여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조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1959년 1월경 약혼녀인 상피의자 이모 당 37세의 도불로 파리대학교내 「안토니」 부부학생기숙사에서 동거하며 북괴 대불란서공작망책 노모와 접촉하여 북괴찬양 불온책자를 탐독, 북괴의 발전상과 국내정치정세를 비교분석하고 1962년 1월 13일 북괴의 대불공작망책에 포섭되어 이의 지시로 동백림소재 북괴대사관에서 노동신문문화보(등대)잡비 등 기타 팜플렛에 의거 교양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6백불을 수수하는 동시 접선을 위한 연락방법을 교육받고 동월 12일 파리로 귀환하였고 1962년 9월경 불란서 공작망책 이모 지시에 따라 「모스크바」 경유 평양에 도착 3

주일간 체제하면서 ① 남한정세와 북한의 실정 ② 평화통일방안 ③ 지하당 조직방안 등의 교양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공작금조로 미화 2천불을 수수, 피의자의 처 이모를 대동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모스크바」 경유 귀불한 바 있고

1962년 10월 30일경 처인 피의자 이모를 대동, 동백림에 이르러 북괴대사관에 8일간 체류하면서 전시 이모와 같이 노동신문 화보 영화 등을 관람하는 동시 중공소설 등 간행물에 의한 교양을 받고 이모를 북괴노동당에 입당시키고 공작금 미화 1천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1964년 12월 11일 단독으로 동백림에 가서 약 10일간 체류하면서 파리유학생의 동태를 보고한 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양을 받고 공작금 미화 1천불을 수수, 귀국한 사실이 있고,

1964년 12월 14일 피의자 이모와 동도 백이의 경유 동백림에 이르러 북괴대사관직원 집에 11일간 체류하면서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기 등 수편의 영화를 관람하는 한편 노동신문 화보 등 간행물에 의한 교양과 철학개론의 학습지도를 받고 공작금조로 미화 1천불을 수수, 귀환한 사실이 있고,

1965년 8월 28일 처 이모를 대동, 동백림, 「모스크바」 경유 평양에 이르러 안전가옥에 수용된 후 약 40일간 체류하면서 북괴 내 각처를 관람하는 한편 ①난수표 해문방법 ②무인포스트 설치방법 ③암서기 입법 ④축소필름 제조방법 ⑤가두접선방법 ⑥학원내 침투 지하당조직과 아울러 학생선동 ⑦지령방법(방송을 이용한 방법) 등 교육을 받고 처 이모는 직장관계로 동년 9월 29일경 먼저 귀불케 하고 피의자는 계속 전시 교육나용을 복습하다가 동년 10월 10일경 「모스크바」 경유 동백림에 도착, 동지에서 공작금조로 미화 2천불을 수수한 후 「체코」·서서 경유 동년 10월 17일경 귀불하였고, 1966년 3월 11일경 전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 이모와 동도, 동백림에 도착 북괴대사관 직원가에 14일간 체류하면서 이미 평양에서 받은 교육을 정리 복습하고 난수표 암호해문 및 조립에 필요한 비밀문건 1조와 공작금조로 미화 2천불을 수수, 귀국하면 피의자의 실제인 정모를 파리에 유학시켜 연락거점을 확보케하는 동시 피의자 조모와 결속하라는 지령을 받고 「체코」, 「이탈리아」 경유 귀국한 사실이 있고,

1966년 4월 13일 귀국함에 앞서 수수한 공작금 미화 2천불 중에서 미화 1천불을 처인 이모의 친구인 불인 모에 위탁하고 암서해독용 확대경을 미화 30불에, 다이아 지환(1카트)를 미화 8백불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미화 30불에 각각 구입 소지하는 동시에 난수표를 처인 이모의 음부에 삽입 은닉토록 함으로써 관현의 눈을 피하여 무난히 귀국한 사실이 있고,

1966년 10월 6일 전시 불인여자 모에게 보관시켰던 공작금으로 실제 정모의 비행기표를 구입, 동인을 도불시켜 북괴와의 연락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지령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1967년 2월 4일 피의자 조모를 동백림주재 북괴대사관에 파견, 북괴로부터 수수한 공작금인 한화 13만원을 1967년 5월 6일 수취하였고,

1967년 3월 1일 처인 피의자 이모를 국회도서관 직원으로 취직시켜 입법부의 동향을 탐지하는 등 부부 조로소 북괴지령하에 따라 간첩활동을 하여온 자이고,

(2) 임석진

명지대학 조교수(철학박사)로서 1956년 1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거쳐 서독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 자연과학 연구원으로 종사중 북괴공작원 서독거주 조모에 포섭되어 자진 동독주재 북괴대사 박일영의 면접을 서신으로 요청하여 1960년 4월 북괴대사로부터 이에 응하는 회신을 접하고 동백림 북괴대사관 근처 옥호미상 호텔에 투숙하면서 북괴문정관 석학철로부터 ①조국의 평화통일 ②북괴의 발전상 ③자연법칙에 의한 사회주의화 이념 등 교육을 받고 북괴공작에 동조, 당명에 충실할 것을 선서한 후 한국 모신문사 서독터파원을 대동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금조로 미화 5백불을 수수, 1960년 8월 중순경 전기 특파원을 대동, 동백림으로 월경, 북괴 대사관공작원 석학철로부터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교양을 받고 공작금조로 미화 4백불을 수수, 귀환하였고,

1960년 12월 중순경 동독주재 북괴대사관에 소환되어 공작목적지인 한국으로 귀국예정일을 1961년 가을로 정하고 공작금조로 미화 3천불을 수수, 귀환하였고,

1960년 12월 중순경 당시 서독 유학중인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실제를 포섭 동독주재 북괴대사관으로 가게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게하고 1961년 8월 중순 일자미상경 입북할 것을 기도, 오지리

「빈」 대학에 수학차 이도한다고 위장후 「모스크바」 「옴스크」 「이르쿠스크」 경유 평양에 도착, 대남 공작원밀봉 「아지트」에 수용된 후 3주간에 공하여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 인준을 받는 동시 남한에서 학원 또는 혁신정당에 잠입하여 지하당을 조직후 합법 또는 비합법수단으로 남한정권을 타도, 북괴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성취할 석이며 한국유학생명단, 한국광부명단, 한국공무원명단 등을 입수하고 가급적 동인원 중에서 동독까지 유인 지하당원으로 포섭케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금조로 미화 1천불을 수수, 귀로 오지리수도 「빈」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있고, 1962년 1월경 「프랑크푸르트」 대학동기생인 정모를 포섭하였다고 보고, 공작금조로 미화 5백불을 수수, 포섭자를 대동하여 교육을 받도록 지령을 받고 1962년 5월경 동백림에 체류 교양을 받고 공작금조로 미화 8백불을 수수 각각 4백불씩을 소지하고 서독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1963년 3월 중순경 공작보고와 아울러 이대대학원 작곡과에 재학중인 홍모(26)와 결혼 부부조로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보고, 동 결혼을 북괴중앙당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결혼비용명목으로 공작금 미화 6백불을 수수, 서독에 귀환하여 1963년 5월 25일 홍모(여)를 도둑케하여 결혼 후 처로 하여금 간첩활동을 지원케 하였으며,

(3) 조영수

함경남도 원산시에서 1946년 8월경 가족과 같이 월남,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군에 복무다가 제대 후 1959년 10월 도불, 파리대학교 및 「구루노블」 대학교 법경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를 획득한 수 일본 동경대학교 강사로 종사중 장기무단결근으로 해직된 후 귀국, 동국대학교 법정대학강사, 외국어대학강사로 종사다가 현재 무직으로 있는 자로서

1961년 4월경 재불유학중 북괴선전간행물 조국통일민주조선을 탐독하는 한편 파리 유학중인 실형 조모의 친우이며 북괴노동당 연락부 대불란서공작원인 노모, 박모가 주장하는 공산주의노선에 따른 평화통일론에 동조 북괴노선을 지지키로 결의한 다음,

1963년 6월 15일 북괴 대불공작망원 노모가에서 동인으로부터 ①북괴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환영한다 ②평화통일방안의 타당성 ③남북한 문화교류의 필요성 ④남북한 학생대표교류의 타당성 ⑤남북한 체육혼성팀의 필요성 등 괴뢰선전에 공명 동인의 주선으로,

1963년 7월 10일 동백림에 이르러 북괴대사관직원집에 8일간 체류하면서 국북무시 지득한 군사비밀을 제보하고 평화통일방안, 북괴의 우월성에 대하여 토론형식으로 교양을 받은 다음 재불공작원에게 전달하라는 지령문을 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고,

1963년 10월 7일 재불공작원 노모와 동도 동백림에 도착, 북괴영화 · 잡지 · 화보 등 선전물에 의거 ①한국은 사회주의제도에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②남북한 서신교환 ③언론인, 학생단체 등 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양을 받고 북괴공작원이 될 것을 권유받고 공작금으로 2백불을 수수, 동년 10월 15일 귀불하여 전기 노모로부터 ①입북하면 우대하며 신변을 보장한다 ②입북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북괴가 부담한다. ③입북도중 「모스크바」를 위시, 수개의 중립국을 관광할수 있다는 등 권유를 받고 입북할 것을 결정한 사실이 있고,

1963년 4월 하순경 전기 노모로부터 북괴중앙당에서 부부동반 입북하라는 연락을 접하고 1964년 3월 27일 처 김모 당30세와 같이 동백림에 이르러 「모스크바」를 경유, 평양에 도착, 밀봉아지트에 수용되어 교양을 받은 후 6개월 후 재입북할 것을 약속하고 공작금조로 2천불을 수수, 「체코」를 경유 귀불한 사실이 있고,

1965년 8월 초순경 부부동반 재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처 김모와 동도 입북 밀봉아지트에서 체류하면서 ①민족통일전선 ②농민공작 ③학생공작 ④평화통일방안 ⑤중간노선정당에 대하여 ⑥제4차 전당대회 선언문 등에 대한 교육과 ①암호해독방법 ②방송청취방법 ③사진필름축소방법 ④상부와의 연락방법 ⑤드보크설치방법 ⑥암호문 작성 ⑦대인접선 방법 등에 대한 교양과 훈련을 받고 처 김모와 같이 북괴노동당에 가입하고,

1) 실형 조모가 경영하는 회사중역으로 입사, 월 5~10만원의 공작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라

2) 혁신정당을 조직하고 국회의원을 포섭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을 개정 국내에서 공산계열의 서적을 합법적으로 강독할 수 있게 하라.

3) 학생·교직원 등을 형 조모의 경영중인 사업체에 다수 취업케 한 다음 포섭하여 당의 지령에 의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4) A-3방송청취방법 등 지령을 받고 ①난수표수신용 1조 ②암호원문 1매 ③암호입조방법서 2매를 받는 동시에 공작금조로 2천불을 수수, 동월 25일경 귀불한 사실이 있고

1965년 10월 27일 처 김모와 동도 귀국하여 북괴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 조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침투코자 하였으나 가정불화로 실패우 학원침투를 기도하고 1966년 3월 1일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선거법강사로 침투하였고 처 김모를 1966년 3월 7일 모기관통신원으로 취직시켜 공작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북괴방송 A-3를 수신코자 하였으나 감도불량으로 실패한 사실이 있고,

1966년 5월 상순경 거주지 자가에서 정모와 접선하여 결속과업을 수행하라는 지령이 있음을 접하고 모기관에 잠복중인 김모로 하여금 ①월남전에서 아군의 전사상자수 ②정부고위인사의 지방시찰일정 ③국내저명인사의 모기관출입상황 ④모기관직원일부의 성명 및 담당임무에 관한 정보를 모집 보고케 한 사실이 있고,

1966년 11월 상순경 정모와 접선, A-3청취불능으로 지령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보고를 검하여 입북할 것을 사전연락하는 한편 A-3수신일자에 입북허가여부의 회신을 고대하였으나 하등 연락이 없어 1967년 2월 4일 불란서 「구루노블」 대학 불인 교수의 초청장을 소지로 파리경유 동백림에 이르러 북괴공작원과 동도 평양에 도착, 비밀아지트에 수용된 후 북괴노동당부위원장 이효순 및 책임지도원에게

①정모는 무사하다 ② 자신은 학원에 침투중이다 ③ 처 김모의 보증인 이모는 모기관 고위간부의 보좌관이다 ④야당은 월남파병을 반대하며, 국군 5만명을 3억원에 팔아먹었다 ⑤5개년 사업계획으로 10억불을 차관하여 국민 1인당 백불의 빛을 지고 ⑥외국차관이나 은행융자는 백이 있어야 되며 액면의 1할 5분은 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다 ⑦각기관에 반공표어가 붙어있으며 교과서에도 반공과목이 있다 ⑧ 6·25 사변중 인민군의 행패가 심하였기 때문에 20년내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 ⑨현재까지 포섭된 자는 없으나 장차 5명 정도를 포섭대상자로 선정하겠다 ⑩ 장기간중 A-3수신이 곤란하니 재조정을 바란다는 등으로 사업보고를 마치고,

① 통신지도원으로부터 국제 「모루스」 부호 수신방법 ② A-2수신에 관한 기술문제 ③무전기송신음으로 직접 청취하는 연습 ④ 성분 좋은 학생 다수를 포섭하여 각학교에 학생위원장 1명정도는 부식할 것 ⑤ 학원공작은 직위가 필요하니 속히 전임강사나 조교수가 되도록 노력하라 ⑥ 야당청년간부들을 포섭 ⑦ 정모는 가급적 신문논설위원으로 침투시켜라 ⑧ 사람을 포섭할 때는 단독행위로 가장하라 ⑨김모는 계속 기 기관에 잠복케하라는 지령을 전하고 1967년 5월 6일 귀국하여 처 김모에게 지령한 공작금의 일부조로 한화 13만원을 전달하는 등 부부조로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간첩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이고

(4) 김중환

한일병원 피부과장(의학박사)으로서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중 1953년 2월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강사로 1961년 8월 도독, 프랑크푸르트대학 피부과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1965년 5월 16일 귀국 후 동년 8월 25일 한일병원피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을 개업하는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로 재직중 모발생장애에 관한 논문으로 의학박사학위를 획득한 자로서 1962년 1월 상순경 서독 「프랑크푸르트」 대학 병원에서 북괴 주독공작책 이원찬과 접선하여

- 1) 북괴는 대한민국의 서독유학생이 동독등지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 2) 평화통일을 위한 토론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 3) 금품을 제공하며
- 4) 북한은 한국보다 발전하였다는 등 북괴허위찬양선전에 고무되어 북괴대사관과 접선할 것을 결의하고 1962년 9월 초순경 대서독공작원 임모의 안내로 동백림에 이르러 옥호미상 비밀아지트에서 5일간

체류하면서

1) 북괴의 발전상

2) 평화통일안 등 교양을 받고 북괴노동당에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자서전을 작성 제출하여 북괴노선에 동조할 것을 서약하고, 공작금으로 미화 3백불을 수수, 서독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1963년 1월 상순경 동일한 방법으로 동백림에 도착, 3일간 체류하면서 북괴를 찬양하는 내용의 교양을 받고 공작금으로 서독화 3백마르크를 수수, 귀가한 사실이 있고, 1963년 9월 초순경 동일한 방법으로 동백림에 도착하여

1)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다.

2) 「프랑크푸르트」에 한국유학생으로 학생 2명이 있다는 사실 등의 보고를 하고 「프랑크푸르트」이 외에 있는 공과계학생을 물색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서독화 2백마르크를 수수 귀가한 사실이 있고 1964년 4월 중순경 피의자의 처 손모(당42세)에게 서백림을 관광하자고 위장구실을 붙이고 동인을 대동, 동백림에 도착, 단독으로 접선, 처가 한국으로부터 내독하였다든 것과 내년초에는 귀국한다는 등 보고를 하자 귀국전에 구체적인 공작지령을 할 것이니 재차 접선하자는 데 합의하고 일박한 후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 처를 대동 귀가한 사실이 있고 1965년 2월 중순경 귀국보고차,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백림에 가서 북괴노동당에 입당, 반국가단체구성원이 되어

1) 지하당조직

2) 귀국후 병원을 개업하고 입원실을 완비하고 남파공작원을 입원 은닉보호하라

3) 서독유학생명단을 입수, 또는 포섭하라는 등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4백불, 현미경 1대(미화 5백불 상당)를 받아 귀가한 사실이 있고 1965년 5월 16일 귀가후 지령사실의 실천을 위하여 자가에다 김모 피부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북괴와 암호서신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5) 천병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 사범대학, 성신여자사범대학 강사로서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거쳐 동 대학원 독문과에서 수학중 군에 입대, 1961년 7월 23일 제대와 동시 도독,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철학부에서 수학하다가 1966년 10월 23일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 문리과대학, 성신여자대 사범대학 등의 강사로 종사는 자로서 1964년 6월 28일 동백림주재 북괴대사관에 가서 북괴발행의 각종 간행물을 탐독하는 한편

① 평화통일

② 한일회담의 부당성

③ 남북한 서신교류

④ 국제정세와 한국의 입장

⑤ 북한의 발전상과 우월성 등에 대한 교양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 귀가한 사실이 있고,

1964년 9월 14일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백림에 이르러 춘향전 등 북괴를 찬양하는 내용의 영화를 통한 교양을 받고 「하이델베르크」대학에 유학중인 김모가 북괴에 동조적이라고 보고함으로써 차후 접선시 포섭 대동하라는 지령을 받는 동시,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 귀가한 사실이 있고 1964년 10월 초순, 지령을 실행키 위하여 「하이델베르크」대학 기숙사를 방문, 김모와 면접하고 평화통일 및 남북한 서신교류 등의 필요성을 설득 포섭에 성공,

1964년 10월 8일 동인을 대동, 동백림에 이르러 서구유학생 대부분이 대한민국정부에 비판적인 반면 북괴에 동조적이라고 허위보고하여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 귀가한 사실이 있고 1965년 5월 3일 전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단독 동백림에 이르러 「모스크바」를 경유 평양에 도착

①전기 김모의 포섭경위

②재독한국유학생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

③재독유학생에 대한 사상동향 등의 보고와 아울러 북괴로부터 북괴공업의 우월성과 평화통일의 타당성 등의 사상적 교양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후 지령사항으로써

①귀국후 학원에 침투하여 학원의 민주화공작

②지하당조직

③남한의 중대변화 등을 탐지보고하라는 지령과 공작방법에 대한 교양을 받고 공작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하고

1966년 10월 3일 귀국한 후 전시 지령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교수 강모 외 16명을 위시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동조자 물색에 광분하는 등 암약 중에 있는 북괴간첩임. (이상 1967. 7. 8. 동아일보)

(6) 정규명

정규명은 1946년 6월 25일 경북중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예과에 입학, 1948년 6월 20일 동교 2년을 수료, 동년 9월 1일 동교 문리대 물리학과 1년에 입학 재학중 6·25사변이 나자 동년 7월 중순경 동교민청에 가담 활동다가 동년 7월 말일경 괴뢰의용군에 자진입대하여 충남 서산지구전투에 참전, 9·28수복 당시 충북 진천에서 미군에 생포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거쳐 1952년 8월 일자미상경 영천포로수용소에서 위장진술로 석방된 후 1954년 4월 1일 서울문리과대학 물리학과 3년에 복교하여 1956년 3월 28일 동교를 졸업한 후 동년 11월 1일 도독, 「프랑크푸르트」 대학 자연과학부 물리학과에 입학, 1962년 12월 28일 동교를 졸업하고 1963년 5월 1일 동교 이론물리연구소 연구원으로 현재에 지한 자인 바

1. 1961년 6월 일자미상경 서울에 있는 약혼녀인 상피의자 강혜순으로부터 6·25당시 괴뢰의용군으로 입대하였다가 행방불명된 자기오빠 강동순(39)·강남순(37)의 소식을 동독을 통하여 알아달라는 서신요청을 받고 동년 6월말경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과에 재학중인 상피의자 임석진의 기숙사를 찾아가서 상의, 북괴대사관원과 접선코 확인하자는데 합의한 후 1961년 8월 중순 오전 10시경 「프랑크푸르트」 대학 이론물리학연구실에서 임석진과 접선, 동일 11시경 동인의 안내로 「프리드리히」 역에 도착, 북괴공작책 이원찬과 접선, 입동목적은 상의한 즉 이원찬은 그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강동순은 함흥전기기술학교교장으로 활약중이고 강남순은 평양시에서 건축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문리대 동창들로서 6·25당시 의용군에 입대, 행방불명된 정해철(39)·정해원(39)·변동식(39)·홍순택(39)등의 소재를 알아달라고 부탁한 후 그곳에서 임석진과 같이 1박하면서 이원찬이 갖다 주는 박헌영의 재판기록을 열독하고 익일 오후 1시경 이원찬으로부터 동독지구 경계선 통과증과 공작금조로 각각 미화 1백불 씩을 수수한 후 익일 오전 3시경 「프랑크푸르트」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2. 1961년 8월 말경 서울에 있는 전시 약혼자 강혜순에게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이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두 오빠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요지의 위장서신을 전달함으로써 동인들이 북괴에서 건재하다는 것을 인식케 하고

3. 1962년 3월 일자미상 경 이원찬과 서신연락이 되어 동인으로부터 전시 강동순 및 강남순의 면담 주선약속을 받고 약 2일 후 정오경 프랑크푸르트 역정에서 임석진과 만나 전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동하여 2일간을 유숙하면서 동 이원찬에게 자서전을 작성 제출하고 동소에서

가. 포섭대상자로 서울대학교 동창생들인 서독 「멘켄」 공대 물리학과학생 안석교(39), 불란서 「슈트라스부르크」 교 연구소연구생 장수창(39), 영국 「리버풀」 대학 화학과 학생 주총로(38) 등의 명단을 작성 제출한 후

나. 학습교양과 기술교양으로서 기본암호해독방법 및 조립방법, 정치교양으로서 남한은 평화통일이 되어야만 잘 살수 있다는 등의 교양을 마친후

다. 서신연락방법으로서 하향식일 때에는 발신인 주소는 임의로 하되 성명은 일본인 또는 한국인명을 사용하고 수신인 주소성명은 「프랑크푸르트 발트 스트라세 52 정규명」으로 한다.

상향식일 때에는 발신인 주소와 성명은 임의로 독일인 주소성명을 사용하되 이름만은 도로데아로 사용하고 수신인 주소성명은 동백림 「카느스호르스트 옴크리가 스트라세 21 한백」앞으로 한다는 등의 교양을 받은 후

라. 지령사항으로서

서서 제네바에서 구주통합핵연구소 연구원으로 종사중인 서울대 선배인 주영선(41세)을 찾아가 재북 중인 홍순택의 서신을 전달, 회신을 받는 동시 동인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마. 공작금품으로서 홍순택의 서신 1통, 기본암호표 및 송수신 난수표 1조, 미화 2백불 등을 수령한 후 임석진과 같이 「하노바」역 경유 「프랑크푸르트」에 귀환하여 전시 지령사항을 실천할 목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제네바」공항에 도착, 주영선 가를 방문 접촉하고 동인에게 동 서신을 전달코 회답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은 뜻밖에 친구의 서신을 접하여 반갑기는 하나 그런데 있는 사람에게 회답을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한 후 5일간을 동지에 기거하면서 계속 포섭공작을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프랑크푸르트」로 귀환하여 동년 4월 초순경 동 결과를 암서화하여 북괴공작원 이원찬에게 보고함으로써 간첩행위를 하였고

4. 1962년 8월 일자미상 경 전시 이원찬으로부터 전시 재북중인 정해원의 서신을 접견하여 동인이 6·25당시 월북하여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동교 물리학과 교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고 동소에서 평화통일방안 남북문화교유 등에 대한 교양을 재습득한 후 서울에 있는 약혼자 강혜순을 속히 입독케하여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조로 미화 7백불을 수령한 후 「프랑크푸르트」에 귀환하였고

5. 1962년 8월 20일경, 「프랑크푸르트」소재 「루프트한자」항공사로부터 강혜순이 입독하는데 소요되는 여비를 지불하라는 전보를 접수하고 동일 오후 1시경 동사를 방문, 공작금 중에서 미화 7백 29불을 지불하고 1962년 9월 2일 오전 5시경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전시 강혜순을 만나 재북중인 강의 두 오빠의 소식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혜순에게 동독에 왕래하여도 아무런 흔적이 나지 않게 기술적으로 왕래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같이 갈 것을 권유하여 동 강혜순을 유인하고

6. 동년 10월 일자미상경 전거주지로부터 「케이시·라 하스트라세」 48소재 아파트로 이주하여 동가에서 전시 이원찬에게 전시 암호 연락방법에 의거, 주거지 이전사항과 동 강혜순을 포섭하였다고 보고하고

7. 동년 10월 중순 일자미상 경 동 이원찬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강혜순과 같이 오라는 지령을 받고

1962년 10월 20일경 입동하여 이원찬과 접선, 동인의 안내로 안전가옥에 수용되어 2박하면서 동소에게 강동순 및 강남순에게 서신을 작성, 이원찬으로 하여금 전달케 한 후 동소에서 강혜순과 같이

가. 선전 화보인 등대·노동신문·북괴의 발전상 등에 대한 교양을 받고

나. 지령사항으로서

①전시 안석교·장수창·주총로 등을 포섭, 대동 입동할 것이며 ②재구 유학생 및 친지 포섭 ③한국에 있는 학생을 유치 포섭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5백불을 수수한 후 귀환하였으며

8. 1962년 12월 말경, 다시 이원찬과 접선, 안전가옥에 수용되어 동소에서 3박하며 지령사항으로서 불란서 파리소재 「상제리」에서 중국요리점을 경영하는 전영희를 찾아가 재북중인 동인의 실제 김모의 서신을 전달하고 회답을 받는 동시 동인의 사상동향을 파악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1천불을 받은 후, 1963년 1월 초순 일자미상일 오전 11시경 귀환하고

9. 1963년 3월 21일 오전 7시경, 처를 대동하고 전시 지령사항을 실천할 목적으로 동월 23일 오후 3시경 전시 전영희의 주소지(미상)로 동인을 방문접촉하고 동 서신을 전달한 후 동인과 수차 접촉하면서 사상동향을 파악한 바 동인은 북괴와 같이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확인하고 동월 26일 오전 10시경 동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아 이원찬에게 암호방법에 의하여 보고하고

10. 1963년 4월 초순 일자미상일 오전 10시경 전시 이원찬의 지령에 의해 주총로를 포섭할 목적으로 처 강혜순은 데리고 「런던」을 경유 「리버풀」에 있는 주총로 가를 방문 접촉 포섭하려 하였으나 동인은 곧 귀국한다고 하여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고

11. 1963년 5월, 일자미상 오전 11시경 이원찬에게 전시 주총로 및 전영희와의 접촉상황을 상보하는 동시 전시 김영희로부터의 회신을 이원찬에게 제공하고 동소에서 이원찬으로부터 조용래학생이 서독 「문스터」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데 재북중인 동인의 매부(성명미상)의서신을 전달하고 회답을 받아오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4백불을 수령한 후 동년 7월 일자미상 오전 10시경 처를 대동하고 전

시 장수창을 포섭할 목적으로 열차편으로 불란서 「슈트라스부르크」에 도착 동인가를 방문(주소미상) 접촉, 동인가에서 3일간 유숙하면서 포섭하려 하였으나 동인은 8·15해방 후 월남한 자로서 북괴에서 하는 일은 모두 선전에 불과하다는 등 동 교양 내용을 부인하므로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귀가하고

12. 동년 8월 중순 일자미상 오전 11시경 전시 이원찬의 지령에 의하여 전시 안석교를 포섭할 목적으로 처를 대동, 열차편으로 서독 「문헨」에 도착 동일 오후 4시경 동인가를 방문(주소미상) 접촉하고 포섭코자 하였으나 동인의 태도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노골적인 의사표시를 못하고 익일 오전 10시경 동지를 출발 귀가한 사실이 있고

13. 1963년 12월 말 정오경 제반 활동상황을 이원찬에게 보고차 처를 대동하고 입동, 이원찬과 만나 제반활동상황을 보고한 바 동인으로부터 여하한 방법으로라고 전시 주총로·장수창·안석교 등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가하였고

14. 1964년 3월 일자미상 경 이원찬으로부터 재차 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년 4월 초순 오전 10시경 이원찬과 접선, 동인으로부터 실제 정규능을 속히 도둑케하여 포섭 대동, 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1천 7백 50불을 수령, 귀가하고

15. 1964년 월일미상 11시경 프랑크푸르트 암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박일진(36세) 자가에 내방하였을 시 동인이 고향인 개성에 있는 자기 모친의 소식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동인에게 동백림에 가면 그 소식을 알 수 있으니 같이 입동하자고 꺾어 1964년 6월 초순 11시경 동인을 대동, 입동하여 이원찬과 접선케하고 안전가옥에 수용되어 1박하면서 이원찬에게 박일진의 본적지 및 개성주소를 적어준 후 익일 오전 10시경 공작금 미화 1백불을 수령, 귀가하고

16. 1964년 7월 12일 오전 10시경 이원찬으로부터 긴급사항이 있으니 서서입국비자를 가지고 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월 14일 오전 10시경 입동, 이원찬과 접선, 동인으로부터 지금 서서 「취리히」시에서 개최 중에 있는 국제기계제조심판원회의에 대한민국대표로 참석한 신흥대학(경희대학)교수 문모(성명 미상)가 참석하고 있는데 동지에 가서 동인에게 난수표를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품으로 미화 3백불, 난수표 1조 등을 수령한 수 동년 7월 15일 오전 11시경 서서 「취리히」시에 도착하여 일본대표에게서 한국대표가 미참한 것을 확인하고 동지에서 엽서로 이원찬에게 『일본상품은 있는데 한국상품은 없다』라고 접선치 못하였다는 보고를 한 후 귀가하고

17. 1964년 8월 일자미상 경 이원찬으로부터 전시 문모에게 전달하려던 난수표를 지참, 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년 9월 20일 오전 11시경 입동, 이원찬과 접선, 난수표를 반환하고 동인으로부터 실제 정규능을 대동, 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1천불을 수령한 후 귀가한 사실이 있고

18. 1964년 10월 말일경 전시 이원찬으로부터 1964년 12월 7일 서독을 친선방문하는 박대통령이 「본」에서 갖는 유학생들과의 조찬회석상에 참석하여 박대통령에게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실천치 못하고

19. 1964년 12월 23일 오전 11시경 전시 박일진과 만나 동인을 대동코 입동하여 이원찬과 접선, 이원찬으로부터 박일진 모친의 서신을 받고 회신을 작성, 이원찬에게 선전케 하고 공작금으로 미화 백50불을 수령한 후 귀가하고

20. 1965년 6월 초순경 이원찬으로부터 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월 중순 오전 11시경 입동, 이원찬과 접선, 동인으로부터

가. 가족혁명을 하라
나. 직업혁명가가 되라

는 등의 교양을 받고, 지령사항으로서

가. 처 강혜순과 같이 평양에 가서 강동순·강남순을 면접하라
나. 지금까지의 공작방향을 바꾸어 기본출신인 광부포섭에 전력량을 집중시켜라
다. 광부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포섭하라
라. 「카스트로프」 「라옥셀」 「취캐호프」에 있는 광부중 충남출신이며 과거 사회대중당 대전지부 선전부장을 역임한 박성옥(37)을 포섭하라
마. 박성옥의 이복형 박성대가 재북중이니 동인의 서신을 박성옥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공

작금으로 마화 수천불을 수령한 후 귀가하고

21. 1965년 7월 중순 오후 8시경 전시 박성옥을 포섭할 목적으로 박성옥의 기숙사로 개인을 방문, 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도르트문트」로 가는 도중 이곳에 한국광부들이 있다고 하여 들렀는데 명비에 박성옥이란 이름이 있어 내가 어려서 대전에서 초등학교를 다닐때 아는 박성대라는 사람과 혹시 친척간이 아닌가 하여 들렀다고 위장구실을 말하고 개인으로부터 양식을 제공받은 후 동인에게 앞으로 언어가 안통하여 곤란할 때가 있으면 하시든지 자기에게 서신연락을 하라고 주소·성명을 적어주고 그곳을 출발, 열차편으로 귀가함으로써 1차접선과 연락유지에 성공하고

22. 1965년 8월 초순경 전시 이원찬으로부터 처 강혜순을 대동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동하여 이원찬과 접선, 이원찬에게 전시 박성옥과의 접선상황을 보고하는 동시 동인으로부터 앞으로 입북하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많이 하여야한다는 것을 강조받고 익일인 7월 9일 오전 10시경 동백림 소재 「센히트」 비행장에서 이원찬으로부터 가명으로 된 자신과 강혜순의 여권을 각각 수교받고 이원찬의 안내로 동일 오후 2시경 (「모스크바」시간) 「모스크바」경유 7월 10일경 평양에 도착, 지도부 부부장을 면접하고 중요시설과 명승지를 구경한 후 17일 오후 1시경 지도부장인 조모(50세 가량)·이원찬·지도과장·지도원 등의 입회하에 북괴노동당에 입당함과 동시 당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오후 3시경 강혜순과 간이 동지도원의 안내로 전시 강남순(37세)과 동인의 처(성명미상) 및 강동순과 면접한 후 동일 오후 1시경 소위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있는 임춘추를 면접하고 동인으로부터 자신의 항일 빨치산투쟁 당시의 경험담에 관한 교양을 받은 후 8월 21일까지 4일간에 공하여 전시 지도과장 및 지도원으로부터

가. 중간정단(공산당)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합법이 허용되는 혁신정당 같은 간판을 내걸고 지도자는 반공을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좋고 그 슬하에 들어가 열성당원을 시켜서 활동하라

나. 현시와 같은 때에는 저명인사를 당수로 하고 중견인물들 속에 푸락치를 넣어 그 당이 평화통일을 정강으로 하는 당을 만들라

다. 우익정당과의 통일전선을 하부 당원 중 신망이 있는 당원을 포섭하여 당의 성격을 변질토록 한다
라. 서독광부 다수 및 유학생을 포섭, 지하당을 조직하였다가 그들이 귀국후 각 직장 또는 연고지에 지하당 조직을 확대케하여

마. 결정적 시기에 일제히 봉기케 하라는 등의 교양과 지령을 받은 후 공작금으로 미화 1천 3백불을 수령코 동년 8월 31일 오전 10시경 공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귀가함으로써 공산주의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23. 1966년 6월 일자미상 경 박성옥으로부터 동년 6월 말경에 7일간의 휴가를 득하겠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같이 입동할 수 있느냐는 서신을 받고 즉시로 동인에게 하시든지 같이 갈수 있으니 휴가를 득하는대로 자기를 방문토록 서신연락을 하여 동년 6월 22일 오후 8시경 자기를 방문한 박성옥과 접선코 익일 오전 9시경 동인을 대동 입북, 이원찬과 접선, 이원찬으로부터 박성옥에게 계속 교양을 하는 동시 동인으로 하여금 계속 광부들을 포섭, 지하당을 조직케 하라는 지령을 받았고 박성옥은 통신연락방법이 없으니 제반상황은 피의자 자신을 통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은후 박성옥을 북괴노동당에 입당 선언케하고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씩을 수령한 후 각자 귀가한 사실이 있고

24. 동년 8월 일자미상 경 박성옥에게 앞으로의 보고상황은 서신을 통하지 말고 자가에 신설한 전화 0602-52984번을 이용, 보고하라고 서신으로 지시라고

25. 1966년 10월 일자미상 오후 8시경 박성옥으로부터 같이 있는 광부 김성철을 포섭하여 동년 12월 말일 경 동인을 대동 입북키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동년 11월 초순 일자미상경 동인에게 조국통일신문 5장, 등대화보 2권 및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제국주의의 모순」(16절지 10장)을 우송한 사실이 있고

26. 1966년 12월 말일 오후 8시경 박성옥으로부터 자기는 동년 12월 23일 전시 김성철을 대동, 입동하였다가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27. 1967년 2월 초순 일자미상경 북괴공작원 김모로부터 정보원들의 조사가 시작된 것 같으니 조직원들에게 보안조치를 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일 동 내용을 박성옥에게 서신으로 지시하는 동시 자가에 보관

중인 불온문건 일체를 소각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28. 1967년 5월 초순 오전 8시경 전시 북괴 김모로부터 입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동년 5월 13일 오후 3시경 입동하여 동 김모와 접선, 안전가옥에 수용되어 동인으로부터

가. 박성옥이 노출되었으니 앞으로는 김성철을 입동시키도록 하라

나. 광부들에 대한 수사가 예상되니 경각심을 높여라

다. 박성옥에게는 매월 독화 3백마르크 씩을 지불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1천 5백불을 수령한 후 익일 오전 11시경 귀가한 사실이 있고

29. 동년 5월 17일 오전 8시경 박성옥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동인에게 김성철을 입동시키라는 지시를 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평양을 왕래하였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적을 위하여 부부조로서 간첩활동을 감행한 자이다. (1967. 7. 12. 동아일보)

(7) 윤이상

윤이상은 1917년 9월 19일 본적지에서 출생, 1939년 6월 통영협성상업학원에 재학 중 독일, 동경지문 우차랑에게 작곡을 수업받고 1948년부터 통영여고교·부산사범학교·부산고등학교 등을 전전 음악교사로 근무, 1954년 3월 신흥대학 및 숙명여대 음악강사로 종사하다가 1956년 6월 도불하여 파리국립음악원에서 작곡이론 및 작곡을 연구, 1957년 8월 서독 서백림 국립음악대학으로 전학, 작곡 및 이론학을 연구, 1959년 7월 동 과정을 수료한 후 서독에거 클래식 현대작곡을 하면서 현재에 지한 자로서

1. 1958년 8월경 서독 「다름슈타트」 시 국제현대음악제식당에서 자칭 동독에서 넘어왔다는 독일여대생 성명 미상자로부터 『동독에 많은 한인유학생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는 동 여대생에게 『친구를 통하여 6·25전란에 월북한 피의자의 고향친구 최상옥의 소식을 알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 동기가 되어 동년 12월경 동백림주재 북괴대사 박일영으로부터 최상옥의 소식을 알려준다고 접선하자는 서신연락을 받고 1959년 1월경 동백림 「칼스홀르스트」에 있는 박일영 집에서 만나 북한에 가면 최상옥에게 안부와 가족에 대한 근황을 서신으로써 전해달라고 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2. 동년 4월경 당시 서독 「슈트트가르트」 신문사에 근무중인 조명훈으로부터 박사학위논문을 쓰는데 북괴의 경제관계문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동인에게 전시 박일영과의 관계를 말한 후 같이하면 만나서 얻어준다고 하여 박일영을 찾아가 동 조명훈을 소개 접선케 한 다음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북괴의 발전상 공산주의이론 등의 교양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회합하고

3. 1961년 3월경 동독주재 북괴공작원인 이원찬 명의로 동백림 박일영 집에서 만나자는 서신연락과 동인이 송금한 여비 미화 2백불을 받고 전시 장소에서 최상옥의 서신을 전달받은 후 이원찬으로부터 예술은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공산주의이념을 교시받는 등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회합하고

4. 동년 11월경 전시 이원찬으로부터 접선하자는 지령을 받고 동백림 소재 안전가옥에서 회합하고 피의자는 처 이수자가 1961년 9월 도독하여 동거중이라고 이원찬에게 제보, 이원찬은

가. 처 이수자를 1962년 4월 데리고 와서 접선시켜라

나. 최상옥 장남을 독일 유학토록 주선, 도독케하여 접선시키라는 등 공작사명을 받음과 함께 공작금조로 미화 2백50불을 받고 돌아와서 처 이의 동의를 얻어 한국 부산에 거주하는 최상옥 처에게 장남 최정길을 서독 유학시킬 것이니 준비하라고 연락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실천하였으며

5. 1962년 4월 5일경 피의자는 처 이수자를 대동하고 전시 장소에게 동 이원찬과 접선, 처 이를 소개 접선시키고 안전가옥에 2주일간 체류하면서 공산주의교양을 받는 동시 동 이원찬으로부터 동년 8월초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세계공산청년축전대회에 부부 같이 오라는 지령과 공작금조로 미화 8백불을 받은 사실이 있고

6. 1962년 7월말 경 전시 지령에 따라 피의자는 처 이와 같이 「헬싱키」로 가서 동 이원찬과 접선, 북괴 구성원이라는 노동당과장 김모를 소개받은 다음 동인의 안내로 동 시내 소재 아파트에 숙소를 정하고 약 5일간 투숙하는 동안 동 이원찬·김과장으로부터 1963년 4월 하순 북괴 평양에 가자는 지시에

동의하고 미화 8백불을 수수하고 귀환한 사실이 있고

7. 1963년 4월 하순 처 이와 더불어 북괴에 입북코자 이원찬과 접선하고 동인의 안내로 소련 「모스크바」 경유 평양에 도착, 소위 김일성대학 신축지 근처 비밀아지트에 수용된 후 동년 5월 30일경부터 동년 6월 20일경까지 3주간에 걸쳐서 북괴요인들과 접견, 중요 시설을 관람한 후 공작기본사명으로

가. 구라파 전역에 유학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 교수, 노동자, 간호원, 일반인 등을 동독에까지 유인, 지하당원으로 포섭하라

나. 최상옥 장남을 도둑케 하여 이원찬에게 접선케 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 이원찬 안내로 중공의 북경과 소련 「모스크바」에 들러 각각 1박하면서 그곳의 중요건물 공장, 고적을 구경하고 동 5월 22일경 동백림에 귀환, 아지트에서 이원찬으로부터

가. 서독 「부퍼탈」 소재 「타게」 직물공장의 기술견습생인 한인의 실태와 포섭가능여부를 내탐, 다음 접선시 보고하라.

나. 서백림을 바로 가면 비밀이 노출되니 화란 등으로 돌아 수일 후 귀가하여 위장하라는 지령과 공작금 미화 1천불 및 최상옥 장남의 도둑여비자로 8백 50불을 수수하고 화란 등지를 돌아 3,4일후 귀가한 사실이 있고

8. 동년 9월경 전시 「타게」 직물공장 한인견습생 남녀 각각 2명씩을 만나 동 실태를 1964년 2월경 이원찬을 접선시 보고한 사실이 있고

9. 1964년 1월 서독 「퀸른」에서 미국 「포드」 재단 초청을 구실로 북괴공작책 이원찬과 접선을 용이케 하고자 서백림 시내로 이동한 다음 동년 2월경 서독 「아헨」 공대에서 학위과정연구중인 최창진을 포섭하여 동백림 아지트에서 접선시킨 다음 이원찬으로부터 부산국제신문사장과 주필 및 부산철기공장 사장 등을 포섭할 수 없느냐고 문기에 피의자는 세사람과는 동향인이나 오랫동안 접촉이 없어 자신이 없다한즉 이원찬은 동인 등을 초청하여 자기와 평화통일문제를 토론케 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가한 사실이 있고

10. 동년 2월경 북괴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상옥 장남을 도둑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백림거주 독일인 작곡가 「불후강·스텔현」의 재정보증을 얻어 입국수속을 마친 다음 전시 이원찬으로부터 수령한 여비 8백 50불을 당시 서울한국은행 근무중이던 이모 앞으로 송금함으로써 동년 9월 중순 동 최모를 도둑케하여 이원찬과 접선시켜 북괴 평양에 입북시키고 간첩으로 활동케하였으며

11. 전시 이원찬 지령에 의거, 1964년 10월경 당시 부산국제신문사장 및 부산철기공장사장에게 서신으로 『구라파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서백림으로 찾아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한 바 신문사사장으로부터는 회답이 없었고 철기공장사장으로부터는 『갈수 없다』는 회답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12. 전시 북괴지령을 완수할 목적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박영을 1964년 7월경 도둑케하여 서백림에 거주시킨 다음 처 이모와 공히 이를 포섭하여 1965년 3월경 이원찬과 접선시킴으로써 북괴간첩으로 활동케 하고

13. 1965년 5월경 동 이원찬으로부터

가. 서독 「본」 거주 독일방송국직원 김 웅

나. 모당정책연구실장

다. 서서 원자력연구소 근무 진모

라. 불란서 파리 화가 이 응로

마. 주독대사관직원

등을 알며 이들을 포섭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므로 계속 알아보겠으나 현재로서는 모두 불가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동 이원찬으로부터 동독 「두이스부르크」 광산 한인광부회장 김모를 만나 실정을 알아보고 포섭여부를 내탐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가한 사실이 있고

14. 동년 7월경 전시 지령내용의 광부회장 김모의 포섭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동 「두이스부르크」 광산에 가 김회장을 면접 내탐 결과 불가능했으므로 동년 8월경 동 이원찬과 접선결과를 보고하였더니 이원찬은 앞으로 자기가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언제까지 오너라는 것을

암호=언제까지 그 물건 보내라로
그 회답을 할때 언제까지 간다를
암호=언제까지 그 물건 부친다
못간다를

암호=그 물건 못부친다로

포섭여부 확인보고

포섭가능하다를

암호=그 물건 상이다로

포섭 가, 불가도 아니고 완미하다를

암호=그 물건은 중이다로

포섭할 수 없다를

암호=그 물건 하다로

라고 일어로 써서 「동백림 칼스홀스트·완두밀쓰·스타랏세 7번지 강」의 앞으로 서신하라는 등 비밀 연락방법에 관한 지령을 받고 귀가한 사실이 있고

15. 1966년 3월경 동백림 아지트에서 동 이원찬과 접선하여 백이의 브뤼셀시 거주 유학생 이영수를 만나 포섭하라는 지령과 공작금조로 미화 1백 50불을 수수하고 브뤼셀로 가서 이영수를 포섭해보았으나 불가하므로 귀가, 암호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고

16. 동년 5월경 이원찬과 동백림 아지트에서 접선하고 서전 「스톡홀름」에서 건축기사로 있는 유동호를 포섭하라는 지령과 공작금 이화 2백불을 수수, 「스톡홀름」에서 접선 포섭코자 설득했으나 거절하므로 목적을 달성 못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고

17. 1967년 3월경 이원찬을 대신하는 김모를 동백림 아지트에서 접선하고 동인으로부터 서독 「본」 대학에서 유학중인 안병준에게 일본 조총련계에서 활동타가 입북한 형 안업준의 서신지령과 공작금조로 미화 백불을 수수하고 귀가한 후 동 서신을 전하지 않고 피의자 책상 속에 은닉하는 등으로 활동함으로 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불법지역을 왕래하고 그들로부터 대남적화통일공작지령사항을 수행하여 부부조로서 간첩활동을 한 자이다. (1967. 7. 12. 동아일보)

(8) 최정길

본적지에서 아버지 최상옥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통영초등학교 4년시 6·25동란으로 동년 9·28 부 최상옥은 괴뢰군과 동도 월북하고 그후 편모 김모 슬하에서 자라 14세시 동교를 졸업, 통영중학교를 거쳐 20세시 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상대무역학과에 진학, 1964년 9월 19일경 도독 「헛센」주 「기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 동고 3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친부가 월북했다는 점과 항상 빈곤한 생활을 영위해온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체제에 회의를 품고 대한민국 현 사회제도에 불만을 표지하여 오던 중

1. 1964년 7월 말경 피의자의 부 최상옥의 친우인 윤이상이 북괴지령에 따른 유학생 서독 유치를 위하여 북괴로부터 수수한 미화 8백불을 한국은행 외환관리부직원 이모(37세)에게 송금한 것을 피의자가 수수한 후, 윤의 주선에 의해 유학생으로서 도독, 동년 9월 19일 14시경 서백림에 도착하자 공항에서 전시 윤이상 및 동인의 처 이수자를 상면한 후 동인 등에 포섭되어 동독 북괴대사관에서 회합할 것을 수락하고

2. 동인은 동안가에서 1박하고 동년 9월 20일 14시경 윤모의 안내로 북괴대사관 안전가옥인 성명미상 한인가에 수용되어 북괴공작원 이원찬 외 1명과 회합, 동인 등과 자신의 서독대학 입학문제를 토의하고 윤이상과 같이 동안가에서 1박하였으며 익 9월 21일 13시경 동안가에서 전시 북괴공작원 성명미상으로부터 생활비 명목하에 공작금 미화 4백불(1백불 4매)을 수수하는 동시 1964년 12월 크리스마스에 다시 오라는 지령을 받고 주거지인 서독 「기센」시 「프리드리히」가에서 단신 서백림 버스편을 이용, 동일 5시경 서백림에 도착, 전시 윤가를 방문, 동인에게 동백림 북괴공작원을 상면하러 간다는 뜻을 고하고 동일

7시경, 전시 전차편 「스트라센반」을 이용, 동백림 「후리드리히」역에 도착, 동부근 소재 공중전화를 이용 궤전(전화 502890)한바 동일 20시 30분경 흑색 승용차로 영접나온 전시 성명미상과 상면, 동인의 안내로 성명미상 한인가에 안내되어 동가에서 3박하는 동안 성명미상 공작원으로부터 제공된 등대, 노동신문, 회상기 등을 탐독하고 「꽃피는 평양」을 관람하였고 전시 숙소에서 북괴공작원으로부터 한국에 친한 학우로서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 「경남 충무시 문화동 139」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김정홍(28세) 등이 있다고 진술하고 동인으로부터 공작금 미화 5백불(백불 권 5매)과 맑스레닌주의 1권, 상업지식 상하2권, 회상기 1권을 수수하는 동시 하기방학시 다시 오라는 지령을 수수하고 동년 12월 29일 15시경 전시한 전차편으로 귀가한 사실이 있고

4. 1965년 8월 초순경 하기방학을 이용, 「기센」시에서 열차편으로 동일 오후 2시경 「하노바」시에 도착, 동지에서 항공편을 이용 동일 오후 3시경 서백림에 도착하여 윤이상가를 심방하였으나 부재중이므로 동 부인인 상피의자 이수자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고 동일 오후 4시경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동백림에 가서 북괴공작원 이·김(약40세가량) 등과 접선, 전시 한인가에서 3박하면서 부 최상옥의 소식을 문의한 바 최상옥은 사리원에서 음악지휘자로서 명성이 높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들은 바 있고 동 이공작원으로부터 「기센」대학에 친한 학생이 누구냐 라는 물음에 동 대학생 유준수(38세) 하영득(29세) 권화자(26세) 김복자(26세) 등이라고 명단을 보고한 후 동 학생들의 동향을 살피고 포섭공작을 하여 보라는 지령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공작금 미화 5백불을 수수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고

5. 1966년 2월 16일 18시경 동백림을 심방, 전시 북괴공작원 이·김 양명과 접선, 동인들에게 유준수(「기센」대학 철학과 3년생) 하영득(「기센」대학 화학과 4년생) 권화자(동대학부속 기술전문학교 2년생) 김복자(동대학부속안과병원 간호원, 현재는 동대학 수의과 1년생) 등의 인적사항과 동향에 대한 보고를 한즉 계속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설득공작하고 동년 하기방학에 다시 오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4백불과 공산서적 3권을 수수한 후 귀가하여 탐독한 사실이 있고

6. 1966년 8월 2일 16시경 다시 「프리드리히」역에서 북괴공작원 이·김과 접선되어 동인 등의 안내로 동년 8월 5일 14시경 항공편으로 동백림을 출발 「모스크바」에서 1박하고 동년 8월 6일 11시경 「울스크」경유 8월 7일 12시경 평양에 도착, 북괴중앙당연락부 부부장 등의 영접을 받고 동인 등과같이 평양동방 약 20km 상거한 독립안전가옥에 수용된 후 갖은 선전과 교양을 받다가 8월 9일 15시경 신부 최상옥과 상면, 부와 같이 2박후 8월 13일 11시경 평양을 출발 8월 16일 10시경 이모공작원으로부터 서독 「본」거주 김웅(약37세)과 「만하임」에 거주중인 김주철의 본적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은 후 공작금 미화 5백불과 북괴발행책자 3권을 수수하였고

7. 1967년 2월 27일 17시경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백림에 도착, 전시 아파트에서 북괴공작원이 이·김과 접선하고 동년 3월 2일 전시 코스에 의하여 귀가한 바 보고사항으로서 김웅은 「본」에 있는 주거지에 살지 않아 상면치 못하여 본적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김주철은 「만하임」에 소재하는 B.B.C전기공장에서 근무중인바 현재 결혼하여 처와 동거중이라고 보고하여 지령사항을 이행한 자로서 본명은 북괴로부터 공작금 미화 3천 5백 50불, 난수표, 암호표 등을 수수, 불법지역을 왕래하면서 지령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 자이다. (1967. 7. 12. 동아일보)

(9) 임석훈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 3년 재학중 육군에 입대, 제8사단에서 복무중 유학시험에 합격되어 1958년 12월 중순경 유학조건으로 귀휴제대한 후 1959년 3월 초순경 도독, 서독 「다름슈타트」시에 소재한 「다름슈타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였고 1963년 4월 일자미상경 서백림대학교 공과대학화학과로 전학하여 1966년 2월 일자미상경 동대학 사진화학부를 졸업하고 유기화학부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업하고 있는 바 도독후 북괴에서 보내오는 선전물에 감화되었음은 물론 실형인 상피의자 임석진으로부터 교양을 받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었고 북괴가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성취하고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 간첩활동을 하여오던 자로서

1. 1960년 8월 일자미상경 단체관광여행차 서백림에 여행하게 됨을 기화로 1일간의 자유시간이 허용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동백림 소재 북괴대사관을 방문, 동 대사관 문정관 석학철(45세)과 접선하고 동대사

관에서 동인으로부터 『재서독학생들이 단결하여 한국대사관 앞에서 반정부적인 데모를 전개,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북괴가 주장하는 평화통일과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재차 입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독으로 귀환한 사실을 필두로 하여

2. 1961년 3월 일자미상경 전시 석학철의 지시에 따라 동백림소재 북괴대사관을 방문, 동대사관직원 숙소로 안내되어 약 3일간 수용되어 북괴 구라파 공작책임 이원찬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북괴에 대한 선전 교양을 받는 동시에 서독유학생인 구모(34세)·이모(31세) 양인을 포섭대상자로 선정, 동인 등에게 교양을 주어 동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작지령과 공작금으로 미화 1백 50불을 수수한 후 서독으로 귀환하여 즉시 동 이모와 접선, 포섭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3. 1961년 10월 일자미상경 동백림에 도착, 이원찬으로부터 공작에 대한 교양을 받는 동시에 이모 등 포섭공작내용을 보고하고 계속 이원찬으로부터 재독 유학생과 접선하여 동조자를 대동 입동하라는 지령과 공작금으로 미화 8백불을 수수후 서독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4. 1962년 4월 일자미상경 동백림의 북괴대사관을 방문, 공작원 이원찬과 접선하고 정치적인 교양을 받는 동시에 재독 유학생중 신모(36세)와 하태규(30세) 등을 포섭대상자로 보고하고 동소에서 이원찬으로부터 신·하 양인을 포섭하여 대동 입동하라는 지령과 공작금 미화 2백불을 수수하고 서독으로 귀환하였고
5. 동 하태규와 접선한 결과 그 동조를 얻어 1962년 12월 중순경 하태규를 대동하여 동백림에 도착, 이원찬으로부터 임석진의 활동을 협조하라는 지령과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한 후 하태규를 대동, 서독으로 귀환하였고
6. 1963년 3월 1일 서백림시로 이도한 후 동년 3월 5일 동백림으로 입동, 이원찬과 접선하여 서백림 이도 사실을 보고하고 이원찬 입회하에 북괴노동당에 입당, 선서하는 동시 이원찬으로부터 재독 유학생 포섭공작에 대한 지령과 상화 연락 및 접선용으로 난수표·송수신용 각 1조와 암호해독표 등을 수수하고 공작금으로 미화 1백불을 수수한 다음 서백림으로 귀환하였고
7. 1963년 5월 일자미상경 전시 이원찬으로부터 입동하라는 서신 연락을 받고 동백림 소재 북괴대사관을 방문, 동 대사관 북괴공작원 정모(43세)와 접선하고 동인에게 기술훈련차 서독에 체류중인 피의자 김광옥(32세)과 전시 하태규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김광옥의 동태를 계속 파악하고 하태규는 재차 대동 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서백림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8. 1963년 8월 일자미상경 전시 하태규가 피의자를 방문하자 재차 입동할 것을 권유하여 하태규의 동조를 얻어 대동코 동백림 소재 북괴대사관을 방문,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한 후 하태규를 대동, 서백림으로 귀환하여 전시 김광옥과 어준(형 재복중) 등을 접촉하였고
9. 1964년 2월 일자미상경 전시 어준에게 입동할 것을 권유하여 그 동조를 얻어 동백림 북괴대사관을 방문, 공작책 이원찬과 접선하고 정치적 교양을 받는 동시에 어준의 실형에 대하여 보고한 후 2주일 후 재차 접선할 것에 합의하고 어준을 대동, 서백림으로 귀환하였고
10. 1964년 3월 초순경 동백림소재 북괴대사관을 방문하고 이원찬으로부터 어준의 실형이 보내는 편지와 공작금(액수미상)을 어준에게 전달하라는 지령을 받음과 동시에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하여 서백림으로 귀환한 후 어준을 만나 편지와 공작금을 전달하였고
11. 1964년 5월 중순경과 1964년 7월 초순경 각각 전시 김광옥과 생활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상구를 대동, 동백림 북괴대사관을 방문하여 전시 공작원 이원찬과 접선하여 계속 공작하라는 지령과 공작금으로 미화 1백불을 수수하고 서백림으로 귀환하였고
12. 1964년 7월 중순경 실매 임애자(일명 임현정)를 안내하여 동백림 소재 북괴대사관을 방문, 이원찬과 접선케한 후 귀환하고 1964년 7월 하순경 다시 동백림 북괴대사관을 방문, 이원찬과 접선하여 다시 동백림 북괴대사관을 방문, 이원찬과 접선하여 새로 난수표(수·발신용)·암호표·해문요령서·암호방법서 등을 교부받고 연락방법에 대하여 재확인한 후 임애자를 안내하여 서백림으로 귀환한 후 임애자를 서독으로 귀환하였고
13. 1964년 9월 초순경 귀국여비가 부족한 김광옥에게 간첩임무를 부여하여 귀국기킬 목적으로 동인을 대동하여 이원찬과 접선, 김광옥을 귀국전인 동년 9월말경 재입동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귀환한 사실이

있고

14. 1964년 9월 중순경 북괴간첩 임석진이가 포섭, 대동 입동하여 이원찬에게 인계한 서독유학생 천병희를 서백림으로 안내하라는 지령에 따라 인수하여 서백림으로 귀환하였고

15. 1964년 9월 말경 북괴의 지령에 따라 김광옥과 정상구를 각각 입동케하였고 1964년 10월 일자미상 경에는 그 지령에 따라 공작책 이원찬과 접선하여 김광옥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귀국하였음을 보고하고 이원찬으로부터 재독유학생을 계속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서백림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16. 1965년 2월 중순경 지시에 따라 이원찬과 접선하여 이원찬으로부터 동독제 현미경 1대를 북괴 간첩 임석진에게 전달하라는 공작금으로 미화 1백 50불을 수수하고 동백림 경계선까지 북괴대사관 김모와 정모의 호송을 받고 그 후 단신으로 서백림을 경유, 서독 「본」시에 거주하는 임석진에게 동 현미경 1대를 전달하고 서백림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으며

17. 1965년 3월 초순경 동백림 북괴대사관에 소환되어 이원찬과 접선하고 약 4일간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은 후 북괴대사관 공작책 정모의 안내로 동백림 출발, 소련 「모스크바」에 도착 1박하고 익일 단신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여 북괴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성명미상)과 성명미상 과장의 안내로 평양 모란봉 후편에 소재한 밀봉아지트에 수용되어 약 4일간 체류하면서 동 과장과 성명미상 지도원(40세가량)으로부터 대남공작방법에 대한 교양을 받는 일방 평양시내와 함흥 등지의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구경한 후 동 부부장으로부터 서독으로 귀환 후에는 주로 광부를 상대로 포섭공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양을 출발, 소련 「모스크바」 경유 동백림에 도착, 북괴대사관에서 이원찬으로부터 북괴 간첩 임석진의 식당 운영금 미화 1백 50불을 수수하고 서백림으로 귀환하여 임석진가를 방문, 동 자금 미화 2천불을 전달한 후 서독 광부가 많은 서독 「발쭈」광산을 방문, 초등학교 동창생인 광부 성모를 면접코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서백림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18. 1965년 6월 말경 이원찬의 지시로 동백림 북괴대사관의 북괴 공작원 이모와 접선하여 그의 지령에 따라 임석진에게 식당운영자금은 처가에서 송금되어 온 것으로 위장토록 하고 동업자 중국인(성명미상)에게 속지 말라고 전달하였으며

19. 1965년 6월 하순경 평양으로 갈 때 임애자를 안내하여 동백림에 입동시켜 북괴대사관을 방문케하여 입북시킨 사실이 있고 동년 7월 중순경 북괴 평양으로부터 귀환하는 동 임애자를 출영 안내하고자 동백림 북괴대사관을 방문, 이원찬과 접선하여 이원찬에게 임석진은 중국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서독 「본」시에 점포를 구하였다는 지를 보고한 후 전시 임애자를 대동하고 서백림으로 귀환하였고

20. 1965년 8월 말경부터 1965년 11월 중순경까지 전후 3차에 걸쳐 이원찬의 지시에 따라 동백림 북괴대사관을 방문, 이원찬 및 공작원 이모와 각각 접선하여 임석진의 식당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자금지원을 요청한 후 서백림으로 귀환하고

21. 1965년 12월 20일경 이원찬의 지시로 동백림 소재 북괴대사관을 방문, 이원찬 및 북괴 김일성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는 하양천과 접선하고 동인 등으로부터 현재 불란서에 유학중인 서경옥과 결혼하기 위하여 만나보고 오라는 지령과 또 불란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파서독 광부 성모를 만나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으로 미화 2백불을 수수한 후 서백림으로 귀환하고

22. 1965년 12월 27일경 「본」시에 거주하는 임석진을 방문, 동인으로부터 불란서 거주 정하룡에게 보내는 소개편지를 받아가지고 익일 불란서에 도착하여 정하룡에게 동 서신을 수교한 후 동인의 주선으로 서경옥과 접선한 후 서독 「발쭈」광산으로 직행하여 광부 성모와 계속 접촉을 갖고 포섭코자 하였으나 실패라고 서백림으로 귀환하였고 1966년 1월 중순경 동 활동결과를 동백림에 있는 이원찬에게 보고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고

23. 1966년 12월 말경 이원찬의 지시로 동백림 북괴대사관에 있는 공작원 이모와 접선하고 간첩 정규명에게 전달할 편지와 공작금을 밀봉한 봉투 1통과 공작금 미화 1백불을 수수한 후 즉시 서독 「프랑크푸르트」에 거주중인 동 정규명을 방문하여 동 밀봉봉투를 전달하고 정규명으로부터 동독 북괴대사관에 보고할 소형 책자가 밀봉된 봉투 1통을 받아 1967년 1월 중순경 동 봉투를 동백림 북괴대사관 공작원 이모에게 전달하고 서백림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북괴공작원의 지령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암약 중이던 북괴간첩이다. (1967. 7. 15. 동아일보)

(10) 어준

1956년 3월 서울대 공대 통신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대한중공업공업사 기술사원, 수도공고 전기과교수를 거쳐

1962년 8월 경제기획원 기술훈련계획에 의거, 도독하여 서독 「시멘스할스크」 회사에서 기술습득, 1964년 4월 10일 귀국후 호남비료 나주공장, 서울 호남엔지니어링 회사를 거쳐 현재 서울현대계장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중인 자인바

1. 피의자는 경제기획원의 기술훈련계획에 따라 1962년 8월에 서독에 파견되어 동백림 시멘스할스크 회사에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체제중 알게된 임석훈이가 6·25 당시 월북하였는지를 모를 자기 형 어준의 소식을 북괴대사관에 가서 알아보자는 데 동의하여 1963년 11월 하순 그의 안내로 북괴대사관을 방문, 동관공작책 이형욱(일명 이원찬)을 접견하고 실형의 소식을 알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동년 12월 중순경 임석훈으로부터 어준은 북한에 현주하며 신의주 인위 지방산업국 부국장으로 있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자 2일후 다시 임석훈을 동반 동백림 북괴대사관 이형욱을 방문, 동 북괴대사관에서 어준과 미국 「뉴욕」 주 「컬럼비아」 대학 유학중인 실제 어근 등과 면회토록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서백림 숙소로 귀환한 일이 있고, 1964년 1월 하순경 서독 「칼스루에」에 이동 체류중 임석훈을 통하여 실형 어준의 친필봉서와 동년 3월 1일 동백림 북괴대사관에서 3형제 면회가 실현된다는 이형욱의 봉서 및 미화 6백불 등을 받고 동 어근에게 연락하여 3월 1일 예정대로 동백림 북괴대사관에서 양자가 실형 어준을 면회하였고

2. 1964년 3월 2일~3월 6일 동백림 북괴대사관 근처 아지트에서 북괴공작원 2명으로부터 공산주의와 북괴에 대한 교양을 받는 동시에 이형욱의 권유로 북괴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번호를 수여받고

가. 귀국후

- ① 일반대중·노동자·지식층을 선택하여 점조직 지하당을 조직할 것
- ② 쓸모있는 이공계통의 학생을 선발하여 서독에 유학토록 공작하고 보고할 것
- ③ 귀국후 A-3방송에 의한 지령을 청취 실행하며 북한에서 남파되는 간첩을 지시대로 접선할 것
- ④ A-3방송 호출부호로 277번을 지정받고 방송은 우수 월 16일 2시로 한다
- ⑤ 보고방법은 보고사항을 한국내의 월간잡지 사상계 신동아 등의 제1백 페이지 여백에 포도당 20% 증류수 80% 비율로 섞어서 암호수자로 기입하여 임석훈에게 보낼 것 등 지령을 받고

나. 전시 A-3 방송을 수신하는 수신용 난수표와 서신 발신용 난수표 1조 및 동 해독표를 수교받고 즉석에서 발수신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는 동시 귀국 후 유사시 월북비상선으로서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간조선을 이용, 월북하고 당증번호 또는 호출부호 277번을 고하고 안내를 구하라는 등 간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고,

다. 이형욱으로부터 공작금조로 미화 1천불을 수교받은 후 3월 7일 11시경 실제 어근과 동도, 서독 「칼스루에」에 귀환하였고,

3. 1964년 4월 10일 귀국후 1965년 2월 16일 2시 호남비료나주공장 독신료 310호실에서 A-3 방송을 수신한 결과 『과업이 잘돼가기를 희망, 건투를 빈다』, 동년 6월 16일 2시 수신결과 『다음 전문부터는 매일 지정일시에 방송을 한다』

동년 8월 16일 2시 수신결과 『제 어근이 귀국하고 있으면 미국에 돌아갈 때 서독을 경유하여 이형욱과 접선케하라』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암호방송 지령을 받고 당시 미국으로부터 일시 귀국 재가중인 어근에게 동 지령 내용을 전달하고 동독경유 미국에 돌아갈 것을 지시하였던 바 동 어근은 1965년 9월 중순 공로 동독을 경유 미국으로 귀환코자 하였으나 서독에서 입국비자를 얻지 못하여 이형욱과의 접선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며

4. 지하당 조직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1965년 9월 초순경 및 1966년 4월 초순경 등 2차에 걸쳐 자기 근무하는 직장직원 배모 등을 포섭코자 기도하였으나 상대방의 동조를 얻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이 되어 북괴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한 자이다.

그리고 그의 처 황춘성은 그의 형 어원, 그의 자 어정희, 그의 형수 권태숙 등은 어준이 귀국후 그로부

터 동백림 북괴대사관원 이형욱의 주선과 여비보조로 6·25당시 월북한 형 어순과 미국에 있던 동생 어근 및 자기 3형제가 동북괴대사관에서 만나 1주일간을 같이 지내다가 돌아왔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내심 어준이 간첩의 지령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조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1967. 7. 15. 동아일보)

(11) 강빈구

경기중고등학교를 거쳐 1955년 7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교 대학원에 진학, 동년 10월 군에 입대, 1957년 6월 상병으로 만기제대한 후 동년 10월 유학차 도불, 파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수학하다가 1958년 3월 불란서 「디종시 시종」 대학교 법과로 전학, 동교에서 1962년 10월 법학(상법)박사학위를 획득하는 동시 독일인 하이드론 강과 결혼하였으며 1963년 2월 귀국하여 동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상과대학 강사로 근무중 1964년 3월 상대 조교수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른 자인 바

1. 노봉우가 북괴 대불란서 공작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10월 6일~미월 23일 불란서 파리에서 2차 접선하고 동인으로부터 북괴의 평화통일방안 등 내용의 교양을 받고 동백림주재 북괴대사관원과 접선하라는 권유를 수락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함을 위시하여

2. 1962년 12월 13일경 처인 상 피의자 「하이드론 개린드」를 대동하여 동백림에 잠행, 북괴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구라파 공작총책 이원찬 및 허모와 접선, 5일간 동소에 체류하면서 동인 등으로부터 북괴를 찬양하는 내용의 교양을 받는 한편 여비조로 공작금 미화 3백불을 수수후 서독 「비르헬트」 시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3. 1963년 1월 하순(일자미상)경 전시 이원찬의 지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동백림에 이르러 이원찬 및 허모 등의 입회하에 북괴노동당에 입당하였고

가. 동인으로부터

①귀국후 출판사를 개업하여 회색잡지를 발간하라 ②동백림에 파견할 수 있는 자 2명을 포섭하여 밀파시키라 ③지하당을 조직하라 ④귀국 즉시 조선일보 지상에 안착신호를 하라는 지령을 받고

나. 공작수행을 위한 교육으로 난수표 해독법·A-3 청취요령·통신조직·도피·선동·접선방법 등 각종 교양을 받음과 동시

다. 공작금품으로 미화 8백불·난수표 1조·북괴선전용 책자 수권 등을 수수하고 서독으로 귀환한 사실이 있고

4. 1963년 2월 21일경 처 강 「하이드론」을 동반 귀국하자, 전시 이원찬의 지령에 의거 1963년 3월 9일자 조선일보 3면 광고란 14·15단에 「귀국인사 말씀」이란 제하에 안착신호를 한 사실이 있고

5. 피의자는 1963년 3월 25일~26일 1시 사이에

가. 무사히 조착하였으니 반갑다

나. 지령사항을 조속히 실천하라는 내용의 A-3 방송을 처인 강 「하이드론」과 동석 청취한 사실이 있고

6. 1963년 3월 일자미상 경부터 동년 5월 일자미상 경 사이에 이원찬의 지령사항인 동독밀파인물을 포섭코자 물색중 과거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이국종과 접촉을 가지면서 자신이 북괴의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개진 동인의 동조를 얻음으로써 완전 포섭한 사실이 있고

7. 1963년 5월 하순(일자미상)경 전시 이국종의 포섭경위를 책명 미상 잡지표면 이면 접착부분을 박피하고 전시 내용을 암호로 발신, 파리거주 간첩 허봉우에게 우송 보고한 사실이 있고

8. 1963년 7월 일자미상경 이원찬으로부터 이국종을 빨리 동독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암호발신문건을 불어소설 표지 이면 접착부분에 은닉 우송되어온 것을 받은 사실이 있고

9. 1963년 11월 일자미상경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인 김모·박모·이모·이모·성모 등 6명을 시내 총정로 3가 306소재 피의자에게 초치코 고급불어강의를 겸하여 불서 「인류의 미래」란 사회주의적인 책자를 강의, 동인 등의 동조를 얻어 동인들을 포섭할 것을 기도한 사실이 있고

10. 또한 동년 11월경 피의자는 시내 명동소재 옥호미상 주점에서 지령사항인 출판사 개업을 위한 동조자로 상피의자 천상병을 포섭한 사실이 있고

11. 1964년 2월 25일~26일 양일 0시~1시에 자택 서재에서

가. 이종국을 빨리 보내라

나. 출판사를 빨리 개설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A-3 방송을 통하여 청취한 사실이 있고

12. 1964년 6월 7일경 피의자는 귀국후의 전향 사업보고를 위하여 처인 강 「하이드론」을 그의 생모 문병차 귀독케 함에 있어

가. 이국종을 완전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다

나. 출판업은 여건이 좋지 않으며 위험해서 못하겠다

다. 법대생 6명을 포섭코자 추진중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문건을 암호로 작성, 은닉 휴대케하여 서독 경유 북괴공작책 이원찬에게 제보케 한 후 이원찬으로부터 강 「하이드론」은 이국종의 여비조로 공작금 미화 1천 5백불을 서독 「비르헬트」시 「드레이시드너」은행 지점에 자기 명의로 예치시킨 후 그 중 8백불을 1964년 8월 하순 일자미상경 한 국은행 경유 송금한 것을 기화로 환산인출하여 1965년 1월 조흥은행 서대문지점 강 「하이드론」구좌에 예입하고, 상피의자 이국종에게 월 4천만원씩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고

13. 피의자는 1964년 11월 일자미상경 이국종이가 동백림에 갈 것을 거부하자 본건 탄로를 겁내고 강 「하이드론」과 공모하여 자택 욕실 세면장에서 강 「하이드론」으로 하여금 난수표 등 통신문건을 소각케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위하여 부부조로 북괴간첩 활동을 한 자이다. (1967. 7. 14. 동아일보)

관련 인물 :

임석진, 윤이상, 정규명, 이응로, 황성모, 천상병 등

1. 관련 인물의 인적사항 (①본적 ②직업)

정하룡(34세) ① 서울 ② 경희대 조교수(정치학박사)

정규명(39세) ① 서울 ② 프랑크푸르트대 이론물리학과 연구원

임석진(36세) ① 서울 ② 명지대조교수(철학박사)

조영수(34세) ① 서울 ② 전 동국대 및 외국어대 강사

이응노(64세) ① 충남 예산군 ② 화가

임석훈(33세) ① 서울 ② 서베를린 공과대학교 유기화학과 박사과정

윤이상(50세) ① 경남 충무시 ② 재 서독 작곡가, 전 서독한국인회 회장

어준(41세) ① 서울 ② 현대계장주식회사 전무

강빈구(36세) ① 서울 ② 서울대 상대 조교수(법학박사)

천병희(29세) ① 경남 고성군 ② 서울대 사범대 전임강사(불문학박사)

박성옥(36세) ① 서울 ② 크로크나탄광 광부

최정길(21세) ① 경남 충무시 ② 서독 키센대학교 학생

김중환(44세) ① 서울 ② 서울대 의대 조교수 (한일병원 과장, 의학박사)

황성모(42세) ① 경남 사천군 ②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철학박사)

김성철(34세) ① 전남 무안군 ② 서독 광부

정상구(31세) ① 서울 ② 미국 워싱턴대학교 학생

김중태(25세) ① 서울 ② 신민당 운영위원, 전 민족주의비교연구회 회장

현승일(24세) ① 경북 칠곡군 ② 서울대학교 출판부원,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회장

김도현(23세) ① 경기도 인천시 ② 전 민족주의비교연구회 회원, 언론인

2. 피고인별 선고량 (괄호 안은 첫 번째 항소심 선고량)

황성모 (41, 전 서울문리대 부교수,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김중태 (25, 신민당 운영위원,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현승일(24, 서울대 출판부원,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김도현 (23, 무직,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무직

1968. 12. 5.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김윤행 부장판사)는 「동백림」 사건 두 번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하룡, 정규명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조영수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윤이상 피고인 등 나머지 9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에서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별 선고량 (괄호안 ①은 첫 번째 항소심 선고량 ②는 두 번째 항소심 구형량)

정규명 (40, 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 ①사형 ②사형) 사형

정하룡 (35, 경희대 조교수 ①사형 ②사형) 사형

임석훈 (33, 서베를린 공대 박사과정 ①사형 ②무기징역)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조영수 (25, 전 외대 강사 ①무기 ②사형) 무기징역

윤이상 (51, 작곡가 보석중 ①징 15년 자 15년 ②사형) 징 10년 자 10년

어 준 (41, 현대계장주식회사 전무 ①징 15년 자 15년 ②무기징역) 징 15년 자 15년

강빈구 (36, 서울상대 조교수 ①징 19년 자 10년 ②무기징역) 징 10년 자 10년

천병희 (30, 서울사대 전임강사 ①징 10년 자 10년 ②사형) 징 10년 자 10년

최정길 (21, 서독 키센대 학생 ①징 10년 자 10년 ②사형) 징 10년 자 10년

김중환 (45, 한일병원 과장 ①징 10년 자 10년 ②징 15년 자 15년) 징 7년 자 7년

김성철 (34, 서독 광부 ①징 3년6월 자 3년6월 ②징 5년 자 7년) 징 3년6월 자 3년6월

정상구 (31, 미국 워싱턴대 학생 ①징 3년6월 자 3년6월 ②징 7년 자 7년) 징 3년6월 자 3년6월 (징=징역, 사=사형)

1969. 3. 31. 대법원 형사부 (재판장 방순원 판사)는 「동백림」 사건 정규명, 정하룡 등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형이 확정함. 9관련 피고인들 중 이응로, 박성욱 등은 첫 번째 항소심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상고취하로 두 번째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윤이상, 최정길, 임석훈, 김성철 등 피고인 6명은 신병을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석방됨)

관련 단체 : 없음.

관련 사건 :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사건

관련 자료 :

-동아일보 1967년 7월 8,12,13,14일자

-조선일보 1967년 7월 12,16,18일자

-공안사건기록, 세계총서 22, 1986

-‘사건들-한국의 상황’, 슈피겔지,제36호,1967

-“나는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W.헨트셀 슈피겔지 편집인, 상동

-“그래서 연방헌법청(BND)이 그토록 화가 났다” 한국중앙정보부장 김형욱과의 대담, 상동

-한국인 납치사건에 대한 본의 입장은 독일측의 공모에 관한 소문을 침묵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인츠 회플 편집위원 ,쥐드도이체짜이퉁,1968.1.12

-K.G.키징어 연방수상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1967

-독일 연방의회 제3기 제205차 회의 회의록 중 동백림사건 부분, 1968.12.12

-유영구, 남북을 오고 간 사람들, 글, 1993

-이영빈, 동백림사건, 베를린리포트, 2002,3.14

-인교준,‘동백림사건’ 개요·쟁점, 연합통신, 2005.2.3

-정병진, 동백림사건-홍보용 재판 공개, 문인구 당시 변호사의 증언,한국일보, 2003.6.12

-이응노- 서울.파리.도쿄, 삼성미술문화재단,1994

-리영희, 대화, 한길사, 2005(365쪽 이하)

-이수길, 한강과 라인강 위에 무지개 다리를 놓다, 지식산업사, 1997

2.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 안상근 씨 옥중 의문사 사건

발생일 :

1985.10.18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의 '사망'(전두환 정권은 '자살'이라고 발표)

사건 일지 :

망명여권 소지자 안상근씨 1985.6.27 귀국(귀국동기는 동년 6월 14일자 국내신문에 '반한교포 국내초청 확대' 기사를 보고, 안씨의 어머니 김영희(재독 간호사 출신 기통회 회원)씨가 한국 영사관에 문의결과 "망명권자도 3개월 국내여행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7.13 도독 예정), 7.7 이복동생 부지영과 연락, 7.10 가족들끼리 함께 점심, 7.11-13 사이 안기부에 연행(혹은 자수), 국가보안법 위 반혐의로 85.9.4 서울구치소 입소, 9.9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발표, 10.4 애인 이진숙 석방, 10.14 양동화 등 1차 공판(안상근씨는 공판정에 나오지 않음. 따라서 가족들의 주장은 10월 14일 이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 10.18 사망, 한 달 후인 11.19 주한독일대사관에 사망통보, 11.25 변호사와 친지의 연락으로 재독 어머니(김영희. 독일 간호사 출신. 기통회 회원) 사망소식 전해 들음.

배경 :

폭압적인 전두환 정권하에서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상당수가 민족의 반쪽인 북한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면서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유행처럼 번졌다. 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해외를 통해 직접 북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두고 발생했는데, 정권담당자 쪽은 이를 확대포장하여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활용하고자 했다. 특히 서독망명권 소지자이고 국내에서 뚜렷한 운동 경험도 없는 안상근씨의 경우 국내 운동권쪽의 대응이 미미하고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내용 :

1. 국내에서 양동화·김성만·황대권 씨 등이 연루된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과 함께 발표된 이른바 '서독유학생간첩 학원침투 사건'의 주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안상근·이가옥(신문에는 가명인 이진숙으로 발표됨)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별 관심조차 없었다.

2. 안기부와 보안사가 합동으로 발표한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근(安相根. 35. 재독교포)

82년 6월 서독에서 반정부단체인 기독교통일연합회(약칭 기통회) 회계직을 맡아 반정부 활동중이던 모 김영희(56.간호원 출신)의 초청으로 서독을 방문, 현지 반체제 인물들과 연계되어 82년 9월 이들의 소개로 오스트리아 빈주재 북괴공관을 찾아가 북괴공작책 백모 과장으로부터 대남적화혁명의 필요성 등 세뇌공작을 받고 포섭됨.

반체제인물들의 신원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후 84년 7월 및 84년 10월 2차에 걸쳐 오스트리아 북괴공관에서 안명철 명의의 북괴공무여권을 발급받은 후 동베를린에 들어가 그곳 북괴 공작 아지트에 15일간 수용돼 있으면서 세뇌교육, 대남혁명의 필연성 등 사상교양 등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 임무 및 지령으로 서독유학생 포섭 등의 지시와, 공작금으로 서독화폐 7천마르크(한화 2백만원 상당)를 받고 귀

환.

85년 2월 3일 포섭한 유학생 이진숙(35)과 함께 네델란드로 가서 북괴공작원 이철민의 안내로 동베를린-모스크바를 거쳐 입북.

그후 85년 3월부터 85년 5월까지 국내에 침투한 이진숙으로부터 대구 모대학 조교수로 취업, 합법토대 구축 등 간첩활동 사항을 보고받고 85년 6월 12일 동베를린 북괴공작책 백모 과장과 접선, 이진숙의 대학침투 사실과 친척 임진형 포섭공작 계획을 보고하고 임진형 포섭자금으로 미화 5천달러를 받아 국내에 잠입, 학원가 데모상황, 광주사태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집하는 등 암약.

이진숙(李眞淑)(35. 대구 모대 조교수)

84년 11월 프랑크푸르트 소재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 동료유학생의 소개로 안상근(반정부지 <우리나라> 편집국장)을 알게 된 후 수시로 북괴 우월성 선전교육을 받고 동조 포섭됨.

85년 2월3일 북괴공작원 이철민의 안내를 받아 안상근과 함께 네델란드-동베를린-모스크바를 경유 입북, 평양 대성동 초대소에 25일간 수용돼 있으면서 북괴공작지도원 백명준, 김일성대학 철학교수 최모 등으로부터 김일성 일대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등 정치사상 학습과 북괴 선전영화 관람, 혁명전적지 견학 등 세뇌교육을 받음.(이상 한국일보, 1985.9.10)

3. 한국정부는 망명여권 소지자인 안상근 씨가 자진귀국하여 자수하였다고 독일정부의 문의에 대해 보고했다. 공개재판으로 허위사실임이 증명되면 과거 동백림사건 이래 한국의 역대독재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독일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한편 구미유학생간첩사건이 과장,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살'아닌 '타살'의 개연성이 크다는 의견이 독일쪽에서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더욱이 구치소에서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미루어볼 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4. <우리나라>가 밝힌 안상근씨의 죽음을 자살로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들

첫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인권소식 제169호(1985.10.17)에 의하면 구미유학생 관련 간첩단사건 첫 공판이 지난 10월 14일 양동화씨 등 15명이 출정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첫 공판 사실심리에 안상근씨가 출정하였다는 보도는 없었으며, 제1차 공판이 있기 직전인 13일경에 안상근씨가 석방되었다는 주장이 주독한국영사관을 통해 유포된 것을 보아도 18일 이전에 사망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의문인 것은 한국정부가 왜 사망한지 1개월이 훨씬 지난 이제야 사실을 알려오게 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 한국 정부는 안상근씨의 독일변호사가 독일외무성에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망사실을 영원히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감옥에서 수건 2개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죄수들에겐 수건 한 장씩만 지급되며 구치소의 감방구조가 자살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살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교도관이 이에 대한 철저한 계호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미결수인 안상근씨가 자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본인이 자살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감옥 내에서 미결수를 자살하게끔 유도한 전정권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같은 사건 관련자인 이진숙씨는 지난 10월 4일 독일정부의 압력으로 석방되었고 한국정부가 독일 외무성을 통해 안상근씨의 어머니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안상근씨 역시 자수하였다고 했고, 안상근씨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관계당국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그는 석방의 희망에 차있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자살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일 뿐이다.

넷째, 소위 애정으로 인한 자살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진숙씨가 10월 4일 석방된 후 2주도 지나지 않아 사랑을 비판해 자살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이 있기전 소위 간첩사건 피의자에게는 서신·면회 등 외부와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에 이진숙씨의 방문이나 편지연락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수사기관이 이진숙씨의 석방사실을 안상근씨

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알렸다 해도 정보부가 말한 대로 안상근씨가 자수했다면 집행유예를 받아 곧 석방된 후 이진숙씨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애정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볼 때 안상근씨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전정권이 그들을 유인납치한 사실과 이 사건 자체의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무참히 고문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 왜 안상근씨를 살해하게 되었는가.

우선, 안상근씨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독일의 망명권자이다.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안상근씨는 독일정부의 보호를 qker는 망명권자인 것이다. 독일의 망명권자를 납치 유인한 전두환 독재정권은 독일 외교기관과 국회, 그리고 기타 여러 인권 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안상근씨가 자진 귀국했고 또 자수했다고 구차한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안상근씨가 공개재판을 받게 되면 그들의 납치유인 사실이 밝혀져 한국과 독일간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므로(1967년 소위 동백림간첩사건으로 한독관계가 악화된 바 있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했을 것이다. 또한 안상근씨가 공개재판을 받게 되면 소위 구미유학생관련 간첩단사건의 조작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므로 파쇼정권이 그를 살해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군사독재정권은 고문 살인한 것을 사실대로 보도할 리가 없고 안상근씨의 고문살해를 자살로 조작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손쉬운 일인 것이다. (이상 <우리나라> 제36호 1면 인용)

관련 인물 : 안상근 <우리나라> 편집장(사망), 이가옥(이진숙으로 개명) 교수

관련 단체 : 없음. 하지만 안상근씨가 망명여권 취득을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당시 반정부신문인 우리나라(발행인; 오석근)의 편집장 신분을 갖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신문 주변에 일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련 사건 :

이른바 미국유학생 간첩단 학원침투사건과 더불어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불리어진다.

관련 자료 :

-반한 교포들도 국내 초청 확대, 조선일보 85.6.14

-한국일보 1985.9.10

-안상근씨 납치사건을 규탄한다, 이영빈 목사, 1985.9.13

-기통회 회장 이영빈 목사 명의 안상근 납치 규탄 성명서(독문).1985.9.15

-안상근 어머니 김영희씨의 '사랑하는 교포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1985.9.18

-'미국·서독의 유학생간첩 학원침투사건'에 대한 본사의 해명과 항의, 우리나라

-독 외무부가 안상근 모 김영희 씨에게 보낸 서한, 1985.10.18

-담당 변호사 Dorothea Machingal과 독일 외무성 담당자와의 서한, 1985.11.22

-전 본사 편집국장 안상근씨 전정권에 의해 살해, 우리나라 제36호,1985.12.1

-안상근의 죽음에로의 의문의 여행(독문), 슈스트가르터 짜이퉁,1985.12.3

-아들의 죽음에 관한 뒤늦은 소식(독문),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1985.12.3

-'한국의 고문과 폭력에 반대하며 안상근에 대한 정치적 살해 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이영빈 목사 명의로) 기자회견 초청장 및 자료(독문), 1985.12.5

-성명서, 고문과 용공조작을 반대하고 안상근씨 살해를 규탄한다,1985.12.10

-압수물건환부통지서 및 유류품명세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사철, 1986.2.8

-서울구치소 유류금품 수령 통보, 1986.3.4

-고 안상근씨 3주기 추모제,<민주조국> 제12호, 1988.11.1

3. 서독 유학생 최혁배 씨 간첩날조 사건

발생일 : 1987.11 안기부 연행. 1988년 2월 21일 구속

사건 일지 및 내용 :

1988년 2월 4일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기관지 <인권소식>에 따르면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서독 프랑크푸르트대학에 유학중이었던 최혁배씨(당시 37세· 서울법대졸. 전 한국기독교교회협 간사. 현재 뉴욕주 변호사)가 안기부에 의해 서독유학 당시 북한공작원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7년 11월1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양쪽발이 짓이겨지고 머리를 마구 얻어터지는 등의 고문을 당하고 ‘평양에 다녀왔다’는 허위자백까지 강요당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공범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종덕씨도 안기부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이들은 신당창당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운동’의 발기인들로, 특히 최씨는 독일의 제3세계 인권지원단체인 ‘테르데좁’(인간의 대지)으로 하여금 청계천 5가에 ‘평화의 집’을 세우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일에 기여하게 한 숨은 공로자였다.

유럽민협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혁배 구출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그들의 석방을 위해 독일의 관련단체인 ‘테르데좁’을 비롯, 교회 및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과 접촉하면서 진상규명과 구출을 위한 다각적인 운동을 벌였다.

그가 1심에서 2년을 선고받자 3월 24일 뮌헨의 막시밀리안 광장에서 ‘코리아 올림피아 캠페냐’소속 한국 및 독일인들이 간첩조작된 김형규씨(후술 참조) 및 최혁배씨 석방을 위한 경고파수(Mahnwache)에 나서면서 공개서한을 통해, 노태우정권이 이른바 ‘민주화선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치범을 구속하고 고문을 한 사실을 독일인들에게 상기시켰다.(쥐드 도이체 짜이퉁지 3월 24일자)

또 김형규씨의 광산동기들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김씨가 근면성실한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이며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해외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하는 일이 불안하며 또한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어야 겠다”고 하면서 “이번 일로 조국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하여 속히 가족들과 동포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로 최씨는 1988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결국 안기부에 연행되어 간첩날조 후 7개월 만에 석방이 된 것이다.

한편 안기부가 주장했던 ‘북한공작원’은 뮌헨의 안석교 박사(작고. 핵물리학박사. 당시 뮌헨 물리학연구소 재직. 동백림사건 관련자이자 당시 민건회 회원)인데, 안씨는 남한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등산가이기도 한 안석교씨는 최혁배씨의 청으로 만나 알프스를 등반한 것이 그와의 관계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배경 :

국내운동권의 국제적 지원을 끊기 위한 수단으로 간첩사건을 조작. 동백림사건 관련자들을 북한공작원으로 전제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 함.

관련 인물 :

전종덕(당시 33세· 예술의 전당 근무. Goethe Institut의 초청으로 1987년 독일 체류)

관련 단체 :

‘테르데좁’(인간의 대지. 서독의 국제 인권 및 자선단체)

관련 사건 : 없음

의의:

최씨가 정말로 '간첩'이거나, 북한공작원과 접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구속된 지 3개월만에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노태우정권에 대한 유럽에서의 인식은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관련 자료 :

- 인권소식 제284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8.2.4
-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 및 최혁배 구출위원회 결성, 민협, 88.2.21,<민주조국> 제4호, 88.3.1
- 최혁배씨에 4년선고, <민주조국> 제5호, 88.4.1
- 독일인들, 김형규, 최혁배씨 석방요구 시위, <민주조국> 제5호, 88.4.1
- 최혁배 석방, <민주조국> 제8호, 1888.6.21

4. 재독교포 김형규 씨 간첩 사건

발생 및 종결일 :

1987년 9월 안기부 연행되어 석 달 후인 11월 3일 '재독교포간첩사건'으로 신문에 발표됨. 3년 반 후인 1991년 2월 22일 바이체커 독일대통령 방한 이틀 전 석방됨.

사건 내용 및 일지 :

1. 국가안전기획부의 1987년 11월 2일 발표에 따르면 일시귀국했던 서독교포 김형규씨(당시 37세· 함부르크 거주· 전 광산기능공)를 간첩혐의로 체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미 등을 무대로 교포 사회에 침투해 간첩활동을 하다가 북한공작원 김성수(프랑크푸르트 거주)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 중 검거”했다고 하면서 김형규씨가 기통회(회장 이영빈 목사)회원이며 그의 상부선인 김성수씨는 기통회 회원이자 편집부장이었다고 주장했다.
2. 이에 대해 유럽민협은 같은 달 '재서독교포 김형규씨 간첩날조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멀리는 동백림사건으로부터 2년 전의 서독 망명교포 안상근씨에 대한 간첩살해사건과 이번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우리 해외교민들은 저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간첩’으로 조작되어 독재정권을 지탱해주는 불모로 되었으며,(중략)...국내의 운동권에서조차 소위 해외교포 간첩사건이 발생하면 구명이나 사건의 진상규명 등 해외교포들의 권익옹호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우리는 독일정부 및 각 인권단체와의 밀접한 협력 아래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형규씨의 구명과 서독으로의 인도는 물론, 지난 2년전 저들에 의해 살해된 안상근씨에 대한 사인규명 및 복권도 강력하게 개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3. 또 안기부에 의해 김형규씨를 포섭하여 북한에 넘겨준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김성수씨도 1987년 11월 17일 <김형규씨 사건에 대한 해명서>를 내고, “83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김형규씨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이상의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형규씨의 일시귀국은 뇌암으로 사경에 처한 어머니를 뵙고, 서울 집을 팔아 사업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가 자신을 찾아와 사업에 대해 자신에게 문의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4. 한편 녹색당의 전 당수 페트라 켈리는 1988년 12월 2일 겐서 외무장관 앞으로 공한을 보내 이른바 간첩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형규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서한에서 이미 지난 4월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사민당 의원인 엠머리히 박사가 제기한 질문을 통해 김형규씨 사건이 문제화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서독정부는 한국의 인권억압상황과 빈발하는

고문살해 등에 유의하여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특히 새로운 대통령인 노태우씨가 그를 사면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5. 그 사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형규씨가 한국의 검찰에 의해 유일한 증거로 삼아진 ‘이북에 다녀왔다’는 기간에 서독에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라는 점을 악용하여 석방관련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6. 한편 유럽민협은 산하 인권부를 통해 김형규씨 사건을 비롯해 지난 1985년의 안상근씨 옥중의문사 사건(별항 참조) 등을 다른 장기수 구출 및 후원사업과 함께 벌어나갈 것을 결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7. 1989년 3월 17일 독일의 수도 본의 뮌스터광장에서 정기수대책위원회와 김형규씨 구출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김형규씨 석방을 위한 데모가 열렸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역대독재정권은 정치적 불안이 있을 때마다 간첩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형규씨는 현재 심한 고문으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한국의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북한방문시기에 노동자로서 공장에서 일하며 건강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조작의 대상이 되었음”을 주지시켰다. 그들은 이어 “지난 안상근씨 사건을 상기하며 독일국적을 취득한 이들을 포함한 재독한국인들은 언제든지 정권의 조작에 따라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데 대해 서독정부와 주한독일대사관은 귀국하는 재독 한국인들의 법적보호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민협도 이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형규씨 사건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보다 절실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으며 역대군사독재정권의 외화벌이를 위해 팔려온 해외동포가 독재정권유지의 희생양이 된 사실은 김형규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해외동포들의 문제이며, 독일경제발전의 역군으로 기여했던 대부분의 재독동포들의 인권옹호에 독일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8. 장기수대책위와 김형규 구출위원회에서는 1990년 2월 독일 외무성 대표단(동아시아 정치경제 담당부·외국인 담당부·형법담당자)과의 접견면담 당시 외무성 측으로부터 받은 독일국적 소지자인 김형규씨 조기출소 추진약속 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한 현재 한국교도소의 불법행위와 미전향자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탄압에 대해 경고하는 편지를 외무부장관, 독일대사, 국회청문위, 시민당 인권부, 녹색당,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런던본부에 띄웠다고 밝혔다. 그들은 김형규씨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서명자 7천3백명 분을 공증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한국정부에도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9. 1990년 12월 14일자 인권소식은 유럽민협과 재독장기수대책위가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국내 각 언론사와 민족민주운동단체·정당 등에 김형규씨의 석방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히고, 그동안 독일 외무성과 주한독일대사관 등을 비롯 7천명 이상의 독일인과 재독동포들이 벌인 석방운동의 압력에 따라 한국정부가 김형규씨에게 각서를 쓰면 석방하겠다고 회유하고 있으나 김씨의 거부로 석방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민주조국> 1991년 2월 1일자에 의하면 유럽민협은 베를린 등의 한인회 주최 망년회에서 김형규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보내기’ 운동을 벌였는데, 많은 동포들이 호응했다고 밝혔다.

10. 그동안 유럽민협과 재독장기수대책위 등은 그가 감옥에서 전향제도 폐지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더불어 교도소 비리척결과 약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임하거나 농성투쟁 중 수차례에 걸쳐 먹방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즉시 서울주재 독일대사관과 독일외무부장관 및 국제사면위 등에 이를 알려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1989년 11월의 노태우 방독 때 독일정부에 그의 석방을 촉구하도록 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였다.

11. 그 결과 그는 1년 6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을 통해 원심에서 15년형, 항소심에서 10년형을, 그리고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형을 받고 비전향장기수들이 구금되어 있던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독일대통령의 방한 이틀 전에 돌연 석방되었다.

배경 :

같은 해 9월 일본 유학생 장의군씨에 대한 간첩사건에 이어 이번의 김형규씨 사건은 노태우 정권이 6·29 선언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냉각시키고 개량화하는 동시에 민족민주운동권을 좌경용공으

로 탄압하여 국민들과 분열시켜보겠다는 책략의 일환으로 당시의 해외운동권은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운동권은 유럽민협을 중심으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교회,녹색당 및 사민당 등과 광범하게 연대하여 노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가했으며, 과거 동백림사건의 경험이 있는 서독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그는 3년 4개월 만에 풀려나 독일로 귀환했다.

관련 인물 :

당사자인 김형규 씨는 이른바 운동권 사람이 아니며, 그의 광산 동기들이 냉 성명서에 따르면 독실한 개신교인이자 독일국적 소지자(독일명; 아드리안 김)이다. 또 그를 북과 연결했다는 김성수 씨는 진상이 현재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유럽간첩단 사건(1973) 연루자이고,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기통회 회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후일 유럽민협 사건(1989.8) 때 안기부는 김성수 씨를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공작원이라고 주장하다가 후일 "송두울 씨가 '김철수'"라고 정정한 바 있다.(상세는 유럽민협 항목 참조)

관련 단체 : 기통회(별항 참조)

관련 사건 : 없음

관련 자료 :

- 재독교포 김형규씨 간첩사건 관련 기사 및 유럽민협 성명서, '배후' 김성수씨 해명서, <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김형규씨 석방탄원서 제출, <민주조국> 제7호, 88.6.1
- 녹색당 전 당수 페트라 켈리, 김형규씨 구출을 서독외상에 요구, <민주조국> 제14호, 1989.1.1
- 장기수대책위·김형규와 장기수 구출위 연대시위,3.17, <민주조국> 호외,89.3.1
- 김형규 석방데모, 본,3.17, <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 장기수대책위, 김형규구출위 서명용지 전달, <민주조국> 제32호, 1990.7.10
- 김형규 석방요구 드높아, <민주조국> 제37호, 91.2.1
- 김형규씨 석방, <민주조국> 제38호, 91.3.1
- <인권소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90년 12월 4일자
- <노동자신문>, 이태복 발행, 1990년 12월 7일자

5. 유럽민협에 대한 일련의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홍성담, 임수경, 김현장 씨 부부 관련)

발생일 : 1989.7-8

사건 개요 :

1. 임수경 전대협 대표 방북 사건:

1989년 8월 21일과 22일 안기부는 '북한 조평통이 서독에 있는 유럽민협의 어수갑 총부부장에게 지시, 전대협 평족준비위 정책기획실장 박종열씨를 통해 임씨의 방북을 추진했다'고 발표하면서, 유럽민협을 '평양축전 개최에 따른 해외공작 책임조직'이자'북한의 대남공작전위조직'이라고 주장했다.

2. 홍성담 씨 사건:

평양축전에 대형걸개그림의 슬라이드를 보냈다는 이유로 1989년 7월 구속기소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 연합건준위 공동의장인 홍씨는 모두진술에서 "공안정국은 미술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 그림을 북한의

주체미학에 따라 그려진 것이라 매도하면서, 민족화해의 단초를 이루려는 이 그림을 평양축전에 보내기로 한 것을 마치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안기부가 미리 짜준 각본에 따라 진술을 강요하며 구타, 고문에 못 이겨서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했으나 성낙영 목사의 주선으로 만났다는 북한공작원 ‘김평원’은 안기부의 고문에 못 이겨 북부독일의 평야지대에 착안, ‘평원’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안기부의 애초 주장에 따르면 ‘성낙영 목사가 유럽민협의 국제부장’이라는 것이 유럽민협과의 관계의 전부인데, 유럽민협은 ‘국제부장’이 없으며 대외협력부장은 임민식씨였다.

3. 김현장·김영애 부부 사건 :

1989년 8월 21일 안기부는 백기완 전 대통령후보의 일행으로 방독한 김영애씨(한겨레신문 원주지국장)를 구속기소했는데, 그녀가 독일방문기간 동안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당시 구속 중인 남편인 김현장씨(전민련 국제협력국장)와 문부식씨의 구명을 위해 독일의 정당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협의한 후 귀국 후 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말, 역사비평, 사회와 사상 등 출판물과 한겨레신문, 평화신문 등을 우편으로 유럽민협에 보낸 것을 이유로 그녀를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 및 국가기밀누설’의 혐의를 씌운 것이다. 또 안기부는 김영애씨에게 ‘북과의 연계 속에 유럽민협에게 전대협을 축전참가를 위해 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씨를 소개시켰다’는 등 터무니없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행한 고문을 통해 유산까지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유럽민협과 장기수대책위는 녹색당과 사민당 국회의원 및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등을 중심으로 김현장·김영애씨 구출위원회를 구성했다.

배경 :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9년은 조국통일운동이 정점에 달하던 시점으로 노태우정권은 내외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이른바 7·7선언이란 것을 발표해 남북한간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게 되기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호도책일 뿐이었다. 그들은 통일지향세력들의 도도한 흐름을 막고자 임수경씨의 방북을 빌미로 그것을 해내외의 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빌미로 삼게 된다.

그들은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해외의 주도적인 운동단체들을 북과 연결시켜 단죄하고자 했는데, 이를테면 1989년 8월 임수경씨의 평양축전 참가와 관련한 공소장에서 안기부는 당시 서독 영사관 내의 안기부 파견직원이 작성한 이른바 ‘영사증명서’를 유일한 증거로 내세우며 북의 조평통의 지령을 받은 유럽민협이 다시 전대협에 지령을 내려 임수경 씨를 입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민협 내엔 ‘김철수’라는 가명의 북한공작원이 존재하는데 그가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김성수씨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민협이 북한공작원인 김성수를 비롯해 친북인사인 윤이상, 송두울이 소속된 단체이므로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후일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은 송두울씨 관련사건 때 ‘김철수’는 김성수가 아니라 송두울이라고 정정하여 주장했다.)

국정원은 대부분의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검찰은 영사증명서를 증거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영사증명은 흔히 "00관계당국의 자료에 의하면"이라는 애매한 근거로 명확한 증거없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친북인사로 단정하기도 한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431쪽 참조)

관련 자료 :

< 독일 녹색당의 증명서 >

이글은 서베를린의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가 독일연방정부에 합법등록된 단체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주재하는 단체의 합법 등록은 독일연방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독일국민과 독일 거주 외국인에게 행해지는 어떠한 종류의 외국정보부에 의한 정보행위와 그에 대한 지원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독일내의 누구도 독일정부가 알고 있는 한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누구라도 이런 행위에 대해 독일정부에 통고하지 않으면 독일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한국정부의 조직이나 기관이 유럽민협을 북한의 전위조직이라고 가정했다면, 그들은 독일정부에 그런 행위에 대해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독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 상호 두 나라의 대사관은 주재국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따라 본(Bonn) 주재 한국대사관은 독일정부에 유럽민협의 그런 '간첩활동'에 대해 알렸어야 합니다. 독일정부는 유럽민협의 어떠한 불법행위나 간첩활동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전위조직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정부는 독일 영토내의 북한의 전위조직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민협 성원이 북한의 조직원이라면 체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럽민협이 친북전위조직이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독일법에 저촉될 것입니다.

녹색당이 유럽민협과 공동으로 인권과, 국제사면위의 인권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은 한국인권상황개선 등의 민주화를 위해 일해 온 이유로, 우리 녹색당은 우리가 친북전위조직과 함께 일한다는 음해를 좌시하지 않은 것이며, 그런 명예훼손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녹색당을 대표하여 녹색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국회의원 위르겐마이어

<서독연방 상원의회 의장 겸 사민당 의원인 서베를린 시장이 대한민국대사관에 보낸 공문>

김현장씨와 김영애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김영애씨가 1988년 독일연방공화국 방문 시 이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김영애씨는 방문기간 중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민주적 기본권에 의거해 단지 이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만나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사실입니다.

대사님, 나의 이와 같은 염려를 귀 정부에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0.3.14

발터 몸퍼

<유럽민협 반국가단체 아니다> (한겨레신문 1990년 5월 27일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월14일 김영애씨 선고공판에서 뚜렷한 증거제시도 없이 유럽민협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영애씨에게는 반국가단체와의 접촉, 국가기밀누설 등의 죄목을 적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87년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등장한 노태우정권은 국제사면위의 발표에 의하면 5공시절보다도 더 심한 인권탄압을 자행해 왔으며 89년 한해에 정치범이 1천3백15명에 이를 정도로 제반악법을 동원하여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해내외민족민주운동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법한 전노협과 전교협 등을 불법단체로 낙인찍고 민주인사들을 비롯, 노동자·농민·교사·학생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유럽지역 동포단체들의 혐의체인 유럽민협을 겨냥, 온갖 비방을 통해 해외운동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내와의 연대를 단절시키려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으며 민주화와 인권옹호를 주된 강령으로 조직된 위 단체를 공산주의단체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키고 유럽민협과 연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구속하거나 탄압하고 있습니다.

유럽민협 성원들과 연대단체 및 개인들은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태우정권의 실상을 폭로

할 것이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내외의 연대는 물론 독일인 동료들과 더욱 더 굳건한 연대의 틀을 다지며 위협과 분열을 책동하는 현정권에 대해 정면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독일인 동료여러분!

노태우정권의 인권탄압과 기만책을 엄중히 심판하는 마음으로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서명한 250명의 정당·단체 주요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위르겐 마이어(녹색당 국제부장), 프로이덴 베르크 박사(전 오스나부뤼크 대학총장),발터 몸퍼(서독연방 상원의장 겸 서베를린 시장),쉬타펠트(사민당 원내총무 겸 서베를린 시의원), 나겔(베를린시 건설부장관), 하이디 비숍 플란츠(전 베를린 녹색당 원내총무), 프리츠 프란츠 박사(코브르크 전 지방판사), 볼프강 빌란트(독일 변호사 연합의장), 슈트뢰벨레(녹색당 의원겸 변호사), 로젠크란츠(변호사 겸 공증인), 카르히 박사(베를린공대 교수),조우코스 박사(베를린자유대교수), 이스마일 코잔(서베를린 녹색당 대표위원), 마틴 바그너(SOS 인종주의 책임자), 보어만(베를린 사민당 원내총무), 그루베(함부르크 사회교육위원회장), 외츠쿨리(재독 터어키인 연합의장), 지글러(금속노조 의장단),일나츠(독일금속노조의장단)

<바이체커 독일대통령이 유럽민협에 보낸 감사서한> (<민주조국> 제25호,1989.12.1)

(바이체커 서독대통령은 1989년 11월 29일 자신의 국제정치담당보좌관인 베르트홀트 폰 페텐서를 통해 유럽민협에 공한을 띄우고 유럽민협의 입장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서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유럽민협 여러분께

서독대통령께서는 여러분이 11월 16일에 보내신 한국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신에 감사를 표시하며 이 답장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독일개신교 선교단체들과 관련되어 세 번이나 한국을 방문하신 이래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그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1989년 11월 20일의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각하, 당신이 발표한 6·29선언은 귀국의 진정한 자유수호와 민주주의로의 발돋움에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권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며, 그들은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각하께서 민주화의 과정과 법치국가로서의 발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인권실현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발전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을 바랍니다.

나는 서독국민들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 나라에 대한 깊은 우호와 긍정적인 관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한국 친구들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그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임기 전에 한국의 노대통령과의 사적인 대담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유럽민협의 여러분들에게, 서독정부가 인권탄압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겠다고 확인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대통령께 보내신 서신은 매우 값진 격려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홍성담 구출 활동,<민주조국> 제22호, 1989.9.1

-서독 지식인들,홍성담씨등 석방운동,<민주조국> 제24호, 1989.11.1

-함부르크, 임수경·홍성담 올해의 인물로 선정,<민주조국> 제24호, 1989.11.1

-홍성담 사건 새국면,<민주조국> 제25호, 1989.12.1

-페터씨,홍성담사건 안기부 조작 폭로,<민주조국> 제26호, 1990.1.1.

-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이종현 전 유럽민협 의장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
- “북한 전위조직 아니다” 유럽민협 어수갑씨 정연주 특파원과의 회견, 한겨레 신문, 1989.8.24
- 이적단체 몰린 유럽민협 모국정부에 공개질의서, 한국일보(구주판), 1989.8.27
- 어수갑, 노태우 정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1989.8.23
- 문익환 목사 변호인단에게 유럽민협이 보낸 서한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임수경·문익환·문규현 석방 서명자 4733명에 대한 공증서(독문)”, 1989.12.29
- 유럽의회 결정문(독문), 1989.9.12
- 서독 녹색당 의장단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보내는 임수경·문규현 관련 문건(영문), 1989.9.7
- 서독 녹색당 국제부장 위르겐 마이어의원이 유럽민협에 보내온 독일 연방의회 대정부질의 결정문(유럽민협 등과 관련 서독에서의 남한 안기부요원 활동에 대해), 1989.9.7

<임종석 전대협 의장이 유럽민협 등에 보낸 협조요청서>

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독 민협·미국 한청·오스트레일리아 민족자료연구실 외 해외동포단체 귀하

발신: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내용: 제13차 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의 대표단 참가를 위한 실무 협조 요청

일자: 1989년 6월 21일

남녘 100만 청년학생의 대표 조직인 전대협은 먼저 북녘의 우리 형제, 자매에게 목메이는 우정과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아울러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께 뜨거운 우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대협은 100만 청년학생의 염원이자 7천만 거리의 비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 전대협은 조국의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려는 제반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에 이르러 전대협의 축전참가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에 의하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대협은 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짧은 시일이나마 남아 이 기간 동안에 4천만 국민과 100만 청년학생의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을 토대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하여 기필코 축전참가를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때 전대협은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축전에 참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방도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실무적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 전대협의 힘만으로 성사하기에는 벅찬 방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한청, 오스트레일리아 민족자료연구실, 서독 민협 등께서는 전대협이 처해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전대협 축전 참가대표단의 축전참가를 위한 최대한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마지막 방도는 문익환 목사님의 평양 방문 경로와 흡사할 것입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임종석 (*자필서명 및 지문찍음; 연구자 주)

<전대협이 국제학생동맹에 보낸다, 전대협 의장 임종석, 1989.6.21>

<임수경이 자필로 평양에서 보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 임수경은 이 팩스를 고려호텔에서 유럽민협으로 보냈다. 발신시각은 1989년 7월 6일 23시2분이었다. 임수경은 이 글의 말미에 참조표시(*)를 단 후 “전민련 FAX 0082-2-927-8716 (Seoul, Korea) 7월7일 오전까지 전대협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부탁했다.

IV. 단체항목 기초조사

1. 정치운동

단체명 : 사단법인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Forum für Demokratie in Korea e.V.)

* 민건회를 지식인운동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구성원의 일부에 여성노동자와 광산노동자들이 포함되었기에 정치운동의 범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 주

약칭 : 민건 또는 민건회

소속 단체 또는 상급단체 :

산하 소속단체는 없으며, 민건회는 한민련 유럽본부(후술 참조)와 유럽민협(후술 참조) 참여단체.

존속 기간 :

1974.3.1- 이종수 당시 의장의 귀국(1989.3) 이후 소강. 2004년 3월 결성 30주년을 맞아 재건을 위한 모임이 있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활동은 없다.

주요 활동 지역 :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유럽 민주화운동의 모태(Matrix)이자 시발로서의 의의. 낮은 수준의 협의체운동. 유학생 출신 중심의 지식인 운동적 성격이 짙다. 애초에 그들과 함께 했던 광산노동자, 간호사, 목사 등은 후에 각각 재독한인 노동자연맹과 재독한국여성모임 및 조국통일해외기독자회 등을 결성하기도 한다.

결성 과정 :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1974년 3월 1일 서독의 수도 본의 뮌스터 광장에서 박정희 군부독재와 유신체제 타도를 외치고 시위를 벌이면서 3.1절 기념 55주년에 상징하는 55명의 서명을 받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어 조직을 결성한다.

그 출범에 이르기까지 전후 시대적 배경에 대한 민건회 자체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1. 국내는 3선 개헌으로 유신 독재체제의 장기화와 전태일 분신을 통해 노동자 탄압이 그 극치를 달하고 있었다.
2. 수출 산업의 일환으로 노동력을 상품화한 간호원, 광부들이 독일로 오게 되자 국내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과 문제점들이 이곳으로도 이전되게 되었다.
3. 67년 동백림 사건으로 국내의 문제는 이미 이곳 독일에 사는 동포들까지 감내해야 하는 직접적인 탄압으로 다가왔다.
4. 당시 독일은 국내 상황과는 달리 사회전반적으로 특히 68 학생운동의 열기를 받아 사상적으로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 이러한 새로운 독일 동포 구성원들의 문제점과 국내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맞물리면서, 조직적 정치투쟁으로 성숙시킬 수 있었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하 박소은, 민주사회건설협의회 30년을 돌아본다 참조)

조직 체계 :

독일의 민건이 주축이 되었다. 그 외에 프랑스의 「한국자주통일추진회」, 「자유동포협의회」, 「한국민족문제연구회」(약칭 불란서 민건. 대표 이희세), 스위스 「민주사회건설협의회」(약칭 스위스 민건. 대표 최기환), 스웨덴 「민주수호협의회」(약칭 스웨덴 민건. 대표 이용), 덴마크 「민족문제협의회」(약칭

덴마크 민권. 대표 임민식)등이 해당 지역의 인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활동은 미미한 편이었다.

강령 및 규약 :

<헌장> (1976년 10월)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독재정치의 횡포와 탄압, 국민경제의 예측과 파탄, 서민대중의 착취와 빈곤을 초래한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반사회적인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사회의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1974년 3월 1일 본의 윈스터 광장에서 열린 성토대회와 가두시위에 함께 참석했던 재독 한인 노동자, 유학생, 종교인, 지식인들이 발기하여 조직한 협의단체이다. 이 협의회는 독재체제의 철폐,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질서의 확립, 자립경제의 건설, 국민대중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향상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기본적 토대 위에서 공동적인 사고와 토론을 통해 민주사회의 이념과 그 실천방법을 모색하며, 국민대중의 민주의식을 고취하고, 건설적인 사회참여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그 근본과제로 삼는다.

<제1선언문> (1974년 3월 1일)

민주사회의 건설은 전국민의 요청이며 민족사의 방향이다.

일찍이 빼앗기고 억눌린 백성의 민생을 구하려던 동학 혁명과 박탈된 민족의 자주 생존을 회복하려던 기미년 독립운동, 그리고 독재아래 짓밟힌 민권을 소생시킨 4월 혁명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민주 사회의 건설을 그 목표로 하였다. 그럼에도 항상 피흘려 찾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다시금 빼앗기고 양심과 정의를 주장하는 외침은 무참히 짓밟히었으며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는 가련하게 상실되니 이러한 역사의 악순환과 오늘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부정과 특혜로 살찌 특권층이 마음대로 치부와 사치를 자행하고 다수의 서민대중은 착취된 노동과 민생고 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현실을 초래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의 입과 귀를 강제로 틀어막고 정당한 주권행사를 탄압하며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깡그리 막아 놓음으로써 봉건적 절대권력을 혼자 거머쥔채 민주사회 건설에 반역하고 있는 주동인물은 누구인가?

동포여! 민주사회 건설의 동지여!

사회구조의 모순과 국가의 위기를 철저히 인식하라!

민족의 굴욕적인 예속이 다시 오기 전에 국민이 영구히 한 독재자의 노예로 되기 전에 수수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일어나서 이성과 양심을 거스린 독재의 무리들을 물리치자!

빼앗긴 국민 주권과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여 민족의 이념인 민주사회를 창건하는 데 헌신하며 참여하자!

참된 민주사회의 건설은 현실의 철저한 비판과 분석을 통해 반민주적이며 반사회적인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박정권의 현파소적 독재 체제가 바로 그것이라 단언한다.

왜 그런가?

첫째, "10월 유신"은 민주사회의 반역이다.

"10월 유신"은 억압한 채 오직 개인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제멋대로 고쳐버린 민주사회의 반역이다. 박정권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박정권이 그러면 언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해 본 일이 있는가? 12동안 입법, 사법, 행정의 실질적인 권력을 독점한 채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며 혼자 지배하고서 낭비와 비능률과 불안정만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남북통일을 위해 장기 집권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유신을 한 지 일년도 못돼 남북대화의 길마저 중단되고 말았는가? 국회의원은 임명제로 해버리고 국정 감사는 폐지시켜버리고 사람은 영장도 없이 잡아 가두며 대통령직은 영구 독재의 총통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인가?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우리 민족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다. 왜 차라리 "박씨 왕국"을 만들지 않았는가?

박정희의 정치 행로는 공약의 위반과 속임수의 연속이었다.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던 5.16 혁명의 공약은 후지화 해버리고 자기 손으로 제정한 헌법의 3선 금지 조항을 변칙 삭제했으며 3선 대통령 출마 시 장총단공원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이며 후계자를 찾겠다"고 호소할 공약을 뒤엎고 영구집권 독재체제를 만든 그의 기만과 우롱에 국민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외치는 지식인과 종교인, 학생들을 체포감금하고 정당하게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청원마저 파소적 철권으로 짓누른 독재자와 그의 "유신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둘째, 극도의 빈부 격차와 부정부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같이 외어오던 박정권의 "경제성장"은 특혜를 입은 극소수의 대재벌에게만 엄청난 부를 집중시켰고 중소기업의 몰락과 서민생활의 빈궁화를 가져왔다. 수십억 불의 외국 빚을 들여다 부실기업을 만들어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국민생활의 실정과 공익을 무시한 사치성 소비산업을 도입해 낭비와 사치풍조만 조장했다. GNP는 높아졌고 수출은 증대되고 국민소득은 몇 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대다수의 국민 대중은 생계비가 안되는 저소득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고, 실업자, 빈민들은 슬럼지대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소수의 특수층은 "5척촌"을 이루고 에스카레타 장치까지 한 수 천만 원의 호화주택에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박정권이 약속한 근대화며

번영이었고, 이것을 위해 국민은 허리띠를 조르고 일해야 했는가? 이것이 국민총화이며 국력배양인가?

"중농정책"이다, "농공병진"이다, 구호를 외치고,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니, "풍요한 사회"를 선전하더니 고도성장을 달리고 있다는 경제발전이 어째서 국민경제의 기본이 되는 식량과 연료문제도 해결 못하고 매년 수 억불어치의 외국 쌀을 빚으로 사다 먹는 형편이 되었는가! 생산량과 통화량, 물가 지수와 실업자수의 경제계계를 한 번도 정직하게 사실대로 발표한 적이 없고 과시주의와 전시효과 위주의 졸렬하고 불성실한 경제정책을 거듭해 온 박정권이 다시금 무슨 찬란한 용어를 쓰면서 사탕발림을 해도 이미 속을 대로 속은 국민은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는다. 외자도입과 금융특혜에 얽힌 어마어마한 부정과 썩을 대로 썩은 특권층의 파렴치한 부패 타락을 아는 국민은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박정권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셋째, 굴욕적 대일 정책이 국민경제를 예측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박정권의 이성을 잃은 경제정책과 굴욕적인 자세가 국민경제와 사회풍조를 점차 예측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부패와 무절제로 빚만 남기고 실패한 차관정책을 직접투자자로 바꾸어 박정권은 경제적 침략을 노리는 일본의 사양산업을 마구 끌어 들이고 있다. 49%까지의 외국투자만 허용하던 그나마의 보호정책을 100%까지 투자하게 양보해주고 민족산업의 파탄을 가져오게 했으며 지배와 침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일본기업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공업단지를 닦아주며 더욱이 일본노동자의 4분의 1도 못되는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쟁의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극히 굴욕적인 조약을 맺어 국가 이익을 팔아먹고 있다. 그나마 고갈되어가는 국내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모인정한 경제 동물들이 단숨에 흡수해버리지 않겠는가? 민족의 고혈을 빨아가는 경제적 식민정책을 모르는가, 벌써 잊었는가?

중화학 공업이라는 미명하에 민족 경제성장과는 상관이 없는 일본의 공해산업을 들여와 조국의 강토를 못쓰게 더럽히고 매판자본가들을 앞세워 국민경제를 일본경제 권속에 예측시킬 위기와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다.

어느새 왜색종교와 문화가 이토록 민족문화를 침식했고 처녀들의 정조를 토산품이라고 팔아먹는 망국적, 반민족적 퇴폐가 이사회에 흥미하게 되었는가?

넷째, 잔악무도한 정보정치는 공포에 떨게 한다.

오직 박정권의 안보만을 위해 매수와 조작과 잔혹한 고문을 구사하며 온갖 비인도적 만행을 다하고 있는 정보 조작은 국민의 양심을 마비시켰고 민족의 의기를 꺾었으며 사회 각계에 불신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 놓았다. 진리의 전당인 학원과 사회적 양심을 대변하는 언론을 온갖 악랄한 수단으로 질식시켰고 민주적 신념을 가진 지식인과 정치인을 테러하였으며 공갈, 사취, 밀수 등 사회악과 범죄에 기식하면서 세계 여론에 의해 "마피아단"이라고 규탄되고 있다.

죄 없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끌고 가, 법도 인도도 존재치 않는 정보부의 지하실에서 몽둥이로 치고, 불로 지지고, 불구로 만드는 마수의 집단이 김대중씨를 수은을 먹여 현해탄에 던지려했고, 최종길 교수를 고문으로 죽게 하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국민은 혈세를 바쳐 이같은 악의 떼들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허비하게 하고 그리고 또 공포에 떨어야 하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양심마저 짓밟은 채 독재자가 영국집권의 아성을 쌓기에 광분하는 오늘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도 후진국의 운명이려니" 하며 체념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언제는 별 수 있었느냐"며 자학과 패배주의에 사로 잡혀서도 안 되겠다. 불의가 승리하고 독재가 참월하는 이 오욕의 역사를 비굴하게 살다가 후대에까지 물려줄 것인가? 민족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시민의 이성과 양심을 테러하는 이 현실을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침묵이나 방관은 곧 현실에의 긍정이요, 동조이다.

국민이여! 민주사회 건설의 동지여!

독재의 세뇌에서 벗어나올 바른 비판의식을 갖자!

용기를 가지라! 힘을 모으라! 그리고 "독재정권아, 물러가라"고 함성을 지르자!

아무리 철면피의 독재자라도 줄지어 외치는 국민 전부를 옥에 가두고 혼자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민심의 기반을 잃고 우방국가들의 지탄을 받은 박정권이 오래 버틸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체제의 개혁이 없는 단순한 정권이나 인물만의 교체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구국을 방자하여 일어날 지도 모를 제2의 군사쿠테타를 우리는 철저히 경계한다. 그것은 항상 민주사회를 배반하며 권력탈취의 악순환을 가져 올 뿐이다. 올바른 민주사회는 국민대중이 주권을 회복하고 사회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가와 사회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설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대중 스스로가 확고한 민주 의식과 참여정신을 통해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탄압과 방해할 무릅쓰고 이국 땅 한 모퉁이에서라도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며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동포들과 함께 반독재 투쟁의 대역에 뭉치고자 한다.

독재여 물러가라! 동지들이여, 승리하라!

1974년 3월 1일 3.1운동 55주년의 날에

강도구, 강영란, 강정숙, 김길순, 김득수, 김복선, 김복희, 김영한, 김종열, 박대원, 박소은, 박종대, 배동인, 배정석, 서돈수, 손덕수, 송두홍, 송영배, 김원화, 양원차, 오길남, 오대석, 오인탁, 유충준, 윤이상, 이민상, 이보영, 이삼열, 이승자, 이영빈, 이영준, 이재형, 이정희, 이준모, 이지, 이지숙, 이태수, 이화선, 임신자, 임승철, 임영희, 임학자, 임희길, 장성환, 장행길, 정정희, 정하은, 천명운, 최두환, 최순택, 최승규, 홍중남, 황능현, 김순환, 송복자.

민주사회건설협의회 발기를 추진하며

1. 우리는 위 선언문의 취지에 따라 민주 국민으로서의 양식과 책임감을 갖는 동지들과 함께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자 한다.
2. 이 협의회의 기본적 태도는 다음과 같다.
 - ㄱ. 우리는 어떠한 독재체제라도 거부하며 이의 철폐를 위해 노력한다.
 - ㄴ. 우리는 진정한 자유 민주질서의 회복과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 ㄷ.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의 예측을 획책하는 어떠한 형태의 신식민주의적 침략도 배격하며 자립경제의 확립을 지향한다.
 - ㄹ. 우리는 국민대중의 생존권 보장과 실질적 복지향상을 위해 힘쓴다.
 - ㅁ. 우리는 민족적 방법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매진한다.
3. 우리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함께 연구 토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지며 출판물을 간행하고 국민대중의 의식고취와 사회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한다.
4. 우리는 진정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생각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이 순수한 믿음과 협력의 정신으로 참여해 줄 것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것을 바란다.

<제 2선언문> (발췌) (1979년 3월 1일)

"30여 년 동안의 국토분단으로 인한 단절된 혈육과 산하의 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대결 현실은 남북한 간에 서로 과도한 체제경쟁을 낳았고 이로 인한 우리민족의 정신적, 물질적 손실은 남북한을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뼈저리게 느껴왔다.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국제정세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토분단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강한 조국을 우리후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나 정열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뭉치는 작업을 서둘러야한다."

이를 위하여

- 1) 한반도 통일의 원칙은 평화, 자주, 민족대단결이다.
- 2) 군비경쟁을 지양해 이를 민중의 복지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 3)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위해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 특히 독재폭압기구(중앙정보부 등)해산, 독재유지법(국가보안법등)등 제 악법의 폐기, 반민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제도적 보장을 해야 한다.
- 4) 자주성과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와 수교해야 한다.
- 5) 민중의 복지를 위한 자립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 6) 근로민중에게 사회적 부를 공정히 분배하는 제도적 보장을 해야 한다.
- 7) 환경문제등 사회개발정책의 제 모순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 8) 언론·출판·결사·집회·사상·신앙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주요 임원 :

윤이상(작고), 송두울(초대 의장), 강돈구(작고), 김길순(작고), 정규명, 이종수(국내), 송영배(국내), 이삼열(국내), 박대원·임희길(현 민건동지회(준)의 공동대표) 등

주요 활동 :

민건이 추구했던 투쟁 내용은 크게 1. 민주사회건설과 2. 민족 자주권 회복을 위한 것이었는데, 남북통일안을 비교하는 통일세미나(75년)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독일 내 지식인, 종교단체, 진보적 정당 등과 연대해 유신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를 규탄하고, 이를 독일 사회에 알리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김지하 및 김대중 구출운동 등을 통해 억압당하는 인권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데 힘썼다.

민건회는 독일 내 뿐 아니라, 한민련 등 일본, 미국 등 민주단체들과도 연대해 공동 심포지엄 및 성토대회를 제네바, 파리, 도쿄, 뉴욕, 워싱턴 등지에서 열기도 했다.

기관지 :

<광장>(1974년7월15일 발간)이 있고, 1976년 1월 15일부터 <민주한국>(die demokratie korea)으로 개편하여 1983년 지령 제50호까지 발간

해체 과정 :

1978년 통일문제 등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의 의견차로 이삼열·이정의·장성환 목사 등이 주도한 「한국민 주사회건설협의회」(약칭 한민건. 이후 한민건의 활동은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자주)가 분열되었다. 민 건회는 1984-5년경부터 활동이 거의 없다가 1989년 이종수 의장(현 KBS 이사장)의 귀국과 오길남(부의 장 역임. 현 국정원 산하 연구소 연구원)씨의 입북 및 탈북사건 등으로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정식해체를 선언한 바는 없다. 2003년 송두율(전 의장)교수 사건으로 여론에 부각되었으며 ‘민건동지회(준)’ 명의로 2004년 3월 30주년 기념행사를 프랑크푸르트와 서울에서 각각 가진바 있다.

관련 자료 :

<민주한국> 자료집,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장 이종수), 1987
<민주한국> 사설집, 민건회, 프랑크푸르트, 1984
<민주한국> 제43호, 1982.1.22 (이하 <민주한국>의 주요내용은 본고 II.5참조)
<민주한국> 제44호, 1982.3.30
<민주한국> 제45호, 1982.5.12
<민주한국> 제46호, 1982.6.26
<민주한국> 제47호, 1982.9.24
<민주한국> 제48호, 1982.11.12
<민주한국> 제49호, 1983.2.8
<민주한국> 제50호, 1983.5.31
유럽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 (1), 월간 <말> 2000년 10월호
민건 30돌 기념식 준비 자료집, 민건동지회(준), 2004

2. 노동운동

단체명 : 재독한인노동자연맹 (Koreanischer Arbeiterverband)

약칭 : 노연

소속 체 또는 상급 단체 :

한민련유럽본부에 소속. 단 유럽민협 존속기간 중엔 유럽민협에도 소속

존속 기간 :

1975년 가을 -1991. 이후 전태일기념사업회유럽지부와 함께 재유럽한인노동자모임으로 통합

주요 활동 지역 :

뒤스부르크, 보쿰 등 재독 광산노동자 밀집지역인 루르지방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유럽 최초의 노동자 조직으로 계급의식이 강하며 80년대 후반이래로 통일운동에 자신의 역량을 모았다.

결성 과정 :

초기엔 노동자들도 모두 민건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유럽지역 동포구성의 특성상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광부들이 주축이 된 노동자운동과 간호사들 중심의 여성운동단체로 발전하게 된다.

7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며 세계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독일의 불경기는 파독 광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수십 명씩 집단해고를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할 길이 없었다. 믿었던 한국대사관마저 기업주편에 서서 고압적 작태로 이들을 위협했다. 고분고분 시키는대로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여기엔 기관원 프락치까지 끼어있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발쭌(Walsum) 사건’이라 불리는 재독광부 대량해고사건을 계기로 파독 광원들의 인권 옹호와 생존을 위해 1975년 가을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광산지역이 밀집되어있는 독일의 중서부인 루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조직 체계 :

총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회(조직부, 교육부, 사회활동부, 섭외부, 선전부 등)

강령 및 규약 :

노연은 국제노동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첫째,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모든 비민주적인 세력과 투쟁하고, 둘째, 한국의 노동운동 발전에 이바지할 것과, 셋째, 이를 지원하는 모든 국제노동 및 사회단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5.11.29 재독한인 노동자연맹 정관 제2조 목적 참조)

<창립선언문>

재독 한인 노동자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 인류의 사조는 노동대중이 소수 착취자에 의한 노예적인 상황에서 착취와 억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노예적 상황 속에서 인류의 역사발전의 흐름에 역행하여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고 살아왔다.

이러한 우리의 의타적이고 숙명론적인 태도는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과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지난 4월 발쭌 광산에서 있었던 정보원 꼬나폴들의 소란에 대하여 한국인 노동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당국에만 의뢰한 결과 몇사람의 동료들에게 희생만 당하게 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레클링하우젠에서는 40여명의 한국인 광산노동자들이 75도의 경사와 2미터 높이의 막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20-40마르크라는 임금착취 현상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해 투쟁할 방도를 모르고 “덕망 있는 분에게 일을 부탁했으니까 잘 되겠지”하는 환상과 의존심 때문이며, 지난 9월 캠프린트포트에서 23명의 한국인 광산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했을 때도 당국은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당하게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기는커녕 해고에 동의하고 강제출국이라는 위협으로 이에 대답하였다.

그러면 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당국은 우리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이처럼 냉담하며 오히려 기업주편을 들게 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속성과, 권력층이 자본가와 결합되거나 예속되어 있는 관계이다. 둘째는 한국과 독일 사이의 경제적인 예속관계로 말미암은 한국광부들에 관한 두 정부사이에 맺어진 불평등한 협정에서 비롯되며,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이 독일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와 자본축적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때는 당국은 자본의 시녀노릇을 한다. 짓밟히며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체제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노동대중이 서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국제노동운동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

단결과 투쟁!

이것은 우리 노동대중이 짊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한국에 있는 노동대중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며, 둘째, 이곳 서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노동대중들과의 연대 속에서 국제노동운동의 승리와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재독한인노동자연맹을 결성하고 이를 선언하는 바이다.

1975년 11월 30일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일동

주요 임원 :

이영준, 이종현, 한영태, 이한경(80년부터 해산 시까지 위원장) 등

주요 활동 :

캄프린트포트 광산 한국인노동자 23명에 대한 집단해고와 이에 야합한 주서독대사관의 처사에 항의하는 호소문(1975.10.20)에서 시작한 노연의 활동은 노동자로 독일로 오게 된 교포들에 대한 의식화작업을 비롯하여 매년 국제노동절행사참가와 루르지방에서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켐나데 국제연대행사에서의 참가와 국내노동운동과의 연대 등으로 이어졌다.

기관지 :

해방(Befreiung) 및 노연통신

해체 과정 :

범민련 유럽본부가 발족하면서 노연의 주요멤버들이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3단체의 일원화가 제기되면서 베를린 노동교실을 제외한 전태일 기념사업회 유럽지부와 통합하여 재유럽한인노동자모임이 되었다. 하지만 회원들이 범민련 등 통일운동에 집중함으로써 중심을 상실한 새 단체는 활동 없이 결국 유명무실해진다.

관련 자료 :

- 호소문, 재독한인노동자연맹, 1975.10.20
- 창립선언문, 1970.11.30
- 해방 제4호, 1978.3
- 해방 제9호, 1982.1
- 해방 제10호, 1982.10
- 노연통신 창간호(75.10.28)~114호(87.05.10) (사업회 사료관 소장)
- 노연 13차 정기총회, 프랑크푸르트, 87.12.12-13, <민주조국> 제2호, 1988.1.1
- 노연 정기총회, 민주조국 제14호, 1989.1.1
- 노연, 한스제약노조와 연대투쟁, <민주조국> 제20호, 89.7.11
- 노연, 민중문화모임 등 켐나데국제연대축제 참가, <민주조국> 제20호, 89.7.11
- 노연 15차 정기총회, 10.21-22, <민주조국> 제24호 89.11.1
- 이한경 선생 회갑기념문집 '분단을 딛고', 1998
- 노연 강령 규약문

단체명 :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약칭 : 없음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없음. 단 유럽민협 존속기간 중엔 유럽민협 소속. 후에 재유럽노동자모임으로 흡수됨.

존속 기간 : 1986.2.1-1991

주요 활동 지역 :

보쿰, 레클링하우젠 등 루르지방이 중심이 되어 전독적 차원에서 활동함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고자하는 독일의 광산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의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지부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계승하고자 했으며, 매년 11월 전태일 열사 기념식을 치루며 열사의 정신을 기렸다. 노태우 정권 후기에 와서는 전태일 열사를 포함한 노동열사들에 대한 합동추모제로 확대했다. 기금을 모아 국내 전태일기념사업회에 전달하며 연대를 다지기도 했다. 또 국내 관계자(전태일의 동생 전순옥씨와 사무국장 정인숙씨)를 초대하여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유럽동포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한편 노연이 노동자들의 계급성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강조하여 '소수 정예화'되었다고 본다면 전태일기념사업회는 대중성과 국내와의 연대가 노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

결성 과정 :

국내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80년대 중반에 보쿰의 최정규, 레크링하우젠의 현역광부(당시) 김대천씨 등 노동자들과 일부 유학생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태일기념관 건립위원회 유럽지부(목적: 전태일 동지의 뜻을 기리고 이 나라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사회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에 있다)가 국내운동의 발전과정에 맞추어(국내에서 먼저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가 전태일기념사업회로 바뀌었다)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를 결성한다.

조직 체계 : 총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강령 및 규약 :

<강령>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며, 마침내 노동자가 주인되는 정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 전태일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내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천만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사회의 건설과 민족자주통일을 지상과업으로 삼는다. (규약 제3조 목적 참조)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행동방침으로 1.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독재체제를 타도하고 민중에 의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예속경제를 탈피하고 자주적인 민중경제를 수립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한다. 3. 퇴폐적인 외래소비문화를 말소하고 일과 삶과 즐거움이 하나가 되는 진취적이고 생명력있는 민중문화를 창달한다. 4. 기념사업회는 본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 굳건히 연대한다.

주요 임원 : 김대천(회장), 최정규, 어수갑 등

주요 활동 :

전태일 열사 추모제,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동학갑오농민제(대동제),수련회

기관지 : 없음

해체 과정 : 범민련 결성과정에서 동포노동운동가들이 통일운동 쪽으로 중심이동을 하면서 1991년 노연과 함께 재유럽노동자모임으로 통합된다. 통합과 더불어 노동운동활동은 유명무실해진다.

관련 자료 :

-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강령 및 규약, 1986.2.1
-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창립총회 보고서, 1986.2.2
-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창립, <우리나라> 제38호, 1986.3.1
- 전태일 열사 추모제,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주최 유럽민협 후원, 베를린 민협사무실, 1987.11.13-15 <민주조국> 제1호, 87.11.30
- 전태일기념사업회 정기총회 및 재유럽노동단체 공동수련회, 베를린, 88.4.29-5.1, <민주조국> 제7호 88.6.1
- 국내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연대사, <민주조국> 제7호 88.6.1
- 연대사, 전태일기념사업회, <민주조국 제12호> 1988.11.1
- 전태일 추모제, 베를린, 11.19, <민주조국> 제13호 1988.12.1
- 전태일기념사업회 4차 총회 및 노동단체 공동학습회, 89.4.29-5.1, <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전순옥씨 강연회, 괴팅엔·베를린·프랑크푸르트, <민주조국> 제19호 1989.6
- 전태일 열사 20주년 추모제, <민주조국> 제36호 90.12.1

단체명 : 베를린노동교실(처음엔 서베를린노동교실로 시작하다가 독일통합 후 개칭)

약칭 : 노동교실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유럽민협 존속기간 중에 유럽민협에 참여

존속 기간 : 1983- 현재에 이름

주요 활동 지역 : 베를린

단체의 성격과 의의 :

국내노동운동과 연대하는 베를린 지역 노동자들의 단체로 기존의 노연과 비교해 볼 때 계급성을 강조하기보다 대중성과 회원 의식화에 상대적인 역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통일운동의 고양기였던 1990년대에 도 다른 노동운동단체들이 통일문제에 매몰되어 고유한 활동을 접고 있을 때에도 꾸준하게 자기활동을 하며 존속해왔다.

결성 과정 :

결성과정에서 베를린자유대학에 유학중이던 김세균, 황병덕과 민건희의 이종수 등이 결성을 도왔고, 이들이 귀국한 후에는 어수갑 등의 유학생들이 함께 했다.

조직 체계 : 회장과 서기, 교육부장 등이 있다.

주요 임원 : 윤운섭, 김해동, 김아일 등

주요 활동 : 매년 메이데이행사 참가, 독일관련 국내 노조 지원, 노동자교육, 성탄 바자회, 단막극 공연

기관지 : 없음

해체 과정 : 현재도 존속

관련 자료 :

-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서백림노동교실, 여성회 등 서독 각지에서 노동절 행사,87.5.1,<민주조국> 창간호, 87.11.30
- 연극 공장의 불빛 공연, 서베를린 여성회와 서백림노동교실 연극팀, 튀빙엔, 87.6.6,<민주조국> 창간호, 87.11.30
- 공장의 불빛 연극관련 슈피겔지 번역 기사,<민주조국> 창간호, 87.11.30
- 노동교실 정기총회 및 성탄바자회, 87.12.26,<민주조국> 제2호,1988.1.1
- 연대사, 맥스테크 한국 노동조합이 노동교실에,88.4.8,<민주조국> 제6호88.5.1
- 노동교실 바자회,<민주조국> 제14호 1989.1
- 노동교실 정기총회,1.8,<민주조국> 제15호 1989.2.1
- 노동교실,지멘스 파업노동자 연대투쟁,<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노동교실,성탄 바자,<민주조국> 제25호 89.12.1
- 지멘스노조,노동교실에 감사서한,<민주조국> 제25호 89.12.1
- 노동교실 총회,<민주조국> 제27호 90.2.1
- 백림노동교실 정기총회,<민주조국> 제37호 91.2.1
- 홍세화, 단막극 '198x년 겨울·서울' 원본

3. 여성운동

단체명 :재독 한국여성모임 (Frauengruppe in Deutschland)

약칭 : 여성모임 또는 여성회 또는 Frauengruppe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없음. 1987.9 유럽민협 창립 후 1991.10까지 유럽민협에 소속됨. 현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2001.7 발족)에 참여

존속 기간 :

1978.9.17 프랑크푸르트에서 창립총회부터 현재에 이름

주요 활동 지역 :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괴팅엔, 하이델베르크, 보쿰 등 루르지역, 브레멘 등

단체의 성격과 의의 :

해외민중단체 중 풀뿌리민주주의가 가장 철저하게 실천되는 조직이라는 강점은 동시에 일사불란한 일처리엔 적합하지 않은 구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의 동포여성들의 이해관계와 비교적 단단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지형변화라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여성 특유의 질긴 생명력으로 자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여성단체이며 대부분이 간호사라는 직업의 노동자출신들이라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급의식도 강하고 동질감과 결속력이 강하다.

결성 과정 :

박정희의 인력수출의 일환으로 독일에 온 간호사들에 대한 계약완료로 그들을 강제송환하려는 독일 정

부는 자국 간호원의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간호원에게 간접, 직접적으로 귀국조치를 취했으며 본격적으로는 1977년부터 노동허가와 체류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강제추방을 시작했다. 당시 16,000명의 외국인 간호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국인이 약 6000명이었다. 한국 간호원들의 집단해고 사태도 발생했다. 뮌헨의 어느 병원에서는 17명이 집단해고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파독간호사들은 거리로 나섰다. 1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정부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독일에서 파독간호원들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일하던 독일인들은 11,000명의 서명을 받아 냈고 여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재독한국여성 모임이 결성된다.

1976년 4월, 50여명의 여성들이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한국 간호사들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후 1978년 9월 17일 「재독 한국여성모임」을 결성한다. 이들은 이어 재독 한국인간호사 추방반대서명운동에 나섰고, 마침내 그들은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쟁취했다.

조직 체계 :

지역모임과 대표회, 총회, 총무단, 소위원회가 있다.(2002년 새 회칙에 의거)

강령 및 규약 :

<창립선언문>

우리들 재독 한국여성은 이곳 독일에 체제하면서 갖는 공통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해결하고자 1976년 4월에 처음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모임을 가졌다.

한국여성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가지던 중 이곳 한국인 여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간호요원들의 체류문제가 강제귀국처사에 다달았음에 이에 반대한 서명운동을 전독적으로 전개하였고 그로서 독일 여론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미 자치적으로 구성된 각 지역모임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보다 유기적으로 각 지역의 활동을 조정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지;r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기 여성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입장과 행동방향을 밝혀 조직체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낼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내적으로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될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할 더 많은 동조자를 얻기 위함이다.

여성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입장

여성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시대와 나라의 사회구조의 문제점 속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며 해결의 방향이 제시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여성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가지는 모든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즉 한국여성문제는 국제관계의 모순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후진국 여성의 문제로서 파악되며 민족해방, 사회해방, 나아가서는 인간해방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본다.

여기 모순된 한국사회구조의 가장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희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 농촌의 여성근로자들 및 한국사회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헤매는 수많은 인간부재의 여성들 속에 한국여성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며 이들 여성들의 생존권, 인간의 존엄성 획득이 한국여성운동의 당면과제라고 본다.

한편 인력수출정책의 일환으로 이곳 독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우리는 한국근로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갖는 문제를 함께 논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곧 한국여성문제 해결에의 한 구체적인 실천이 된다고 본다.

나아가서 우리는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성을 구속하는 사회구조자체의 질적변화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는 동시에 인간의 의식구조를 혼돈하게 하는 모든 여성 적대적인 인류문화의 유산을 검토, 타개하는 부단한 행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상의 우리 입장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가진다.

행동방향

1.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순 속에 처해 있는 도시, 농촌의 근로여성 및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는 모든 여성들과 연대하며 그 문제해결에 적극 이바지한다.
1. 우리는 재독한국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곳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며 사회에 능동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한다.
3. 우리는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의 인습과 문화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전 인간의 의식화를 주장하며, 새로운 인간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한국사회의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 단체 및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들과 유대관계를 가진다.

1978년 9월 17일

재독한국여성모임

(프랑크푸르트 창립총회에서 통과되고, 1990년 베를린 총회와 1997년 10월 도르트문트 총회를 거쳐 2002년 4월 20일 빌레펠트 제2차 임시총회에서 기본입장과 실천방향 및 회칙이 개정되었다.)

<회칙 제1장 총칙 중 목적>

본회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어떠한 형태도 거부하는, 궁극적 인간해방을 구현하기 위한 본회의 행동방향을 민주적 원칙에 의해 실천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임원 : 이은자(초대 총무, 국내 거주), 전미자, 조국남, 이한나, 김진향, 최영숙, 유정숙, 서의옥, 현경애 등이 역대 총무 역임

주요활동 :

1) 한국내 노동운동과의 연대

여성모임은 재독한국간호사와 한국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한 고리 속에서 찾으면서 행동방향에 국내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자기 과제 중의 하나로 세웠다.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1979년)에서는 '한국의 근로여성'을 주제로 하여 회원들이 여성노동자들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공부를 한 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똥물사건(1978년)에 분노한 여성모임은 강제퇴직 당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독일 전역에서 벌였다. 그 사건에 뒤이은 YH사건(1979년), 원풍노조투쟁(1982년) 등의 치열했던 한국에서의 노동투쟁은 여성노동운동과의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연대방법을 모색하게 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연대활동들(한국소식의 독일어 번역과 배포, '한국의 밤'을 각 도시에서 개최하여 한국의 노동 상황 및 정치현실을 폭로하고, 국제분업의 연관성을 독일사회에 여론화시키는 일, 각 도시와 지역의 행사나 축제 때 한국음식을 만들어 팔아 이익금 한국에 보내기, 한국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모금운동과 회원들로부터 의무적인 성금거두기, 한국여성노동자들과의 신속한 연락을 위한 소모임 조직, 관련 자료집 만들기)이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1986년과 1987년의 독일 아들러 봉제기업의 하청관계인 이리 후레아 패션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에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여 국제연대운동의 모범사례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 문화활동

여성모임의 중요사업의 하나인 문화활동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스스로가 알고 2세들에게 전하며 독일인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범람하는 천박한 미국문화나 지배층의 문화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민중들의 삶을 통한 문화를 세미나 등을 통해 학습하거나 한국의 민중문화 활동가들로부터 연수를 받았다.

1979년 베를린의 탈춤반을 시작으로하여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제로 한 문부식·김현장 구명운동 단막극, 여성노동운동을 주제로 한 '공장의 불빛', 동학을 연극으로 꾸민 '금강' 등

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졌다. 아울러 베를린 지역의 여성회 회원을 주축으로 하는 풍물패 ‘들풀’과 뮌헨 지역의 풍물패 ‘바람’,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프랑크푸르트의 ‘단비’와 베를린의 ‘천둥소리’를 꾸렸다.

3) 2세에 대한 언어교육실시

2세들에게 모국을 알게 하고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찾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언어교육은 1981년부터 84년까지 베를린에서 주말한국학교를 운영하고(그 이후에는 정식 한글학교가 세워졌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한인학교를 꾸려 한국어교육을 시켰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현재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세 한글교육을 지속시키고 있다.

4) 독일어 언어연수

한국과의 국제연대활동 강화로 인한 번역 및 통역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필요에 부응하여 1989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한 독일어연수를 실시했다.

5)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위해 <국제연대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국의 정신대대책협의회와 연대하여 정신대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공개행사와 책자 발간 및 여론화 작업을 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도쿄 법정에 여성모임 대표들을 보내기도 하였다.)

6) 여성의 전화 설치

독일 거주 한국여성들이 익명으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여성모임 내부에 갖추었다.

7)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

-격년으로 개최되는 독 개신교 대회 참가 (1977년부터)

- 광주항쟁 단식투쟁 동참 및 오월민중제에 타 단체들과 연대하여 매년 참가

-문부식·김현장 구명운동 동참(1982년)

-제1차 ‘외국여성과 독일여성들의 회합’에 참가(1984년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노동교실 등과 연극 ‘공장의 불빛’ 공연 및 제 민주단체들과 동학제 “금강” 공동준비 및 공연

-코레아 코미테(한국연대위)와 공동으로 88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한국 정치상황 폭로활동

-독일여성인권단체인 ‘Terre des femmes(여성의 대지)’ 등과 연대하여 이리 후레아 패션의 노동투쟁 지원

-독일 학생장학회인 ‘ASA’에서 이영순 등 한국 여성노동자 2명이 초대되었을 때 순회강연 공동준비 및 진행(1988)

-‘Stiftung Umverteilen für eine solidarische Welt (연대하는 하나의 세계를 위한 분배 재단)’의 여성부와 아시아부에 회원조직으로 활동

-유럽민협의 소속단체로 활동(1987-1991)

-독 녹색당 재단 ‘Frauen Anstiftung(여성 재단)’의 회원 조직으로 활동

-캠페인을 위해 조직된 ‘Kampagne Südströmungen’에서 아프리카,아시아,남미여성들이 공동으로 1년간 벌인 폭력과 차별대우 종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1992-1993)

-베를린 일본여성모임과 함께 ‘여성의 존엄-인간의 존엄. 전쟁과 강간’이란 주제로 정신대 문제 국제대회를 베를린에서 개최(1993)

기관지 : 재독한국여성모임 (년1회 발간) 및 까치소리(계간)

해체 과정 : 없음

관련 자료 :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25주년 기념문집, 2003

-25 Jahre Koreanische Krankenschwestern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한국간호사 25년사), 재독한국여성모임 발간, 1995

- <재독한국여성모임> 창간호, 1979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2호, 1980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3호, 1981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4호, 1982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5호, 1983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6호, 1984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7호, 1985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8호, 1986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9호, 1987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10호, 1988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11호, 1989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12호, 1990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13호, 1992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14호, 1993
- 여성회 11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 슈미텐, 87.10.9-11, <민주조국> 제1호, 87.11.30
- 여성회 대표자모임 및 회지9호 발간, 88.1.15-17, <민주조국> 제2호, 1988.1.1
-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행사, <민주조국> 제5호, 88.4.1
- 여성회, 9개국 여성단체와 연대, <민주조국> 제5호, 88.4.1
- 여성회 봄세미나 개최, 도르트문트, 88.4.8-10, <민주조국> 제5호, 88.4.1
- 한국여성노동자 서백림 강연, 88.5.19, <민주조국> 제7호, 88.6.1
- IMF 세계대회 반대행사 여성회, 노동교실 참가, 9.26-29, <민주조국> 창간호, 1988.10.1
- 여성회 총회 및 가을세미나, 뉘른, 9.29-10.2, <민주조국> 제11호, 1988.10.1
- 여성회, 여성노동자복지회관 설립모금, <민주조국> 제12호, 1988.11.1
- 여성회, 여성이주자와 망명자대책 전국대회, 11.14-16, <민주조국> 제13호, 1988.12.1
-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성명, <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 여성회 봄세미나 및 임시총회, 3.31-4.2, <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여성회 총회, <민주조국> 제24호, 89.11.1
- 여성회, 민족상 수상자로 선정, <민주조국> 제25호, 89.12.1
-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가, <민주조국> 제29호, 90.4.1
- 외국인법 규탄대회, <민주조국> 제29호, 90.4.1
- 여성회 임시총회 및 봄 세미나, <민주조국> 제30호, 90.5.1
- 여성회, 한국간호원 파독25주년 행사, <민주조국> 제34호, 90.9.20
- 여성회 파독25주년 행사 및 정기총회, <민주조국> 제35호, 90.11.1
- 여성회 봄세미나, <민주조국> 제39호, 91.4.1
- Zwangsprostitution im Asien-Pazifik-Krieg Japans(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강제 성매매), 베를린 일본 여성회/베를린지역 재독한국여성모임(사단법인)/연대하는 하나의 세계를 위한 분배 재단, 1993

4. 문화운동

단체명 : (사단법인)한독문화협회 (Koreanische Deutsche Kulturkreis e.V.)

약칭 : KDK(카데카)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유럽민협 존속기간 중 유럽민협 소속.

존속 기간 : 1985-현재에 이름

주요 활동 지역 : 베를린

단체의 성격과 의의 :

보콴의 한국민중문화모임(후술 참조)이 광부·간호사 등 한국인들의 단체라면 베를린의 한독문화협회는 한국문화의 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독일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진 단체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족전통문화를 배우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기 위한 장으로서 새로운 문화운동형태의 2세교육을 위해 1989-94년까지 베를린시의 보조를 받아 단비라는 청소년회관을 꾸밀 수 있었으며, 그 결과물로 194년 청소년 사물놀이패인 천둥소리가 태동된다.

그리하여 한독문화협회는 한국인 2세들이 독일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내려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다문화사회에서 타민족들과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일구었다.

결성 과정 : 작가 루이제린저와 연극예술인 오토 친스키를 비롯한 독일 문화예술인들과 윤이상 교수 및 한국 간호사 출신들이 주를 이뤄 1985년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결성되었다.

조직 체계 : 고문, 회장, 부회장 등

강령 및 규약 :

KDK는 한독간의 문화교한 특히 민중문화의 창달과, 부모세대의 문화적 전통을 후발세대에 교육시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민중음악과 민중춤, 민중미술의 영역에 대한 문화공연을 스스로 개최하거나 중개하며, 한독인들 특히 그들의 후세들을 위한 민중음악과 민중춤을 위한 세미나 및 어학연수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1985년 6월 30일 발기인회의에서 확정된 규약의 2조 번역)

주요 임원 : 윤이상 씨(고문) 이민자·김 도미니카· 최영숙씨 등이 회장 역임

주요 활동 :

베를린에서 해마다 한국의 날(Korea Tage)을 개최하여 한국전통의 춤과 음악, 사물놀이 등을 공연하였다. 1987년 한국의 날에 탈춤행사, 1988년 한국의 날 노래행사, 1990년 한국의 날에 통일의 북소리 공연, 1995년 한국의 날 행사에 해방50주년 기념행사, 1996년 한국의 날 난장 페스티벌을 주최했다.

한편 베를린 상원으로부터 청소년회관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한·독 청소년들의 모임인 단비(단장 송금희)를 운영하였으며, 1994년 김덕수 사물놀이패로부터 연수를 받은 2세 중심의 사물놀이 천둥소리(단장 최영숙)와 신명(천둥소리의 단원들이 성인이 되고 독일 전역으로 흩어져 활동하게 되자 그들이 다시 후세들을 교육하여 만든 단체)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기관지 : 없음

해체 과정 : 현재도 존속

관련 자료 :

-청소년세미나, 한독문화협회,87.12.27-88.1.3,<민주조국> 제3호 1988.2.1

-한독문화협회, 한국의 밤 행사, 88.2.26,<민주조국> 제4호88.3.1

- 한독문화협회 공연 및 영화상영, <민주조국> 제9호 88.7.29
- 한독문화협 정기총회, 11.1,<민주조국> 제13호 1988.12.1
- 한독문화협회 청소년세미나 및 정기총회,<민주조국> 제27호 90.2.1
- 한독문화협회, 통일의 북소리 공연,<민주조국> 제36호 90.12.1

단체명 : 한국인민중문화모임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민중문화모임으로 변경

약칭 : 민중문화모임(Verein der koreanischen "Minjung" Kultur e.V.)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유럽민협 존속기간 중엔 유럽민협 참여단체.

존속 기간 : 1986.11-현재에 이름

주요 활동 지역 : 보쿰을 비롯한 루르지방

단체의 성격과 의의 :

광부·간호사 출신이 밀집한 보쿰 지역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동포들과 그들의 2세들이 중심이 되어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중문화를 통해 동포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광주기념행사인 오월민중제 주관단체의 하나다.

결성 과정 :

1987년 봄부터 보쿰 시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한국인의 집’이 개소되면서 만날 수 있는 상설적인 공간이 확보되었고 민중문화모임 회원들은 그곳에 북이며 장고를 두고 풍물을 치게 되었다.

조직 체계 :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강령 및 규약 :

본 모임은 우리나라 민족, 민중문화를 발굴하여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며, 교민사회에 민족, 민중의식을 일깨우며 독일사회와 문화교류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

본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사업의 추진과 함께 한국인의 집을 설립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동 제4조 사업 참조)

주요 임원 : 최태호·최정규·조기상·김광호씨 등

주요 활동 :

보쿰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들에게 한국의 민중문화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일구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냈다. 또 ‘한국의 밤’이나 ‘한국주간’ 등을 독일인들과 함께 주관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한국의 민족민주운동과 연대하는 활동을 했다.

기관지 : 없음

해체 과정 : 현재도 존속

관련 자료 :

- 한국인 민중문화모임(86.11결성), 한국인의 집 개관식, 1987.4.4 보쿰, <민주조국> 제1호, 87.11.30
- 통일세미나, 한국인민중문화모임 주최, 보쿰, 87.11.28, <민주조국> 제1호, 87.11.30
- 한국인민중문화모임, 판화전 마당극, 87.12, <민주조국> 제2호, 1988.1.1
- 한국인민중문화모임 1차 정기총회, 보쿰, 88.1.9, <민주조국> 제3호, 1988.2.1
- 보쿰 한국주간 성료 88.3.5-22, <민주조국> 제5호, 1988.5.1
- 한국인민중문화모임 총회, <민주조국> 제27호 90.2.1

5. 언론 · 출판운동

출판물명 : 민주한국(die demokratie korea)

약칭 : 없음

소속단체 또는 상급단체 :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이에 대해서는 별항 참조)의 기관지

존속 기간 : 광장/Forum(1974년7월15일 발간)이 1976년 1월 15일부터 민주한국(die demokratie korea)으로 개편하여 1983년 지령 제50호까지 발간

주요 활동 지역 : 프랑크푸르트, 쾰른, 베를린 등

출판물의 성격과 의의 :

민건회는 매체를 발간하여 국내의 민주화투쟁 소식을 전하고 연대하는 일을 도모하였다. <광장>에서 <민주한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개편을 알리는 소리'에서 '총래의 '광장'을 민주사회건설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지로 편집의 방향을 바꾸고, 이러한 좌표설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그때그때 정리하여 속히 알리는 '민주한국'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고 쓰고 있다.(<민주한국> 1976.1)

결성 과정 : (민건회 항목 참조)

조직 체계 : (민건회 항목 참조)

강령 및 규약 :

<민주한국>은 “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사회 건설하자. 특권경제 지양하고 사회평등 이룩하자. 외세간섭 배격하고 민족주체 확립하자. 분단책동 분쇄하고 평화통일 이룩하자”라는 '우리의 주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주요 임원 :

송두울·김길순·이종수·오대석 씨 등이 유학생들과 함께 만들

주요 활동 : 신문 발간

해체 과정 :

베를린에서 <민주한국>을 송두율, 이종수씨 등과 함께 만들던 김길순씨가 한국학술연구원(후술 참조)을 결성하고, 또 함께 신문발간을 거들던 유학생들이 귀국하게 되자 역량이 줄었으며 그에 더하여 <우리 나라> 신문이 오석근씨에 의해 발간되고 민건회 활동이 차츰 둔화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정간하기에 이른다.

관련 자료 :

<민주한국>제43호(1982.1.22)

- 이태복씨에 사형
- 민건회 세미나(1981.12.19/20 프랑크푸르트) 성황
- 마부르크에서 한국의 밤 개최
- 재독한국여성모임 총회
- 한민련구주본부 대표자회의
- 동경에서 한민련 조직개편
- 사설; 민중혁명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자
- 한국경제의 현실과 민주화 운동의 방향
- 역대 한국군 주요지휘관의 출신성분 분석
- 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민주한국> 제44호(1982.3.30)

- 부산 미문화원에 불
- 캐나다에서 전두환 암살기도?
- 서백림에서 코리아 심포지엄 개최
- 신년 국정연설에서한 통일제안
- 국토통일위원장 대북한성명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김일위원장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민주한국> 제45호(1982.5.12)

- 타오르는 반미투쟁 성조기도 불살라
- 결렬된 한일경제협력
- 광주의거 2주년 맞아 각지에서 기념행사; 서백림·뮌헨그라드바하·하이델베르크·동경
- 제네바, 제5차 민족통일심포지움
- 한반도와 제한 핵전쟁
- 한미수교 백주년의 의의
- 최기식 신부님의 양심선언

<민주한국> 제46호(1982.6.26)

- 전두환정권의 금융부정사건, 학생데모로 번져
- 본(Bonn), 반전반핵데모 한국인도 참여
- 프랑크푸르트, 한민련회의 개최
- 서백림, 한민련대표 배동호 선생 맞아 간담회
- 파리, 한국인권문제 국제회의, 국제인권문제와 한민련 공동주최
- 프랑크푸르트,재독한국여성모임 '광주봉기백서' 토론
- 동경, 반전반핵 국제집회
- 한국노동자, 성장의 동력이나 희생물이나

-뒤셀도르프, 문선명 입국거부

<민주한국> 제47호(1982.9.24)

- 민건회, 제9차 정기총회 개최
- 서백림, 바이체커 시장 민정당 대표맞아 김대중씨 석방요구
- 뉴욕, 반전반핵 평화데모
- 한국적 보수주의는 왜 배척당해야만 하는가?
-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국의 원자력(1)

<민주한국> 제48호(1982.11.12)

- 일제히 일어난 학생시위. 노동투쟁과 합세
- 한민통 간부 SI에 참석
- 한국학술연구원 세미나 개최
- 재독한국여성모임 제5차 정기총회 개최
- 성명서; '박관현씨의 죽음을 헛되이 말자', 민주사회건설협의회
- 논단; 한국은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는가?
- 번역; 동아시아적 발전의 길에 대하여, Dieter Senghaas
-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국의 원자력(2)

<민주한국> 제49호(1983.2.8)

- 한반도에 전쟁위기
- 다시 등장한 통일제의
- 성명서; 김대중씨 국외추방에 관하여, 민주사회건설협의회 및 한민련유럽본부
- 동경에서 한민련확대중앙위원회 개최
- 서평; 백낙청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 서평; 송건호·강만길 편 한국민족주의론
- 번역; 모리무라 세이지 저 악마의 포식(1)

<민주한국> 제50호(1983.5.31)

- 꺼지지 않는 광주정신 단식투쟁으로 번져
- 김대중씨 미국 각지서 강연
- Bonn, 괴팅엔,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광주의거 3주년 기념행사
- 뉴욕에서 민족문제 해외동포회의
- 성명서; 김영삼씨 단식투쟁에 즈음한 우리의 결의
- 시사해설; 대도시론(大盜時論)
- 논단; 해외민주운동에의 기대
- 추도사; 오월 의거에 부쳐, 민주사회건설협의회
- 자료; 83민주학우 대정부투쟁선언
- 번역; 모리무라 세이지 저 악마의 포식(2)

-민주한국 자료집,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장 이종수), 1987.3.21

주내용: 봄 세미나 발제문(제1주제; 입문적 국가이해의 기본틀-송두율, 제2주제; 국내논쟁의 분석과 문제 제기-어수갑(김삼수라는 필명 사용)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월간동향 및 브루스커밍스의 미국은 한국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단체명 : (사단법인)한국학술연구원(Korea Forschungsgemeinschaft e.V.)

약칭 : KOFO 또는 코포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없음

존속 기간 :

1982.2.10 결성되어 1987년 김길순 박사의 귀국으로 유명무실해지다가 1990년대 초 해소

주요 활동 지역 : 오픈바하

단체의 성격과 의의 :

독일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 광주항쟁 이후 점증하는 국내문제에 대한 학문적 규명의 요구와 남과 북을 아우른 차원의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제적인 명성과 상징성으로 윤이상씨가 초대 원장에 부임했으나 실제적인 일을 처음부터 도맡아했던 작고한 김길순 박사에 따르면 KOFO는 남과 북의 정부에 공문을 보내고 접촉하여 상당수의 도서를 비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남·북·해외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펼쳐나간 듯하다. 실제로 상당수 유학생들과 동포들은 연구원에 소장된 각종 북한 원전을 접하면서 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결성 과정 :

독일에서의 학술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윤이상·김길순·송두율·정성배·강돈구 등 민건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

조직 체계 :

의장단과 회원총회로 구성되며, 의장단은 의장(원장)과 사무총장 및 회계로 구성된다.(규약 C.단체의 구성 제10조 이하 참조)

강령 및 규약 :

학술행사와 학술지 간행 등을 통한 한국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한국문제에 관한 정보교류 및 양국의 통일문제 등을 통한 한·독 상호간 이해 심화를 목적으로 삼는다.(독문)(규약 A.일반 중 제3조 목적 참조)

주요 임원 : 윤이상(초대 원장) 김길순(사무총장. 1992년 작고)

주요 활동 : 한국문제 세미나 개최 및 학술지 간행, 도서대출

기관지 :

별도의 기관지는 없고 자료집과 한국인 독일 박사학위 목록집 등이 있다.

발간 자료 :

1. Dr. Chung, Sung-beh, Japan-South Korea Relations: Impact of the Security and Economic Problems, Offenbach, 1983
2. Dr. Song, Du-Yul, Südkorea, Auf den Spuren der Japaner?, Offenbach, 1984
3. Lee, Hwesong, Die Probleme der koreanischen Minderheit in Japan, Offenbach, 1983

4. Dr. Park, Sung-Jo, Die ostasiatische Wirtschaftsintergration im amerikanisch-japanischen Interessenpolitik-unter bes. Berücksichtigung der Entwicklungen Koreas-, Offenbach, 1983
5. Lee, Mu-Choon, Entwicklungen in der Umweltpolitik Südkoreas im Widerspruch zwischen Industrialisierung und Umweltschutz, Offenbach, 1984
6. Dr. Kahng, Kwang-Seuk, Will South Korea be another Vietnam?, Offenbach, 1984
7. Prof.Dr.h.c. Isang Yun, Bewegtheit in der Unbewegtheit: Über meine kompositorische Entwicklung in Europa, Offenbach, 1985
8. Prof. Dr. Harold Hakwon Sunoo, 100 Years of U.S.- Korea Relationship , Offenbach, 1985
9. Dr.Song,Du-Yul, Politik und Gesellschaft in der Republik Korea(Südkorea), Offenbach, 1985
(이상 1-9는 연구자에 의해 2005.6.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기증됨)
10. 한국인 독일 박사학위 목록집
11. Perspektiven in Korea, 1986

해체 과정 :

김길순 박사가 지병으로 귀국함에 따라 유명무실화함. 후에 자료 등 보관 문제로 부활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불발에 그치고 자료 중 일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일부는 Korea Verband(후술 참조)에 기증됨. 송두울씨가 90년대 초에 '북한의 지원으로 KOFO를 다시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짐으로써 문제가 일기도 했다.

관련 자료 :

- 송두울 공소장
- 한국학술연구원 세미나 개최,<민주한국> 제48호, 1982.11.12
- KOFO 주최 한일관계 학술세미나,<우리나라> 제2호, 1982.11.1
- 한국학술연구원 강연회 개최,<우리나라> 제4호, 1983.1.1
- 제2차 한일관계세미나, 한국학술연구원 주최,<우리나라> 제7호, 1983.4.1
-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제3차 세미나,<우리나라> 제14호 1983.11.1
- KOFO, 통일문제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우리나라> 제46호 1986.11.1

출판물명 : 우리나라 (URINARA)

약칭 : 없음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없음

존속 기간 :

1982년 10월1일 창간호-1987년 4월 1일 지령 제50호로 종간됨

주요 활동 지역 : 프랑크푸르트 근교 오펜바하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운동단체의 기관지가 아님으로 해서 예컨대 북의 인사들과의 대담기사 등 비교적 자유로운 논지의 글을 썼다. 유럽운동권 최초의 비기관지적 성격의 월간신문

결성 과정 :

기존의 <민주한국>이 민건회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갖는 제약을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하

고자했던 오석근 박사가 독자적으로 결성.

강령 및 규약 :

<우리나라를 내면서>

우리나라는 일제통치하의 지난 36년간 (1910-1945), 그리고 분단의 비운 속에서 37년,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을 외세와 내분에 시달려 왔다.

이것은 밖으로는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 온 외세의 침해와 안으로는 철저한 민족주체의식의 결여에서 생긴 민족의 비극이었다.

현재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외세에 예속되어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의 통수권마저 미군의 손아귀에 넘겨진 채 민족의 염원인 통일독립국을 세우는 것은 아직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최고의 목적은 통일독립국을 세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군사의 완전한 자립과 민족주체의식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족주체의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기준을 우리민족에게 두고,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자주권의 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외세가 기어들 자리가 없으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현재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도와 왜곡, 조작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소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문부식씨도 만일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실토했다.

현재의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신문은 외국에서나마 ①국내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올바르게 보도하고, ②37년간의 분단에서 굳어진 남과 북의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고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할 것이며, ③민족주체성을 확립하여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게 하는데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른 봄 새싹이 언 땅을 뚫고 나오듯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우리나라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건설적인 비판을 바라마지 않는다.

주요 임원 :

오석근(편집 겸 발행인). 한때 안상근(옥중 사망) 씨가 편집을 도움

주요 활동 :

오석근 씨(현재 국내 거주)는 과거에 정철제씨(2005년 사망)와 함께 1973년 베를린에서 <주체>.라는 잡지를 펴낸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의 대남관계 고위 관계자를 비롯하여 해외의 진보인사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기도 했다.

해체 과정 : 1987년 재정상의 이유로 폐간

관련 자료 :

-오석근, 육천만 동포 사백만 교포 그 모두가 한을 안고, 우리나라 문고, 오픈바하, 1988

<우리나라> 창간호, 1982.10.1

-우리나라 남북의 현행 행정구역도

-창간사

-사설; 내일로 미루지 말자

-민건회 제9차 정기총회

-윤이상 교수작품 국내서 연주

- 북한주석 김일성 북경방문
- 독일에서 반전데모
- 미국문화원 방화사건특집

<우리나라> 제2호, 1982.11.1

- 국내의 반외세민족자주운동
- 군부를 움직이는 인물
- KOFO 주최 한일관계 학술세미나
- 독일 새내각의 외국인정책
- 한국민족문제연구회 확대결성
- 대담기사; 윤이상씨 음악 남북 동시연주

<우리나라> 제3호, 1982.12.1

- 한민련 대표단 일행 유럽방문, SI 참석 위해
- 재독한국여성모임 정기총회
- 노연 정기총회
- 한국연대위 모임
- 한일관계 좌담회 (정성배·공광덕·김창락·송두울)
- 영원한 평화는 어디에

<우리나라> 제4호, 1983.1.1

- 김대중씨 미국추방
-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간의 대화 기사 및 공동성명, 국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한민련 유럽본부 정기총회 개최
- 김현장·문부식씨 구출운동, 재독한국여성모임 주최
- 한국학술연구원 강연회 개최
- 대담; 북에 다녀온 김성락 목사·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고기준 목사

<우리나라> 제5호, 1983.2.1

- 한민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남·북에서 '통일'제의
- 한미관계 좌담회 (송석중·선우학원·강종수·공광덕)
- 헬싱키 남북대화 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그 실천적 과제, 전금철
- 까밀로 또레스,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나라> 제6호, 1983.3.1

- 전쟁준비를 위한 팀스피리트 83
- 서독 극좌파와 극우파 반미공동투쟁
-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정기총회
- 한국여성과 결혼한 미군, 서독에 1300명
- 한국연대회, 한국민중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위와 성토대회
-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의 친미반공사상 (제1회), 정경모

<우리나라> 제7호, 1983.4.1

- 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 한국조항채택, 7·4공동성명, 미군철수지지
- 퀵른 미문화원 앞에서 성토대회
- 제2차 한일관계세미나,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 재독한인들의 반전반핵운동
- 퀵른에서 민주단체연대회의 열려
-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의 친미반공사상 (제2회), 정경모
- 대담; 재일교포작가 이회성씨
- 재독한인반전반핵연맹 결성선언문

<우리나라> 제8호, 1983.5.1

- 한민련, 사회주의 인터 총회에 참석
- 88년대 위기와 한국
- 단편 장수도, 이회성
- 한국의 모든 고난의 근원은 국토분단, 문익환

<우리나라> 제10호, 1983.7.1

- 김영삼씨 단식투쟁과 민주국민협의회 결성
- 뉴욕에서 민족문제해외동포회의 열려
- 프랑크푸르트 여성회, 광주기념행사
- 개신교대회에서 재독한국여성모임 활동
- 캠나데 축제에 노연 참가, TV회견
- 북미기독교자회 연차대회
- 미·일·한 3각군사동맹체제의 의미
- 불타오르는 분노 (TK생의 통신)

<우리나라> 제11호, 1983.8.1

- 제6차 민족통일 국제심포지움 일본 경도에서
- 국제사면협회 하이델베르크 지부, 기록영화 한국인 원폭피해자 상영
- 시대를 담당하는 사람들 (TK생의 통신)
- 좌담; 재일한국청년동맹

<우리나라> 제12호, 1983.9.1

- 필리핀 야당지도자 아키노 피살
- 통일문제협의회 개최방해에 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서
- 일본기행, 오석근
- 한국인의 모순적 공동체의식

<우리나라> 제13호(1983.10.1)

-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
- 국제의원연맹 총회 서울개최 각처에서 반대
- 소련전투기에 의해 대한항공기 격추
- 민건회 제10차 정기총회
- 성명; 국제의회연맹총회 서울개최는 온 한국민의 의사에 거역되는 처사다, 민주사회건설협의회
- 성명; 국제의원연맹총회 서울개최에 대한 우리의 견해, 한민련유럽본부
- 일본정부,한민통 등 재일한국민주세력 탄압
- KAL기 사건을 기해 재독반전반핵연맹에서 호소문 발표

- 여성회 괴팅엔지부, 도시축제 참가해 좋은 성과
- 논단; 모든 기회주의를 극복하면서 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자
- 송건호 선생 독일 순회강연
- 일본기행(2), 오석근
- 대담; 김운하 신한민보사 사장
- 성명서; 대한항공기의 격추를 보고,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우리나라> 제14호(1983.11.1)

- 버마의 랑군에서 대폭발참사
- 민주화운동전국청년연합회 결성
-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제3차 세미나
- 대담; 이실근, 핵전쟁의 위험성과 재일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
- 일본기행(3), 오석근
- 성명서; 레이건대통령의 방한계획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한민련유럽본부

<우리나라> 제15호(1983.12.1)

- 한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방한
- 워싱턴에서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결성
- 재독한국여성모임 정기총회
- 동경의 조총련 본부 습격
- 운동론; 학생운동의 전망(1)
- 해외학생운동의 새로운 단계 모색

<우리나라> 제16호(1984.1.1)

- 민건회 주체 세미나
- 한민련 유럽본부 제7차 대표자회의
- 노연 임시총회
- 학생운동의 전망(2)
- 이해동 목사 백림교회 설교문, 차라리 내가 죽는데 서명을 하라면
- 윤이상, 나의 작은 누님

<우리나라> 제17호(1984.2.1)

- 북한, 미국과 남한에 3자회담제의
- 성명서; 불법적으로 구속된 조승혁, 강만길, 리영희씨 등을 무조건 즉시 석방하라!, 한민련유럽본부
- 학생운동의 전망(마지막회)
- 이문영 교수 독일 강연회
- 서울당국에 보내는 편지, 평양
- 한국지식인, 그 유형과 생태
- 시인들이여 울지 마라, 무등산동지회

<우리나라> 제27호(1985.1.15)

- 사설; 해외민주운동의 대중성과 통일성
- 한민련 스페인사회당 전당대회에 한국대표로 초청
- 제3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간의 대화, 비엔나에서 100여명 참가
- 전태일동지 산화 14주기 추모회 성료

- 한국연대회의에서 세미나
- 한민련 제8차 회의
- 대담;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부의장 려연구 여사
- 대담; 사료청 부위원장 김성철

<우리나라> 제36호(1985.12.1)

- 전 본사 편집국장 안상근씨 전정권에 의해 살해
- 갑오동학농민제, 한독연대로 성대히 개최,세미나·연극·마당극·탈춤 등 다채로운 행사
-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마치고
- 대담;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여사, 심청전 서독과 공동제작

<우리나라> 제37호(1986.1.22)

- 개헌추진 1천만명 서명운동
- 본에서 고문철폐와 안상근 살해규탄 헛불시위
- 국제고문실태조사단 파견
- 88 서울올림픽에 대처하는 세미나 개최
- 비엔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제1차 대표회의
- 해외통일운동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유럽본부
- 대담; 선우학원, 차상달, 미국의 외교정책이 모든 악의 근원

<우리나라> 제38호(1986.3.1)

- 결전을 각오한 천만인 개헌서명운동 시작
- 전태일 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창립
- 성명; 개헌은 한국민중의 생존권과 저항권을 평화적으로 관철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유럽 지역 개헌서명 추진위원회
- 한국연대회의 개최
- 해외민주화운동 탄압조짐
- 듀발리에 추방과 미국의 하이티 정책

<우리나라> 제43호(1986.8.1)

- 고문과 성유린을 자행하는 전정권의 만행
- 한민련, 사회주의인터 리마총회에 참석
- 가이슬러 기민당 사무총장, 김대중·김영삼씨를 서독에 초청
- 로스엔젤레스에서 제8차 민족통일심포지움 개최
- 성명; 미군의 여교사 윤간과 경찰의 성고문만행을 온천하에 고발한다, 재독한국여성모임
- 성명;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결의, 재독한인교회목사회 회장 장성환
- 동경에서 제2차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 성명,이재호 반전반핵평화투쟁위원회 위원장 분신에 관하여, 재독한인반전반핵연맹

<우리나라> 제44호(1986.9.1)

- 사설; 민정당의 민주화운동
- 재미한청련주최 워싱턴 재미동포회의
- 미·일·한국에서 몽양 여운형 탄생 1백주년 행사
- 시평; 일본의 국수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자세
- 독일의 대한 경제진출

-논단; 한국의 보수·신보수·신진보주의와 상황진단

<우리나라> 제45호(1986.10.1)

- 스위스에서 남북 교회지도자 40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 프랑크푸르트 아시아주간에 한국소개와 연극 공장의 불빛 공연
- 평양에서 한반도의 비핵·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 민건회 제13차 정기총회
- 자료; 한국의 평화와 통일(미국교회협의회 한국통일정책 선언초안)
- 대담; 동서독간의 통일은 유럽적 맥락에서(사민당 외교문제 대변인 Voigt 의원과 공광덕박사)

<우리나라> 제46호(1986.11.1)

- 전정권, 좌경수사대상 30개단체, 1만여명 발표
- 재독한국여성모임 10주년 기념행사
- KOFO, 통일문제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 특집; 한국사회개혁론 논쟁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위상
- 특집; 한국사회구성체론과 사회운동론 논쟁의 현황
- 비엔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대표자 확대회의 개최

<우리나라> 제47호(1986.12.1)

- 포고없는 계엄령으로 민주운동 대탄압
- 김영삼 신민당 고문 독일방문
- 전태일동지 추모회 성황
- 한민련 유럽본부 제10회 총회 및 세미나
- 특집; 한국사회 변혁론의 현황-민주·통일 민중혁명론 요약
- 성명;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결의, 한민련유럽본부

<우리나라> 제48호(1987.1.21)

- 제1차 재독 한국민주단체 대표자회의
-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구라파지구 제2차 총회
- 86년도 국내운동을 되돌아보며
- 특집; 조국분단과 통일논의(1)

<우리나라> 제49호(1987.3.1)

- 선거혁명 가능한가?
- 박종철 고문치사규탄 경고파수-본·서백림·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에서
- 프랑크푸르트에서 고 김재준목사 추모예배
- 서울에서 온 편지-극복하기 힘든 것은 배신에 대한 미움
- 광주민중항쟁 7주년 기념 오월민중제 취지문
- 한국 군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우리나라> 제50호(1987.4.1)

-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 평화대행진
- 술츠의 방한과 미국정책의 변화
- 민건회 봄 정기세미나 개최
- 여성회 봄세미나, 통일문제 다뤄

- 조국통일북미주협회 발족
-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여성회 회원 참가
- 성명서; 재독한인노동자연맹·재일고려노동자연맹

출판물명 : 자주/Independence (영문 명칭은 1992.3.5부터 A paper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of Korea로 바뀜)

약칭 : 없음

소속 체 또는 상급 단체 : 자주사

존속 기간 : 1981년-1999년

주요 활동 지역 : 스웨덴 읍살라

출판물의 성격과 의의 :

월간 <자주>지는 유럽운동권의 흐름에 비교적 초연한 입장에서 국내의 문제를 주로 다뤘다. 편집 겸 발행인 자신이 일본에 연고가 있는 일본 유학생 출신이란 점으로 일본 텍스트를 번역한 글이 비교적 많이 눈에 띈다. 글의 상당부분은 당시 서독 유학생들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썼다.

결성 과정 : 일본 유학생 출신이며 재일한청 출신 이용씨가 스웨덴 읍살라로 이주하여 자주사를 결성하고 재일동포출신 부인이 직접 타자를 쳐서 잡지형태의 비정기간행물을 발간.

조직 체계 : 자주사를 스웨덴 사단법인체로 등록.

강령 및 규약 :

강령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촉진에 이바지한다.
-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주 민주화에 이바지한다.
-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민족화합에 이바지한다.
- 민족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세론형성에 이바지한다.

1985년 11월 20일부터

- 민족 자주 평화통일의 촉진에 이바지한다.
- 평등한 민중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
- 민족의식 고취와 민주화에 이바지한다.

<창간사>

우리 민족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자력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불굴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외세와 이에 합세한 민족반역도들의 총검의 모진 서리는 민족의 자율적인 삶의 권리마저도 박탈하였고 항상 타의 희생물이 되기를 강요해 왔다.

한과 저항으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민족의 과거인 것이다. 삼천리금수강산이 ‘한’의 반도가 된 지금이다.

생명의 환희를 가져다주어야 할 봄날의 다스한 햇볕은 우리의 마음에 이글거리는 분노를 대신 느끼게

했으며, 가을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붉게 물들이는 단풍은 한을 품고 스러져간 영령들의 피의 아우성처럼 보인다. 한 시인은 이 ‘한’을 ‘무한한 비애의 집합, 그 축적이며 그것은 폭력에 전환되어야한다’고 풀이했다. 즉 한을 풀기 위해 한의 불길이 활활 타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도전은 응전을 낳는다. 더구나 그 도전이 우리의 적을 의미할 때에 우리의 응전은 이를 격퇴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힘의 크고 작음이 한 민족이 잠재하고 있는 예지와, 용기 있는 행동의 척도가 될 것이다. 단결된 힘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어둠을 밝히는 횃불의 행렬 속에 나와 너 모두 하나가 되어 먼동 트는 고요한 아침을 향해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

주요 임원: 이용 (편집 겸 발행인)

주요 활동 :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국내외의 운동관련 정치·사회·문화 소식을 게재

해체 과정 :

만성적 재정난으로 1999년 6월 지령 제61호를 끝으로 정간

관련 자료 :

<자주>창간호, 1981.6.10

- 창간호에 부쳐서
- 광주의거 1주년 한국민주화지원 긴급세계대회
- 10월 서독에서 남북기독교교회합
- 엠네스티, 한국 인권억압 우려표명

<자주>제2호, 1981.8.15

- 동경서 제4회 민족통일 심포지움 개최
- 오리무중, TK생의 한국통신
- 통일은 왜?, 최익환
-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이용

<자주>제3호, 1981.11.25

- 전두환 정권 대일자세의 실상
- 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 스웨덴 교포 남 국무총리 방문 향의 및 데모
- 커다란 거부, TK생의 한국통신

<자주>제11호, 1984.4.25

- 김대중씨, 일 사회당 위원장과 회담
- 엠네스티, 전정권 고문실태 폭로
- 최은희·신상옥 사건, 일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
- 정치의 계절이 다시 오다, TK생의 한국통신, 세끼이 5월호
- 미·소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하), 도요다 도시유키 교수
-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접점, 현영학 교수 대담

<자주>제15호, 1985.1.30

- 한민련유럽본부 제8차대표자회의

- 의정부에 핵배낭 배치
- 주목되는 이북·프랑스 관계
- 권력은 총구에서 온다, TK생의 한국통신
- 해외민주화운동에의 제언
- 40년의 짝사랑, 한완상 (당국의 검열에 의해 월간조선에서 삭제된 내용)
- 핵무기 폐기는 가능하다, 대담 프리만 다이슨

<자주>제16호, 1985.2.28

- 전두환 방미의 의미, 주장
- 팀스피리트85
- 봄을 기다리는 정국, TK생의 한국통신
- 노동운동의 새 단계(하), 나가가와 노부오
-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의 의미

<자주>제17/18호,1985.4.30

- 북과 미국, 조중국경에서 비밀접촉, 아사이저널 보도
- 전두환·레이건 회담, 군사원조 확인
- 한민련 제2회 대표자회의
- 민주화 전야, TK생의 한국통신
- 통일논의의 허실과 우리 민중의 나아갈 길, 백기완

<자주>제21호,1985.11.20

- 미주민주국민연합 총회
- 단장의 재회·정치의 벽, TK생의 한국통신
- 조국통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사명과 역할(상), 김현환 목사
- 지금, 왜 <광주>인가
- 이응로·박인경 부부 작품전, 일본에서

<자주>제22호,1985.12.15

- 서독 본에서 고문반대 데모
- 학생들의 반외세·자주화운동을 지지하자
- 미국은 우방인가, TK생의 한국통신
- 조국통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사명과 역할(하), 김현환 목사
- 서독에서 갑오동학농민제 성황

<자주>제25호,1986.4.25

- 본에서 전두환 방독반대 데모
- 동경서 민주제개헌촉진 해외동포대회
- 망해가는 자들, TK생의 한국통신
- 4·19는 미완성 혁명, 김진균
- 한미관계론의 사정, 임재경

<자주>제26호,1986.5.30

- ‘가라 양키 놈들아 이 땅은 우리 땅 민중의 땅이다’
- 미 버클리시, 광주 민중의 날 선포

- 삼민이념으로 전진하는 한국민중운동
- 민중으로부터 궁지에 몰린 권력, TK생의 한국통신
- ‘대한민국’론, 강동주 연재수필
- 한국교회와 남북통일의 과제, 홍근수 목사
- 80년대 문학의 특성과 전망, 임헌영

<자주>제28호,1986.8.10

- 제8차 민족통일 심포지움 LA에서 열려
- 추악한 성고문만행의 진상
- 민중논리가 왜 옹공인가
- 한국의 핵상황과 반전반핵운동
- 민중은 결코 죽지 않는다, TK생의 한국통신

<자주>제30호,1987.1.25

- 고문정치는 전정권의 체질
- 고문치사사건과 개헌정국
- 일본군사비 대 GNP 1% 돌파의 의미
- 구토와 분노 속에서, TK생의 한국통신
- 한국사회분석의 시점(상), 토리언 어페어스 12월호

<자주>제31호,1987.3.15

- 조국통일북미주협회 창립
- 한민련 확대 중집위 동경서 개최
- 한국은 미국의 봉인가
- 위험한 불장난 팀스피리트
- 고문사건 속의 민주화, TK생의 한국통신
- 미국은 한국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르스커밍스, 세까지지 번역

<자주>제32호,1987.4.25

- 서독서 오월민중제 개최
- 서베를린 노동교실과 여성회 권인숙 석방서명운동
- 호헌회귀의 배경
- 심화되는 대일경제의존
- 수용소군도 이야기, TK생의 한국통신

<자주>제33호,1987.6.10

- 민족민주운동의 새단계
- 말기 증상의 나날, TK생의 한국통신
- 현대한국사회분석의 시점(하)
- 오월민중제

<자주>제34호,1987.7.25

- 현 정세와 우리의 입장
- 제10회 민족통일심포지움 동경서 열려
- 한의 폭발·혁명전야, TK생의 한국통신

-역사는 새로운 장에 들어섰다, 김대중 인터뷰, 세까지지 전재
-조국민주화 실천대회 서독서 5백명 참가

<자주>제36호,1988.1.25

-사대와 자주의 기로에서
-대통령서거와 민주민족세력의 교훈
-KAL기 사건의 의혹을 벗킨다-수사발표는 진실인가 조작인가
-유례없는 부정선거, TK생의 한국통신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정통성에 관하여, 거반 멕코멕

<자주>제37호,1988.3.25

-시급히 요구되는 민중운동연합 결성
-신상옥·최은희 사건의 진상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TK생의 한국통신(끝)
-한국에 있어서의 폭력지배의 근원(상), 정경모
-계몽과 해방, 송두울

<자주>제38호,1988.4.30

-총선이 남긴 것
-김정열 전총리 일본에서 양심선언,“KAL기 사건은 모략”
-한국에 있어서의 폭력지배의 근원(하), 정경모

<자주>제39호,1988.5.30

-남북학생들은 만나야한다
-서준식 석방-그의 민족정신을 기른 어머니 오기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제2의 문화통치
-봄이 기다려진다, 히다까 로쿠로, 세까지지 전재
-대한민국의 4대 맹점, 김기항 미알라바마대 교수

<자주>제40호,1988.6.30

-남북학생회담은 민중적 합의다
-한국은 변했는가-양대 선거와 금후의 한반도정세(상), 야스에 료스케 대담, 세까지 전재

<자주>제41호,1988.7.20

-7·7선언의 허와 실
-한국은 변했는가-양대 선거와 금후의 한반도정세(하), 야스에 료스케 대담, 세까지 전재
-민족적·민중적 학문을 제창한다, 김진균

<자주>제42호,1988.12.10

-노태우정권은 타도되어야한다
-유력해진 KAL기 사건 모략설
-미국의 내정간섭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주>제43호,1989.1.25

-일본의 군확(軍擴)과 한반도 유사(有事)-심화되는 한국과의 군사협력

- 노태우의 민주화와 북방정책
- 국가권력과 정통성, 정경모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1)

<자주>제44호,1989.2.25

-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강경탄압으로 정권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2)
- 북한의 '이질화'를 보는 시각, 리영희, 사회와 사상에서 전재

<자주>제45호,1989.3.25

- 문목사의 북한방문은 통일에 대한 민중의 뜨거운 염원을 대변하고 있다
-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청산문제의 핵심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3)

<자주>제46호,1989.5.25

- 새롭게 전개되는 민중투쟁
- 한국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前島宗甫, 세까지지 전재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4)
- 한국정부의 남북대화론-'분단대화'의 논리구조
- '낙원은 아니지만 주체적으로 자력갱생', 황석영, 아사히신문

<자주>제47호,1989.6.25

- 천주교, 민족통일 향한 선언 발표, 문규현신부 등 3명 북한방문
- 개입설 심증 굳힌 미국의 '광주' 답변서
- 드러나는 미국의 실체와 반미자주화운동
- 무엇이 죄인가-평양방문 비망록, 정경모, 세까지지
- 중소화해와 북한, 나가기와 노부오
- 한민련, SI 18차 총회에 참석

<자주>제48호,1989.8.5

- 6·29선언은 미국의 시나리오-시거 미국무성차관보
- 죽산 조봉암
-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신학관의 모색, 김현환

<자주>제49호,1989.12.15

- 파친코소동과 일본의 한민족분열고정화정책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1), 와다 미네오
- 국가보안법 없는 90년대를 위하여, 리영희
- 90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주>제50호,1990.1.25

-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점
- 파나마 사태와 국제관계의 변화-알타체제의 종식과 신제국주의 시대의 개막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2)-그로테스크한 진상, 와다 미네오
- 사회주의의 위기와 한반도, 송두울

<자주>제51호,1990.2.25

- 예상 밖의 니카라과 총선
- 페레스트로이카와 북한, 코리안 어페어스 번역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3), 와다 미네오
- 분단동이에서 진정한 해방동이로, 서승, 세까지지

<자주>제52호,1990.3.30

- 발견된 KAL기 파편과 당국의 냉담한 반응
- 남북대화의 현주소-동독총선의 결과와 그 파장
- 소련의 신정치사건과 대한접근책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4), 와다 미네오

<자주>제54호,1990.6.15

- 베를린에서 범추 제1차 실무회담
- KAL기 실종사건 진상해명 추적보고(6),와다 미네오
- 한국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자주>제56호,1991.1.31

- 페르시아만 전쟁과 세계질서의 재편
- 페만전쟁을 보는 시각
-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전후책임
- 김주석에게 보내는 편지, 문익환

<자주>제57호,1991.3.10

- 조일국교정상화와 일본의 속셈
- 페만전쟁과 남북문제
- 전환시대의 고뇌

<자주>제58호,1991.4.10

- 군사대결의 때를 벗고 민족의 평화적 공존의 대도를 열자
- 한국전쟁과 현대세계(1), 대담 브루스 커밍스·가반 메코멕·와다 하루키·정경모
- 이문열론

<자주>제59호,1991.5.10

- 윤이상씨 통일운동탄압에 항의
- 신세계질서와 한반도
- 한국전쟁과 현대세계(2), 대담 브루스 커밍스·가반 메코멕·와다 하루키·정경모

<자주>제61호,1991.12.5

- 동서 통합이후의 독일 I
- 조일회담의 배경, 정경모

<자주>제62호,1992.1.30

- 최근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민족공동외교원칙, 김민웅
-남북합의서의 의의와 전망, 申川信夫

<자주>제63호, 1992.3.5

-유럽의회 한국인권문제 청문회보고
-이 반역의 시대에

<자주>제64호, 1992.4.5

-총선이후 민민운동이 해야 할 일
-북한 사회주의의 논리와 행동(상), 코리안 어페어즈 전재
-‘김현희 고백록’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1)

<자주>제65호, 1992.5.5

-오월에 다시 미국을 생각한다
-백범 암살 배후의 추적상황과 그 의미
-조일회담에 있어서의 일본의 원칙문제에 관하여, 정경모
-북한 사회주의의 논리와 행동(중), 코리안 어페어즈 전재
-‘김현희 고백록’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2)

<자주>제66호, 1992.6.5

-대통령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과제
-미국과 인종문제, 은호기
-‘김현희 고백록’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3)

<자주>제67호, 1992.7.5

-남북대화의 현주소와 문제점
-일본인의 역사의식과 PKO, 정경모
--북한 사회주의의 논리와 행동(하), 코리안 어페어즈 전재

<자주>제68호, 1993.2.

-해외동포 ‘양심수’들을 생각한다
-열전의 시대
-빌리브란트를 생각한다, 정경모

<자주>제69호, 1993.3.5

-희망과 불안, 기대와 우려의 사이에서-김영삼 대통령에 바란다
-양당체제로의 정계개편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김영삼정권의 향방을 점친다, 정경모

<자주>제70호, 1993.4.10 (이하 김영삼 정권 이후의 내용은 생략함; 연구자주)

<자주>제71호, 1993.5.10

<자주>제72호, 1993.6.15

<자주>제73호, 1993.11.10

<자주>제74호, 1993.12.10

<자주>제75호, 1994.2.5

<자주>제76호,1994.3.10
<자주>제77호,1994.6.20
<자주>제78호,1994.12.15
<자주>제79호,1995.2.20
<자주>제80호,1995.4.1
<자주>제81호,1995.5.10
<자주>제82호,1995.6.10
<자주>제83호,1995.11.1
<자주>제84호,1995.12.15
<자주>제85/86호,1996.3.25
<자주>제87호,1996.5.5
<자주>제88호,1996.6.15
<자주>제89호,1996.11.1
<자주>제90호,1997.1.10
<자주>제91호,1997.4.15
<자주>제92호,1997.9.25
<자주>제93호,1998.5.20
<자주>제94호,1998.7.1
<자주>제95호,1999.2.5
<자주>제96호(마지막 호),1999.6.10

출판물명 : <민주조국>/ 독일어판은 <MINJUCHOGUK(Demokratie in Korea)>

약칭 : 없음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유럽민협

존속 기간 : 1987.11- 1991.4

주요 활동 지역 : 베를린

출판물의 성격과 의의 :

유럽민협의 기관지로 유럽최초로 한글판과 독일어판을 함께 펴냈다. <민주조국>은 국내에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며 벨기에에 본부를 둔 유럽의 진보적 출판매체목록집에 정식 등록되었다. <민주조국>은 한 달 동안의 유럽민협 소속 단체들의 동향과 국내 운동권 소식 및 운동론을 게재했으며, 번역된 독일어판 <민주조국>은 독일의 주요 정치인들과 정당 및 각종 인권단체에 발송하고 그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후일 유럽민협이 공안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모함을 받을 때 서독의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결성 과정 : 유럽민협 결성 과정 참조

조직 체계 :

유럽민협 안에 신문위원회를 두고 신문위원회가 <민주조국>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신문편집은 편집인의 책임 아래 일정수의 편집위원들과 편집회의를 거쳐 지난호의 평가 및 다음호 내용

선정 및 기사작성과 타자, 레이아웃을 하여 인쇄소에 맡긴다. 완성된 신문은 편집위원들과 베를린의 노동교실 및 여성모임 회원들이 함께 모여 접어서 발송에 이르는 작업을 한다.

강령 및 규약 : 유럽민협 참조

주요 임원 : 정규명(발행인), 어수갑(편집인)

주요 활동 : 월간으로 국내외 운동권 소식, 운동론 등 보도

해체 과정 :

재정적 어려움으로 유럽민협 해체 전인 1991.4 휴간. 그후 <민협소식>이란 형태의 소식지를 복사하여 대체

관련 자료 :

<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재독교포 김형규씨 간첩사건 관련 기사, 성명서, '배후' 김성수씨 해명서
- 전태일 열사 추모제,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주최 유럽민협 후원, 베를린 민협사무실, 1987.11.13-15
- 한국인 민중문화모임, 한국인의 집 개관식, 1987.4.4 보쿰,
- 서독 각지에서 노동절 행사, 재독한인노동자연맹·서백림노동교실·여성회 등, 87.5.1
- 87'오월민중제 베벨스부르크 기독교청소년회관, 87.5.15-17
- 민주제 개헌관철을 위한 단식기도회,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프랑크푸르트 크리스투스 교회, 87.5.27-28
- BUKO(Bundes Kongreß entwicklungspolitischer Aktionsgruppen) 11차 연차총회, 제3세계 관련 서독내 조직간 조정 모임인 부코 총회, 풀다 대학, 87.5.28-31
- 한국문제 전문가 세미나, 이설론 기독교아카데미, 87.6.12-14
- 레이건 서베를린 방문반대데모, 여성회 등 주최, 서베를린, 87.6.11
- 개신교회의 날 행사, 여성회·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서백림 노동교실 등 참가, 프랑크푸르트, 87.6.17-21
- 에센대학 한국의 날 행사에서 송두울 씨 강연 및 윤이상 음악 공연, 에센, 87.6.24
-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재독한국학생준비위원회 주최, 본, 87.7.4
- 고 이석규 동지 추도회, 한마음조합 주최, 보쿰, 87.8.29
- 한민련 10주년 행사, 동경,87.10.22-23
- 헛센 나싸우 지역교회 한국주간행사, 전라남도와 자매결연, 87.11.12-21
- 연극 공장의 불빛 공연, 서베를린 여성회와 서백림노동교실 연극팀, 튀빙엔, 87.6.6,
- 공장의 불빛 연극관련 슈피겔지 번역 기사
- 여성회 11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 슈미텐, 87.10.9-11
- 통일세미나, 한국인민중문화모임 주최, 보쿰, 87.11.28

<민주조국> 제2호 (1988.1.1)

- 연대사 민협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7.11.24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 이영순
- 민협 신문위원회, 프랑크푸르트, 87.12.19
- 재독한인교회협,인권주간 제정, 87.12.6-13
- 한국인민중문화모임, 판화전과 마당극,87.12
- <민주실천>제1호,조국민주화를 위한 재독한국학생협의회,87.11.15

- 송기숙 교수 좌담회, 민협,87.12.28
- 김봉준 좌담회 및 판화전, 민협,87.12.9
- 노연 13차 정기총회, 프랑크푸르트, 87.12.12-13
- 유학생 사회과학세미나, 뮌스터,87.12.26-29
- 대통령선거에 관한 민협 입장(독문) 타게스차이퉁지에 실려,87.12.16
- 노동교실 정기총회 및 성탄바자회 87.12.26

<민주조국> 제3호 (1988.2.1)

- 한국 소개의 밤, 민협,88.1.11
- 박종철 열사 추모제, 민협,88.1.16
- 한국인민중문화모임 1차 정기총회, 보쿰, 88.1.9
- 한민련 31차 스페인 사회노동당 전당대회 참가, 88.1.22
- 청소년세미나, 한독문화협회,87.12.27-88.1.3
- 여성회 대표자모임 및 회지9호 발간, 88.1.15-17

<민주조국> 제4호 (88.3.1)

-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 및 <최혁배 구출위원회>결성, 민협, 88.2.21
- 민협주최 공개토론회, 보쿰, 88.2.20-21
- 녹색당, 동포권익옹호 서명운동
- 독일기독교청년회 주최 한국문제세미나, 부퍼탈,88.2.26-28
- 안병무 박사 본사 방문 및 좌담회,88.2.23
- 한독문화협회, 한국의 밤, 88.2.26
- 한겨레신문 유럽지부 설치
- 시론 현단계 유럽운동의 당면과제와 방향, 어수갑, 민협 공개토론회 발제강연

<민주조국> 제5호 (88.4.1)

- 최혁배씨에 4년선고
- 한민련 유럽본부 확대운영회의, 88.3.5-6
- 독일인들, 김형규,최혁배씨 석방요구 시위
- 루셀스하임 한국주간
- 보쿰 한국주간 성료, 88.3.5-22
- 서독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배우다, 윤건차
- 윤한봉씨 민협 방문 및 좌담회,88.3.22
-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가
- 여성회,9개국 여성단체와 연대, 여성회 연대사

<민주조국> 제6호 (88.5.1)

- 여성회 봄세미나 개최, 도르트문트,88.4.8-10
- 한국문화의 밤, 말뚝이 전시회, 괴팅엔, 88.4.11-22
- 88 올림픽 캠페나 대표자모임, 프랑크푸르트,88.4.16
-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김포공항에서 강제추출,88.4.23
- 전 민건회 의장 강돈구 교수 별세,추모식, 88.4.15
- 윤이상 교수, 독일대공로훈장 서훈,88.5.21
- 연대사, 맥스테크 한국 노동조합이 노동교실에,88.4.8

<민주조국> 제7호 (88.6.1)

- 전태일기념사업회 정기총회 및 재유럽노동단체 공동수련회, 베를린,88.4.29-5.1
- 국내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연대사
- 한국여성노동자 서백림 강연,88.5.19
- 서독 한국학학자들 평양방문
- 뷔템베르크 주, 한국문제 주제 선교대회,슈베비시할,88.5.7-8
- 88 오월민중제,서베를린,88.5.20-22
- 김형규씨 석방탄원서 제출
- 김광남 한청 위원장 민협 방문
- 황석영,명진 스님,이영순,홍성담,위인백씨 등 민협방문 좌담회

<민주조국> 제8호 (1888.6.21)

- 김근태씨, 함부르크 제정 양심수로 선발
- 최혁배 석방
- 조성우 본사 방문
- 기통, 통일과 기독교 10호 발행
- 민주실천 제2호
- 윤이상씨, 본지와 회담

<민주조국> 제9호 (1988.7.29)

- 민협, 남북학생회담 적극지원키로
- 독일 여신도회 올림픽매춘 비난
- 공광덕 박사 별세
- 노동교실·노연·전태일 공동성명문
- 한독문화협회 공연 및 영화상영

<민주조국> 제10호 (1988.8.29)

- 오스나브뤼크 한국의 날 행사,8.24-9.25
- 전국 대학생 국토종단대행진과 8·15 남북학생회담 연대모임,민협,88.8.14
- 남북학생회담지지성명서,여성회
- 남북학생회담지지성명서,민협

<민주조국> 제11호 (1988.10.1)

- 백기완씨 민협과 녹색당 초청 독일방문, 강연회 9.16-29
- IMF 세계대회 반대행사 여성회,노동교실 참가,서베를린,9.26-29
- 여성회 총회 및 가을세미나, 뉘른,9.29-10.2

<민주조국> 제12호 (1988.11.1)

- 고 안상근씨 3주기 추모제
- 명진스님 좌담회
- 홍성담 판화전, 마부르크에서
- 여성회, 여성노동자복지회관 설립모금
- 연대사,전태일기념사업회
- 김현장·문부식 후원회 발족 준비모임

<민주조국> 제13호 (1988.12.1)

- 민협 정기총회,11.19-20
- 김상덕 가농회장 민협방문 좌담회,11.3
- 민협 등 김현장·문부식 석방운동
- 전태일 추모제, 베를린,11.19
- 여성회, 여성이주자와 망명자대책 전국대회,11.14-16
- 한독연대위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은퇴식,11.1
- 한독문화협 정기총회,11.1
- 남민전 김종삼 석방운동,괴팅엔

<민주조국> 제14호 (1989.1.1)

- 한민련유럽본부 제12차 정기총회
- 녹색당 전 당수 페트라 켈리, 김형규씨 구출을 서독외상에 요구
- 장기수대책위 발족/김·문 후원회 발전적해소
- 노연 정기총회
- 노동교실 바자회
- 올림피아 캠페나,공개서한
- 민협,민예총에 축하문

<민주조국> 제15호 (1989.2.1)

- 전민련 조통위의 범민족대회 제안 관련 민협입장 밝혀
- 전민련 결성 축하문,민협,89.1.21
- 민협 중앙위원회 개최,하르츠베르크,1.21-22
-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공동의장 정호경 신부 민협과 좌담회,1.8
- 노동교실 정기총회,1.8
- 고암 이응로 화백 별세,89.1.10

<민주조국> 호외 (1989.3.1)

- 유럽법추본 결성을 위한 민주단체들에 보내는 초대장,89.2.18
- 장기수대책위·김형규와 장기수 구출위 연대시위,3.17

<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 범민족대회 유럽지역추진본부 결성(단장 정규명,대변인 어수갑) ,89.3.11-12
- 전민련 조통위(이재오) 민협에 격려사
- 범유추본 결성선언문
- 민협 성명]
- 이종수 민건의장 안기부 연행/관련 민협 성명
- 윤이상 귀국 무기연기
- 기장총회총무 김상근목사 간담회
- 정평통 발족
- 김형규 석방데모,본,3.17
-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성명
- 김성수 등 이북문제세미나,3.24-26
- 한민련 중집위,동경,3.4

-KOKOKO .모임,뒤스부르크,4.21-23

<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서독정당,단체들 노동운동탄압 노정권에 공개서한
- KOKOKO,전민련 지지 광고
- 민협 성명서 및 격려문
- 전태일기념사업회 4차 총회 및 노동단체 공동학습회,89.4.29-5.1
- KOKOKO,뒤스부르크, 4.21-23
- 여성회 봄세미나 및 임시총회,도르트문트,3.31-4.2
- 노동교실,지멘스 파업노동자 연대투쟁
- 장기수대책위 총회,보쿰,4.15
- 제1회 평화올림픽회의, 문국주·임민식 참가,아테네, 3.13-19
- 문국주씨 민협 방문
- 범유추본 실무대표자회의,노이이젠부르크,4.23
- 노동3단체 결의문,4.30

<민주조국> 제19호 (1989.6.1)

- 89 오월민중제,브릴론,5.26-28
- 공동결의문,민협
- 전순옥씨 강연회,괴팅엔·베를린·프랑크푸르트
- 이철규열사 관련 규탄성명서,민협
- 이윤정 대담,5.30

<민주조국> 제20호 (1989.7.11)

- 서경원의원사건에 정규명 대표 법정투쟁 밝혀(정규명 성명서 4면)
- 사회주의인터 스웨덴 총회 민협참가,6.20-22(1,4면)
- 민협 성명서
- 노련, 한스제약노조와 연대투쟁
- 서베를린에서 개신교대회 남북한참가
- 노련,민중문화모임 등 캄나데국제연대축제 참가
- 임수경 인터뷰기사

<민주조국> 제21호 (1989.8.1)

- 서경원 의원 사건관련 민협을 친북전위조직으로 매도
- 서경원 의원 사건 관련 독일 유학생출신 강제연행
- 인종차별반대집회 민협참가
- 루이제린저가 임수경에게

<민주조국> 제22호 (1989.9.1)

- 안기부,유럽민협 탄압에 광분
-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기사들,성명서,공개질의서
- 홍성담 구출 활동
- 기통회 8·15성명서 발표

<유럽민협> 제23호 (1989.10.1)

- 유럽민협 국제연대에 박차
서독녹색당, 유럽의회에 한국정부 비난촉구
유럽민협 탄압관련 대정부질의서 제출
국제사면위에 임수경·문규현 신부 석방운동요청
- 권터그라스 등 한독 대통령에 항의서한 발송
- 영사관 앞 4주째 유럽민협탄압 항의 시위
- 민건회 최기환씨 유럽인권위 연설
- 유럽민협 안기부 모략 규탄성명
- 녹색당 의원, 유럽민협 방문하여 협력모색,9.18
- 재독장기수대책위 제3차 정기총회
- 녹색당의 대정부 질의서(서독내에서의 한국안기부 활동)
- 국제펜클럽, 김현장씨 등 석방요구
- 국내동포들에게 보내는 유럽민협의 양심선언,어수갑
- 해외동포 탄압사례모음,민협

<민주조국> 제24호 (1989.11.1)

- 민협 등 노태우방독규탄 공투위 결성 및 궐기문,89.11.1
- 민협주최 한국문제 강연회,서베를린,10.12
- KOKOKO 회의,10.27-29
- 노연15차 정기총회,10.21-22
- 여성회 총회
- 서독 지식인들,홍성담씨등 석방운동
- 유럽의회 결의문,10.9
- 함부르크, 임수경·홍성담 올해의 인물로 선정
- 해외운동의 조직화와 사상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주조국의 역할,김민웅
- 호주 민족자료실,안기부 조작 물증 제시

<민주조국> 제25호 (1989.12.1)

- 본에서 대규모 노태우 방독규탄시위,11.20 (1,4,8면)
- 서베를린 녹색당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빌리브란트 씨, 유럽민협에 서한
- 베를린 시장 몸퍼, 장기수대책위에 연대 전문
- 바이체커 대통령, 유럽민협에 감사서한,11.29
- 유럽민협, 임수경 씨등 석방 1차 서명용지 전달
- 홍성담 사건 새국면
- 김현장·김영애 구출위 결성
- 제1회 노동열사 합동추모제,뒤스부르크,11.10-12
- 파문 일으킨 한국미술전시회
- 여성회,민족상 수상자로 선정

<민주조국> 제26호 (1990.1.1)

- 유럽민협 정기총회,새 대표 및 총무에 이종현,윤운섭 선출,12.9-10
- 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 결성키로
- 노동교실, 성탄 바자
- 문익환 목사 가족 유럽민협 등에 석방협조 요청

- 지멘스노조,노동교실에 감사서한
- 김영애씨 안기부 고문으로 유산
유럽민협·사민당·녹색당 등과 연합구명운동 전개
- 페터씨,홍성담사건 안기부 조작 폭로
- 김현장·김영애씨 구속 관련 민협 성명서

<민주조국> 제27호 (1990.2.1)

- 민협 중앙위원회,90.1.6
- 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 결성,1.27
- 여성회,김영애 관련 성명
- 노동교실 총회
- 한국민중문화모임 총회,1.7
- 한독문화협회 청소년세미나,정기총회
- 전노협 결성 축하문

<민주조국> 제28호 (1990.3.1)

- 유럽 민협,베를린 시장과 회담
- 유럽학자 101인 노대통령에 공개서한
- 김현장·김영애씨에 부당선고공판 규탄 성명서
- 전민련에 격려사
- 유럽민협,외국인법 개정반대시위 참가
- KOKOKO 모임

<유럽민협> 제29호 (1990.4.1)

- 민협 중앙위 열려
- 베를린시장, 한국대사관에 항의 공문
- 녹색당 국제부장, 항의성명
- 한민련 유럽본부 대표자 회의
- 제3차 범유추본
- 오월민중제 공준위 3차모임
- 여성회,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가
- 외국인법 규탄대회

<민주조국> 제30호 (1990.5.1)

- 유럽범추본 긴급회의
- 범민족대회,베를린에서 1차 예비실무회담 열기로
- 재독 노동단체 합동수련회
- 노동절 백주년행사,유럽민협참가
- 브라이트 의장, 한국노동탄압 경고
- 여성회 임시총회 및 봄세미나
- 동독 주재 이북 유학생 '강제송환'관련 민협 질문서와, 동독 이북 대사관의 답신

<민주조국> 제31호 (1990.6.6)

- 범민족대회 1차 실무회담, 서베를린,6.2-3 (1,2,3면)
- 해외추본 실무대표자회의,베를린,6.1

- 90회 독일 카톨릭대회에 민협참가 서명운동 벌여
- 유럽민협 반국가단체아니다, 서독주요인사들 한겨레신문에 광고
- 유럽민협, 어수갑, 윤운섭 광주에서 감사패
- 오월민중제

<민주조국> 제32호 (1990.7.10)

- 전민련, 범민족대회 예비실무회담 해외에 제의
- 범민족대회 대표단 모집
- “유럽민협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어”김영애씨 보석,김현장씨 일부 무죄
- 한국문제 토론회, 민협과 베를린 녹색당 공동주최
- 범민족대회 지지 해외한국동포대회,동경,90.7.1
- 장기수대책위,김형규구출위 서명용지 전달

<민주조국> 제33호 (1990.8.1)

- 범민족대회 서울예비회담 파행, 이종현 민협대표 참가
- 유럽지역 범추 추진위
- 민협 중앙위
- 민협, 범민족대회 지지 및 민족해방 45주년 기념식

<민주조국> 제34호 (1990.9.20)

- 조국통일범민족유럽연합 결성,90.9.15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키로, 서베를린에 사무국
- 1차 범민족대회 (1,2,3,4,5,6,8)
- 여성회, 한국간호원 파독25주년 행사
- 남아공 지도자 민협방문

<민주조국> 제35호 (1990.11.1)

- 범추본,남·북·해외 3자회담 제의
- 베를린 녹색당 한국대사에 항의서한
- 여성회 파독25주년 행사 및 정기총회

<민주조국> 제36호 (1990.12.1)

- 베를린 3자회담 범민련 최종합의 (1,2,3면)
- 민협중앙위 열려
- 노동3단체 통합키로
- 전태일 열사 20주년 추모제
- 한독문화협회,통일의 북소리 공연
- 장기수에게 털조끼를

<민주조국> 제37호 (1991.2.1)

- 유럽민협 새해 정기총회
- 백림노동교실 정기총회
- 범민련해외본부 결성대회,베를린,90.12.14-16
- 독일 정부와 교회, 베를린회담대표 구속부당
- 본에서 석방요구 시위 및 경고파수

-김형규 석방요구 드높아

<민주조국> 제38호 (1991.3.1)

-김형규씨 석방

-범민련유럽본부 보고대회 및 임시총회

-유럽운동이 살아남는 길(1)(주장)

-프랑크푸르트 기독교모임, 한국정부 불허로 남쪽 불참

<민주조국> 제39호 (1991.4.1)

-91 민협 중앙위,민주조국 휴간

-바이체커 대통령, 유럽민협에 감사서한

-유럽운동이 살아남는 길(2)(주장)

-내릴 수 없는 깃발을 잠시 내리며

-오월민중제 안내

-재유럽노동자 모임 창립준비

-여성회 봄세미나

단체명 : 기타

개괄:

이외에도 <주체>(정철제,오석근 발행. 서베를린),<주체시대>(박성옥 발행. 쾰른),<햇불>(버트란트뤼셀협회 배동인 김순태 발행. 프랑크푸르트?), <민중출판사>(최기환 발행. 제네바)의 민중서고 시리즈 등이 있으나 <햇불>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되 지나친 김대중 편향적이었고, 그 외의 출판물들은 지나치게 북한 편향적이어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넣기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1992년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조국은 하나>라는 잡지형태의 비정기간행물을 펴지만 대중동포들의 호응이 넓지는 못했다.

관련 자료 :

<조국은 하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 본부, 창간호, 1992.3.31

-정세분석 1, 대화국면 그 배경과 과제, 최기환

-정세분석 2, 남북합의서 채택을 중심으로, 자주통일위원회

-시론 전환기를 보는 시각, 송두울

-좌담회 북조선 학생위원회 최경철 대표와 함께

-평화군축 한국정부와 독일정부 간의 잠수함거래의혹, 사회과학연구회

-범민련 소식

<조국은 하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 본부, 제3호, 1992.12.15

-유럽내 통일운동의 현주소, 송두울

-범유본 제3기 정기총회 보고서

-정규명 범유본 의장과 함께

-해외동포 여성모임에 참석하고 와서, 김순환

-해외본부의 운동지침서, 범민련해외본부

- 제3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
- 제3차 범민족대회 호소문
- 199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김진향
- 민족통일긴급대토론회, 홍보부
- 평화연구는 자기과제를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 사회과학연구회
- 윤이상 동경음악제, 홍보부

<민중서고>시리즈

- 민족사관의 재정립, 민중서고1,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
- 민족해방운동과 제3세계,민중서고2,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
- 한국의 보검,주체사상,민중서고3,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
- 역사와 전통,민중서고4,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
- 주한미군문제,민중서고5,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
- 신화로서의 남침설,민중서고6,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
- 북반부견문상기,민중서고7,YSW, 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0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론,민중서고8,한국문제연구반,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0
- 민족통일론의 새로운 전개,민중서고9,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0
- 6.25전쟁 도발자는 누구인가,민중서고10,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1
- 제3세계,에드몽 주브,민중서고11,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1
- 현대사의 흐름과 한국,민중서고12,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1
- 미국의 군사식민지-한국,민중서고13,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2
- 통일국가론,민중서고14,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2
-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민중서고15,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2
- 오늘의 민족사 인식-남북합의서의 민족사적 인식, 민중서고16, 민중출판사, 제네바, 스위스,1993
- 민족대단결론,민중서고17,한국문제연구반,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3
- 한반도문제와 조미관계,민중서고18,한국문제연구반,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3
- 민족통일의 정치학,민중서고19,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 1993
- 인간과 정치,민중서고20,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3
- 남북통일방안 비교연구,민중서고21,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3
- 한국경제구조의 재조명,민중서고22,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3
- 일제의 침략죄형과 보상문제,민중서고23,민중출판사,제네바,스위스,1993

6. 인권운동

단체명 : 장기수대책위원회(Koreanische Unterstutzungsgruppe für politische Gefangene in Südkorea)
 후에 재독양심수후원회로 개명

약칭 : 장기수대책위 (양심수후원회)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유럽민협 존속기간 중 유럽민협 소속

존속 기간 : 1988.12-1999

주요 활동 지역 : 쾰른 및 프랑크푸르트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장기수대책위 (양심수후원회)는 독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안사건에 대하여 국내의 운동권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예컨대 안상근씨 의문사사건이나 김형규씨 사건. 이에 대하여는 후술 참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때(예컨대 유럽민협 반국가단체 사건), 적극적으로 유럽의 각 정당과 인권단체에 이를 홍보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했다. 그 외에도 국내의 정치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정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가교역할을 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장기수대책위 (양심수후원회)의 활동은 그간의 해외운동이 일방적으로 국내운동을 지원하고 국내운동에 끌려다니다가 받은 댓가로 고작 ‘반국가단체’나 ‘친북단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궤멸하는 차원을 벗어나,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해외운동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었다.

결성 과정 :

장기수대책위 (양심수후원회)는 국내외 민민운동의 활동이 거세지면서 그에 비례하여 공안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 조응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치범들의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해 결성되었다. 처음 결성 당시에는 장기수들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가 독일과 관련한 공안사건들이 양산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조직 체계 : 총회, 회장, 부회장, 회계

강령 및 규약 : 없음

주요 임원 : 이영숙, 이한나, 신옥자

주요 활동 :

1.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서방운동 전개, 항의서·탄원서 보내기
2. 국내 민가협, 인권운동 사랑방 등 인권단체와 교류 및 연대, 독일단체와 연대 및 한국 인권상황 홍보 활동
3. 국내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직접 짠 스웨터, 약품 보내기
4. 출소한 무의탁 장기수들의 생계 지원하는 민가협 활동에 동참
5. 출소장기수들과의 자매결연 추진
6. 모금 및 수익사업

기관지 : 없음

해체 과정 :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93년부터 존립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체됨

관련 자료 :

- 서독연방대통령 비서실 국제관계 책임자 Bertohold von Pfitzen이 이영숙 회장에게 보낸 서한(독문)
- 독일연방 상원의장 발터 몸퍼씨가 장기수대책위에 보낸 서한(독문), 1989.11.21
- 독일 녹색당 대변인이 장기수대책위에 남한인권문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공문(독문),

1989.11.28

-독일연방의회 인권담당 외사부가 독일연방 국회의장 리타 쥐스무트 씨를 대신하여 장기수대책위에 보낸 서한(독문), 1989.12.4

-독일외무부가 김형규씨 등 한국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수대책위에 보낸 서한(독문), 1989.12.1

-함부르크 자유예술아카데미가 권터 그라스·힐트만·발터 엔 등의 연명으로 연방대통령 바이체커에게 임수경,문익환,홍성담 등의 석방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서한(독문), 1989.9

-함부르크 자유예술아카데미가 권터 그라스·힐트만·발터 엔 등의 연명으로 노태우 한국대통령에게 임수경,문익환,홍성담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독문), 1989.9

-재독양심수 후원회 5차 총회 보고서, 1994.1.8

-재독양심수 후원회 6차 임시총회 안내문,

단체명 : 기타

개괄 :

장기수대책위 (양심수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인권단체의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 외의 주요한 인권운동으로는 한민련 유럽본부 등이 주도했던 김대중씨 구출운동과 재독한국여성모임이 주도했던 김현장·문부식 구명운동, 기통회·유럽민협 등의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관련자 재독동포 안상근씨 의문사 규명운동, 유럽민협의 최혁배 구출위원회, 유럽민협 등의 김형규씨 석방대책위원회, 기타 김근태, 홍성담, 등 구속 국내인사 석방운동 등이 있다. (상세는 각 부문운동별 활동 참조)

관련 자료 :

-유럽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 (1), 월간 <말> 2000년 10월호

-김현장 문부식 구명운동을 위한 한국의 밤 행사, 재독한국여성모임지, 제6호, 1982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 및 <최혁배 구출위원회 결성>민협, 88.2.21,<민주조국 제4호>88.3.1

<최혁배씨에 4년선고>,<민주조국 제5호>88.4.1

<독일인들, 김형규,최혁배씨 석방요구 시위>,<민주조국 제5호>88.4.1

-최혁배 석방,<민주조국 제8호>1888.6.21

<재독교포 김형규씨 간첩사건 관련 기사, 성명서, '배후' 김성수씨 해명서> 민주조국 제1호, 87.11.30

-김형규씨 석방탄원서 제출,<민주조국 제7호> 88.6.1

-녹색당 전 당수 페트라 켈리, 김형규씨 구출을 서독외상에 요구,<민주조국 제14호> 1989.1.1

-장기수대책위·김형규와 장기수 구출위 연대시위,3.17,민주조국 호외,89.3.1

-김형규 석방데모,본,3.17,<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장기수대책위,김형규구출위 서명용지 전달,<민주조국 제32호>1990.7.10

-김형규 석방요구 드높아,<민주조국 제37호> 91.2.1

-김형규씨 석방,<민주조국 제38호> 91.3.1

-김근태씨, 함부르크 제정 양심수로 선발,<민주조국 제8호>1888.6.21

-김현장·문부식 후원회 발족 준비모임(4,5면)<민주조국 제12호>1988.11.1

-민협 등 김현장·문부식 석방운동,<민주조국 제13호>1988.12.1

-남민전 김종삼 석방운동,괴팅엔,<민주조국 제13호>1988.12.1

-장기수대책위 발족/김·문 후원회 발전적해소,<민주조국 제14호> 1989.1.1

-장기수대책위·김형규와 장기수 구출위 연대시위,3.17

-장기수대책위 총회,보콥,4.15,<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이종수 민건의장 안기부 연행/관련 민협 성명,<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 홍성담 구출 활동,<민주조국 제22호>1989.9.1
- 영사증명서, 안기부 파견 신용기 작성, 1989.9.1
- 재독장기수대책위 제3차 정기총회,<유럽민협 제23호> 89.10.1
- 국제펜클럽,김현장씨 등 석방요구,<유럽민협 제23호> 89.10.1
- 해외동포 탄압사례모음,민협,<유럽민협 제23호> 89.10.1
- 서독 지식인들,홍성담씨등 석방운동,<민주조국 제24호>89.11.1
- 함부르크, 임수경·홍성담 올해의 인물로 선정,<민주조국 제24호>89.11.1
- 베를린 시장 몸피,장기수대책위에 연대 전문,<민주조국 제25호> 89.12.1후에 상세기술 요
- 유럽민협, 임수경 씨등 석방 1차서명용지 전달,<민주조국 제25호> 89.12.1
- 홍성담 사건 새국면,<민주조국 제25호> 89.12.1
- 김현장·김영애 구출위 결성,<민주조국 제25호> 89.12.1
- 문목사 가족 유럽민협 등에 석방협조 요청,<민주조국 제26호> 90.1.1.
- 김영애씨 안기부 고문으로 유산,<민주조국 제26호> 90.1.1.
- 유럽민협·사민당·녹색당 등과 연합구명운동 전개,<민주조국 제26호> 90.1.1.
- 페터씨,홍성담사건 안기부 조작 폭로,<민주조국 제26호> 90.1.1.
- 김현장·김영애씨 구속 관련 민협 성명서,<민주조국 제26호> 90.1.1.
- 여성회,김영애 관련 성명,<민주조국 제27호> 90.2.1
- 유럽학자 101인 노대통령에 공개서한,<민주조국 제28호> 90.3.1
- 김현장·김영애씨에 부당선고공판 규탄 성명서,<민주조국 제28호> 90.3.1
- 베를린시장,한국대사관에 항의 공문,<유럽민협 제29호> 90.4.1
- 녹색당 국제부장, 항의성명,<유럽민협 제29호> 90.4.1
- “유럽민협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어”김영애씨 보석,김현장씨 일부 무죄,<민주조국 제32호>1990.7.10
- 장기수에게 털조끼를,<민주조국 제36호> 90.12.1
- 독일 정부와 교회, 베를린회담대표 구속부당,<민주조국 제37호> 91.2.1
- 본에서 석방요구 시위 및 경고파수,<민주조국 제37호> 91.2.1

7. 유학생운동

단체명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Demokratischer Verband der Jungkoreaner in Europa)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참조)

약칭 : 재유민청 또는 유코 (JUKO)

소속 체 또는 상급 단체 : 없음.

존속 기간 : 1984년 11월-1986년 가을

주요 활동 지역 :

사무실이 있던 괴팅엔과, 회원 소재지의 유학생회 및 사회과학세미나와 광주기념행사가 열리는 지역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전술한 민건회의 구성원의 상당수가 유학생이거나 유학생 출신이었지만 광산노동자와 간호사, 목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유학생운동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었다.

유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비공개 반합법단체로는 재유럽민주청년연합이 유일하다.

이들은 광주항쟁의 영향으로 괴팅엔을 비롯한 마부르크, 베를린 대학의 유학생들이 지역차원에서 광주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서로 만나다가 한국문제를 토론하는 '사회과학세미나'를 조직하여 1년에 한번씩 각 대학의 유학생들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치렀다.

이들의 활동과 역량이 중심이 되어 유럽에서의 최대 규모의 시위였던 <조국민주화실천대회>가 유월항쟁 직후에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리게 된다.

결성 과정 :

국내에서 청년조직인 민청련이 결성되어 활동하는 데에 고무된 일단의 유학생들이 그동안 비공개 학술운동인 사회과학세미나(박호성·김세균·홍세화·김대환·박영은·최종욱·손학규·정현백·정범구·어수갑·차명제·이종오·박상환·양정운·오세종·이영·박병섭 등이 참여하여 1982년 12월 쾰른에서 시작하여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회 한국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유학생들의 의식화를 주도했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비공개로 결성하였다.

조직 체계 :

총회와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에 총무와 홍보·학습·재정 등이 있다. (규약 제3장 기구 참조)

강령 및 규약 :

<강령>

1. 우리는 민중에 의한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지향한다.
2. 우리는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투쟁하는 국내의 동포에 연대한다.
3. 우리는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투쟁하는 해외동포와 이를 지지하는 외국인 민주단체 및 개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외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강화한다.
4. 우리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반전반핵평화운동 및 환경보호운동과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 바른 국제 평화질서의 수립에 이바지한다.
5. 우리는 유럽 내 동포들의 권익옹호와 2세에 대한 민족교육실시 및 청년들의 의식화작업에 노력한다.

<규약> (1984.11.3 제정, 1985.12.6 개정됨)

목적: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지향하며, 유럽내 동포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 참조)

회원 및 기구: 회원은 40세 이하의 유럽거주 한국청년으로 실제로는 당시 독일에 거주하며 독일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2세 학생 및 프랑스 파리의 망명자 홍세화씨로 구성되었다.총무 및 홍보, 학습, 재정으로 집행위가 구성되었다. (제2장 회원 및 제3장 기구 참조)

주요 임원 : 홍세화(파리), 최종욱(보쿰), 정범구·이영(이상 마부르크), 박상환(기센), 이은자·정유성(이상 뮌헨), 양정운(쾰른. 회계), 승정현· 차명제(이상 뮌스터), 오세종·이문호·박재원(이상 괴팅겐), 박병섭(키일), 어수갑(브레멘. 초대 총무), 정윤선(프랑크푸르트. 2대 총무) (이상 괄호 안은 당시 재학 중인 대학 또는 거주지역)

주요 활동 :

1. 국내외 운동단체와의 정보와 자료의 교환·수집·분석 및 평가,
2. 학술토론, 번역,출판,홍보 및 2세에 대한 민족교육,

3. 국내외 운동단체와의 연대강화를 위한 각종활동 (이상 제1장 총칙 제4조 참조)에 의거하여 1년에 1 번씩 진행되던 전유럽 차원의 사회과학세미나를 지원하고, 5월에 각 대도시에서 치러지는 광주기념식 주도 및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등과 같은 기성단체의 측면지원과 외부행사 지원 및 국내 운동권에서 만든 테이프 등 판매, 내적으로는 학습과 노동을 했다. 노동은 괴팅엔 인근의 밭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배추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수확하고 일부는 판매했다.

그들 중 일부는 후일 귀국하여 홍성담씨 사건 및 서경원 의원사건, 임수경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의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기관지 :

없음. (단, 내신(內信)이란 이름의 내부학습 및 통신용 기관지가 1호부터 8호까지 만들어 졌다.)

해체 과정 :

유학생이란 신분상의 제약으로 비공개로 시작한 조직은 활동과정에서 자연 노출됨에 따라 위축되었으며, 현장론과 준비론,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사회구성체론에 따른 입장차이로 NL에 가까운 현장론의 입장에 선 극소수가 유럽 기성 운동권으로 편입되고, PD에 가까웠던 몇몇은 1.5세 내지 2세들을 모아 소그룹을 형성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은 학업을 이유로 운동을 중단하면서 1986년 해체되었다.

(1.이들은 후일 대부분 귀국하여 현재 '포럼 93'을 형성했으나 내부 세미나 단계를 넘어서지는 않고 있다; 연구자주.

2. 이에 대한 흥미로운 언급이 있다. 아래의 독문 번역글 참조

“...1993년에 울리아 벤트란트와 권터 프로이덴베르크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남한의 재야 단체들, 교회 관련 그룹들, 예술가들, 그리고 학자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협회와 그 활동영역 및 구조를 설명하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파트너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독일 내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측의 생각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숙고의 결과가 바로 '포럼 93', 즉 한국 학자들의 동맹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작업은 독일 내의 한국 사업이 강화되는 데에 기여한다고 말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호간의 연대라는 측면은 제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Roland Wein, 5.18 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 사업, 해외에서의 5월운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관련 자료 :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강령 및 규약집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내신 제1호, 1984.12.1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내신 제2호, 1985.2.19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내신 제3호, 1985.4.29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내신 제4호, 1985.9.15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내신 제5호, 1985.10.17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내신 제6호, 1985.11.10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내신 제7호, 1986.2.24
-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내신 제8호, 1986.5.2
- 뮌스터에서 유학생 사회과학세미나 ,87.12.26-29<민주조국> 제2호,1988.1.1
- 서의원사건 관련 독일 유학생출신 강제연행<민주조국> 제21호 89.8.1
- 유학생 사회과학세미나를 위한 재정보조신청서(독문)
- 어수갑,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휴머니스트, 2004

단체명 : 각 지역의 유학생운동

개괄 : 튀빙엔·괴팅엔·브레멘·마부르크·베를린·보쿰·퀵른·프랑크푸르트 등 대학의 한인학생회들은 광주항쟁과 그 이후의 한국의 민주화과정에 나름대로 대응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전두환·노태우 방독반대 시위에 교포들과 함께 하고 광주항쟁 기념식을 자신이 속한 도시에서 조직했다. 한국에서 유월항쟁이 정점으로 치닫던 87년 7월 4일엔 본에서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교포단체들이 뒤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대규모 '조국민주화실천대회'를 열었는데, 독일의 25개 도시에서 온 5백 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이는 인구 3만 명의 독일 교포사상 최대의 규모였다.

<튀빙엔 대학교 한인 학생회 성명서, 1980.6.3 >

(전략) 지금 이 순간 조국의 현실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결단을 요구한다.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잔인한 고문과 탄압에 신음하면서도 끈질기게 투쟁을 결의하고 있을 수많은 동포들과 지금 멀리 조국을 떠나 있는 우리는 긴박한 조국의 현실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다.

잔악과 독선의 전제군부 독재를 영원히 분쇄시키려는 그들의 결의와 우리의 결의가 뜨겁게 한 핏줄로 만날 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대투쟁의 대열에 모두 함께 앞장서 일하려는 뜨거운 의지가 우리 가슴 속에 불붙을 것이다.

(중략)

이제 이러한 분노의 힘을 새역사 창조의 필연적인 힘으로 전환시키고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모든 개인적 차이와 상황을 넘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뜻을 새로이 확인하고 밝혀내면서 그러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하나로 묶는 일이야말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단 하나의 필연적 진실임을 고백한다.

(중략)

그럼으로써 우리는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고난으로 열어 놓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의 말과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또한 정의롭게 장식해 나갈 것이다.

<보쿰대학 유학생 시국선언문>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요지)

유학생이라는 우리의 위치가 결코 우리의 일관된 침묵을 합리화시키지 못한다는 깨달음에서 비롯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난의 십자가를 지고 의연히 일어나 싸우고 있는 조국의 민중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굳은 연대의 표시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정권은 79년 10·26 이후에 자행한 온갖 살인과 폭력, 비리와 기만, 부정과 부패, 비인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 인간다운 삶이 존중되는 새로운 헌법하에서 민중이 자유의사에 의해 직접 정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경제의 자립과 공정한 분배를 도외시하는 경제현실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이에 대한 온갖 규제와 탄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 민족통일의 과제는 그 어떤 지배이데올로기나 문제보다 상위에 놓이는 이념이 되어야 하며 통일논의는 전민중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민주화 투쟁을 이유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노동자, 농민, 학생, 민주인사, 정치인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 올림픽은 민주화된 조국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하님 민족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 제도권 언론인들은 지금까지의 무기력성, 기회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야당지도자 및 재야인사들이 전정권의 그 어떤 기만적 술책과 유화책도 단호히 거부하고 민중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민주화 실천대회 재독한국학생 성명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5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에 우리 재독한국유학생과 교민들은 날로 그 열기를 더해가는 국내의 민주화투쟁대열에 동참하며 민족·민주운동의 깃발 아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먼저 우리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파멸직전의 군부독재정권으로부터 일단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민중 승리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국내의 민중에게 뜨거운 격려와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민중의 승리는 총체적 저항과 끈질긴 싸움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으며, 민족사적 과제인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는 어떠한 탄압과 기만으로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4·19와 80년 5월 “서울의 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미국과 군부독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잠깐 동안의 승리감에 도취하여 소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닐 때 어떠한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 지를 뼈저리게 배운 바 있다. 4·19 당시에는 친미보수정권에게 투쟁의 전취물을 의탁했던 소극적 태도와 올바른 지도이념의 부재로 인해, 그리고 80년 5월에는 민중의 염원과 열기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기다려보자는 식의 안이한 태도와 기회주의적 소수 정치인들의 정파적 정권획득욕으로 인해 군부정권의 등장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한국 민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에 친미사대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자국의 이익만을 획책하려는 강대국의 논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들은 우리에게 투쟁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정권이 새삼스럽게 대외적으로는 국제여론에 밀리고 대내적으로는 내란의 위협에 직면해서야 마치 스스로 민주화를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양 서둘러 내놓은 소위 ‘시국수습방안 8개 조항’은 그 실질적 내용을 두고 볼 때 보수대연합을 노리는 ‘이민주구상’과 본질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통령직선제는 군부의 정치개입방지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회개혁 및 사회정의의 실현 등 제반 사회적 모순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민주헌법의 제정을 통해서만 그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별적’ 정치범 석방은 학생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다수를 석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존의 보수정치세력과 민족민주운동세력간의 연합전선을 내부로부터 와해, 분열시키겠다는 저의를 분명하게 깔고 있다. 아울러 그들이 그,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이성적’ 정당이라는 것도 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민중이 피를 흘려가며 투쟁을 통해 획득한 전취물이 찬탈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유학생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침묵만을 계속하고 있을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조국의 민중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굳은 연대를 표시하고자 한다.

1. 12·12 숙군 쿠데타와 광주살육을 통해 정권을 획득한 현정권은 그 출발에서부터 정통성과 합법성을 결하고 있으며, 그 후 일관되게 온갖 살인과 강간, 고문, 비리와 기만, 부정부패, 대규모 반민중적 폭력행사를 통하여 정권을 유지해 왔다.

우리는 군부독재정권이 그들이 자행한 반인간적·비도덕적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요구한다.

2. 미국은 그들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의 관철을 위해 빈번히 한국민중을 압살하는데 동조, OO해 왔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중의 뜻에 반하는 미국의 어떠한 개입과 간섭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3. 과거 일부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은 그들의 개인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초부터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세력과 야합함으로써 민중의 의지를 왜곡하고 우롱하여 왔다. 우리는 야당지도자들을 비롯한 재야인사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희석시키지 말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

민, 학생 등 민주시민과 끝까지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4. 소위 '경제기적'의 진정한 수행자이며 희생자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소위 '정치적 자유화조치'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기층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세력이 제외도니 채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를 형태를 달리 하는 또 다른 독재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정치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될 것을 요구하며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5.우리는 88올림픽이 도시빈민의 생존권 박탈 등 기층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반민중적 정치세력의 정권연장획득을 위한 선전장으로 화하거나 소수독점재벌만의 이익에 봉사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거행되는 올림픽만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화해를 촉진하는 한민족의 잔치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6. 우리는 금번 현정권의 제안발표 이후에도 민중들의 생존권 쟁취투쟁과 인권회복투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여론을 통해 특정 정치인들이 과장 선전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현정권의 약속이 즉각 실행에 옮겨질 것을 촉구한다.

7. 민주화를 위한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이다.

민족민주운동의 기치아래 우리는 이제까지 수행되어온 반독재·반외세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아 참다운 민주주의와 민족자주가 쟁취될 때까지 국내민중들과 더불어 싸울 것을 선언한다. 역사는 올바른 인식하에 실천하는 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 재독 유학생과 교민들은 한국의 전 민중 및 해외의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장이 마련 될 승리의 그날까지; 줄기차게 투쟁하자!

1987년 7월 4일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재독한국학생 일동

관련 자료

-본에서 재독한국학생준비위원회 주최 조국민주화실천대회 , 87.7.4, <민주조국>창간호 1987.11.30

-성명서,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재독한국학생 일동, 1987.7.4 <자주> 제34호, 1987.7.25

-<민주실천>창간호, 조국민주화를 위한 재독한국학생협의회,87.11.15 <민주조국> 제2호,1988.1.1

-Undong(운동)지 제1호, 정운선, 김대흠 등 편집(이하 같음), 1987

-Undong(운동)지 제2호

-Undong(운동)지 제3호

8. 기독교운동

단체명 :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Christen im Ausland für die Wiedervereinigung Koreas)

약칭 : 기통회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없음. (유럽민협 존속 당시 기통회는 북과의 교류 등을 이유로 유럽민협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1980년부터 82년까지 기통회에 소속되었던 김성수씨를 유럽민협의 배후로 연결시킴으로써 유럽민협을 북과 연계된 단체로 몰고자했던 89년 당시 공안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88년 당시 기통회 회장 이영빈 목사가 유럽민협 공개토론회에 보낸 질문서 등 참조; 연구자주)

존속 기간 :

1979년(기통회 설립을 1980년이나 1981년으로 보는 글도 있다. 그리고 기통회를 설립한 이의 한 사람인 이영빈 목사에 의하면 1979년 초라 하고, 그의 부인인 김순환씨는 1980년이라고 한다 ;연구자주)- 현재에 이름

주요 활동 지역 : 프랑크푸르트

단체의 성격과 의의 :

동서독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동서독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독일에서 직접 체험한 이들은 그러한 독일의 경험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 스스로 기독교를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량으로 삼고자 했다. 한국의 엄혹했던 시절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남과 북의 만남은 금기였으며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뜻한다. 불법이요 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통회의 5회에 걸친 북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러한 상황을 뚫고 유럽운동이 북과 공식적으로 교류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과 내용이 상당부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사에서는 오랫동안 제외되어 온 것도 사실이며 유럽운동권 안에서조차 그들과 그들의 활동은 경계와 경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결성 과정 :

이미 1956년부터 북한의 부친과 서신교환을 해오던 이영빈목사는 북한방문을 위해 공식적인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1977년경부터 ‘세계평화기독교자회’에 편지를 내어 북한(기독교)과의 연계를 모색해오던 이목사는 1979년 기통회를 결성하면서 그 기관지인 <통일과 기독교> 창간호에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것이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에 전달되었으며 1980년 여름 조선기독교연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그들을 초청, 기독교와 북한사회주의의 대화가 시작된다.

1981년 6월에 독일에 있던 이화선(초대 회장)목사, 이영빈(기관지 통일과 기독교 초대 편집장)목사, 이영빈 목사의 부인 김순환(초대 총무)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을 방문하고, 원산의 가정교회에서 북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린다.

조직 체계 : 회장, 부회장, 총무, 편집장

강령 및 규약 :

첫째, 종살이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출애굽 20:1)과 가진 자와 억눌린 자들을 풀어놓는 예수의 복음(마태오 25:31)에 근거하여 외세에서 해방, 자주하는 것을 기독교자의 과제로 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평화는 원수관계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화해를 조성하며, 남북통일의 전진적 발전을 저해하는 반공태도를 고치고 화해와 조국통일에 적극 협력한다.

셋째, 제 3세계의 신학과 같이 토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통일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남북간에 깔려 있는 불신, 오해, 반목을 초래하는 악감정과 사상을 극복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남북의 사상, 신앙,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주요 임원 :

이영빈 목사(초대 편집장), 김순환, 이화선 목사(초대 회장. 82년에 노선갈등으로 탈퇴함), 최기환(초대총무), 김성수, 강무의 등

주요 활동 :

북과의 통일대화 및 유럽동포 대상 이산가족찾기

기통회는 1981년 6월 평양에서 이북 기독교도연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그해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허정숙, 고기준, 최덕신, 이화선, 이영빈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통회가 주최하여 제 1차 대회를 치렀다. 그 다음해 1982년 12월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모였다. 하지만 이 대회가 말하자면 종교행사를 가장한 정치집회로

인식되고 한국의 교회에서도 이를 교회행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등, 반대가 일자 1984년 12월 비엔나에서 북에서 전금철, 김용준 등 33개 단체의 대표 40명과 양은식, 선우학원 등 미주,호주 등 대표 33명, 이영빈, 최기환 등 유럽대표 17명이 참가하여 열린 제 3차 대회에서 이들은 외형적으로도 '기독교'의 틀을 벗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을 만든다.

기관지 :

<통일과 기독교> (1979년 창간) 및 <통일과 시사>(발행인 이화선 목사, 편집인 이영빈 목사)

해체 과정 : 현존

기통회의 노선에 대한 초대회장 이화선 목사 측과 이영빈 목사 측의 대립으로 82년 이화선 목사 쪽이 탈퇴하여 기연(해외기독교자연합)을 설립했으나 활동은 미미했다. 현재 기통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영빈 목사측이 북한의 입장을 거의 추종한 반면, 이화선 목사측은 당시 전두환 정권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화해자'의 입장에서 옳으며, 북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해야 하며 권유할 것(예컨대 북에 교회 설립을 권유)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통일대화 당시 북의 선전물 게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후일 이영빈 목사측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기관지에 실고, 결국 2차 통일대화에 이화선 목사 측의 참여를 '주최자'가 아닌 '방청인'으로 제한시키고 북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기통회가 둘로 분열되었고 후일 '북한 추종집단'이란 비판과 의구를 불러오기도 했다.

관련 자료 :

- <통일과 시사>, 기통회 프랑크푸르트 지역회 발행, 1981.6/7
- <통일과 시사>, 기통회 발행, 1981.8
- <통일과 시사>, 기통회 발행, 1981.9
- <통일과 시사>, 기통회 발행, 1981.10
- <통일과 시사>, 기통회 발행, 1982.1/2/3
- <통일과 기독교> 제5호,기통회 발행, 1982
- <통일과 기독교> 제6호,기통회 발행, 1983
- <통일과 기독교> 제10호 발행, <민주조국> 제8호 1888.6.21
-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간의 대화 기사 및 공동성명, 국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우리나라> 제4호, 1983.1.1
- 헬싱키 남북대화 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그 실천적 과제, 전금철,<우리나라> 제5호, 1983.2.1
-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정기총회,<우리나라> 제6호, 1983.3.1
- 제3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간의 대화, 비엔나에서 100여명 참가 <우리나라> 제27호(1985.1.15)
- 해내외 전체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나라> 제27호,1985.1.15
- 비엔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제1차 대표회의, <우리나라> 제37호,1986.1.22
- 해외통일운동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유럽본부,<우리나라> 제37호,1986.1.22
- 비엔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대표자 확대회의 개최, <우리나라>제46호,1986.11.1
-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구라파지구 제2차 총회,<우리나라> 제48호,1987.1.21
- 기통회 8·15성명서 발표, <민주조국> 제22호,1989.9.1
- 변진홍,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과 그 의미에 대한 성찰,
- 김순환, 우리는 어떻게 사나
- 이영빈 목사와의 대담, 오석근 저 육천만 동포 사백만 교포 그 모두가 한을 안고, <우리나라> 문고, 1988
- 이화선 목사와의 대담, 오석근 저 육천만 동포 사백만 교포 그 모두가 한을 안고, <우리나라> 문고, 1988

-이영빈,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에 대한 우리 기통회의 의견과 질문, 1988.2.20
-강무의, '발지움 사건'과 나, 이한경 선생 회갑 문집, 1998

단체명 : 재독 기독교 정의평화통일위원회 (후에 통일특별위원회로 변경)

약칭 : 정평통(혹은 통일위원회)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존속 기간 : 1989.10-

주요 활동 지역 : 베를린, 라인마인 지방,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단체의 성격과 의의 :

독일을 위시한 유럽에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나와 있다. 교민 4천 여 명의 베를린의 경우 15개 이상의 교회가 범람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정작 조국의 민주화나 통일에 관심을 가진 교회는 많지 않다. 권위주의 정권 당시 유일한 예외가 기장교단에서 파견되고 독일의 개신교단인 EKD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소속 교회가 그것이다. 그들은 베를린· 함부르크· 보쿰· 슈트트가르트 등지의 소속 한인교회내에 정평통을 신설하고 국내교단 내의 정평통의 사업을 해외에서 하고자 했다. 재독 교회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고조는 그간 두차례에 걸쳐 있었던 남북교계의 글리온회의나 1988년 2월 인천에서의 세계대회와 더불어 독일에서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북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선구적인 목사들의 활동 등 꾸준한 노력들의 결실이었다.

결성 과정 :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차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문'이 발표되고 이어서 4월 인천에서 있었던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에 독일 개신교의 지도자들과 한인교회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다음해인 1989년 재독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홍섭 목사)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함부르크 한인교회(담임목사 박명철 목사)에서 남북통일문제를 전담할 정의평화통일위원회 1차 모임을 갖고 '국내 개신교회들의 통일운동의 현황 및 남북교회의 만남과 그 과정'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토론과정에서 독일에 있는 기독교 한인교회 협의회 산하에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9월 획스트/오덴발트에서 있었던 한국교회의 날에서 발의된 이 위원회를 10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식 발족시켰다.

조직 체계 : 한인교회협의회 소속 8개 지방 회원교회를 중심으로 독일 내에 5개의 지역조직을 둬, 위원장·총무 및 각 지방교회의 통일위원

강령 및 규약 :

<설치목적>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로서 국내의 민주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며 정의 평화 조국통일 운동을 추진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성명서-정의평화통일위원회 연구모임을 마치면서>

날로 어두워만 가는 조국의 현실과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해 하는 요즈음의 현실을 보면서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정의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지혜를 모아 어둠을 밝히려는 역사에 동참하고자 1989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라데포름발트의 개신교청년아카데미에서 연구모임을 갖고 독일 땅에 있는 우리들이 조

국분단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만 되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들의 해야 할 과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분당된 조국에서 분단된 독일 땅으로 일하러온 우리들은 이곳에서 우리의 조국분단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으며, 독일 당에 일자리를 찾으려온 근본적 원인을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발견하였다. 당시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는 강대국의 신제국주의로 빚어지는 착취와 약탈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구조가 심각하여 독일로 오게 된 이후에도 우리들은 오히려 이곳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멀리는 동백림사건, 최근에는 서경원의원사건 등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마치 독일의 동포들이 이적활동의 주요무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 동포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모두가 조국의 분단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들이었기에, 자유와 정의와 평가가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분단자체를 죄악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순교자적 희생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조국통일을 위해 해야 될 과제를 모색하였다.

조국통일은 어느 특정한 단체나 기관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고, 오히려 국내와 국외에 있는 전 동포들이 함께 해야 될 과제임을 인식한 우리들은 그중의 한 부문운동으로서 해외 특히 서독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과 다른 여건에서 기여할 바를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분단된 독일의 경험과 평화, 통일운동을 밑바탕으로 하나 되는 모습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통일이론과 통일신학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통일의 실제적 내용이 되는 평화교육으로서의 교회프로그램, 예배형식의 개발 등 구체적인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됨을 깨달았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활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운동단체와의 연대를 맺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등과 연대를 맺어 시시각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국내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담당하며 독일 교회 및 독일의 여러 동포 및 독일운동단체와 일감 중심으로 깊은 연대를 적극적으로 맺기로 하였다. 또한 통일운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적극 지지기로 하고, 지난번 제23차 독일개신교회의 날 북한기독교인들과 만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교류를 맺어 상호신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정의평화통일위원회의 역량이 극대화됨으로써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우리들은 이를 위해 본 위원회의 내규를 만들어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와의 협조 하에 최대한 자율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고 전개하도록 하며, 또한 각 지역별로 지방단위조직을 갖기로 원칙을 정하고 지방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 융통성을 두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모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선구자적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 목사의 결단은 45년간의 두터운 장벽을 깨고 조국통일운동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쾌거이고, 또한 전대협 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씨와 그를 동반한 카톨릭 전국정의구현사제단을 대표한 문규현 신부의 활동은 7천만동포의 조국통일염원을 온 세계에 과시한 통일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확인하였다.

이와 아울러 서경원의원 및 임수경씨의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조작한 것에 대해 우리들은 온 천하에 그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자료를 수집하여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1989.9.3

재독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통일위원회

주요 임원 :

서의실 목사(초대 위원장) 최정규(초대 총무) 김인태 목사 임용일 전동락 등

주요 활동 :

1989년 6월 베를린에서 열리는 개신교회의 날에 남북의 교회지도자가 초청된 것과 관련, 함께 예배와

성찬식, 강연회, 문화행사를 주관했다. 그리고 8월 15일 서독의 모든 교회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마련한 데 적극 호응하여 이를 추진키로 했다.

베를린의 경우 임수경씨 방북사건 관련자의 증언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 매년 5월 광주기념행사를 교회 안에서 주관하며, 매년 8월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정하고 독일교회와 합동으로 베를린 빌헬름황제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헌금을 국내 KNCC인권위원회에 보냈다.

한독교회가 연대하여 선교탄압, 악법철폐, 양심수 및 통일인사 석방운동, 서명운동, 성명서, 리플릿 배포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 양서를 구입하여 교우들의 의식화작업을 수행하고, 매년 12월엔 인권주일에배를 주관하여 국내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그들과 연대했다. (이들은 93년부터 북한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기금을 모았으며 그후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연구자주)

기관지 :

통일아침(1995년이 되어 비로소 창간호가 나왔다; 연구자주)

해체 과정 :

1990년 공안정국의 탄압의 회오리로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해외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면서 교회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침체의 늪으로 빠져있다가 1995년 희년을 맞아 다시 조직을 추스린다.

관련 자료 :

- 민주제 개헌관철을 위한 단식기도회,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프랑크푸르트 크리스투스 교회, 87.5.27-28,민주조국 제1호, 87.11.30
- 재독한인교회협,인권주간 제정, 87.12.6-13, 민주조국 제2호,1988.1.1
- 정평통 발족,<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 서베르린에서 개신교대회 남북한참가, 민주조국 제20호, 89.7.11
- 프랑크푸르트 기독교자모임, 한국정부 불허로 남쪽 불참, 민주조국 제38호, 91.3.1
- 교회와 사회 제21호, 베를린기독교한인교회,1991.10.31
- 통일아침 창간호, 기독교 재독 한인교회 협의회 통일특별위원회,1995.6.1

9. 연합운동

단체명 :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 유럽(구주)본부 (Union of Overseas Koreans for Democracy & Unification -Europe Section 후일 한민련의 명칭은 Alliance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of Korea-Han Min Ryun으로 바뀜)

약칭 : 한민련 유럽(구주)본부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한민련에 소속돼 있으며, 산하단체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 불란서 한국민족문제연구회(불란서 민건), 덴마크 민족문제협의회(덴마크 민건), 스위스 민주사회건설협의회(스위스 민건)

존속 기간 : 1977.8-현재에 이름

주요 활동 지역 : 유럽 특히 사무국이 있는 지역. (예. 베를린)

단체의 성격과 의의 :

한민련유럽본부는 한민련에 소속된 유럽지역 조직이며, 유럽 각 지역 민건회와 노연이 그에 가입되어 활동하였다. 한민련유럽본부는 유럽지역 최초의 해외를 아우르는 연대조직이란 의미가 있다. 사회주의 인터와의 연계 속에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행한 김대중 구출운동은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제고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친 외부재정(일본본부)에의 의존과 하향식 활동은 유럽 내 타 조직들로부터 일정한 비판과 견제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결성 과정 :

1972년 10월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은 일본과 미국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동포들을 규합했다. 김대중은 일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동포들과 함께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통련의 전신으로 약칭은 한민통)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한민통의 초대 의장으로는 김대중이 내정되었다. 해외에서 김대중을 중심으로 반박정희 세력이 결집되는것을 막고자 중앙정보부는 한민통의 결성식을 1주일 앞두고 김대중 납치사건을 강행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조직적으로 김대중의 구명운동을 벌인 한민통은 8월15일 결성선언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한민통의 김대중 구출운동은 세계 각 지역의 해외동포들과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국제적인 반박정희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1977년 3월22일 국내의 민주세력이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하자 한민통은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 해외동포추진본부'의 결성을 제의하였다. 한민통의 제의는 즉시 미국, 유럽의 동포사회와 민주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해외에서의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 미국동포사회의 지도자들이 도쿄로 와서 한민통을 중심으로 한 재일동포사회의 민주인사들과 함께 1977년 8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해외한국인민주운동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을 결성하였다. 한민련의 결성은 해외동포사회의 민주세력이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민련 유럽본부도 한민련의 결정과 같은 경위로 민건회 회원들과 노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조직 체계 :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국제부장, 조직부장, 사회부장, 홍보부장, 연구부장 등

강령 및 규약 :

<목적> 한민련 유럽본부는 한민련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며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한민련 유럽본부 규약 제2조 목적)

한민련은 그들의 활동방향과 과제의 중심을 반전과 평화에 두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중립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점진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군비축소를 주장했다. 그리고 당면과제로서 자주,민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 동포들의 대연합인 '민족민주주의연합전선'의 결성을 주장했다.(계간 한민련 창간호 참조)

그들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동포들이 단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동포들은 불순한 정치세력들의 분열,이간 계락을 극복하고 사상과 신앙 정견의 차이를 초월한 교포사회의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해외동포들의 연합전선체인 한민련이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 인터 등과의 국제연대운동을 강화해야 민족민주전선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련 신정강정책>

1.정치

- 1) 우리는 모든 형태의 독재체제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국민의 주권을 확립하는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2) 우리는 민주주의·민족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사회세력의 민주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포악한 군

사독재정권을 청산하고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한다.

3) 우리가 지향하는 민중적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사상, 신앙,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며 국가권력은 보편, 평등, 비밀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행사되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다.

4) 민중적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복수정당제도가 실시되며 따라서 야당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2. 경제·사회

1)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외국자본에 대한 예속성을 타파하여 자립경제를 수립하고 국민 일반이익이 개인의 특수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2) 우리는 개인기업의 자유원칙을 존중하며 개인기업이 국민경제에 공헌하는 한 그의 창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한다.

단,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계획경제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경제와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국유화정책을 실시한다.

3)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근본목적은 인간의 해방에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부익부·빈익빈의 요인을 배제하고 국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4) 우리는 노동악법을 전면 개정하여 진정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농업경제를 발전시켜 농민의 영농과 생활을 안정시킨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도시빈민의 생계와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3. 문화·교육

1) 우리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신적 개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예술, 과학, 기술, 교육의 다면적이고 창조적인 발달을 기한다. 또한 우리는 퇴폐적인 외국문화의 범람을 배제하며 전통적인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인류문화에 공헌한다.

2) 우리는 학원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중등교육의 의무제를 실시한다.

3) 우리는 인종차별, 도시와 농촌의 격차, 지방색 등 일체의 차별요소를 배제한다. 또한 우리는 여성의 권리옹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외교·국방

1)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현실 국제정치체제에 비추어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고 어떠한 외국 군사기지도 허용하지 않으며 비동맹중립화를 지향한다.

2) 우리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배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연헌장을 존중하며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과 우호관계를 도모하며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배격한다.

3)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철거시켜 비핵지대화하며 남북의 군사긴장이 완화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주한미군과 그 기지를 철수시킨다.

4) 우리는 현재 세계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주요원인은 군비확장과 제3세계의 빈곤이라는 인식 아래 세계평화세력과 제3세계의 연대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전반적 군축과 인간의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세계적 운동에 연대한다.

5)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군의 정치세력화를 엄중히 금하고 군으로 하여금 그의 본연의 임무인 국방에 전념케 함으로써 군의 정치 불간여 원칙을 철저히 실시한다.

5. 통일

1) 우리는 민족지상과제인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7·4남북 공동성명에 천명된 바와 같이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며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대단결 정신을 고양케 하고, 남북간의 이질성을 좁히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민족적 공통가치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발전시킨다.

2)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진지한 남북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대립에서 화해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연방제에서 완전통일로 이끌어 나간다.

주요 임원 :

윤이상, 정성배, 정규명(현 의장), 송두울, 김길순, 임민식, 이종수, 이종현

주요 활동 : 김대중 구출운동, 사회주의 인터와의 연대, 김현장·문부식 구출운동 등

기관지 :

<계간 한민련>(동경에서 펴냄. 제2차 대표자회의 이후)과 월간 영문지< Korea Newsletter>(베를린에서 펴냄. 이종수씨의 귀국과 더불어 휴간됨)

해체 과정 : 현존

관련 자료 :

- 한홍구, 한민통과 ‘김대중의 배신’,한겨레 21의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제387호, 2001.12.5
- 한민련, 스페인 사회당 전당대회에 한국대표로 선정 초청돼, <우리나라> 제27호,1985.1.15
- 한민련 유럽본부 제8차 회의, <우리나라> 제27호,1985.1.15
- 한민련 10주년 행사/동경,87.10.22-23, <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한민련 31차 스페인 사회노동당 전당대회 참가. 88.1.22 <민주조국> 제2호,1988.1.1
- 한민련 유럽본부 확대운영회의. 88.3.5-6 <민주조국> 제5호,1988.4.1
- 한민련유럽본부 제12차 정기총회<민주조국> 제13호,1988.12.1
- 한민련 중집위,동경,3.4<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 한민련 유럽본부 대표자 회의 <민주조국> 제28호, 90.3.1
- 어수갑(필명 김삼수), 민주헌법과 민중민주주의, 민주제개헌추진 해외동포대회 특집, <계간 한민련> 제2호에 수록,1986
- Korea Newsletter Vol.5 No.35, Berlin, April 1990
- Korea Newsletter Vol.5 No.38, Berlin, July 1990
- Korea Newsletter Vol.5 No.40, Berlin, October 1990

단체명 : 유럽민협 존속 시기엔 유럽민협이, 그 이후엔 (재유럽)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가 매년 새롭게 구성되어 광주항쟁 기념 행사인 오월민중제를 치룬다.

약칭 : 민중제 준비위원회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유럽민협 존속 시기엔 유럽민협 소속단체(유럽민협 참조할 것)가, 그 이후엔 주로 베를린 노동교실과 여성회 및 한민족 유럽연대 구성원들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민중문화모임·민주노동당 유럽지역위원회·재단법인 코레아협의회·베를린 노동교실·재독한국여성모임·한민족유럽연대·재독동포협력회 등이 공동주관한다.)

존속 기간 : 1987.5-현재

주요 활동 지역 :

처음엔 동포들이 비교적 운집해있는 투르지방이나 베를린 등지에서 열리다가 현재는 매년 빌레펠트에서

열리고 있다.

단체의 성격과 의의 :

해마다 5월 18일과 가장 가까운 주말을 택해 2박3일의 대동제로 치러지는 오월민중제는 유럽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월민중제는 유럽운동의 대동단결의 다른 이름이며, 유럽운동의 한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오월민중제라는 이름으로 정착되기까지 광주의거, 광주민중봉기, 광주민주화투쟁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기념행사가 치러지고, 횡수가 거듭되면서 단순히 추모하며 광주 항쟁정신을 기리는 외에도 유럽지역에서의 연대활동들이 모색된 것도 이 장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87년 처음 오월민중제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분산개최의 시기를 넘어 각 지역 준비위원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물론 그 전 단계의 다양한 활동들이 뒷받침해준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85년 출연진만 50명을 상회하는 연극 “금강”을 각 지역에서 나누어 준비하여 무대에 올렸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대의 틀은 87년 11월 유럽 최초로 제 단체들을 한데 묶어 유럽민협이라는 기구를 건설하는 데로 발전되는 동력이 되었다.

유럽민협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92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봉착하여 해산되었으나 여러 단체들이 함께 만드는 오월민중제는 유일한 전체 만남의 마당이라는 중요한 의미 하나를 더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오월민중제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여러 단체들이 숙고하여 준비모임을 통해 그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채택되거나 독일 동포사회의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오월민중제는 고령화하는 이민 1세대이자 그간 운동의 주체들과, 이중의 언어와 문화로 자기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며 자란 2세대들 간의 만남의 장이자 2세대만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함께하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2세대들을 활동가로 교육시킬 뿐 아니라 이민 1세대와 후 세대간의 단절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학교로서 기능하고 있다.

결성 과정 :

광주항쟁이 발발했던 80년 당시 독일 각 지역에서는 다른 해외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른 대응을 취했고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독일 전역에 신속히 광주문제를 알렸다. 이후 해마다 오월이면 단체와 지역별로 연대하여 기념식을 치러오다가 8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월민중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금의 모습대로 틀을 갖추어 나갔다.

조직 체계 :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비상설기구로 매년 새로이 조직)

강령 및 규약 : 없음

주요 임원 :

별도 임원은 없지만 준비위원회에 가장 자주 소속되어 활동한 이들은 윤운섭(베를린 노동교실), 최정규(한민족유럽연대), 최영숙(여성회), 신호은(1.5세 담당)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영미(참여연대 국제부 간사)씨도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주요 활동 : 오월민중제가 열리는 5월의 금,토,일 2박 3일의 행사 주관

기관지 :

별도의 기관지는 없고, 매년 오월민중제 행사 안내지 외에 10주년 기념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해체 과정 : 현재도 존속

관련 자료 :

- 오월민중제, 베벨스부르크 기독교청소년회관,87.5.15-17, <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오월민중제,서베를린,88.5.20-22, <민주조국> 제7호, 1988.6.1
- 오월민중제,브릴론,5.26-28, <민주조국> 제19호,1989.6.1
- 공동결의문,민협, <민주조국> 제19호,1989.6.1
- 이윤정 대담,5.30, <민주조국> 제19호,1989.6.1
- 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 결성키로, <민주조국> 제25호, 1989.12.1
- 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 결성,1.27, <민주조국> 제27호, 1990.2.1
- 오월민중제 공준위 3차모임, <유럽민협> 제29호, 1990.4.1
- 유럽민협 등 광주에서 감사패, <민주조국> 제31호, 1990.6.6
- 오월민중제, <민주조국> 제31호, 1990.6.6
- 오월민중제 안내,<민주조국> 제39호, 1991.4.1

*** 참고 : 오월민중제 이전의 광주 관련 행사**

광주항쟁이 발발하자 괴팅엔,마부르크, 튀빙엔,보쿰 등의 대학도시에서 유학생들이 성명서를 내었고 뮌헨과 에센의 대학에서는 기독교학생회(ESG)를 통해 자료집을 독일어로 발간했다. 당시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독일의 주요 방송과 국내출처의 ‘찢어진 깃발’, 그리고 일본 등에서 제작된 광주 비디오를 통해 광주의 잔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관련 자료;

- 튀빙엔 대학교 한인 학생회 성명서, 1980.6.3 (유학생운동 참조; 연구자주)
- 베를린지역 ‘한독친선회’ 활동,오월민중제 자료집
- 자료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주세요”-광주사태에 대한 진상보고, ‘광주시민과 연대하는 재독 한국학생의 모임’ 발간
- 호소문, 한독친선회, 1980.6.10
- 최근의 광주사태에 대한 우리의 결의,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1980.5.27
- 성명서, 광주시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규탄함, 재독한인노동자연맹, <노연통신> 제63호, 1980.5.30
- 손행자,양재범,조남홍 등 유학생 성명, 최근 한국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결의, 1980.6.8
- 전 독일지역을 대상으로 각국 국가 원수, 의회 지도자, 국제 적십자사 등 인권단체에 보내는 전보 보내기 운동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관련, 클라인 씨(Nobert Hans Klein)가 샤프 주교, 폰 바이체커 박사(후일 독일연방 대통령; 연구자 주) 등 개신교 인사들에게 보내는 회람, 1980.5.29
-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강원룡 목사가 샤프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 1980.5.30
- 광주사태와 관련, 샤프 주교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보내는 서한, 1980.6.20
- 광주사태와 관련, 샤프 주교가 지미 카터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1980.6.3
- 발의문,이영빈·이정의·배동인·김순환·박향자·정순기·이영준, 보쿰, 1980.7.26
- 광주의거 1주년 한국민주화지원 긴급세계대회,<자주>창간호, 1981.6.10
- 광주 2주기 기념행사, <민주한국> 제45호, 1982.5.12
- Bonn, 괴팅엔,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광주의거 3주년 기념행사,<민주한국> 제50호, 1983.5.31

단체명 : (사단법인)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처음엔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로 시작) (Vereinigung für Demokratie in Korea e.V.)

약칭 : 유럽민협

소속 단체 :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재독한국여성모임,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전태일기념사업회유럽지부 (이상 독일), 덴마크민중문제연구소(덴마크), 북구민주사회건설협의회(덴마크·스웨덴), 불란서민중문제협의회(불란서) 스위스민주사회건설협의회(스위스) 등.

연대 단체 :

서베를린의 한독문화협회(KDK)와 보쿰지역의 한국인 민중문화모임 등 문화운동단체나 한민련 구주본부와도 사안에 따른 연대·협력관계에 있으며, 유럽민협과 연대하는 외국인형제 단체들로는 녹색당(Die Grüne) 사민당(SPD) 등의 정당과 테르데좁(terre des hommes/인간의 대지)·아시아연구회(Asien A.G.) 등의 인권자선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I) 등의 인권기구, 한독연대위(Korea Komitee)와 신구교회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유럽민협을 포함한 「한국문제연대를 위한 제 단체연석회의」(KoKoKo)라는 통합조직으로 활동.

그 외에 유엔인권위에 소속되어있는 '민족권과 민족해방을 위한 국제동맹' (International League for the Rights and the Liberation of Peoples : Non - governmental Organis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UNO and UNESCO)에 한국문제 연구반 책임자(최기환 박사)가 유럽민협 회원으로 활동했다.

존속 기간 : 1987년 9월- 1992년 9월 베를린의 관할법원에 해산신고

주요 활동 지역 :

단체가 등록되고 사무실이 있는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협의체 산하 회원단체가 존립하는 프랑크푸르트, 뒤스부르크와 보쿰, 레크링하우젠 등의 루르지방과 함부르크, 뮌헨 등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유럽민협은 독일법에 의거한 감독과 보호를 받는 법인으로 독일 헌법인 기본법 (Grundgesetz)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따르는 합법적 단체로, 유럽운동 최초의 본격적인 협의체운동의 시발이었으며, 유럽운동사상 가장 많은 단체가 유럽민협이라는 하나의 우산아래 역량을 집중했다. 유럽민협의 활동시기가 유럽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라는 데에 이론이 없으며, 활동이 많았던 만큼 독재정권에 의한 탄압도 가장 많이 받았다.

결성 과정 :

1987년 가을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란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1989년 1월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로 개편되었다.

유럽민협은 애초에 서독에서 활동하던 각 민주단체들의 활동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재독한인민주단체대표자모임'에서 태동하여, 당시 국내에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유월항쟁을 치루는 과정에 고무되어 각 단체 간의 결속력을 보다 강화하기위해 확대 발전되어 결성되었다.

1987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새 신문 발간과 유럽운동의 강화·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재독한인민주단체대표자모임이 서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재독한국여성모임·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한독문화협회·재독한인노동자연맹·한마음조합·서백림노동교실·한국인민중문화모임·북구민건회·민주사회건설협의회·한민련 유럽본부의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대표자모임을 확충·강화하여 협의체인 민협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이미 지난 1985년 7월 서베를린에서 있었던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위 및 성토대회'이후 연합운동을 모색하고자 결성되었던 '민추위(가칭)'와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의 사업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대표자모임'의 연장선에서, 특히 국내의 운동이 국민운동본부로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고무 받아 민협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9월26일부터 27일까지 보쿰에서 민협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다시 모인 이들은 지향할 과제로서 반외세자주화·반파쇼민주화·자주적 평화통일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유럽 내 각 민주단체간의 연대와 구속력을 강화하고 국내와 해외 타 지역 간의 상호연대 및 결속, 외국인 단체와의 연대강화, 대교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활동방향으로 삼았다.

이 모임에서 민협의 대표로 정규명 박사, 총무로 어수갑이 선출되었다.

공개합법기구이자 협의체로서의 민협은 기존의 대표자모임보다는 소속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강화되었으나 각 단체 나름의 독자성이 최대한 유지된다는 점에서 연합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다. 그러나 유럽의 운동이 보다 발전되고 주·객관적 역량과 조건이 성숙되는 경우엔 명실상부한 연합체로 발전할 계

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 민협 발족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직 체계 :

민협의 기구는 민협에 가입한 각 단체의 구성원이 회원이 되며, 각 단체의 대표로서 구성된 중앙위원이 최고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를 담당·집행할 실행위원과, 민협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는 대표와 총무로 구성된다.

강령 및 규약 :

<강령>

1. 우리는 조국의 반외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2. 우리는 유럽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권익옹호와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국내의 민족민주운동과 연대한다.
4. 우리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해외동포단체와 개인, 외국인 형제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를 통해 해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을 강화한다.
5. 우리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반전반핵평화운동· 환경보호운동과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 국제평화와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

<규약>중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

본 협의회는 조국의 반외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권익옹호와 대동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유럽운동의 활성화와 역량강화 및 통일단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활동

본 협의회는 그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소속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소속단체간· 지역간 연대활동과 공동사업의 전개
- 2) 본 협의회와 뜻을 같이하는 해내외민족민주운동과의 정보· 자료의 교환· 수집· 분석· 평가 및 인적교류와 재정지원활동
- 3) 신문발행· 자료집 간행· 학술토론회 개최· 공개강좌· 번역· 홍보 및 교육활동
- 4) 해내외 민족민주운동 및 외국인과의 연대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
- 5) 기타 개별 부문운동· 개별 지역운동 차원에서의 추진보다는 연합적 차원의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각종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 1) 본 협의회는 본 협의회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한다.
- 2) (명예회원): 본 협의회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나 개인을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 3) (자문위원): 본 협의회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유럽에 거주하는 개인 중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989년 1월 21일 16시 놀테 마이어(Nolte Meyer) 박사 사무실에서 어수갑씨가 초안한 강령과 규약 및 독일법상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동일한 내용의 독일어 규약을 발기인 총회를 통해 채택했으며, 초대외장과 총무에 정규명 박사와 어수갑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주요임원 : 정규명(초대 대표)· 어수갑(초대 총무)· 최영숙· 윤운섭· 이종현씨 등

주요 활동 :

<규약> 제1장 제4조 활동(상기 참조)에 의거한 제반활동(상세는 <민주조국> 주요기사 참조)외에, 유럽민협은 코레아 코미테, 녹색당, 시민당 등과의 협력아래 국내의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유럽의회 인권위원회에 국가기관에 의한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상황과 국가보안법 등 악법의 문제점을 정식으로 상징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주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문제의 국제화와 함께 국제연대운동을 통한 국내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지원을 위한 국제여론형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기관지 : <민주조국>(한/독판) (언론출판운동 참조)

해체 과정 :

임수경 방북 전후의 시기에 공안당국에 의해 각종사건들(서경원 의원 말입복사건· 홍성담 걸게그림 사건· 임수경 방북사건·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씨 부부 구속사건 등)을 유럽민협과 연계시켜 유럽민협을 분해시키려 했던 의도에 맞서서 모든 역량을 걸고 국제연대활동을 벌여왔던 유럽민협의 활동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지만, 범민련 유럽본부가 결성되면서 인적인 역량이 분산되고 조국통일운동과 관련된 산하조직 간의 의견충돌과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급기야 기관지 민주조국이 무기한 휴간하게 되고, 결국 이어서 유럽민협의 해소에 이르게 된다.

관련 자료:

- 어수갑, 유럽민협의 양심선언, 1989년 10월호 <말>지
- 1989년도 유럽민협 정기총회 기록서, 1989.12.9-10
- 유럽민협 제4차 정기총회 보고서, 1991.1.11-13
- 유럽의회 청문회 준비모임 초대장, 유럽민협 교육홍보부, 1991.3.6

<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재독교포 김형규씨 간첩사건 관련 기사, 성명서, '배후' 김성수씨 해명서
- 전태일 열사 추모제,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주최 유럽민협 후원, 베를린 민협사무실, 1987.11.13-15
- 한국인 민중문화모임(86.11결성), 한국인의 집 개관식, 1987.4.4 보쿰
- 서독 각지에서 노동절 행사>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서백림노동교실, 여성회 등, 87.5.1
- 87'오월민중제, 베벨스부르크 기독교청소년회관, 87.5.15-17
- 재독교포한인교회협의회, 민주제 개헌관철을 위한 단식기도회/ 프랑크푸르트 크리스투스 교회, 87.5.27-28
- BUKO(Bundes Kongreß entwicklungspolitischer Aktionsgruppen)11차 연차총회, 제3세계 관련 서독내 조직간 조정 모임인 부코 총회, 풀다 대학, 87.5.28-31
- 한국문제 전문가 세미나, 이설론 기독교아카데미, 87.6.12-14
- 레이건 서베를린 방문반대데모, 여성회 등 주최, 서베를린, 87.6.11
- 개신교회의 날 행사, 여성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서백림 노동교실 등 참가, 프랑크푸르트, 87.6.17-21
- 에센대학 한국의 날 행사, 송두울 씨 강연, 윤이상 음악 공연, 에센, 87.6.24
-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재독한국학생준비위원회 주최, 본, 87.7.4,
- 고 이석규 동지 추도회, 한마음조합 주최, 보쿰, 87.8.29
- 한민련 10주년 행사, 동경, 87.10.22-23
- 헛센 나싸우 지역교회 한국주간행사, 전라남도와 자매결연, 87.11.12-21
- 연극 공장의 불빛 공연, 서베를린 여성회와 서백림노동교실 연극팀, 튀빙엔, 87.6.6
- 공장의 불빛 연극관련 <슈피겔>지 번역 기사
- 여성회 11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 슈미텐, 87.10.9-11
- 통일세미나, 한국인민중문화모임 주최, 보쿰, 87.11.28

<민주조국> 제2호, 1988.1.1

- 연대사: 민협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7.11.24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 이영순
- 민협 신문위원회, 프랑크푸르트, 87.12.19
- 재독한인교회협, 인권주간 제정, 87.12.6-13
- 한국인민중문화모임, 판화전 마당극, 87.12
- <민주실천>창간호, 조국민주화를 위한 재독한국학생협의회, 87.11.15

- 송기숙 교수 좌담회, 민협,87.12.28
- 김봉준 좌담회 및 판화전, 민협,87.12.9
- 노연 13차 정기총회, 프랑크푸르트, 87.12.12-13
- 유학생 사회과학세미나, 뮌스터,87.12.26-29
- 대통령선거에 관한 민협 입장(독문번역),<타게스차이퉁>지,87.12.16
- 노동교실 정기총회 및 성탄바자회, 87.12.26

<민주조국> 제3호 1988.2.1

- 한국 소개의 밤, 민협,88.1.11
- 박종철 열사 추모제, 민협,88.1.16
- 한국인민중문화모임 1차 정기총회,보쿰, 88.1.9
- 한민련 31차 스페인 사회노동당 전당대회 참가,88.1.22
- 청소년세미나,한독문화협회,87.12.27-88.1.3
- 여성회 대표자모임 및 회지9호 발간, 88.1.15-17

<민주조국> 제4호 1988.3.1

-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 및 <최혁배 구출위원회 결성>민협, 88.2.21
- 민협주최 공개토론회, 보쿰, 88.2.20-21
- 녹색당, 동포권익옹호 서명운동
- 독일기독교청년회 주최 한국문제세미나, 부퍼탈,88.2.26-28
- 안병무 박사 본사 방문 및 좌담회,88.2.23
- 한독문화협회, 한국의 밤,88.2.26
- 한겨레신문 유럽지부 설치
- 시론 현단계 유럽운동의 당면과제와 방향, 어수갑, 민협 공개토론회 발제강연

<민주조국> 제5호 1988.4.1

- 최혁배씨에 4년선고
- 한민련 유럽본부 확대운영회의, 88.3.5-6
- 독일인들, 김형규,최혁배씨 석방요구 시위
- 루셀스하임 한국주간
- 보쿰 한국주간 성료, 88.3.5-22
- 서독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배우다, 윤건차
- 윤한봉씨 민협 방문 및 좌담회,88.3.22
-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행사
- 여성회,9개국 여성단체와 연대, 여성회 연대사

<민주조국> 제6호 1988.5.1

- 여성회 봄세미나 개최, 도르트문트,88.4.8-10
- 한국문화의 밤, 말뚝이 전시회, 괴팅엔, 88.4.11-22
- 88 올림픽 캠페나 대표자모임, 프랑크푸르트,88.4.16
-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김포공항에서 강제추출,88.4.23
- 전 민건회 의장 강돈구 교수 별세,추모식, 88.4.15
- 윤이상 교수, 독일대공로훈장 서훈,88.5.21
- 연대사, 맥스테크 한국 노동조합이 노동교실에,88.4.8

<민주조국> 제7호 1988.6.1

- 전태일기념사업회 정기총회 및 재유럽노동단체 공동수련회, 베를린,88.4.29-5.1
- 국내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연대사
- 한국여성노동자 서백림 강연,88.5.19
- 서독 한국학학자들 평양방문
- 뷔템베르크 주, 한국문제 주제 선교대회,슈베비시할,88.5.7-8
- 88 오월민중제,서베를린,88.5.20-22
- 김형규씨 석방탄원서 제출
- 김광남 한청 위원장 민협 방문
- 황석영,명진 스님,이영순,홍성담,위인백씨 등 민협방문 좌담회

<민주조국> 제8호 1888.6.21

- 김근태씨, 함부르크 제정 양심수로 선발
- 최혁배 석방
- 조성우 본사 방문
- 기통, 통일과 기독교 10호 발행
- 민주실천 제2호
- 윤이상씨, 본지와 회담

<민주조국> 제9호 1988.7.29

- 민협, 남북학생회담 적극지원키로
- 독일 여신도회 올림픽매춘 비난
- 공광덕 박사 별세
- 노동교실·노연·전태일 공동성명문
- 한독문화협회 공연 및 영화상영

<민주조국> 제10호 1988.8.29

- 오스나브뤼크 한국의 날 행사,8.24-9.25
- 전국 대학생 국토종단대행진과 8·15 남북학생회담 연대모임,민협,88.8.14
- 남북학생회담지지성명서,여성회
- 남북학생회담지지성명서,민협

<민주조국> 제11호 1988.10.1

- 백기완씨 민협과 녹색당 초청 독일방문, 강연회 9.16-29
- IMF 세계대회 반대행사 여성회,노동교실 참가,서베를린,9.26-29
- 여성회 총회 및 가을세미나, 뉘른,9.29-10.2

<민주조국> 제12호 1988.11.1

- 고 안상근씨 3주기 추모제
- 명진스님 좌담회
- 홍성담판화전,마부르크에서
- 여성회, 여성노동자복지회관 설립모금
- 연대사,전태일기념
- 김현장·문부식 후원회 발족 준비모임

<민주조국> 제13호 1988.12.1

- 민협 정기총회,11.19-20
- 김상덕 가농회장 민협방문 좌담회,11.3
- 민협 등 김현장·문부식 석방운동
- 전태일 추모제, 베를린,11.19
- 여성회, 여성이주자와 망명자대책 전국대회,11.14-16
- 한독연대위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은퇴식,11.1
- 한독문화협 정기총회,11.1
- 남민전 김종삼 석방운동,괴팅엔

<민주조국> 제14호 1989.1.1

- 한민련유럽본부 제12차 정기총회
- 녹색당 전 당수 페트라 켈리, 김형규씨 구출을 서독외상에 요구
- 장기수대책위 발족/김·문 후원회 발전적해소
- 노연 정기총회
- 노동교실 바자회
- 올림피아 캠페나,공개서한
- 민협,민예총에 축하문

<민주조국> 제15호 1989.2.1

- 전민련 조통위의 범민족대회 제안 관련 민협입장 밝혀
- 전민련 결성 축하문,민협,89.1.21
- 민협 중앙위원회 개최,하르츠베르크,1.21-22
-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공동의장 정호경 신부 민협과 좌담회,1.8
- 노동교실 정기총회,1.8
- 고암 이응로 화백 별세,89.1.10

<민주조국> 호외 89.3.1

- 유럽법추본 결성을 위한 민주단체들에 보내는 초대장,89.2.18
- 장기수대책위·김형규와 장기수 구출위 연대시위,3.17

<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 범민족대회 유럽지역추진본부 결성(단장 정규명,대변인 어수갑) ,89.3.11-12
- 전민련 조통위(이재오) 민협에 격려사
- 범유추본 결성선언문
- 민협 성명]
- 이종수 민건의장 안기부 연행/관련 민협 성명
- 윤이상 귀국 무기연기
- 기장총회총무 김상근목사 간담회
- 정평통 발족
- 김형규 석방데모,본,3.17
-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성명
- 김성수 등 이북문제세미나,3.24-26
- 한민련 중집위,동경,3.4

-KOKOKO .모임,뒤스부르크,4.21-23

<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서독정당,단체들 노동운동탄압 노정권에 공개서한
- KOKOKO,전민련 지지 광고
- 민협 성명서 및 격려문
- 전태일기념사업회 4차 총회 및 노동단체 공동학습회,89.4.29-5.1
- KOKOKO,뒤스부르크, 4.21-23
- 여성회 봄세미나 및 임시총회,도르트문트,3.31-4.2
- 노동교실,지멘스 파업노동자 연대투쟁
- 장기수대책위 총회,보쿰,4.15
- 제1회 평화올림픽회의, 문국주·임민식 참가,아테네, 3.13-19
- 문국주씨 민협 방문
- 범유추본 실무대표자회의,노이이젠부르크,4.23
- 노동3단체 결의문,4.30

<민주조국> 제19호 1989.6.1

- 89 오월민중제,브릴론,5.26-28
- 공동결의문,민협
- 전순옥씨 강연회,괴팅엔·베를린·프랑크푸르트
- 이철규열사 관련 규탄성명서,민협
- 이윤정 대담,5.30

<민주조국> 제20호 1989.7.11

- 서경원의원사건에 정규명 대표 법정투쟁 밝혀(정규명씨 성명서 4면)
- 사회주의인터 스웨덴 총회 민협참가,6.20-22(1,4면)
- 민협 성명서
- 노련, 한스제약노조와 연대투쟁
- 서베르린에서 개신교대회 남북한참가
- 노련,민중문화모임 등 캄나데국제연대축제 참가
- 임수경 인터뷰기사

<민주조국> 제21호 1989.8.1

- 서경원의원사건관련 민협을 친북전위조직으로 매도
- 서의원사건 관련 독일 유학생출신 강제연행
- 인종차별반대집회 민협참가
- 루이제린저가 임수경에게

<민주조국> 제22호 1989.9.1

- 안기부,유럽민협 탄압에 광분
-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기사들,성명서,공개질의서
- 홍성담 구출 활동
- 기통회 8·15성명서 발표

<유럽민협> 제23호 1989.10.1

- 유럽민협 국제연대에 박차
서독녹색당, 유럽의회에 한국정부 비난촉구
유럽민협 탄압관련 대정부질의서 제출
국제사면위에 임시와 문신부 석방운동요청
- 권터그라스 등 한독 대통령에 항의서한 발송
- 영사관 앞 4주째 유럽민협탄압 항의 시위
- 민건회 최기환씨 유럽인권위 연설
- 유럽민협 안기부 모략 규탄성명
- 녹색당 의원, 유럽민협 방문하여 협력모색,9.18
- 재독장기수대책위 제3차 정기총회
- 녹색당의 대정부 질의서(서독내에서의 한국안기부 활동)
- 국제펜클럽,김현장씨 등 석방요구
- 국내동포들에게 보내는 유럽민협의 양심선언,어수갑
- 해외동포 탄압사례모음,민협

<민주조국> 제24호 1989.11.1

- 민협 등 노태우방독규탄 공투위 결성 및 궐기문,89.11.1
- 민협주최 한국문제 강연회,서베를린,10.12
- KOKOKO,1027-29
- 노연15차 정기총회,10.21-22
- 여성회 총회
- 서독 지식인들,홍성담씨등 석방운동
- 유럽의회 결의문,10.9
- 함부르크, 임수경·홍성담 올해의 인물로 선정
- 해외운동의 조직화와 사상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주조국의 역할,김민웅
- 호주 민족자료실,안기부 조작 물증 제시

<민주조국> 제25호 1989.12.1

- 본에서 대규모 노태우 방독규탄시위,11.20 (1,4,8면)
- 서베를린 녹색당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빌리브란트 씨, 유럽민협에 서한
베를린 시장 몸피,장기수대책위에 연대 전문
- 바이체커 대통령, 유럽민협에 감사서한,11.29
- 유럽민협, 임수경 씨등 석방 1차서명용지 전달
- 홍성담 사건 새국면
- 김현장·김영애 구출위 결성
- 제1회 노동열사 합동추모제,뒤스부르크,11.10-12
- 파문 일으킨 한국미술전시회
- 여성회,민족상 수상자로 선정

<민주조국> 제26호 1990.1.1.

- 유럽민협 정기총회,새 대표 및 총무에 이종현,윤운섭 선출,12.9-10
- 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 결성키로
- 노동교실,성탄 바자
- 문목사 가족 유럽민협 등에 석방협조 요청

- 지멘스노조,노동교실에 감사서한
- 김영애씨 안기부 고문으로 유산
유럽민협·사민당·녹색당 등과 연합구명운동 전개
- 페터씨,홍성담사건 안기부 조작 폭로
- 김현장·김영애씨 구속 관련 민협 성명서

<민주조국> 제27호 1990.2.1

- 민협 중앙위원회,90.1.6
- 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 결성,1.27
- 여성회,김영애 관련 성명
- 노동교실 총회
- 한국민중문화모임 총회,1.7
- 한독문화협회 청소년세미나,정기총회
- 전노협 결성 축하문

<민주조국> 제28호 1990.3.1

- 유럽 민협,베를린 시장과 회담
- 유럽학자 101인 노대통령에 공개서한
- 김현장·김영애씨에 부당선고공판 규탄 성명서
- 전민련에 격려사
- 유럽민협,외국인법 개정반대시위 참가
- KOKOKO 모임

<유럽민협> 제29호 1990.4.1

- 민협 중앙위 열려
- 베를린시장,한국대사관에 항의 공문
- 녹색당 국제부장, 항의성명
- 한민련 유럽본부 대표자 회의
- 제3차 범유추본
- 오월민중제 공준위 3차모임
- 여성회,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가
- 외국인법 규탄대회

<민주조국> 제30호 1990.5.1

- 유럽범추본 긴급회의
- 범민족대회,베를린에서 1차 예비실무회담 열기로
- 재독 노동단체 합동수련회
- 노동절 백주년행사,유럽민협참가
브라이트 의장,한국노동탄압 경고
- 여성회 임시총회 및 봄세미나
- 동독 주재 이북 유학생 '강제송환'관련 민협 질문서와,동독 이북 대사관의 답신

<민주조국> 제31호 1990.6.6

- 범민족대회 1차 실무회담, 서베를린,6.2-3
- 해외추본 실무대표자회의,베를린,6.1

- 90회 독일 카톨릭대회에 민협참가 서명운동 벌여
- 유럽민협 반국가단체아니다,서독주요인사들 한겨레신문에
- 유럽민협 등 광주에서 감사패
- 오월민중제

<민주조국> 제32호 1990.7.10

- 전민련,범민족대회 예비실무회담 해외에 제의
- 범민족대회 대표단 모집
- “유럽민협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어”김영애씨 보석,김현장씨 일부 무죄
- 한국문제 토론회,민협과 베를린 녹색당 공동주최
- 범민족대회 지지 해외한국동포대회,동경,90.7.1
- 장기수대책위,김형규구출위 서명용지 전달

<민주조국> 제33호 1990.8.1

- 범민족대회 서울예비회담 파행, 이종현 민협대표 참가
- 유럽지역 범추 추진위
- 민협 중앙위
- 민협, 범민족대회 지지 및 민족해방 45주년 기념식

<민주조국> 제34호 1990.9.20

- 조국통일범민족유럽연합 결성,90.9.15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키로, 서베를린에 사무국
- 1차 범민족대회 (1,2,3,4,5,6,8)
- 여성회, 한국간호원 파독25주년 행사
- 남아공 지도자 민협방문

<민주조국> 제35호 1990.11.1

- 범추본,남·북·해외 3자회담 제의
- 베를린녹색당 한국대사에 항의서한
- 여성회 파독25주년 행사 및 정기총회

<민주조국> 제36호 1990.12.1

- 베를린 3자회담 범민련 최종합의 (1,2,3면)
- 민협중앙위 열려
- 노동3단체 통합키로
- 전태일 열사 20주년 추모제
- 한독문화협회,통일의 북소리 공연
- 장기수에게 털조끼를

<민주조국> 제37호 1991.2.1

- 유럽민협 새해 정기총회
- 백림노동교실 정기총회
- 범민련해외본부 결성대회,베를린,90.12.14-16
- 독일 정부와 교회, 베를린회담대표 구속부당
- 본에서 석방요구 시위 및 경고파수

-김형규 석방요구 드높아

<민주조국> 제38호 1991.3.1

-김형규씨 석방

-범민련유럽본부 보고대회 및 임시총회

-유럽운동이 살아남는 길(1)(주장)

-프랑크푸르트 기독교자모임,한국정부 불허로 남쪽 불참

<민주조국> 제39호 1991.4.1

-91 민협 중앙위,민주조국 휴간

-바이체커 대통령, 유럽민협에 감사서한

-유럽운동이 살아남는 길(2)(주장)

-내릴 수 없는 깃발을 잠시 내리며

-오월민중제 안내

-재유럽노동자 모임 창립준비

-여성회 봄세미나

<민협소식> 1호 1991.12

-유럽민협 제5차 정기총회 및 유럽운동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보고서

-대표자회의 구성을 위한 예비회담 제안서

-유럽의회 청문회 준비위원회 보고서

-전국연합 결성을 촉하하는 유럽민협의 연대사

<민협소식> 2호 1992.2

-대표자회의의 결성준비를 위한 제1차 예비회담 보고서

-유럽의회 청문회 보고서

단체명 : 한민족유럽연대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 엄밀한 의미에서 한민족유럽연대는 '김영삼 정부 이전의 민주화운동 연구'라는 연구범위를 넘어선 단체이지만, 유럽운동의 현재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연구자 주

약칭 : 유럽연대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없음

존속 기간 : 2001.5-현재

주요 활동 지역 : 베를린 및 루르지방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유럽운동의 오랜 침체를 딛고 일어난 유럽운동의 적자(嫡子)이자 유럽민협의 실질적 계승단체. 한민족유럽연대는 강령 및 규약으로 보나, 구성원으로 보나, 활동으로 보나 1992년 가을에 해소된 유럽민협의 바탕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결성 과정 :

‘한민족유럽연대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재유럽 동포 운동을 부활시키기 위해’ 2001년 5월 조직됐다.

조직 체계 :

의장과 부의장, 총무, 회계, 감사, 조직부, 국제부 및 문화교육연대위원회, 통일연대위원회, 민중연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강령 및 규약 :

<강령>

1. 우리는 유럽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권익옹호와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조국의 자주와 민주화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3. 우리는 우리의 2세의 정체성형성을 도우기 위한 민족문화 및 교육사업을 펼친다.
4. 우리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국내의 민족민주운동과 연대한다.
5. 우리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해외동포단체와 개인, 외국인형제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를 통해 해외운동을 활성화시킨다.
6. 우리는 환경, 반전반핵평화운동, 노동자국제운동과 연대한다.

<규약>

제1장 총칙 중 제3조(목적) 본회는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유럽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권익옹호와 대동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유럽운동의 활성화와 역량강화 및 통일 단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와 뜻을 같이 하는海内外 민족민주운동과 연대사업
2. 정보자료교환, 수집, 분석, 평가 및 인적교류와 재정지원사업, 홍보 및 문화·교육사업
3. 국내외 민족민주운동 및 외국인과의 연대강화를 위한 각종사업

2001년 5월 20일 제정, 2003년 9월 21일 개정, 2004년 11월 6일 개정

창립선언문

새로운 희망과 전진을 위하여

지난 197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유신체제에 대항하는 국내 민주회복투쟁과 연대하여 일본, 미주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민주화운동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독일에서도 유신독재반대와 민주회복을 위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가 결성되었으며 1975년 말에는 캠프리프트 광산의 한인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강제출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련)이 건설되었다.

이후 한인 간호사들에 대한 강제귀국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언론매체를 통한 선전활동 과정에서 재독한국여성모임이 결성되었으며, 80년 이후에는 국내 민주화운동과 함께 남북 화해와 민족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기통회, 남북해외기독자모임 그리고 대중문화단체로서 한독문화협회, 한국민중문화모임 등이 조직되었고, 노동자단체로서는 베를린노동교실, 전태일기념사업회유럽지부 등이 근로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여러 다양한 재독동포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유대를 위하여 한민련, 그후 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가 결성되어 여러 해 동안 활동하여 왔으나 이후 이념적 갈등으로 활동이 저조하게 되었다. 이같은 독일 내 동포운동단체들의 역사를 뒤집어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후 발전적인 연대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해외동포운동을 이루어가고자 유럽의 모든 민주단체와 개인들을 결집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 운동에서 나타난 오류와 편향, 단체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포용력을 토대로 한 단결력으로 인류애와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첫걸음 내딛는다.

우리의 결의

지금까지의 국내지향적인 운동을 지양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동포운동을 전개한다.

유럽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동포들의 단결과 권익을 옹호하며 다음세대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지원한다.

인종, 국적 그리고 이념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류 평화, 그리고 조국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단결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한다.

2001년 5월 20일 Bielefeld에서

<한민족유럽연대> 창립발기인 일동

발기인(무순)

최영숙, 김정숙, 김아일, 이민자, 어수갑, 윤운섭, 김경태, 김진향, 서의옥, 박성식, 한상모, 하양희, 윤일중, 장현옥, 최태호, 최정규, 전동락, 조기상, 현경애, 허정양, 안소천, 고윤실, 이지숙, 이정희, 이종현, 이준식, 오대석, 오복자, 박대원, 송병구, 석순자, 정형숙, 복진희, 박성예, 김연순, 박재운, 이월선, 한영태, 홍세화, 김석철, 이동화, 김성경, 장광열, 전광연

주요 임원 : 이종현(의장), 서의옥, 최정규씨 등

주요 활동 :

유럽연대는 조국의 참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양심수 석방 운동, 국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 환경 및 자연보호 운동,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극복 운동 등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5월 민주제 개최, 일제 잔재 청산 운동, 정신대 문제를 위한 국제적 규명 등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무엇보다도 유럽에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동포사회의 권익을 옹호하고 2세들의 자주적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창조적인 민족문화 사업, 건전한 동포사회 운동, 2세들의 모국방문 공동프로그램, 청년 2세들의 역사교육을 위한 모임, 한국인 입양아들을 위한 모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등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 반대와 반세계화 투쟁에 적극 참여했고,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관지 : 한민족유럽연대

해체 과정 : 현재 활동 중

관련 자료 :

-<한민족유럽연대> 제4호, 2004.5

-<한민족유럽연대> 제5호, 2005.5

10. 조국통일운동

* 기통회의 활동을 기독교운동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조국통일운동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전술한 바와 같다. - 연구자 주

단체명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

약칭 : 범유본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범민련 해외본부

존속 기간 : 1990년 9월- 현재

주요 활동 지역 :

유럽을 포괄하지만, 사무국이 존재했던 베를린(후에 루르지방) 중심으로 활동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유럽지역 최초의 남·북·해외를 아우른 통일운동단체로 1980년 8월 제1차 범민족대회 결성 유럽지역추진 본부가 모태가 되었다. 단체의 성격이나 의의는 전체 범민련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결성 과정 :

1990년 8월의 제1차 범민족 대회를 성과적으로 치른 유럽의 활동가들은 이에 고무되었다. 또 범민련 해외본부의 의장이 유럽의 윤이상씨이고 전체 범민련의 대변인이 당시 베를린에 있던 황석영씨였으며, 남과 북, 해외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의 하나가 베를린이라는 사실들은 인적·물적 역량이 가장 취약하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범민련유럽본부를 미주, 일본, 중국, 소련 등의 해외 지역본부 중에 가장 먼저 본부를 구성하는데 일조하였다. 1990년 9월 16일 베를린에서 결성되었다.

조직 체계 :

범민련유럽본부는 고문, 자문위원회와 상임의결 및 집행기구로서 의장단 및 중앙위원회가 있으며 사무국 산하에 각 부서(재정, 홍보, 섭외, 청년, 여성 등)가 조직되어 있다.

주요 임원 :

* 괄호 안은 1992.11.29의 3기 정기총회의 새 임원 명단

의장: 정규명 (전과 동일)

의장대행: 최기환 (없음)

부의장: 한계일 (최기환·김진향)

중앙위원: 이한경, 김대천 외 4명 (이희세·이한경·신옥자·김대천·장일중·최영숙)

사무국장: 김진향 (장일중)

강령 및 규약 : 규약 개정 (1992.11.29)

<범민련 유럽본부 규약> 중

제2조(목적): 유럽본부는 범민련 해외본부에 소속되며 남과 북 해외의 각 지역본부들과 연대하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유럽본부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이산가족 찾기
- 2) 비핵군축을 위한 국제평화운동 전개
- 3)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강연회, 문화행사 등 개최
- 4) 같은 목적을 가진 여러 단체와 연대 등

주요 임원 :

초기엔 정규명, 최기환, 이희세, 최영숙, 김진향 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중반에 이영빈, 장일중, 최창동(최

씨는 후일 안기부 푸락치로 드러났다), 박충흠 등이, 후일 장일중, 심재화, 김대천, 이준식(현 의장) 등이 활동

주요 활동 :

범민련 유럽본부가 자신의 규약 3조에 상응하는 사업과 활동을 얼마나 전개했는지에 대해 대다수 유럽의 활동가들과 동포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들의 잦은 회의와 평양의 범민족대회 참가, 그리고 기관지 <조국은 하나> 발간 등에 비해 정작 조국통일운동과 관련한 동포대상의 활동이나 국제연대사업은 거의 없거나 빈약했다.

기관지 : <조국은 하나>

해체 과정 :

회원 상호간의 신뢰문제 등이 제기되고, 몇몇 사람들이 의장과 중앙의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축출하는 하극상,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안기부 푸락치 사건등의 발생으로 동포대상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무실을 닫게 되고, 그들 중의 일부인 이영빈 목사부부, 장일중, 김대천씨 등이 이지숙씨(현 회장) 등과 함께 재독일동포협력회(Netzwerk der Koreaner in Deutschland e.V. 기관지: <해맞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분화되었다. 하지만 정식 해체되지는 않은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다.

관련 자료 :

<조국은 하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 본부, 창간호, 1992.3.31

- 정세분석 1: 대화국면, 그 배경과 과제 (최기환 의장대행)
- 정세분석 2: 남북합의서 채택을 중심으로 (자주통일위원회)
- 시론: 전환기를 보는 시각 (송두울)
- 좌담회: 북조선 학생위원회 최경철 대표와 함께 (사무국)
- 시: 금붕어 꿈을 꾸는 사람들아 (이준식 중앙위원)
- 평화군축: 한국정부와 독일정부 간의 잠수함거래 의혹 (사회과학연구회)
- 기타 범민련 소식, 책소개, 회원가입서 등

<조국은 하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 본부, 제3호, 1992.12.15

- 시론: 유럽내 통일운동의 현주소 (송두울)
- 범유분 제3기 정기총회 보고서 (사무국)
- 대담: 정규명 범유분 의장과 함께 (홍보부)
- 기고; 해외동포여성모임에 참석하고 와서 (김순환)
- 해외본부의 운동지침서 (범민련 해외본부)
- 제3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
- 제3차 범민족대회 호소문
- 민족통일긴급대토론회 소식 (홍보부)
- 평화연구는 자기과제를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 (사회과학연구회)

-제2차 범민족대회 자료집(190.8.15-1991.10.14),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국(베를린) 참조

<해맞이>, 재독일동포협력회, 2004.11. 20

<해맞이>, 재독일동포협력회, 2005 봄호

11. 국제연대운동

단체명 : Korea Komitee (한국연대위원회)와 후일의 Korea-Verband (코레아협의회)

* KOREA KOMITTEE (코레아코미테, 한국연대위원회 또는 한독연대위원회 혹은 한국위원회로 다양하게 불림) /KOREA VERBAND(코레아협의회 또는 한국협의회)

약칭 : 없음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없음

존속 기간 :

1977.2부터 현재에 이름 (한국연대위원회는 1990.11.18부터 「코레아협의회(KOREA VERBAND)」로 개칭됨)

주요 활동 지역 :

오스나브뤼크, 에센(코레아협의회 사무실이 들어있는 '아시아의 집' 소재지)

단체의 성격과 의의 :

독일인들의 한국에 대한 열정은 각별하다. 특히, 동백림사건 이후 끊임 없이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 내 지식인들과 연대해 「한국 연대위원회(KOREA KOMITEE)」가 만들어졌고, 이 단체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성 과정 :

Korea Komitee의 초대의장 귄터 프로이덴베르크 교수가 한국과 최초로 접촉한 것은 1960년 윤이상씨와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윤이상씨 부부가 동백림사건으로 1967년에 남한으로 납치된 후 그는 한국과의 연대운동에 정치적인 적극성을 띄었다. 대학이나 교회의 인사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항하고, 또 남한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Korea Komitee의 건설로 결실을 보게 된다.

조직 체계 :

Korea Komitee는 정당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단체이자, 개별 인사, 지역 혹은 지방 단위의 소조직(Sektionen)의 연합체로, 그런 소조직들은 서베를린, 루르지방, 오스나브뤼크, 괴팅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뮌헨에 있었다.

한편 Korea Komitee를 포괄하는 코레아협의회는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코레아연석회의(후술 참조)와 코레아사회연구소 및 기관지 코레아포럼을 발간한다.

코레아사회연구소는 쾰른, 브레멘과 하노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아시아재단(Asien Stiftung)에서 운영하는 '아시아의 집'의 창립과 더불어 에센의 '아시아의 집'으로 일원화되었다. 코레아사회연구소는 한국인 및 독일인 조직과 개인들을 엮으며 유럽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같은 생각을 하는 단체들과의 공동작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한다. 이 연구소는 여러 정보와 전문가를 중개하며 세미나와 집회를 기획, 조직한다. 또한 한국내의 활동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작고한 프로이덴베르크 교수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이 코레아협회의 주요재정을 구성하며, 일부는 교회나 기타 공적인 방법을 통해 충당한다.

강령 및 규약 : 1990.11.18 창립, 1997. 9.27 개정 (Korea Verband)

<목적>

코리아협의회는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로 아시아재단(Asien Stiftung)의 창립멤버이다. 코리아협의회는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들의 발전과정과 제 관계성을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며, 국제적인 연대를 조성하고, 한반도의 통일노력을 지원하며, 한국인과 독일인 사이의 다문화적 상호소통과 동반자적 관계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주요 임원 :

G.Freudenberg 교수(Korea Komitee 초대위원장 겸 Korea Verband 명예회장. 작고), Rainer Werning, Rainer Hruska, Roland Wein, 최현덕

주요 활동 :

Korea Komitee는 한국인의 민족자결을 위한 투쟁, 억압과 착취에 맞선 투쟁, 그리고 자유로운 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Korea Komitee는 정치범의 석방, 인간적인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의 건설, 내정 간섭의 종식, 한반도에서의 냉전과 무장의 종결 등에 대한 한국인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데에 진력하였다. 아울러 독일 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항했다.

특히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재야 한국인 그룹과 공동으로 공개적인 집단체동들, 세미나의 개최, 그리고 후원금의 모금 등의 일을 벌여 나갔다. 그들은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단식투쟁, 추모미사와 데모 등을 통해 광주항쟁을 알리고, 광주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베네딕도 수사들을 통해 광주에 재정지원을 했다. 또 그들은 김대중씨 구출운동에도 동포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그 후에도 Korea Komitee는 동포단체와 함께 전두환 방독 반대데모, 오월민중제 참여, 공안당국의 모략에 동포단체와 공동대처하는 홍보활동 등을 벌였다.

후일의 Korea Verband는 포괄적인 여론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상응하는 학문적 선행작업과 출판, 다른 단체와 공동작업의 장려, 독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한국인의 사회적 문화적 관심사의 지원, 독일인과 한국인의 교류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기관지 :

Korea Komitee는 1979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소식지> (Korea Korrespondenz)를 발간했다. 이 <한국소식지>는 한국에서 날아 온 뉴스와 보고들, 한독 관계에 관한 소식들,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소식과 보고들을 모아 분석해 홍보하는 회보였다. 그것은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혹은 서독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는 다양한 단체들이나 인사들에게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 소식지가 발간됨으로써 언론이 뜸하게 다루었던 한국이 더욱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Korea Verband는 <코리아포럼> (Korea Forum) (현재 책임편집 J.Hiltmann교수, 최현덕)을 발간하는데, 독일어 및 한국어로 된 <코리아포럼>은 정기적으로 한국 내외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 경제, 문화적 사실들을 한국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분석하며 토론의 광장으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체 과정 : 현재도 존속

관련 자료 :

- 한국연대회의 세미나, <우리나라> 제27호, 1985.1.15
- 한국연대위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은퇴식,11.1,<민주조국> 제13호, 1988.12.1
- <Korea Forum> 제1호, 1991.2.1
- <Korea Forum> 제2호, 1991.4.1
- <Korea Forum> 제3호, 1991.6.1
- <Korea Forum> 제4/5호, 1991.10.1
- <Korea Forum> 5주년 기념, 1992.8
- <Korea Forum> 6주년 기념, 1994.2

-<http://www.koreaverband.de>

-Roland Wein, 5.18 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 사업(해외에서의 5월 운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단체명 : 코리아 연석회의(혹은 한국문제 제단체 연석회의) (Korea- Koordinations -konferenz)

약칭 : KoKoKo(코코코)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Korea Komitee가 주도하여 세웠으며, 후일 Korea Verband 사업의 하나로 됨

존속 기간 : 1979년부터 현재에 이름

주요 활동 지역 : 하노버. 후에 에센으로 이동

단체의 성격과 의의 :

KoKoKo는 독일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로 활동을 하는 한·독 제 단체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동의 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며, KoKoKo의 사무는 현재 사단법인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가 한다.

결성 과정 :

한독간의 정치, 인권, 문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관계가 제고되면서 프로이덴베르크 교수를 중심으로 박정권 말기인 197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직 체계 : 비조직적 형태로 한국 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개방되어 있다.

강령 및 규약 : 없음

주요 임원 : Dr. Rainer Hruska, 이종현, 유정숙 등

주요 활동 :

코리아 연석회의는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해외동포 단체뿐 아니라 독일단체들이 한국문제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분산적이고 다층적으로 활동했던 제 단체들 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정이나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부응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문제에 대한 학문적 규명과 실천적 뒷받침을 했다. 한국문제 세미나 주관, 각종 연대시위, 기관지 발간을 통한 독일내 한국문제 홍보 등의 활동을 했다.

기관지 : Rundbrief KoKoKo(코리아연석회의 회람문)

해체 과정 : Korea Verband의 사업으로 흡수

관련 자료 :

-KOKOKO 회람문 제1호(독문), 1990.4.5

-KOKOKO 회람문 제2호(독문), 1990.8.25

-KOKOKO 회람문 제6호(독문), 1991.8.8

- KOKOKO 회람문 제11호(독문), 1992.10.17
- KOKOKO 회람문 제15호(독문), 1993.10.9
- KOKOKO 모임, 뒤스부르크, 4.21-23, <민주조국> 제16·17 합본호 1989.4.1
- KOKOKO, 전민련 지지 광고, <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KOKOKO, 뒤스부르크 모임, 4.21-23, <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KOKOKO 모임, 10.27-29, <민주조국> 제24호 89.11.1
- KOKOKO 모임, <민주조국> 제28호 90.3.1

<참조> 단체명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Socialist International)

* 사회주의 인터는 한국문제를 전담하는 외국인 연대단체는 아니지만 한민련 유럽본부가 김대중 구출운동 등의 활동을 할 때 깊이 연대하고, 광주문제 등 한국문제에 대해 한국의 재야와 해외운동의 입장에 서서 지지를 아끼지 않은 국제단체이므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연구자 주

약칭 : S.I. 또는 사회주의 인터

소속 단체 또는 상급 단체 :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영국 노동당, 스페인 사회당을 위시한 전세계 사민주의적 정당 및 단체들의 국제적 조직

존속 기간 : 1951.6- 현재

주요 활동 지역 :

초기엔 유럽 중심이었으나 1976년 제네바 회의 이후 사회주의 인터는 조직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유럽 중심으로 부터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단체의 성격과 의의 :

소련이나 동구식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따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극복하고자 한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노선을 따르고 있다.

결성 과정 :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계급이 성장하여 각국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또 노동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하기 위한 국제적 조직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864년 9월 런던에서 맑스와 엥겔스를 비롯한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등 각국 대표들이 모여 국제노동자협회 제 1 인터, 제 1 국제당 를 결성하였다.

제 1 인터의 출현은 각국의 노동조합결성을 자극하고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식을 강화했으나 내부에서 생긴 이념상의 분쟁으로 인해 1876년 해산되고 말았다.

해산된 후 10 여년이 지난 1889년 불란서 혁명 100 주년을 맞이하여 엥겔스를 비롯한 20 개국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 제 2 인터 제 2 국제당 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결성 당시와는 달리 1896년 런던대회 이후부터는 가맹자격을 의회제도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정당이나 단체만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세계 제 1 차 대전 중에 제 2 인터 가입단체들은 노동자들에게 국제적 연대보다는 자기 나라의 조국방위를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하게 됨으로써 제 2 인터는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전쟁이 나자 영국노동당의 주동적인 활동으로 1923 년 함부르크에서 <노동자 사회주의 인터>를 결성,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제 2 인터의 전통을 이어 활동중 독일 나치의 탄압으로 1940 년 궤멸되고 말았

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다시 조직되기 시작, 국제사회주의자 회의 위원회 (COMISCO : Committee of International Socialist Conference)가 1946년에 소집, 1947년에 결성된 후 국제조직 재건준비를 본격적으로 진척시켜 1951년 6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국제적인 조직체로서 SI가 결성하게 되었다.

프랑트푸르트대회에서 채택된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1951)>은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를 분명히 밝히고, 동구사회주의 진영과 원칙적으로 구별하였다.

기본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발표된 10년 후 민주사회주의자의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는 <오슬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조직 체계 :

S I의 가맹당, 자문정당, 옵서버단체, 우호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3년에 1번씩 총회가 열린다.

한국의 통일사회당이 1969년 정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으며, 한민련이 '옵저버단체'(S I의 의장단이 인정한 국제적 지역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서 발언권을 갖되 투표권은 없다; 연구자주)로 참석하였다.

강령 및 규약 :

<프랑크푸르트 선언>(1951.6)

민주적 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

[전 문]

1) 19세기 이래 자본주의는 거대한 생산력을 발전시켰다. 자본주의는 인민의 대다수가 생산의 지배로부터 소외되는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으로서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우위에 둔다. 자본주의는 재산권이나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임금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계급의 투쟁을 격화시켰다.

세계는 각인에게 응분의 생활을 충족시킬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세계인구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자본주의는 파멸적인 위기와 대량의 실업이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것은 사회불안과 빈부의 뚜렷한 격차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수탈에 호소하여 국민간, 민족간의 분쟁을 더욱 더 가열하게 만들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강력한 자본가적 집단이 과거 야만성을 띤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형태로 다시 대두하도록 조장하였다.

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폐해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유럽사회에서 발생하였다. 자본주의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은 것은 임금노동자였으므로 사회주의는 맨 처음에 임금 노동자의 운동으로서 발전하였다. 그 후 많은 시민들 즉 자유직업자, 사무원, 농민, 어민, 수공인, 소매상, 예술인, 과학자들은 사회주의가 그들의 장래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수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3)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소수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을, 그리하여 경제권력을 국민 전체의 손에 넘겨주어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사회주의는 세계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세력으로 되어있다. 그것은 선전으로부터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해악이 없어지고 사회는 새로운 생기를 얻고 있다. 사회주의의 제 원리는 실천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5) 많은 나라에 있어서 방임된 자본주의가 국가의 간섭과 공공소유로서 사적 자본가를 제한하는 경제에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사람들은 계획의 필요성을 더욱 더 인정하게 되어가고 있다. 사회보장, 자유로운 노동조합, 산업 민주주의가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같은 발전은 주로 사회주의와 노동조합 운동자에 의한 오랜 투쟁의 결과이다. 사회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창조를 향하여 중요한 시책

이 채택되어가고 있다.

6) 근년 세계의 후진지역의 사람들은 국민적 자유와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가치 있는 투쟁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경에 따라 갖가지 민주적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주요한 적은 토착 재벌의 기생적 수탈과 외국 자본가에 의한 식민주의적 수탈이다. 사회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토지개혁과 공업화와 산업공유제도의 확장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하여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7) 사회주의가 세계의 도처에서 발전하고 있는 한편에는 새로운 세력이 자유와 사회정의를 지양하는 이 운동을 위협하려고 대두하고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볼세비키"혁명 이래 공산주의는 국제노동운동을 분열시켰으며 많은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실현을 수 십 년은 지연시켰다.

8)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 그것은 <맑스>주의의 비판적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완곡한 이론을 수립하였다.

9)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밑에 있어서 인류를 분열시키고 있는 수탈을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달성하려 하는데 대하여 공산주의자는 오로지 일당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급분열은 격화 조장하려고 날뛰고 있다.

10) 국제 공산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 도구인바 그것이 정권을 장악한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자유와 자유를 획득할 기회를 파괴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군국주의, 관료주의와 공포 경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와 특권의 역연한 차별을 만들어 냄으로서 그것의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 냈다. 강제노동은 그 경제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1) 사회주의는 엄밀한 획일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국제적운동이다. 사회주의는 그들의 신념을 <맑스>주의적 기초 위에 두거나 혹은 사회분석의 다른 방법에 두거나를 불문하고 또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된 동기가 종교적인 원리이든 인도주의적인 것이든 모두 하나의 목적 즉 사회정의, 보다 나은 생활,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12)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인류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선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할 힘을 한층 증대시켰다. 이 때문에 생산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그대로 맡겨서는 안 되며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계획은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는 국내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계획을 주장한다.

13)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신봉자 하나하나의 공헌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 방법과 달라서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피동적인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1. 정치적 민주주의

- 1)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 2) 자유 없이는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
- 3) 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 그것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A] 국가에 의한 전제적 침해로부터 보호된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개개인의 권리.
 - B] 사상 발표, 교육, 결사,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
 - C] 보통, 평등, 무기명의 투표권에 의한 자유선거를 통해서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것.
 - D] 다수당에 의한 정부와 소수당의 권리의 표현.
 - E] 문벌, 성, 언어, 신조, 인종의 차별이 없는 모든 시민의 법률 앞에 있어서의 평등.
 - F] 고유의 언어를 가진 집단의 문화적 자주성.
 - G] 독립된 사법제도 누구나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사회주의는 언제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여 왔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나라에서나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5) 민주주의는 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권리와 반대당의 권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스스로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인민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이것을 견지하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6) 자본가의 이익 옹호에 기초를 둔 정책으로서는 전체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단결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그 운명이 민주주의의 존속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

7) 사회주의는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의 독재 하에 신음하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를 표명한다.

8) 모든 독재정치는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 지를 불문하고 자유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강제 노동에 의한 무제한의 수탈이 자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든지 정치적 독재에서 행하여지고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인민의 생활수준과 도덕 수준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

II. 경제적 민주주의

1)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공의 이익이 사적이익보다 우선하는 제도로 대치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은 완전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은 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계획화는 소수의 수중에 경제 권력이 집중되는 사태와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경제의 효과적인 민주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따라서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계획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이것들은 생산의 공공관리와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를 외면하고 있다.

3)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당해국의 구조가 적용해야 할 공유의 범위와 계획의 형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공유화는 현존하는 사기업의 국유화, 새로운 공공사업, 지방공영기업,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협동조합의 창설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들 여러 가지의 공유의 형태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 될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을 합리화하여 사적독점이나 카르텔이 대중을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5)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부문 예컨대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등에 있어서의 사적소유의 재산과 양립한다. 국가는 사적소유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는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생산과 복지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

6) 노동조합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결코 중앙집권적 관료의 도구나 폐쇄적 배타적인 단체 제도로 전락하는 것이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경제 조직은 의회의 헌법적 특권을 빼앗음이 없이 전반적 경제정책을 형성하는데 참가해야 할 것이다.

7)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모든 경제적 결정이 정부 또는 중앙기관 수중에 일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권력은 그것이 계획의 목적과 양립하는 한 어디서나 분권화되어야 할 것이다.

8) 모든 시민은 그 조직을 통하여 혹은 그 개인적 창의에 의하여 생산의 과정에 참가함으로써 공적 및 사적 산업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의 발달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는 그 산업에 민주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9) 민주적 사회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증진하는 번영의 기초위에 서서 개인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사회적 민주주의와 문화의 진보

중략...

IV. 국제적 민주주의

중략...

주요 임원 : 빌리브란트 전 독일 수상, 팔메 전 스웨덴 수상 등

한국과 관련된 주요 활동 :

김대중씨 구출운동, 광주학살 진상규명 촉구 등 한국의 역대군사정권의 반인권적 행위 규탄 및 한민련 등 재야운동 지지

해체 과정 : 현재도 존속

관련 자료 :

- 1951년 6월 Socialist International 프랑크푸르트 선언
- 한국주요혁신정당자료집, 한국학술연구원(KOFO) 발행, 1983
- 한민련, 사회주의 인터 총회에 참석, <우리나라> 제8호, 1983.5.1
- 사회주의인터 스웨덴 총회 민협참가, 6.20-22, <민주조국> 제20호 89.7.11
- 한민련, SI 18차 총회에 참석, <자주>제47호,1989.6.25

단체명 : 기타

- 유럽의회 한국 인권과 국가보안법 관련 청문회 자료집(Anhörung über Menschenrechte Nationale Sicherheitsgesetze in Südkorea), 유럽의회, 1992.1.19
- 자료집 Korea, terre des hommes, Osnabrück, 1986.4
- KOREAFORUM, Korea Kommunikations- und Forschungszentrum, JG.1/Nr.1, Osnabrück, 1991.2.1
- South Korea-Prisoner of Conscience Reverend Moon Ik-hwan, amnesty international, London, 1991.10
- BUKO(Bundes Kongreß entwicklungspolitischer Aktionsgruppen)11차 연차총회 (제3세계 관련 서독내 조직간 조정 모임인 부코 총회, 풀다 대학), 87.5.28-31, <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한국문제 전문가 세미나, 이설론 기독교아카데미, 87.6.12-14,<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개신교회의 날 행사, 여성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서백림 노동교실 등 참가, 프랑크푸르트, 87.6.17-21,<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에센대학 한국의 날 행사, 송두울 씨 강연, 윤이상 음악 공연, 에센, 87.6.24,<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헷센 나싸우 지역교회 한국주간행사, 전라남도와 자매결연, 87.11.12-21,<민주조국> 창간호, 1987.11.30
- 녹색당, 동포권익옹호 서명운동,<민주조국> 제4호,1988.3.1
- 독일기독교청년회 주최 한국문제세미나, 부퍼탈,88.2.26-28, <민주조국> 제4호,1988.3.1
- 루셀스하임 한국주간, <민주조국> 제5호, 1988.4.1
- 88 올림픽 캠페나 대표자모임, 프랑크푸르트,88.4.16, <민주조국> 제5호,1988.4.1
-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김포공항에서 강제추출,88.4.23, <민주조국> 제5호, 1988.4.1
- 뷔템베르크 주, 한국문제 주제 선교대회, 슈베비시탈,88.5.7-8, <민주조국> 제7호, 1988.6.1

- 독일 여신도회 올림픽매춘 비난, <민주조국> 제9호, 1988.7.29
- 오스나브뤼크 한국의 날 행사,8.24-9.25, <민주조국> 제10호,1988.8.29
- 올림피아 캠페나, 공개서한, <민주조국> 제14호
- 제1회 평화올림픽회의, 문국주·임민식 참가,아테네, 3.13-19,<민주조국> 제18호 1989.5.1
- 루이제린저가 임수경에게, <민주조국 제21호> 1989.8.1
- 서독녹색당, 유럽의회에 한국정부 비난촉구, <민주조국> 제23호 1989.10.1
- 국제사면위에 임씨와 문신부 석방운동요청, <민주조국> 제23호 1989.10.1
- 권터그라스 등 한독 대통령에 항의서한 발송, <민주조국> 제23호 1989.10.1
- 민건희 최기환씨 유럽인권위 연설, <민주조국> 제23호 89.10.1
- 녹색당 의원, 유럽민협 방문하여 협력모색,9.18, <민주조국> 제23호 1989.10.1
- 녹색당의 대정부 질의서(서독내에서의 한국안기부 활동), <민주조국> 제23호 1989.10.1
- 민협주최 한국문제 강연회,서베를린,10.12<민주조국> 제24호, 1989.11.1
- 유럽의회 결의문,10.9 <민주조국> 제24호, 1989.11.1
- 서베를린 녹색당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민주조국> 제25호 1989.12.1
- 빌리브란트 씨, 유럽민협에 서한<민주조국> 제25호 1989.12.1
- 베를린 시장 몸퍼, 장기수대책위에 연대 전문,<민주조국> 제25호 1989.12.1
- 바이체커 대통령, 유럽민협에 감사서한,11.2<민주조국> 제25호 1989.12.19
- 유럽 민협, 베를린 시장과 회담,<민주조국> 제28호 1990.3.1
- 유럽민협, 외국인법 개정반대시위 참가,<민주조국> 제28호 1990.3.1
- 베를린시장, 한국대사관에 항의 공문,<유럽민협> 제29호 1990.4.1
- 녹색당 국회의원 위르겐 마이어 국제부장, 항의성명,<유럽민협> 제29호 1990.4.1
- 제 90차 독일 카톨릭대회에 민협참가 서명운동 벌여<민주조국> 제31호 1990.6.6
- 유럽민협 반국가단체 아니다, 서독주요인사들 한겨레신문에 성명, <민주조국> 제31호 1990.6.6
- 한국문제 토론회, 민협과 베를린 녹색당 공동주최<민주조국> 제32호, 1990.7.10
- 남아공 지도자 민협방문<민주조국> 제34호 1990.9.20
- 베를린녹색당 한국대사에 항의서한<민주조국> 제35호 1990.11.1
- 바이체커 대통령, 유럽민협에 감사서한<민주조국> 제39호 1991.4.1

V. 유럽 지역 민주화운동사(요약)

1. 유럽운동의 개념과 유럽운동사 연구의 지향점

유럽 민족민주운동은 유럽에서의 국내 민주화 운동 지원과 조국통일운동, 그리고 유럽동포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의미하며, 유럽민족민주운동사 정리는 해외민족민주운동사 정리의 일환으로 기획한다. 해외운동사는 국내운동사와 병렬하여 전체민족민주운동사로 귀납한다.

2. 유럽운동 개관

(1) 유럽운동 발생 배경

박정희 정권이 국내 정정(政情)을 자신에 유리하게 전개시키고자 확대포장하여 조작했던 ‘동백림사건’은, 적어도 유럽 현지에서는 일정 정도 역효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유학생 등 사건당사자들을 비롯한 주변 동포들에게 박정희 정권의 본질과 민족문제에 대해 천착할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

게다가 박정희가 ‘수출억군’으로 1963년부터 서독에 ‘수출’한 광산노동자와 간호사에 대한 품삯을 독일연방은행에 담보로 예치하는 조건으로 4천만 달러를 빌렸는데, 3년이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고용자 측이 한국 대사관과 담합하여 광산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강제 송환하려 했으며, 그리고 간호사들의 경우 병원 측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항하여 생존권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러한 토대는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을 조직화된 운동으로 나서게 했다.

(2) 유럽운동의 전개

그리하여 주로 유학생이 중심이 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 74년 3월1일 발족)가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덴마크 등지로 확산되고, 광산노동자 중심의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 75년 발족)과 간호사 중심의 ‘재독한국여성모임’(여성회, 76년 4월 발족) 등이 결성되면서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유럽운동의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일본과 미주, 유럽 등 개별적 해외 민주운동세력들은 해외동포 전체를 망라할 연합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77년 여름 도쿄에서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약칭 한민련)을 조직하고 유럽에는 ‘한민련 유럽본부’가 결성되었다.

전두환에 의해 반란의 수괴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의 구명운동과 광주학살규명은 유럽운동을 질적·양적으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 된 최초의 연대운동이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동안 반유신과 ‘반박(反朴)투쟁’에 몰두했던 민건회 회원들이 투쟁목표가 상실되자 대거 귀국하게 되고, 한국사회의 본질을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그간의 ‘개량주의적’ 유학생 운동의 한계가 일시 노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조국통일운동이 일부 목사 들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198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된 <북한 해외동포 기독교자들의 대화>에 참가하고 북을 방문하는 등 북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 1979년 발족)가 결성되었다.

한편 귀국하지 못한 민건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학술연구원’(1982년 2월)을 만들어 심포지엄을 하고 한국문제 세미나를 여는 한편, 연구소에 북한의 문헌들을 대거 비치하여 당시 국내외에 일고 있던 ‘북한바로알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운동의 영향으로 유럽운동도 보다 과학화되고 심화된다.

‘광주’의 세례를 받은 유학생들이 ‘사회과학세미나’를 결성하여 유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한편, 각 지역의 유학생회를 중심으로 광주항쟁 기념식을 조직하고, 노동운동과 연대하여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나 ‘서백림노동교실’(후에 ‘베를린 노동교실’로 개칭)에 참여하거나, ‘갑오동학농민제’나 전 유럽차원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오월민중제’에 함께 하기도 한다.

한편 재독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재독한국여성모임도 국내 여성운동과의 연대에 적극 동참하는데, 원풍모방, 동일방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다국적기업인 이리 후레아패션의 여성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독일 본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국내 민중문화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인민중문화모임’이나 ‘한독문화협회(KDK)’가 결성되어 풍물을 하거나 우리 고유의 문화를 독일인들과 동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김현장, 문부식 씨의 미문화원방화사건을 계기로 ‘양심수 후원회’가 결성되어 국내 양심수의 문제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국제여론에 환기시키는 일을 주도했다.

(3) 유럽운동의 고양

국내 유월항쟁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각 부문운동으로 확산된 유럽운동은 이제 부문과 지역으로 분절된 형태를 지양하고 보다 통일된 연합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며, 그 구체적인 성과물이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유럽민협. 87년 9월 창립되었으며, 89년 1월에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로 개편)이다.

유럽민협은 ‘조국의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및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유럽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권익옹호와 대동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유럽운동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 및 통일단결에 이바지하는 한편,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반전반핵 평화운동·환경보호운동과의 폭 넓은 연대를 통해 국제평화와 환경보호에 이바지 한다’라는 요지의 강령을 갖고, 이러한 강령에 적극 찬동하는 단체들과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럽민협은 애초에 독일에서 활동하던 각 민주단체들의 활동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재독한인 민주단체 대표자모임’이, 당시 국내에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유월항쟁을 치루는 과정에 고무되어 각 단체간의 결속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확대 발전되어 결성되었으며, 유럽운동 최초로 사무실을 세우고 상근 활동가를 두었다.

유럽민협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들로는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 ‘재독한국여성모임’ · ‘재독한인노동자연맹’ ·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이상 독일) · ‘덴마크 민중문제연구소’(덴마크) · ‘북구 민주사회건설협의회’ (덴마크·스웨덴) · ‘불란서 민중문제협의회’(불란서) · ‘스위스민주사회건설협의회’ (스위스) 등이 있으며, 서베를린의 ‘한독문화협회’(KDK)와 보쿰 지역의 ‘한국인민중문화모임’ 등 문화운동단체나 ‘한민련 유럽본부’와도 사안에 따른 연대,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또 유럽민협과 연대활동을 벌였던 외국인 단체들로는 녹색당(Die Grüne) 사민당(SPD)등의 정당과 ‘테르데죐(terre des hommes/인간의 대지) · ‘아시아연구회’(Asien A.G.) 등의 인권자선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I) 등의 인권기구, ‘한독연대위’(Korea Komitee)와 친구교회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문제연대를 위한 제 단체연석회의’(KoKoKo)라는 통합조직으로 엮여져서 한국문제에 대해 한국인 못지않게 열심히 활동했다.

그 외에 유엔인권위에 소속되어 있는 ‘민족권과 민족해방을 위한 국제동맹’ (International League for the Rights and the Liberation of Peoples : Non - Governmental Organis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UNO and UNESCO)에 한국문제 연구반 책임자가 유럽민협 회원으로,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Socialist International) 18차 총회 때엔 한국에선 유일하게 평민당 대표단과 함께 유럽민협의 의장과 대외사업부장이 옵서버로 초청되어 참가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단체이자 80여 개 이상의 나라들에서 수권정당이기도 한 S.I.의 사회민주당들과의 연대가 공고하기도 했다.

월간으로 펴내는 한/독판 기관지 <민주조국>을 통해 유럽민협의 활동상이 국내와 해외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외의 많은 운동단체와 민주인사들이 유럽민협과 연대하고 방문했다.

이러한 결과물의 하나가 1989년 7월 임수경 전대협대표의 평양축전 참가였으며, 임수경의 유럽민협을 경유한 평양축전 참가는 조국통일운동의 물꼬를 틔우는 한편, 탄압의 기회만 노리던 국내공안정국에 의해 유럽운동권이 엄청난 시련을 받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임수경 방북사건으로 유럽민협은 물론 국내운동권이 탄압을 받고 관련자들이 대량 구속되자 외국 정당들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구속자석방운동을 벌이고, ‘반국가단체’, ‘친북인사’, ‘북한공작원’이라는 공안당국의 음해에 맞선 투쟁에 나서는 한편, 고양된 조국통일운동의 열기를 담아 1990년 8월 제1차 범민족대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비록 노태우 정부의 반대로 분산개최 되었지만, 이들이 중심이 되어 상설적인 범민족통일운동체 결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갔으며, 그 결과 남·북·해외의 대표들이 1990년 11월 19일 베를린에 모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을 결의하게 된다. 유럽운동권은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4) 유럽운동의 분열과 침체

동포대중들의 의견이 아래로부터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가운데 범민련 유럽본부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럽민협과의 갈등도 커졌다.

인적, 물적으로 열세인 유럽 동포운동의 현실에서 새로운 통일운동체가 생기면서 범민련으로의 과도한 몰두를 한편으로 하고, 유럽 범민련을 상위에 놓고 유럽민협을 하위에 두고자 하는 유럽 범민련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다른 한편으로 한 갈등의 결과는 결국 유럽민협의 해소로 나타났다. 여타의 민주화 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종속시키고자 했던 오류는 그에 그치지 않고, 좌편향으로 인한 동포대중들과의 단절과 그 후 윤이상 선생의 귀국 불발 사건이나 내부 프락치 사건 등으로 간판만 걸어두는 형편으로 몰락한다.

그 와중에서도 오월민중제는 꾸준히 열렸으며, 유럽민협의 해소와 범민련 유럽본부 등 유럽운동의 오랜 침체를 딛고 ‘한민족유럽연대’(유럽연대. 2001년 5월)가 결성되어 유럽운동의 대의와 맥을 이어가고 있다.

(5) 유럽운동의 운동사적 의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운동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항하여 이미 70년대 초반에 유학생 등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정치운동을 비롯한 노동운동, 여성운동을 여타의 해외지역에 앞서 선구적으로 시작했으며, 80년대 초엔 기독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개신교 인사들과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등 당시에 금기였던 북한문제에 일찍이 다가섰다.

북한 공관이 유럽도처에 산재해 있다는 지역적인 특수성은 북과의 접촉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멀리는 동백림 사건으로부터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유학생 최혁배 씨와 민건회 회원 안석교 씨를 연계시킨 간첩혐의 사건, 반정부 계열 신문인 <우리나라> 편집인 안상근 씨가 간첩혐의로 국내수감 중 발생한 의문사 사건, 함부르크 거주 동포 김형규씨와 프랑크푸르트 소재 기통회 회원 김성수 씨를 연계시킨 ‘김형규 간첩사건’, 민건회원 오길남 씨의 입북과정과 윤이상, 송두울, 김종한 씨를 연계시킨 ‘오길남 간첩사건’, ‘홍성담 사건’ 등과, 유럽민협과 임수경 방북을 연계시킨 ‘임수경 사건’ 그리고 최근의 ‘송두울 사건’에 이르기까지 공안사건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국내의 과거사 진상규명 흐름과 관련하여 덧붙인다면, 차제에 위 사건들에 대한 세간의 의혹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그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운동에 헌신했던 대다수 유럽 활동가들에 대한 신원(伸冤)은 물론, 향후 유럽운동의 새로운 좌표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공안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체 동포사회는 술렁이고 흔들리게 마련이었으며, 운동권은 일시적으로 위축되거나 혹은 거꾸로 좌편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운동인자들이 해외의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동자 출신이거나, 혹은 인텔리겐차로서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전술한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방북과, 그 후 박성희·성용승 등 범청학련 대표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할 터전을 만들어 주었고, 베를린에서의 남·북·해외 3자 회합의 결과인 범민련 결성은 향후 해외운동의 방향을 일정 정도 조국통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운동권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6) 유럽운동의 현재

범민련 유럽본부의 일부 성원들이 그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재독일동포협력회’(재독협. 96년 6월)를 결성하여 기관지(‘해맞이’)를 만들고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동포대중으로부터 ‘친북적’이라는 딱지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수귀향촉진회’(95년 3월 결성)가 범민련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이인모씨의 문제를 국내 진보지인 ‘말’지에 알리면서 촉발된 귀향운동을 통한 북으로의 귀환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의 유럽운동은 전술한 한민족 유럽연대가 유럽민협을 계승하여 활동하는 한편, 부문운동으로의 여성회와 노동교실, 한국민중문화모임과 그들이 중심이 된 범 동포 차원의 오월민중제가 매년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존재하며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작년 3월 민건회 결성 30주년을 기해 민건회 재건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으며, ‘6·15 공준위’가 결성되어 6·15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등 오랜 침체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던 프로이덴베르크 전 오스나부뤼크 대학총장이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유산으로 결성된 ‘Korea Verband(코레아협회)’가 ‘Korea Komitee(한국연대위원회)’의 후신으로 활동하며 독일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국문제를 알리고 있다.

또 여성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연대하여 독일지부를 만들어 정신대 문제의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 동포들의 일부는 ‘민주노동당 독일지부’를 만들어 국내 진보정당을 지원하고 있다.

(7) 유럽운동의 과제와 향후 전망

하지만 아직까지 90년대의 분열과 갈등의 후과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으며, 거기다 운동 1세대의 고령화와 후발 세대의 취약함 등으로 운동이 과거처럼 신명나게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에 더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당면목표가 희석되고, 통일운동에 정부의 몫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해외운동 전반의 역할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럽운동은 변화된 조건에 조응하여 1차적으로는 동포들의 권익운동이나 2세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국제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국내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민족문제에 대해 남·북과 더불어 대등한 한 주체로서 평화통일운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 일정기간 유럽운동은 물적인 열세를 타 지역 단체(주로는 한민련 일본지역 본부)의 지원으로 일부를 충원하면서, 자립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가 유럽민협의 해소과정에서 노정되기도 했다. 동포들 대부분이 1세대인데다 비교적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해외의 타 지역처럼 재정적인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고, 이민이 가능한 지역이 아님으로 해서 더 이상의 동포 유입이 불가능한 데서 오는 인적·물적 기반의 취약성은 향후 이곳의 동포사회가 간호사·광산노동자 출신의 1세대를 끝으로 막을 내리거나, 문화적·정서적으로 현지화된 2세들에 의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세들에 대한 민족교육과 함께, 국내 운동권의 지원으로 예컨대 여름방학을 이용한 국내에서의 하기캠프 등을 통해 2세들을 의식화시키는 작업 등 극복방식이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VI. 유럽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사건 일지

1961. 안병무, 이영빈 등 유학생들 학술연구회인 퇴수회(退修會)에서 재독한인회 탄생, 박정희정권 비판(후일 어용화됨)
- 1967.7.8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동백림사건' 발표. 정규명, 윤이상등 사형 및 무기 구형
- 1973.8.15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한민통) 결성/ 일본
- 1973.11.25 재독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
- 1974.1.14 배동인, 최순택, '한국국민의 자유를 위하여' 독일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을 통해 발표
- 1974.3.1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 결성/ 본
- 1974.3 잡지 <주체>(발행인 정철제, 오석근) 발행
- 1974.7.15 민건회 기관지 <광장> 1호 발행
1975. 가을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 초대회장 이종현) 결성
- 1975.10.28 노연 기관지 <노연통신> 창간호 발행
- 1976.1.15 민건회 기관지 <광장>에서 <민주한국>으로 개편, 1호 발행
- 1977.2 Korea Komitee (한국연대위원회. 프로이덴베르크 교수등) 결성
- 1977.8.12 14 해외한국인 민주운동대표자회의 (일본), 민주민족통일 해외한국인연합 (한민련) 결성/ 일본
- 1977.8 한민련 구주본부 결성
- 1978 독일, 미국, 캐나다 해외 기독교인 34명이 조선기독교도연맹에 대화하자고 편지
- 1978.6.5 6 한민련 구주본부 주최로 한국문제국제회의 열림. 윤이상,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등 참가/ 본(Bonn)에서
- 1978.9.17 재독한국여성모임(여성회) 창립총회 및 결성/ 프랑크푸르트
- 1979.3.1. 민건회, '제2선언문' 통해 민족통일문제를 전면화
- 1979 여성회, <재독한국여성모임> 창간호 발행
- 1979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 초대회장 이화선 목사. 프랑크푸르트) 결성
- 1979 기통회 기관지 <통일과 기독교> 창간호 발행
- 1979.10.30 한국대사관에 40여명 진입, 시위 및 성토/ 본
- 1980.5 광주학살 규탄 사흘간 단식 데모/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
- 1980.6 사회주의 인터(S.I 의장 빌리브란트) 간사회에서 한민련 구주본부, 김대중 구출운동/ 오슬로
한민련 구주본부, 유엔인권위에 참가하여 김대중 구출운동/ 제네바
- 1981.6. 이영빈 등 기통회 회원 평양방문. 기독교도연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만남/ 평양
- 1981.6.10 <자주> 창간호 발행 (스웨덴 읍살라, 편집 및 발행인 이용) / 읍살라
- 1981.11.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대회/ 비엔나
- 1982.2.10 KOFO(한국학술연구원) 결성 (오펜바하 소재, 원장 윤이상, 사무총장 김길순) / 오펜바하
- 1982.5 광주 2주기 기념행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 1982.10.1 <우리나라> 창간호 발행(프랑크푸르트 소재, 편집 및 발행인 오석근) / 프랑크푸르트
- 1982.10 한국학술연구원 세미나 개최/ 오펜바하
- 1982.12.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대회/ 헬싱키
- 1982.12 한국학술연구원 강연회/ 오펜바하
- 1982.9 유럽 유학생 중심 사회과학세미나
1983. 서백림노동교실(후일 베를린노동교실로 개칭) 결성/ 베를린
- 1983.2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 정기총회/ 프랑크푸르트
- 1983.3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제2차 한일관계세미나/ 오펜바하
- 1983.5 광주의거 3주년 기념행사/ Bonn, 괴팅엔, 프랑크푸르트 등
- 1983.4.6-10 한민련, 사회주의 인터 총회에 참석/ 포르투갈 알부하이라

1983.10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제3차 세미나/ 오펜바하
 1984.11 재유럽민주청년연합(초대총무 어수갑. 사무실 괴팅엔) 결성/ 괴팅엔
 1984.12 제3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대회/ 비엔나
 1984.12 한민련, 스페인 사회당 전당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마드리드
 1984.12 한민련 유럽본부 제8차 회의/ 프랑크푸르트
 1985 여성회, 재독일본여성회와 함께 매춘관광근절,지문날인 반대 운동/ 베를린
 1985.7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위 및 성토대회' 베를린
 1985.10.18 '서독유학생간첩 학원침투 사건' 관련, 전 <우리나라> 편집국장 안상근씨 옥중 의문사/ 서울
 1985.12 민건회 회원 오길남 입북
 1986.1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제1차 대표회의/ 비엔나
 1986.2.1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결성/ 보쿰
 1986.10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통일문제 세미나/ 오펜바하
 1986.10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대표자 확대회의/ 비엔나
 1986.11 한국인민중문화모임(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인민중문화모임으로 변경) 결성/ 보쿰
 1986.12 전 민건회 회원 오길남 덴마크 공항에서 자수/ 코펜하겐
 1986.12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구라파지구 제2차 총회/ 프랑크푸르트
 1986. 한독문화협회(KDK) 결성/ 베를린
 1987.4.1 <우리나라> 중간호(제50호) 발행
 1987.4.4 한국인의 집 개관식/ 보쿰
 1987.5.1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서백림노동교실, 여성회 등 서독 각지에서 노동절 행사
 1987.5.10 노연, <노연통신> 중간호 114호 발행
 1987.5.15-17 오월민중제/ 베벨스부르크
 1987.5.27-28 재독기독교한인교회협의회, 민주제 개헌관철을 위한 단식기도회/ 프랑크푸르트 크리스투스 교회
 1987.5.28-31 BUKO(Bundes Kongreß entwicklungspolitischer Aktionsgruppen; 제3세계 관련 서독내 조직 간 조정 모임) 11차 연차총회/ 풀다 대학
 1987.6.6 서베를린 여성회와 서백림노동교실 연극팀 주최 <공장의 불빛> 공연 / 튀빙엔
 1987.6.11 레이건 서베를린 방문반대데모, 여성회 등 주최/ 베를린
 1987.6.12-14 이설론 기독교아카데미에서 한국문제 전문가 세미나/ 이설론
 1987.6.17-21 개신교회의 날 행사, 여성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서백림 노동교실· 재유럽민주청년연합 등 참가/ 프랑크푸르트
 1987.6.24 에센대학 한국의 날 행사에서 송두울 씨 강연 및 윤이상 음악 공연/ 센
 1987.7.4 조국민주화실천대회 재독한국학생준비위원회 주최 조국민주화실천대회/ 본
 1987.8.29 고 이석규 동지 추도회, 한마음조합 주최/ 보쿰
 1987.9.18-20 새 신문 발간과 유럽운동의 강화·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재독한인민주단체대표자 모임/ 베를린
 1987.9.26-27 재독한인민주단체대표자모임, 유럽민협 결성 (사무실 베를린, 초대의장 정규명) 결의/ 보쿰
 1987.10. 한국학술연구원 재개설
 1987.10.9-11 여성회 11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 슈미텐
 1987.10.22-23 한민련 10주년 행사/ 동경
 1987.11.13-15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주최 유럽민협 후원 전태일 열사 추모제/ 베를린
 1987.11.12-21 헷센 나싸우 지역교회 한국주간행사, 전라남도 와 자매결연/ 나싸우
 1987.11.15 <민주실천>제1호 발간 (조국민주화를 위한 재독한국학생협의회)/ 프랑크푸르트
 1987.11.28 한국인민중문화모임 주최 통일세미나/ 보쿰
 1987.11.30 한글판 <민주조국> 및 독일어판 <Minjuchoguk/ Demokratie in Korea> 창간호 발간 (발행인 정

규명, 편집인 어수갑)

- 1987.11 한민련유럽본부 제12차 정기총회/ 뒤셀도르프
- 1987.11.3 '재독교포간첩사건' 관련 김형규씨 구속
- 1987.11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으로 안기부 연행
- 1987.12 한국인민중문화모임 주최 판화전 및 마당극/ 보쿰
- 1987.12.6-13 재독한인교회협의회,인권주간 제정
- 1987.12.9 김봉준 좌담회 및 판화전, 민협/ 베를린
- 1987.12.12-13 노연 13차 정기총회/ 프랑크푸르트
- 1987.12.26 노동교실 정기총회 및 성탄바자회/ 베를린
- 1987.12.26-29 유학생 사회과학세미나/ 뮌스터
- 1987.12.28 송기숙 교수 좌담회, 민협/ 베를린
- 1987.12.27-88.1.3 한독문화협회 주최 청소년세미나/ 베를린
- 1988.1.9 한국인민중문화모임 1차 정기총회/ 보쿰
- 1988.1.11 독일인 대상 한국 소개의 밤, 민협/ 베를린
- 1988.1.15-17 여성회 대표자모임
- 1988.1.16 박종철 열사 추모제, 민협/ 베를린
- 1988.1.22 한민련 31차 스페인 사회노동당 전당대회 참가/ 마드리드
- 1988.2 독일 녹색당, 동포권익옹호 서명운동
- 1988.2.20-21 민협주최 공개토론회/ 보쿰
- 1988.2.21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으로 구속
- 1988.2.21 민협, 서독 유학생 최혁배 간첩날조사건에 대응하여 <최혁배 구출위원회>결성/ 베를린
- 1988.2.23 안병무 박사 민협 방문 좌담회/ 베를린
- 1988.2.26 한독문화협회, 한국의 밤 행사/ 베를린
- 1988.2.26-28 독일기독교청년회 주최 한국문제세미나/ 부퍼탈
- 1988.3.5-6 한민련 유럽본부 확대운영회의/ 베를린
- 1988.3.5-22 노연, 한국인민중문화모임 등 참가 '보쿰 한국주간' 보쿰
- 1988.3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여/ 베를린 등
- 1988.3 한국주간 행사/ 루셀스하임
- 1988.3.13-19 제1회 평화올림픽회의, 문국주·임민식 참가/ 아테네,
- 1988.3.22 윤한봉씨 민협 방문 및 좌담회/ 베를린
- 1988.3.24 독일인들, 김형규,최혁배씨 석방요구 시위/ 뮌헨
- 1988.4.8-10 여성회 봄세미나 개최/ 도르트문트
- 1988.4.11-22 한국문화의 밤, 말뚝이 전시회/ 괴팅엔
- 1988.4.15 전 민건회 의장 강돈구 교수 추모식
- 1988.4.16 88' 올림픽 캠페나 대표자모임/ 프랑크푸르트
- 1988.4.23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김포공항에서 강제추출
- 1988.4.29-5.1 전태일기념사업회 정기총회 및 재유럽노동단체 공동수련회/ 베를린
- 1988.5.7-8 뷔템베르크 주, 한국문제 주제 선교대회/ 슈베비시할
- 1988.5 황석영,명진 스님,이영순,홍성담,위인백씨 등 민협방문 좌담회/ 베를린
- 1988.5.20-22 오월민중제/ 서베를린,
- 1988.5.21 윤이상 교수, 독일대공로훈장 서훈/ 본
- 1988.6 조성우 평화연구소 소장 민협 방문 좌담회/ 베를린
- 1988.7 한독문화협회 공연 및 영화상영/ 베를린
- 1988.5.19 여성회 등 주최 이영순 등 한국여성노동자 강연/ 베를린
- 1988.5.20-22 오월민중제/ 서베를린

1988.6.3 최혁배씨 집행유예로 석방
 1988.8.24-9.25 오스나브뤼크 한국의 날 행사/ 오스나브뤼크
 1988.9.16-29 백기완씨 민협과 녹색당 초청 독일방문, 강연회/ 베를린,보쿰 등
 1988.9.26-29 IMF 세계대회 반대행사 여성회, 노동교실 참가/ 베를린
 1988.9.29-10.2 여성회 총회 및 가을세미나/ 뉘른
 1988.10 여성회, 여성노동자복지회관 설립모금
 1988.10 고 안상근씨 3주기 추모제/ 프랑크푸르트 등
 1988.10 명진스님 좌담회/ 베를린
 1988.10 여성회, 여성노동자복지회관 설립모금
 1988.10 김현장·문부식 후원회 발족 준비모임
 1988.11.1 한독문화협회 정기총회/ 베를린
 1988.11.1 한독연대위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은퇴식/ 오스나브뤼크
 1988.11.3 김상덕 가농회장 민협방문 좌담회/ 베를린
 1988.11.14-16 여성회, 여성이주자와 망명자대책 전국대회
 1988.11.19 전태일 추모제/ 베를린
 1988.11 민협 등 김현장·문부식 석방운동
 1988.11.19-20 민협 정기총회/ 베를린
 1988.11 남민전 김종삼 석방운동/괴팅엔
 1988.12 노동교실 바자회/ 베를린
 1988.12 한민련유럽본부 제12차 정기총회
 1988.12 녹색당 전 당수 페트라 켈리, 김형규씨 구출을 서독외상에 요구
 1988.12 장기수대책위 발족
 1989.1.1 노연 정기총회
 1989.1.8 노동교실 정기총회/ 베를린
 1989.1.8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공동의장 정호경 신부 민협과 좌담회/ 베를린
 1989.1.10 고암 이응로 화백 별세/ 파리
 1989.1.21-22 민협 중앙위원회 개최/ 하르츠베르크
 1989.3.11-12 범민족대회 유럽지역추진본부 결성/ 베를린
 1989.3.17 장기수대책위·김형규와 장기수 구출위 연대시위/ 본
 1989.3 이종수 민건의장 안기부 연행/ 서울
 1989.3 민협주최 기장총회총무 김상근목사 간담회/ 베를린
 1989.3.13-19 제1회 평화올림픽회의, 문국주·임민식 참가/ 아테네
 1989.3 문국주씨 민협 방문/ 베를린
 1989.3.17 김형규씨 석방요구 데모/ 본
 1989.3.31-4.2 여성회 봄세미나 및 임시총회
 1989.4.1 정평통 발족
 1989.4 노동교실,지멘스 파업노동자와 연대투쟁/ 베를린
 1989.4.15 장기수대책위 총회/ 보쿰
 1989.4.21-23 KOKOKO 모임/ 뒤스부르크
 1989.4.23 범유추본 실무대표자회의/ 노이이젠부르크
 1989.4.29-5.1 전태일기념사업회 4차 총회 및 노동단체 공동학습회
 1989.5.1 KOKOKO모임/ 뒤스부르크
 1989.5.26-28 오월민중제/브릴론
 1989.5 전순옥씨 강연회/ 괴팅엔·베를린·프랑크푸르트
 1989.5.30 광주민중항쟁동지회 이윤정 민협 좌담회/ 베를린

1989.6.20-22 사회주의인터 스웨덴 총회 민협참가/ 스웨덴
1989.6 독일 개신교대회 남북한참가/ 베를린
1989.6.30 전대협 대표 임수경, 유럽민협 도움으로 베를린 경유 평축 참가
1989.7 서경원 의원 사건 관련 독일 유학생출신 강제연행
1989.7 인종차별반대집회 민협 참가/ 베를린
1989.8 홍성담 구출 활동/ 함부르크 등
1989.8.21 안기부, 임수경, 김현장, 김영애씨 구속기소
1989.9 국제사면위에 임수경·문규현 신부 석방운동요청. 권터그라스 등 한독 대통령에 항의서한 발송. 영사관 앞 4주째 유럽민협탄압 항의 시위. 민건회 최기환 박사 유럽인권위 연설. 서독녹색당, 유럽의회에 한국정부 비난촉구
1989.9.18 녹색당 위르겐 마이어 의원, 유럽민협 방문하여 협력모색/ 베를린
1989.9 재독장기수대책위 제3차 정기총회/ 프랑크푸르트
1989.10 재독 기독교 정의평화통일위원회(정평통) 결성/ 획스트 오덴발트
1989.10.12 민협주최 한국문제 강연회/ 베를린,
1989.10.21-22 노연 15차 정기총회/ 보쿰
1989.10.27-29 KOKOKO 회의/ 뒤스부르크
1989.10 함부르크시, 임수경·홍성담 올해의 인물로 선정/ 함부르크
1989.11.1 민협 등 노태우방독규탄 공투위 결성/ 베를린
1989.11 빌리브란트 씨, 유럽민협에 서한
1989.11 베를린 시장 몸퍼, 장기수대책위에 연대 전문
1989.11 김현장·김영애 구출위 결성/ 베를린
1989.11.10-12 제1회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뒤스부르크
1989.11.20 노태우 방독규탄시위/ 본
1989.12.1 노동교실, 성탄 바자/ 베를린
1989.12.9-10 유럽민협 정기총회/ 베를린
1989.12 문익환 목사 가족 유럽민협 등에 석방협조 요청
1990.1 노동교실 총회/ 베를린
1990.1 한독문화협회 청소년세미나 및 정기총회/ 베를린
1990.1.7 한국민중문화모임 총회/ 보쿰
1990.1 김영애씨 안기부 고문으로 유산. 유럽민협·사민당·녹색당 등과 연합구명운동 전개
1990.1 페터씨,홍성담사건 안기부 조작 폭로
1990.1.7 한독문화협회 청소년세미나 및 정기총회/ 베를린
1990.1.27 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 결성
1990.2 유럽민협, 베를린 시장과 회담/ 베를린
1990.2 유럽학자 101인 노대통령에 공개서한
1990.2 유럽민협,외국인법 개정반대시위 참가/ 베를린
1990.2 KOKOKO 모임
1990.2 한민련 유럽본부 대표자 회의
1990.3.8 여성회, 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가
1990.3 여성회와 노동교실, 외국인법 규탄대회/ 베를린
1990.3 베를린시장, 한국대사관에 항의 공문. 녹색당 의원 위르겐마이어 국제부장 항의성명
1990.3 한민련 유럽본부 대표자 회의
1990.3 범민족대회 유럽추진본부 결성
1990.4 여성회 임시총회 및 봄 세미나
1990.5.1 재독 노동단체 합동수련회. 노동절 백주년행사에 유럽민협 참가/ 베를린

1990.5 제90차 독일 카톨릭대회에 민협참가 서명운동/ 베를린
 1990.5 유럽민협, 어수갑, 윤운섭 광주에서 감사패/ 광주
 1990.5 오월민중제/ 올페슈타데
 1990.6.1 해외추분 실무대표자회의/ 베를린
 1990.6.2-3 북과 해외, 범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실무대표자 회담/ 베를린
 1990.7 전민련, 범민족대회 예비실무회담 해외에 제의/ 서울
 1990.7 한국문제 토론회, 민협과 베를린 녹색당 공동주최/ 베를린
 1990.7 장기수대책위, 김형규구출위 서명용지 전달
 1990.7 범민족대회 서울예비회담 파행, 이종현 민협대표 참가/ 서울
 1990.8 민협, 범민족대회 지지 및 민족해방 45주년 기념식/ 베를린
 1990.9.15 조국통일범민족유럽연합 결성/ 베를린
 1990.9 남아공 지도자 민협방문/ 베를린
 1990.10 여성회, 한국간호원 파독25주년 행사 및 정기총회
 1990.10 범추본,남·북·해외 3자회담 제의
 1990.10 베를린 녹색당 한국대사에 항의서한
 1990.11.18 한국연대위원회, 「코레아협의회(KOREA VERBAND)」로 개칭
 1990.11.19 20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3차 공동기구 범민련 결성
 1990.11 한독문화협회, 통일의 북소리 공연/ 베를린
 1990.12.1 전태일 열사 20주년 추모제
 1990.12.14-16 범민련 해외본부(의장 윤이상) 결성대회/ 베를린,
 1991.1 노동교실 정기총회/ 베를린
 1991.1 유럽민협 정기총회/ 베를린
 1991.1 독일 정부와 교회, 베를린회담대표 구속항의.
 본에서 석방요구 시위 및 경고파수/ 본
 1991.2 김형규씨 석방/ 서울
 1991.2 범민련유럽본부 보고대회 및 임시총회/ 베를린
 91.2.22 재독동포 김형규씨 석방
 1991.3 여성회 봄세미나
 1991.3 바이체커 대통령, 유럽민협에 감사서한
 1991.4.1 <민주조국> 제39호(1991.4.1)로 정간
 1991.7 한총련 대표 박성희, 성용승 베를린 경유 방북 1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 참가
 1992.3.3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 본부 기관지 <조국은 하나> 창간호 발행
 1992. 8. 제3차 범민족대회에서 범청학련 결성키로 하고, 사무실 베를린 개소
 1993. 여성회, '전쟁과 강간, 여성의 존엄 인간의 존엄' 주제 강연회.
 남북 및 필리핀,네델란드 정신대 할머니 참가
 1995.3.1 장기수돗기 귀향촉진회 결성
 1996.6 재독협(재독동포협력회) 결성 (사무실 베를린, 회장 김순환, 장일중 등 역임)
 1996.10. 여성회, 국내의 '강제연행 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에 가입
 1999.6.10 <자주> 제96호(마지막 호) 발행
 2001. 5.20. 유럽연대(한민족유럽연대, 의장 이종현) 출범
 2001.7. 21. 유럽연대, G8 제네바 정상회담 시위 참여
 2001.7. 여성회, '한민족 여성네트워크'에 가입
 2001.9 여성회, 한국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베를린에서 공해공장 BASF 항의운동
 2002.11.6 9 유럽연대, 플로렌스에서 유럽사회포럼 참가 및 반전시위
 2002.12.20보쿰의 민중문화모임(회장 장경옥), Karnival der Kultur Essen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4.3. 민건동지회(준)(공동대표 임희길,박대원), 프랑크푸르트에서 민건 30돌 기념행사

2005.2.11 베를린에서 유럽지역 6.15 공준위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공동행사 유럽지역 준비위원회) 결성식

2005.3.31. 유럽연대, 베를린 일 대사관 앞 독도규탄시위

Ⅶ. 주요 참고 자료

(1) 정기간행물(기관지)

- 1.<민주조국>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기관지/베를린) 창간호(1987.9)부터 종간호 (1991.4.1)
- 2.<Minjuchoguk, Demokratie in Korea>(독문)(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기관지/베를린) 창간호(1987.9)부터 종간호(1991.4)
- 3.<민주한국> (민주사회건설협의회 기관지) 제43호(1982.1.22), 제44호(1982.3.30), 제45호(1982.5.12), 제46호(1982.6.26), 제47호(1982.9.24), 제48호(1982.11.12), 제49호(1983.2.8), 제50호(1983.5.31)
- 4.<우리나라>(편집 겸 발행인:오석근, 오픈바하) 창간호(1982.10.1), 제2호(1982.11.1), 제3호(1982.12.1), 제4호(1983.1.1), 제5호(1983.2.1), 제6호(1983.3.1), 제7호(1983.4.1), 제8호(1983.5.1), 제10호(1983.7.1), 제11호(1983.8.1), 제12호(1983.9.1), 제13호(1983.10.1), 제14호(1983.11.1), 제15호(1983.12.1), 제16호(1984.1.1), 제17호(1984.2.1), 제27호(1985.1.15), 제36호(1985.12.1), 제37호(1986.1.22), 제38호(1986.3.1), 제43호(1986.8.1), 제44호(1986.9.1), 제45호(1986.10.1), 제46호(1986.11.1), 제47호(1986.12.1), 제48호(1987.1.21), 제49호(1987.3.1), 제50호(1987.4.1)
- 5.<재독한국여성모임> (재독한국여성모임 기관지) 창간호(1979), 제2호(1980), 제3호(1981), 제4호(1982), 제5호(1983), 제6호(1984), 제7호(1985), 제8호(1986), 제9호(1987), 제10호(1988), 제11호(1989), 제12호(1990), 제13호(1992), 제14호(1993)
- 6.<노연통신>(재독한인노동자연맹 기관지)
- 7.<Newsletter> (한민련 기관지, 한민련 유럽본부 펴냄)
- 8.<자주>지(편집 겸 발행인; 이웅, 스웨덴 옴살라) <자주>창간호(1981.6.10), 제2호(1981.8.15), 제3호(1981.11.25), 제11호(1984.4.25), 제15호(1985.1.30), 제16호(1985.2.28), 제17/18호(1985.4.30), 제21호(1985.11.20), 제22호(1985.12.15), 제25호(1986.4.25), 제26호(1986.5.30), 제28호(1986.8.10), 제30호(1987.1.25), 제31호(1987.3.15), 제32호(1987.4.25), 제33호(1987.6.10), 제34호(1987.7.25), 제36호(1988.1.25), 제37호(1988.3.25), 제38호(1988.4.30), 제39호(1988.5.30), 제40호(1988.6.30), 제41호(1988.7.20), 제42호(1988.12.10), 제43호(1989.1.25), 제44호(1989.2.25), 제45호(1989.3.25), 제46호(1989.5.25), 제47호(1989.6.25), 제48호(1989.8.5), 제49호(1989.12.15), 제50호(1990.1.25), 제51호(1990.2.25), 제52호(1990.3.30), 제54호(1990.6.15), 제56호(1991.1.31), 제57호(1991.3.10), 제58호(1991.4.10), 제59호(1991.5.10), 제61호(1991.12.5), 제62호(1992.1.30), 제63호(1992.3.5), 제64호(1992.4.5), 제65호(1992.5.5), 제66호(1992.6.5), 제67호(1992.7.5), 제68호(1993.2), 제69호(1993.3.5), 제70호(1993.4.10), 제71호(1993.5.10), 제72호(1993.6.15), 제73호(1993.11.10), 제74호(1993.12.10), 제75호(1994.2.5), 제76호(1994.3.10), 제77호(1994.6.20), 제78호(1994.12.15), 제79호(1995.2.20), 제80호(1995.4.1), 제81호(1995.5.10), 제82호(1995.6.10), 제83호(1995.11.1), 제84호(1995.12.15), 제85/86호(1996.3.25), 제87호(1996.5.5), 제88호(1996.6.15), 제89호(1996.11.1), 제90호(1997.1.10), 제91호(1997.4.15), 제92호(1997.9.25), 제93호(1998.5.20), 제94호(1998.7.1), 제95호(1999.2.5), 제96호(마지막 호 1999.6.10)
- 9.<한겨레 한나라> (범민련 유럽본부 기관지)
- 10.<해맞이> (재독일동포협력회 기관지)
- 11.<민족시보>(재일한통련 기관지)
- 12.<주체>(발행인; 정철제 편집인; 오석근, 남북사회문제협의회, 1974)
- 13.<광장>(민건회 초기의 기관지) 제3호, 1975년 3월 15일
- 14.<Undong>, Zeitschrift für soziale Bewegung in Korea, Hrsg. von Koreanisch-Deutsche Solidarität unter Mitwirkung von Arbeitsgemeinschaft junger Koreaner, Frankfurt ("운동, 한국에서의 사회운동, 한독연대 펴냄, 프랑크푸르트), 제1호(1990.1), 제2호(1990.2), 제3호(1991.6)
- 15.<Korea Forum>(계간지, 1986-1988, 1991-), Korea Kommunikations- und Forschungszentrum(KFZ) des Korea-Verbandes e.V., Hannover, 1994 겨울호
- 16.<해외한민> (해외한민보사 발행, 발행 겸 편집인; 서정균, 뉴욕)
창간호 1980.8 (한민련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회의참가 기사 참조),
제2호 1980.9 (김대중 선생 구출과 한국민주화를 위한 긴급해외한국인 대표자 회의 관련 기사 참조)
- 17.<한양>지(격월간, 한양사 발행, 발행 겸 편집인; 김인재, 일본 동경) 1983.5/6 (동백림사건과 관련 최덕신 전 서독대사가 윤이상씨에게 보내는 C대사의 편지에 부쳐 참조)
- 18.<계간 한민련> (민주민족통일한국인연합, 편집 및 발행 한민련중앙집행위원회, 일본 동경) 창간호, 1985.10.20 9 (한민련 제2차 대표자대회 및 해외동포대회 참조)

(2) 자료집

1. 유럽 오월민중제 자료집 (1980.5-1997.5), 재독오월민중제 공동준비위원회, 1997.5.1
2. 독일 한국학술연구원(KOFO) 자료집
 - 2.1 Dr. Chung, Sung-beh, Japan-South Korea Relations: Impact of the Security and Economic Problems, Offenbach, 1983
 - 2.2 Dr. Song, Du-Yul, Südkorea, Auf den Spuren der Japaner?, Offenbach, 1984
 - 2.3 Lee, Hwesong, Die Probleme der koreanischen Minderheit in Japan, Offenbach, 1983
 - 2.4 Dr. Park, Sung-Jo, Die ostasiatische Wirtschaftsintergration im amerikanisch-japanischen Interessenpolitik-unter bes. Berücksichtigung der Entwicklungen Koreas-, Offenbach, 1983
 - 2.5 Lee, Mu-Choon, Entwicklungen in der Umweltpolitik Südkoreas im Widerspruch zwischen Industrialisierung und Umweltschutz, Offenbach, 1984
 - 2.6 Dr. Kahng, Kwang-Seuk, Will South Korea be another Vietnam?, Offenbach, 1984
 - 2.7 Prof.Dr.h.c. Isang Yun, Bewegtheit in der Unbewegtheit: Über meine kompositorische Entwicklung in Europa, Offenbach, 1985
 - 2.8 Prof. Dr. Harold Hakwon Sunoo, 100 Years of U.S.- Korea Relationship , Offenbach, 1985
 - 2.9 Dr.Song,Du-Yul, Politik und Gesellschaft in der Republik Korea(Südkorea), Offenbach, 1985
- (* 상기자료들은 Perspektiven in Korea-한국에 대한 제 전망이란 단행본으로 1986년 10월 김길순 박사가 KOFO에서 발간함)
3. <갑오농민제 자료집> (동학농민혁명백주년 재독준비위원회), 1994.5.20
4. <민주한국 시집> (민주사회건설협의회, 프랑크푸르트), 1984
5. <민주한국 자료집>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장 이종수, 베를린),1987.3.21
6. <재독 한국인 간호사 25년사> (재독한국인여성모임), 1995
7. <제2차범민족대회 자료집>,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국(독일,베를린), 1991
8. <홍성담 자료집>(독문. Unerwünschte Bilder Hong,Sung-Dam, Holz-und Linolschnitte aus Südkorea), Ev.Erwachsenenbildung Niedersachsen(니데작센주 개신교 성인교육부) 펴냄, Göttingen,1990
9. <자료집 Korea>, terre des hommes, Osnabrück, 1986.4

(3) 저서 및 논문·강연원고

1. 1970-80년대 북민주 인권·민주화·평화통일운동 자료분석 연구, 김경재 (한신대,신학)
2. 김정훈, 해외한국민주화운동 궤적과 향후 전망(미국의 사례), 서울대사회복지학과 비판사회학대회,2003.9
3. 공안사건 기록 (1964-1986), 세계총서 22, 1986
4. 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2),역사비평사, 2003
5. 강준만,세계 속에 통일 음악을 꽃피운 윤이상, 좌절된 귀향의 꿈, 레드콤플렉스에 수록, 삼인, 2004
6. 최열, 민미련과 학미련에 대한 탄압, in 한국현대미술운동사,돌베개, 1994
7. 어수갑,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휴머니스트, 2004
8. 어수갑, 유럽민협의 양심선언, '말'지, 1989.9
9. 어수갑, 이 천리노동을 어루만져줄 그리운 조국의 벗들이여, 사회평론 길 1994. 2월호
10. 어수갑, 여성운동과 민족통일,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지, 1987
11. 어수갑, 국내운동의 현황과 전망, 민족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해외동포회의 (로스엔젤레스), 재미한청련 주최, 1988
12. 어수갑, 민주헌법과 민주민주주의, 민주제개헌추진 해외동포대회(동경), 한민련 주최, 계간 한민련 제2호 수록, 1986
13. 서동만,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운동,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움, 2001
14. 이종오,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움 2002
15. 이종수, 유럽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심포지움 "해외동포와 한국민주화운동",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자료관, 2001.11.29
16. Dr. Roland Wein (Korea-Forschungszentrum, Direktor), Korea-Solidarit aetsarbeit in Deutschland nach Kwangju. Zusammenarbeit von Deutschen und Koreaner für Demokratie und Menschenrechte (5.18 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사업) 해외에서의 5월운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 전남대 5.18 연구소, 1999
17.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글, 1993

(4) 기타 자료

1. 백중현, 남북한 종교교류현황,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
2. 변진홍,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과 그 의미에 대한 성찰, 새길, 2003년 여름(9호)
3. 김창희, “동백림사건요 ? 코미디였지요”, ‘역사의 비극’30돌, 관련자들 씩씩한 회고
4. 이영빈, 동백림사건, 베를린리포트, 2002,3.14
5. 인교준, ‘동백림사건’ 개요 · 쟁점, 연합통신, 2005.2.3
6. 정병진, 동백림사건-홍보용 재판 공개, 문인구 당시 변호사의 증언, 한국일보, 2003.6.12
7. 이응노- 서울.파리.도쿄, 삼성미술문화재단, 1994
8. 리영희, 대화, 한길사, 2005(365쪽 이하)
9. 이수길, 한강과 라인강 위에 무지개 다리를 놓다, 지식산업사, 1997
10. 사건들-한국의 상황, 슈피겔지, 제36호, 1967
11. “나는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 W.헨트셀 슈피겔지 편집인, 상동
12. “그래서 연방헌법청(BND)이 그토록 화가 났다” 한국중앙정보부장 김형욱과의 대담, 상동
13. 한국인 납치사건에 대한 본의 입장은 독일측의 공모에 관한 소문을 침묵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인츠 회플 편집회원, 쥐드도이체짜이퉁, 1968.1.12
14. K.G.키징어 연방수상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1967
15. 독일 연방의회 제3기 제205차 회의 회의록 중 동백림사건부분, 1968.12.12
16. 홍성담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김학의 검사, 1989.9.20
17. 김현장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황교안 검사, 1989.10.7
18. 김영애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채정석 검사, 1989.10.7
19. 김진엽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임정수 검사, 1989.10.21
20. 김진엽 항소이유서, 김진엽, 1990.5.22

21. “나는 북한 공작원 아니다” 성낙영 목사 ‘홍성담씨 사건’안기부 발표 반박, 한겨레신문, 1989.11.8
22. 김진엽 석방운동 관련일지
23. 김진엽 구속관련, 김승일 기자회견 내용 기타자료
24. 유럽의회 한국 인권과 국가보안법 관련 청문회 자료집(Anhörung über Menschenrechte Nationale Sicherheitsgesetze in Südkorea), 유럽의회, 1992.1.19
25. KOREAFORUM, Korea Kommunikations- und Forschungszentrum, JG.1/Nr.1, Osnabrück, 1991.2.1
26. South Korea-Prisoner of Conscience Reverend Moon Ik-hwan, amnesty international, London, 1991.10
27. 오석근, 육천만 동포 사백만 교포 그 모두가 한을 안고, 우리나라 문고, 오피바흐, 1988
28. 이영빈, 김순환, 우리동포 독일정착역사소고, 베를린리포트, 2002.3.14
29. 이영빈, 간호사와 광부 목회, 베를린리포트, 2002,3,14
30. 민건 창건을 기념하여 발표한 1974년 3.1운동 55주년 제1선언문
31. 민건회 사진자료, 민족통신특집-유럽민족민주운동 30돌, 민족통신, 2004.3.6
32. 박대원, 민주사회건설 협의회(민건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와 오늘의 과제, 민족통신, 2004.3.6
33. 민주사회건설협의회 30년을 돌아본다, 박소은, 민족통신, 2004.3.6
34. 민건회, 송두울 교수 석방 호소, 연합통신, 2004.2.28
35. 송두울 항소심 민건회 관련부분
36. 송두울 변론요지서 (민건, 주체, 한민련, KOFO 등 내용 참조)
37. “기획입국 가당치도 않다” “제작개입 의혹은 KBS를 모독하는 것”, 이종수 인터뷰, PD연합회보,

2003.10.8

38. 한민련 유럽본부 총회개최, 민족시보, 1997.1.1
39. Carnival der Kultur Essen Bochum 민중문화모임 최우수상 수상, 교포신문, 2003,1.26
40. 홍성담 상고심 판결문
41. 시련기일수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모든 진보 운동사가 보여주는 교훈-한호석 대담, '민' 1999.2월호
42. 한민족 유럽연대 강령규약
43. 한민족유럽연대출범,민주노동당 기관지, 53호,2001.7
44. 동포 사회 권익옹호 나선 한민족유럽연대, 월간 고국소식, 연합뉴스
45. 한민족 유럽연대 등 독도규탄대회,유로저널, 2005.3.30
46. 장광렬, 유럽사회포럼의 함성과 한국인들의 참여, 한민족 유럽연대 소식, 코리안네트워크,2002.11.12
47. 장광렬, 유럽사회포럼 참관기,한민족유럽연대, 시민의 신문,2003.2.27
48. 노무현 대통령의 전쟁지지에 대한 한민족 유럽연대 성명
49. 재외동포, 세계 곳곳서 반일시위, 세계일보,2005.4.24
50. 한민족 유럽연대 등,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반대 국제연대성명서,2005.4.29
51. 한민족유럽연대 등,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문제에 관한 국제연대 성명서, 2005.5.12
52. 민경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통일뉴스,2004.8.16
53. 정기남, "당당하게 살아야지" (괴팅겐 유학생 운동 회고)
54. 김해순, 재유럽한인동포운동의 반유신운동과 반독재운동, 재외동포신문, 2004,8,16
55. 김해순, 재유럽한인동포의 민주화운동의 성찰과 평가, 재외동포신문, 2004.7.26
56. 재독일동포협력회 소식지 창간호(97.7)
57. 김성욱,"윤이상, 北에 놀아난 허수아비", 윤이상 등이 입북시킨 오길남 박사 증언, 2005.2.28
58. 이현정, 유럽지역 6.15 공준위 지난 11일 발족, 통일뉴스,2005.2.14
59. 유럽민족지도자 이희세 선생- "반북하면 쌍방이 손해..",평화통신,2004.12.4
60. 한민족유럽연대, 유럽동포운동이 걸어온 길 ,평화통신,2005.3.13
61. 안영민, 유럽동포운동가들의 삶, 그리고 철학 - 이종현, 월간 말,2001년 176호
62. 안기부 vs 노동당, 프락치 역공작 그리고 송두율, 베를린의 남북첩보전쟁 4반세기, 황일도, 신동아, 2003년 11월호
63. 황석영, 송두율을 위한 변명, 한겨레신문,2003.9.
64. 국정원과 송두율, 그 질기고도 긴 전쟁, 월간중앙,2003.11
65. 제2차 공판 변호인 반대신문과 송두율 교수답변 내용,2003. 12.16
66. 송두율, 경계인인가 거물간첩인가,
67. 송두율 변론요지서, 2004.3.9
68. 송두율교수,김철수 아니다, 강희철, 한겨레21
69. 송두율 공소장
70. 피고인 송두율에 대한 반대신문사향(2003고합1205 국가보안법위반 등)
71. 권력투쟁과 해방쟁취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광주민주화운동, in.전남대 518연구소 심포지움, 배동인(강원대)
72. 민주화와 통일 여정에 바친 청춘,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망명객', 유럽동포 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 I, 안영민, 말지,2001년 1월호
73. 망명객 아픈 가슴마저 가로지른 분단선, 유럽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II, 안영민, 말지, 2001년 2월호
74. 민주노동당 유럽지부 창당에 즈음하여
75. 교계동정/명진스님 7월초 귀국, 대승불교,1988.6.30

76. 돌아오지 못하는 임수경-성용승 박성희, 월간 '길을 찾은 사람들',1993
77. 배해정, "해외운동의 주체성 무시는 용납할 수 없다" ,기획-남북해외 공준위 결성을 돌아본다- 노길남 미주지역공동위원장, 민중의 소리, 2005.3.13
78. 6.15 유럽공준위 1차회의를 갖고 3자연대 주체로 활동할 결의 다져, 유럽 공준위 보도문
79. '우리민족끼리'가 탄생시킨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연대기구 6.15공준위,
80.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네 돌맞이 범유럽동포축제, 6·15 공동선언 4주년 행사 초대장
81.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4주년 행사 범유럽준비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성명서)
82.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따른 6.15 선언과 해외동포의 역할, 6.15 공동선언 실천 5돌 기념과 문화행사 해외 축 주제 발표자료
83. 국보법폐지 국제사회 여론-12개국 2백여 인사들에게 확산-해외동포단체 공동연대사 보내, 민족통신,2004.12.16
84. 교민 2세 교육에 관한 보고서,- 이중문화의 극복과 정체성 회복 -, 안재오(필른대 철학과장)
85. 민주화운동이란 무엇인가? - 민주화운동의 시기, 범위, 대상 -,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2004 특별학술토론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86. 장기수 돕기 귀향촉진회 결성모임 취지문, 1995.3. 1
87. 30돌 맞은 유럽지역의 민족민주운동, 박정희 독재 반대한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창설 30주년 맞아, 민중의 소리, 2004.3.7
88. 21세기 한민족 네트워크-(10) 독일 이민 1세대의 애환, 함석진, 한겨레신문, 2001.5.10
89. 5.18민중항쟁 제21주년 기념 독일학술문화행사는 제고되어야 합니다,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최정규, 2001.9.4
90. 광주민중항쟁 25주년 기념 오월민중제, 재외동포신문, 2005.5
91. 해외에서의 5월운동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5.18 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사업, 민주주의의와 인권을 위한 독일인과 한국인의 공동작업, Roland Wein(독일 한국협회 사무국장), 전남대 5.18연구소
92. 재유럽 오월민중제 마인츠한인학생회대표 파견, 2000년 6월 1일 발행인 : 김진식 편집위원 : 홍인선, 정예현 마인츠한인학생회소식지(월간) 제 1호
93. 독일 빌레펠트에서 울려 퍼진 오월 민중의 노래,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박태순, 진보누리,2004.5
94. 오월민중제가 김대통령에 보내는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서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98.5.21
95. 재독교포들 국보법 폐기 촉구- 광주항쟁 15주년 오월민중제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1995.5.26
96. 2003 오월민중제 성명서
97. 독일에 있는 5.18자료, 한기용, 인터넷교차로, 2001.6.4
98. '광주'가 만나고 싶은 얼굴들, 김대원, 광주매일신문, 2003.8.12
99. 기생관광·위안부 문제 팔 걷어 붙여, 재독한국여성모임 안차조, 코리안 네트워크, 2003.2.17
100. "너희 나라도 곧 통일 될 것", 재독한국여성모임 총무 김진향, 코리안 네트워크, 2003.2.12
101. 3년 계약 파독, 어느새 35년 재독한국여성모임 총무 김진향, 코리안 네트워크, 2003.2.13
102. 독일방문단, 주요 지역에서 공해공장 바스프(BASF)에 대한 항의시위, 2001.9.17
103. 한민족여성네트워크 다음 주 발족, 매일경제, 2001.6.27
104. 할머니를 돕는 사람들, 재독한국여성모임 김진향 국제연대 대표, 한겨레 21, 97.3.27
105. 조작간첩 김형규 씨 구명운동 이야기, 정택중
106. 한홍구, 한민통과 '김대중의 배신', 한겨레 21, 2001년 12월 5일자
107. 이유진, 나는 왜 '소명절차'를 거부하는가
108. 이광일, 그들은 그때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기억과 전망, 2004.7.21
109.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박영선이 만난 아름다운 사람, 참여사회, 2005년 6월호
110. 김창희,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함께 끌려간 김창현씨 25년만의 증언, 모든 '의문사' '조작간첩' 재

조명되야, 뉴스 플러스 1998. 11. 12.

111. 김원, 미래를 위한 회상-진보정치운동사(12), 계엄상황에서 드러난 제2세대 변혁운동가들, 진보정치, 2001.12.1

112. 서영아, '국제미아'같은 삶, 고국이 그리웁습니다: 반한-반체제 분류 족쇄 안풀린 사람들, 동아 뉴스플러스, 1999.7

113. Michael Denis, Du-Yul Song, Rainer Werning, Südkorea-Kein Land für friedliche Spiele, rororo, 1988

114. Perspektiven in Korea, Korea Forschungsgemeinschaft e.V., Offenbach, 1986

(5) 구술 자료

1. 이종현 (전 노연 대표, 전 한민련 구주본부 사무국장, 전 유럽민협 의장, 현 한민족 유럽연대 의장)
2. 최영숙 (전 재독 여성회 총무, 전 한독문화협회 회장, 현 유럽지역 사료수집위원회 책임자)
3. 윤운섭 (전 베를린 노동교실 대표, 전 오월민중제 추진위원회대표)
4. 승정현 (전 재유럽한국청년연합 회원)
5. 양정윤 (전 재독 한국학술연구원 회원)
6. 기타 익명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유럽

발행일: 2005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